

耽羅文化

제57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院

2018. 2.

耽羅文化

제57호 2018. 2.

차례

특집 논문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1

■ 탐라 건국신화에 보이는 3神女의 역할과 위상	7
채미하	
■ 탐라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37
김경주	
■ 古代 탐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87
장창은	

일반 논문

■ 백제 威德王·武王代 對高句麗 憲제의 외교적 함의	125
선봉조	
■ 『三國遺事』 소전 변재천녀와 통일신라법종 ‘奏樂天人像’의 연관성	163
강현정	
■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과 실태	201
김나영	
■ 조선시대 제주지역 扁額懸板 연구	241
오창림	

■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273
강만익	
■ 우리나라의 도깨비 도로 - 심리학적 설명과 활용 제안	307
오성주	
■ 호텔 직원의 감정노동이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절효과	
- 제주지역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345
백정민·조문수	

연구원 소식

회보	37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38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384
『탐라문화』 간행 및 심사 규정	388
『탐라문화』 투고 및 편집 규정	391
『탐라문화』 편집위원회 규정	396

특집 논문 :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1

탐라 건국신화에 보이는 3神女의 역할과 위상
채미하

耽羅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김경주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장창은

탐라 건국신화에 보이는 3神女의 역할과 위상

채미하*

- I. 머리말
- II. 관련 기록 검토
- III. 3神女의 移住와 역할
- IV. 3神女의 追崇과 위상
- V. 맷음말

국문요약

본 논문은 탐라 건국신화에 보이는 3신녀의 역할과 그 위상을 한국 고대 건국신화와 비교하여 탐라 건국신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살펴본 것이다. 탐라 건국신화의 내용은 지상에서 솟아난 3신인과 바다를 건너온 3신녀가 혼인하여 탐라 사회가 변하였다라는 것이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는 시조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탐라 건국신화에서는 3신인이 아닌 3신녀가 그 역할을 하였고 3신녀가 탐라에 온 이유는 건국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탐라 건국신화에서 3신녀가 바다를 건너다는 것은 가락국의 허황옥, 신라의 탈해와 비교된다. 3신녀는 탈해와 같은 卵生은 아니었지만, 函에 담겨 출자처와는 다른 변화를 겪으면서 바다를 건너왔고 3신녀의 출현으로 수렵사회였던 탐라는 농업과 목축사회로 전환되었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유화와 알영은 江·井과 연결되어 있는데, 물의 기본적 속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다, 江·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성신은 사회의 변화와도 관계 있다고 하였다. 한편 3신인에 대한 추승은 16세기 이전까지는 무속적인 제사였지만, 이

*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연구교수.

후 유교적 의례로 변하였다. 그리고 3신녀가 五穀 種子를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3신녀는 穀母神의 성격을 지녔고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유화나 선도산 신모처럼 神母 혹은 聖母로 추앙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탐라 건국신화의 3신인과 3신녀의 추승은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시조와 시조비(모)가 국가제사의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된다고 하였다.

주제어: 탐라, 건국신화, 3신인, 3신녀, 신모

I. 머리말

탐라 건국신화는 한라산 북쪽 기슭 모홍혈에서 솟아난 고을나·양을나·부을나(이하 3神人)가 바다를 건너 오곡 종자와 송아지·망아지를 가지고 온 세여인(이하 3神女)과 각각 혼인하여 分居하였다는 것이다.¹⁾ 본풀이(신화)에는 심방들이 영평 8년(65)에 고·양·부 3신인이 솟아나 나라를 세웠다고 했다.²⁾ 그리고 1928년 산지항 축조 공사 때 발견된 오수전은 서기전 118년부터 주조되어 사용되었던 화폐이며 왕망 때 잠시 사용과 주조가 금지되었다가 후한 이후 다시 주조되었다. 이 오수전은 제주도 산지항, 전남 거문도, 마산 성산 패총, 황해도 운송리 등에서도 출토되었다.³⁾

이를 통해 탐라는 1세기에 존재한 국가이며, 탐라 건국신화는 제주 3성의 시조신화이기도 하면서 한국 고대 건국신화가 변형된 것이라고도 하였다.⁴⁾

1) 『瀛州誌』와 『고려사』지리지 참고.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탐라에 온 여성은 ‘處子三人’, ‘處女三’으로 나온다. 이것은 고려말~조선초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處子三人’, ‘處女三’을 3신녀로 사용함으로써 3신인과 대비하였다.

2)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보고사, 2011, 202-204쪽.

3) 전경수, 「상고 탐라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 『제주도연구』 4, 1987, 33쪽.

4) 정진희는 「조선초 제주 삼성신화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0, 2006, 257-258쪽에서 서세문의 삼성신화는 건국신화로 볼 수 있으나, 지리지와 성주 고씨전의 삼성신화는 건국신화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세 이본 모두 ‘오곡을 심고 구독을 기르는 등의 ‘산업’이 이루어졌다고 한 것은 공통적이나, 서세문은 왕의 등극과 ‘모모’라는 국가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결말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두 이본과 구분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탐라 건국신화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있어왔다.⁵⁾ 이를 통해 3신녀의 도래와 3신인과의 혼인, 그로 말미암은 탐라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3신녀가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3신녀의 역할과 그 위상을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시조비·시조모와 비교 검토해 보려고 한다.⁶⁾

이를 위해 우선 탐라 건국신화에 보이는 3신인과 3신녀에 대한 기록을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바다를 건너온 3신녀가 3신인과의 혼인으로 탐라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통해 3신녀의 역할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3신녀의 위상은 3신녀에 대한 추숭과 관련지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탐라 건국신화의 3신녀가 한국 고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관련 기록 검토

탐라 건국신화가 처음 보이는 문헌은 『瀛州誌』(저자 미상, 고려말 또는 조선초 발간 추정)로, 이것은 『星主高氏傳』(鄭以吾, 1416년(태종 32))과 「序世文」(高得宗, 1450년(세종 32)), 『高氏世譜』 등과 서로 이어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고려사』지리지(양성지 편찬, 1451년(문종 1))의 탐라 건국신화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단종 2)), 『동국통감』(서거정 편찬, 1485년(성종 16)), 『신증동국여지승람』(이행·홍언필 증보, 1530년(중종 26)), 『탐라지』(이원진 저, 1653년(효종 4)) 등에도 보인다.⁷⁾ 전자는 영주지계, 후자는 고려사계라고

5) 이와 관련된 연구성과는 정진희, 앞의 논문, 2006, 252-253쪽 및 이하의 논문 참고.

6) 이와 관련해서 채미하, 「고구려의 국모신앙」, 『북방사논총』 12, 2006; 나희라, 「대가야의 신화와 의례」, 『대가야의 정신세계』, 2009; 김선주,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위상」, 『사학연구』 99, 2010; 강영경, 「단군신화에 나타난 응녀의 역할」, 『여성과 역사』 16, 2012; 채미하,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의」, 『한국사학보』 55, 2014; 채미하, 「한국 고대 神母와 國家祭儀-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2, 2016 등

7) 탐라신화의 이본과 관련해서는 장주근, 「구전신화의 문헌신화화 과정」, 『선청어문-의민 이두현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18, 1989, 72쪽 및 79-80쪽;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 1983, 48-53쪽; 허남준,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탐라문화』

한다. 『瀛州誌』와 『고려사』지리지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⁸⁾

1) ① 瀛州에는 태초에 사람이 없었다. 홀연히 세 神人이 한라산 북쪽 기슭에서 솟아 나왔는데, 모홍혈이라 한다. 長은 高乙那, 次는 良乙那, 三은 夫乙那라 하였다. 그들의 모양은 매우 크고 도량이 넓어서 인간사회에는 없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가죽옷과 육식을 하면서 항상 사냥을 일삼으며 생활하나 가업을 이루지 못하였다. ② 하루는 한라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자줏빛 흙으로 봉한 목 함이 동해쪽으로 떠와서 머물러 떠나지 않은 것을 보고 삼인은 내려가 이를 열어 본즉 속에는 새알 모양인 옥함이 있고 자줏빛 옷에 관대를 한 사자가 따라와 있었다. 또 옥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나이는 15, 16세요, 용모는 품위 높고 아리따움이 보통이 아니었고, 각각이 아름답게 장식하여 같이 앉아 있었다. 또 망아지 송아지와 오곡의 종자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금당의 해안가에 내려 놓았다. ③ 세 신인은 모두 즐거워서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였다. 사자는 두 번 절하고 엎드려 말하길, 나는 동해의 벽랑국의 사자올시다. 우리 임금님이 이 세 공주를 낳으시고 나이가 다 성숙함에도 이들의 배우자를 얻지 못하여 항상 탄식함이 한 해 나머지 되는데 근자에 우리 임금님께서 자소각에 오르시고 서쪽 바다의 기상을 바라보시더니 자줏빛 기운이 하늘을 이어 상서로운 빛이 서리는 것을 보시고 신자 세 사람이 절약에 내려와 있어서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어하고 있어 신더러 명하여 세 공주를 그 곳으로 데려가라 하여 왔으니 좋도록 짹짓는 예를 올리시고 대업을 이루하소서 하고는 홀연 구름을 타고 사라져 버렸다. ④ 세 신인은 곧 목욕제례하여 하늘에 고하니 나이 차례로 그녀들과 결혼하여 물좋고 기름진 땅을 골라 활쏘아 땅을 정하니 고을나가 사는 곳은 제일도라 하였고, 양을나가 사는 곳은 제이도라 하였고, 부을나가 사는 곳은 제삼도라 하였다. 이로부터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오곡의 씨를 뿌리고 송아지 망아지를 치니 날로 번성하여 부유하게 되어 드디어 인간 세계를 이루하여 놓았다.⁹⁾

14, 1994; 정진희, 앞의 논문, 2006.

- 8) 현용준은 앞의 논문, 1983, 57쪽에서 3신인의 출생과 생활, 3신녀의 표착과 혼인, 所居地 선정과 정착건국으로 나누었으나, 필자는 현용준의 두 번째 내용을 3신녀의 표착과 사자의 전언으로 나누고 3신인과 3신녀의 혼인과 사회의 변화를 함께 보았다.
- 9) 『瀛州誌』奎章閣藏, 1976; 『탐라문현집』, 제주도교육위원회, 2-4쪽, ① 瀛州 太初無人物 忽有三神人 從地溶聳出鎮山北麓 有穴曰毛興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 三曰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豁 絶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② 一日登漢拏山 望見紫泥封木函 自東海中浮來欲留而不去 三人降臨就開則 內有玉函形如鳥卵

2) 殇羅縣은 全羅道 南海에 있다. 古記에서 말하기를 “① 太初에 사람이 없었는데, 세 神인이 땅으로부터 솟아 나왔으니(그 主山의 북쪽 기슭에 구멍이 있는데, 毛興이라고 한다. 이곳이 그 땅이다), 맏이는 良乙那라고 하였고, 그 다음을 高乙那라고 하였으며, 셋째는 夫乙那라고 했다. 세 사람은 거친 땅에서 사냥을 하면서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었다. ② 하루는 자주색 진흙으로 봉해진 나무 상자가 바다에서 떠다니다 동쪽 바닷가에 닿은 것을 보고 가서 열어보니, 상자 안에 또 돌 상자가 있었으며, 붉은 띠와 자주색 옷을 입은 使者 한 사람이 따라 나왔다. 돌 상자를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망아지와 송아지[駒犢]들과 五穀의 종자가 나왔다. ③ 사자가 ‘우리는 日本國의 사신입니다. 우리 왕이 이 세 딸을 낳고는, ‘‘서해의 中嶽에 神子 세 사람이 내려와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구나’ 하고는 저에게 분부하여 세 딸을 모시고 여기에 오도록 한 것입니다. 마땅히 배필로 삼아 大業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한 후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④ 세 사람이 나이 순서에 따라 세 여자를 나누어 아내로 삼고서, 샘이 달고 땅이 비옥한 곳으로 가서, 화살을 쏘아 땅을 점치고는 양을나가 사는 곳을 第一都라 하였고, 고을나가 사는 곳을 第二都라 하였으며, 부을나가 사는 곳을 第三都라 하였다. 처음으로 오곡을 파종하고 또 가축을 길러 나날이 부유하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다.¹⁰⁾

위의 탐라 건국신화를 보면 3신인에 대해 『영주지』에는 장자가 고을나로

有一冠帶紫衣使者 隨來 開函有青衣處子三人 皆年十五六 容姿脫俗 氣韻窈窕 名修飾
共坐 且持駒犢五穀之種 出置金塘之岸 三神人 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 ③ 使者再拜稽首曰 我東海碧浪國使也 吾王生此三女 年皆壯盛而求不得所耦 常以遺嘆者歲餘
項者吾王登紫霄閣 望氣于西溟則 紫氣連空 瑞色葱蘢 中有絕岳 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 命臣侍三女 以來 宜用伉儷之禮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莫知所知
④ 三神人卽以潔牲告天 以年次分娶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高乙那所居曰第一都 良
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自此以後 始成產業 植播五穀 且牧駒犢 日就
富庶 遂成人界矣 ….

- 10) 『고려사』 57, 지11 지리2 전라도 진도현 탐라현, ① 殇羅縣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太初無人物 三神人 從地聳出(其主山北麓 有穴曰毛興 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
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② 一日見紫泥封藏木函 浮至于東海濱 就
而開之 函內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 隨來 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
種 ③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 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
匹 於是 命臣侍三女 以來爾 宜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④ 三人 以年次 分娶
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都 高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
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

되어 있으나, 『고려사』지리지에는 양을나로 나온다. 3신인과 혼인한 3신녀도 『영주지』에는 동해 벽랑국 임금의 세 딸로,¹¹⁾ 『고려사』지리지에는 일본 국왕의 세 딸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3신인과 3신녀는 기록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¹²⁾ 탐라 건국신화를 보면 3신인은 땅에서 솟아 올랐고(從地溶聳) 3신녀는 바다에서 나무 상자(紫泥封木函)를 타고 이주하였다고 한다.

한국 고대 건국의 주인공인 시조는 주로 卵生으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탄강한 이주세력이며, 그 배우자는 토착세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 속의 시조와 그 시조비(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시조와 시조비

國	시조(부)(출자 등)	시조모(비)
고조선	환웅(天) → 단군	웅녀
고구려	해모수(天) → 주몽(卵生)	하백→유화(水)
대가야	이비가지(天)	정견모주(山)
신라		서술산 신모(山)
	혁거세(天, 卵生)	알영(井)
	탈해(海, 卵生·궤)	
	알지(天·궤)	
금관가야	수로(天, 卵生·궤)	허황옥(海)
백제	온조	소서노
탐라	3신인(地)	3신녀(海)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시조는 天降(탈해 제외)·卵生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시조와는 달리 탐라 건국신화에서 3신인은 땅에서 솟아나온다. 동남아·남중국·沖繩의 경우 남녀 2신이 땅에서 출현한다. 이로 볼 때 탐라 건국신화에서 3신인이 땅에서 솟아올랐다는 것은 제주의 사회·문화 배경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³⁾

11) 『성주고씨전』에는 일본국의 일곱 딸 중 세 명으로 나온다.

12) 영주지계와 고려사계에 보이는 기록의 차이는 당시의 이태울로기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13) 현용준, 앞의 논문, 1983, 71-76쪽.

그리고 3신인은 산으로 내려왔다고도 한다. 즉 『영주지』에는 ‘中有絕嶽降神子三人’이라 하였고 『고려사』에는 “西海中嶽 降神子三人”이라고 하였다. 『영주지』를 보면 그 산은 한라산으로, 한라산의 영험과 3신인의 출현은 관계있지 않을까 한다. 고대인들은 높은 산을 하늘과 인간의 교섭처로 생각하였다. 즉 천신이 높은 산에 내려와 인간과 교통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산은 天祭를 지내는 제사장소이기도 하였다.¹⁴⁾

그렇다면 3신인은 땅 뿐만 아니라 하늘과도 연결된 존재로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해서 신라의 6촌장 신화가 관심을 끄는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보면 6촌(부)의 시조들은 모두 峰 또는 山에 내려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연은 6부의 조상들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按上文 此六部之祖 似皆從天而降)고 하였다. 고조선 건국신화에서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정상 神檀樹에 내려와 神市를 펼치는데,¹⁵⁾ 이러한 단군신화의 내용과 같은 천손강림의 신화를 6촌장들은 지니고 있었다.¹⁶⁾ 특히 무산대수촌의 대수(촌)는 신단수를 생각하게도 하는데, 신단수는 천·지·지하계의 접합점에 있는 성역이고 만물이 생성되며 太儀를 재현하는 聖壇을 상징한다고 한다.¹⁷⁾

3신인은 『영주지』를 보면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라 하였고, 『고려사』에는 ‘遊獵荒僻 皮衣肉食’이라 하여, 가죽옷과 육식을 하면서 사냥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 온 3신녀가 망아지·송아지와 오곡 종자(駒犢五穀種)를 가지고 와서 3신인과 혼인함으로써 탐라 사회는 처음으로 오

14) 『서경』 순전, “至于岱宗柴”.

15) 『삼국유사』 1, 기이 2, 고조선, “古記云 昔有桓因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 謂之神市…”.

16) 6촌장의 천신하강 내용은 고조선에서 아주해 온 천신족으로서 자부심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82, 9쪽), 고조선계 유이민이 경주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신화를 꾸몄는데, 아주민이기 때문에 천신하강 구조로 하였다는 해석(이지영, 『한국신화의 神格 유래에 관한 연구』, 태학사, 1995, 62쪽), 고조선 유민들이 진한 지역에 밀려와 정착하면서 북방에서 가져온 자기 신화를 되살려낸 것이라는 해석(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137-138쪽) 등이 있다. 한편 6촌장의 천강설화는 후대에 꾸며진 것이라고 한다(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6, 598쪽).

17) 황폐강, 「단군신화의 연구」, 『단군신화론집』, 새문사, 1988, 78쪽. 이상은 채미하, 「신라의 6촌과 산악제사」, 『신라사학보』 23, 2011, 93쪽.

곡을 파종하고 가축을 길러 사회가 부유해졌다(始成產業 植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고 한다. 즉 『영주지』에는 ‘太初無人物’에서 3신인이 등장하여 수렵사회가 되었고 바다를 건너온 3신녀가 3신인과 혼인함으로써 ‘遂成人界’하였다.¹⁸⁾

이로 볼 때 3신인이 등장한 것은 한국 고대 건국 시조가 등장하던 사회보다 앞선 사회였으며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는 시조가 사회를 변화 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탑라 건국신화에서는 3신인이 아닌 3신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6촌¹⁹⁾의 6촌장들이 闕川 언덕 위에 모여 “우리들이 위로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임금이 없어 백성들이 모두 방종하여 제멋대로 놀고 있으니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를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창건하고 도읍을 정”하는 것을 의논하였고 새로운 세력인 혁거세를 받들어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²⁰⁾과 비교된다.

3신녀는 『영주지』를 보면 자주 빛 木函 속의 鳥卵形 玉函에 담겨 떠왔으며 (玉函形如鳥卵), 『고려사』에는 자주 빛 木函 속의 石函에 담겨 떠 왔다고 한다. 3신녀가 함에 담겨 바다를 건너 탑라에 왔다는 것은 동남아와 沖繩, 가야의 허황옥과 신라의 탈해신화에서도 알 수 있다.²¹⁾ 그리고 『영주지』의 옥함은 鳥卵형인데, 이것을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가락국의 김수로, 신라의 혁거세·탈해·알지, 고구려 주몽의 난생과 같은 난생형 신화를 차용하여 변이한 것이라고 한다.²²⁾ 이와 같은 3신녀의 출자처를 『영주지』에서는 ’벽랑국, 『고

18) 제주의 고·양·부 3신인은 사냥을 하면서 지내다가, 3여신과 혼인하여 농경문화를 정착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3여신의 도래는 가야국의 허왕후 도래와 비견되는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이고, 새로운 문명의 수입과정을 보여 주는 문화적 교섭의 징후라 하겠다(이상은 허남준, 앞의 논문, 2005, 9-11쪽).

19) 6촌의 사회적 성격을 혈연과 지연으로 결합된 씨족사회(이병도, 앞의 책, 1976, 600쪽; 김병곤, 「사로 6촌의 출자와 촌장의 사회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22, 2001, 137쪽; 『신라 왕권 성장사 연구』, 학연문화사, 2003)로 계급(Rank)을 가진 혈연집단으로서의 氏族(Clan) 社會인 酋長社會(Chiefdom)(이종욱, 『신라국가형성사연구』, 일조각, 1982, 17-47쪽), 촌락공동체인 소연맹국으로 보기도 한다(김두진, 「신라 6촌장신화의 모습과 그 의미」, 『신라문화』 21, 2003, 108쪽).

20) 채미하, 앞의 논문, 2011, 88~89쪽.

21) 현용준, 앞의 논문, 1983, 80쪽.

22) 현용준, 앞의 논문, 1983, 64쪽; 허남준, 앞의 논문, 1994, 145쪽에서 도래신화는 천강 신화를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려사』에서는 ‘일본국’이라 하였으며²³⁾ 이들이 도착한 장소는 『영주지』에는 ‘金塘之岸’(금당포, 조천)으로, 『고려사』에는 ‘東海濱’으로 나오며 20세기 문헌에는 온평리(열운리)로 나온다.²⁴⁾

『영주지』를 보면 “東海中浮來欲留而不去 三人降臨就開”하였고 3신인은 ‘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하였다고 한다. 이로 볼 때 3신녀를 발견하고 맞이한 것은 3신인으로, 이것은 가락국의 수로가 허황후가 오는 것은 미리 알고 유천간과 신귀간을 보내 기다리게 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 신라 혁거세는 6촌의 시조들이, 가락국의 수로는 9간이 맞이하였다. 특히 가락국의 9간은 3월 계육일에 구지봉에 모여 수로왕을 맞는 제의를 주관하였다.²⁵⁾ 신라에 등장한 탈해를 맞이한 것은 아진의선이었으며 알지는 탈해가 발견하였다.

3신녀는 사자와 함께 왔는데, 『영주지』에는 관대를 하고 자주빛 옷을 입은(冠帶紫衣) 사자가 3신녀와 혼인을 하고 대업을 이루라고 하였다고 한다 (~將欲開國而無配匹~以成大業). 『고려사』에는 붉은띠와 자주색 옷을 입은(紅帶紫衣) 사자가 3신녀를 짹을 삼고 대업을 이루라고 하였다(宜作配 以成大業). 신라 혁거세의 출생에 등장하는 백마는 성스러운 인물의 降臨을 알리는 사자 즉 天馬로,²⁶⁾ 이후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영주지』의 사자 역시 말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3신녀의 신성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신녀가 탐라에 온 이유는 3신인이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대업·개국·건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3신인과 3신녀의 혼인은 건국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허황옥이 가락국에 온 이유와 비교되는데, 허황옥 부모의 꿈에 상제가 나타나 ‘수로가 하늘에서 내려와 왕위에 올랐으나 새롭게 나라를 다스림에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공주를 보내 짹이 되게 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허황옥

23) 벽랑국과 일본국의 실재에 대해 현용준, 앞의 논문, 1983, 61-62쪽; 허남춘, ‘삼여신 도래신화와 축제 가능성’, 『탐라문화』 27, 2005, 6-7쪽.

24) 3신녀의 표착지와 관련해서 현용준, 앞의 논문, 1983, 64-67쪽; 허남춘, 앞의 논문, 2005, 4-5쪽.

25) 『삼국유사』 2, 기이 2, 가락국기.

26) 혁거세의 출생에 말이 관련되는 점에서 박씨족을 기마술에 익숙한 北方 유이민 계통으로 파악하기도 한다(김철준, ‘신라 상고세계와 그 기원’,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1975, 72-73쪽).

의 경우는 가락국이 건국된 이후에 등장한다. 이것은 혁거세에 의해 사로국이 건국되고 알영을 맞이하고 있는 것도 참고된다.

3신인과 3신녀의 혼인은 나이 순서에 따라 하였는데(年次分娶), 『영주지』에서는 3신인이 ‘卽以潔牲告天’,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고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 시조와 시조비의 혼인은 혁거세와 알영, 수로와 허황옥이 있다. 수로는 구간 등을 보내 허황옥을 대궐 안으로 들이려 하였으나, 허황옥은 山靈에게 비단바지를 바친 후에 임시궁으로 들어갔다고 한다.²⁷⁾

혼인 후 3신인과 3신녀는 화살을 쏘아 땅을 점치고는 分居하였다고 한다. 좌정처를 정하기 위한 활쏘기는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뽕개 던지기’로, 이것은 신화적 요소를 띠고 있다.²⁸⁾ 이와 관련해서 주몽이 皇天과 后土에게 벌고 활로 강물을 쳐서 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도록 한 것과 송양파의 대결에서 활로 승부하여 승리한 것도 참고되는데, 주몽이 ‘하늘의 뜻을 묻고 활로 써 그 능력을 인정받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탐라 건국신화에서 활을 쏘아 하늘의 뜻을 묻고 거주지를 정한다는 것은 ‘활로써 하늘을 뜻을 묻고 그 소유권을 인정받음’이라는 의미이다.²⁹⁾

3신녀가 3신인과 혼인한 후 탐라사회는 수렵사회에서 농경, 목축사회로 변한다. 이것은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지만, 가락국의 수로가 허황옥과 혼인 후 관직명과 신하들의 이름을 고치면서 사회변화를 꾀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 『영주지』와 『고려사』에 보이는 3신녀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영주지』와 『고려사』의 3신녀 관련 내용

	영주지系	고려사系
3신녀	동해 벼랑국의 왕녀->처녀로 표현	일본국의 왕녀->처녀로 표현
도래한 곳	金塘之岸 : 금당(조천리)	東海濱 : 열운리(온평리)
도래 방법	자주빛 木函 속의 鳥卵形 玉函에 담겨 떠오다.	자주빛 木函 속의 石函에 담겨 떠 오다

27) 현용준, 「고대 한국민족의 해양타계」,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466쪽.

28) 현용준, 앞의 논문, 1983, 69-70쪽.

29) 허남준, 앞의 논문, 1994, 145-147쪽.

휴대물	망아지, 송아지, 오곡종자	망아지, 송아지, 오곡종자
사자의 전언	삼신녀를 배필삼아 건국하라 傳言하고 구름을 타고 가다	삼신녀를 배필삼아 건국하라 傳言하고 구름을 타고 가다
혼인의 모습	나이 순서에 따라 3신인과 혼인	나이 순서에 따라 3신인과 혼인
혼인 후 사회 변화	오곡을 파종하고 망아지와 송아지를 길러 날라 부유해졌다.	오곡을 파종하고 망아지와 송아지를 길러 날라 부유해졌다.

III. 3神女의 移住와 역할

탐라 건국신화에서 3신녀가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가락국의 허황옥, 신라의 탈해와 같으며 함에 담겨 온 것은 탈해 신화와 비교된다. 우선 허황옥은 아유타국의 공주로 후한 광무제 건무 24년(48)에 배를 타고 김해 가락국에 도착하였고,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은 이를 미리 알고 그녀를 기다려 왕비로 맞이하였다고 한다. 그녀가 가락국에 온 것은 상제의 명에 따른 것으로, 부모의 꿈에 수로가 나라를 다스림에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공주를 보내라고 명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탈해는 어머니가 임신한지 7년 만에 큰 알로 태어났는데,³⁰⁾ 부왕이 난생을 상서롭지 못한 일로 여기자 어머니가 비단으로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케짝 속에 넣어 바다에 띄어 보냈다고 한다.³¹⁾

신라의 선도산 신모도 바다를 통해 이주하였다. 『삼국유사』를 보면 선도산 신모는 중국 帝室의 딸인 사소로 해동에 와서 오래 머물다 마침내 서연산에 와서 살고 地仙이 되었다고 한다.³²⁾ 이러한 선도산 신모에 대해 政和연간(1111~1117)에 송에 간 김부식은 佑神館의 선녀상이 “옛날 帝室의 딸이 남편 없이 임태를 하여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자 바다에 배를 띄워 辰韓

30) 『삼국유사』2, 기이 2, 가락국기에는 10개월이라고 하였다.

31) 『삼국유사』1, 기이 2, 제4탈해왕, 『삼국사기』1, 신라본기 1, 탈해이사금 즉위년.

32) 『삼국유사』5, 감통7, 선도성모수희불사. 신라 시조 혁거세를 낳았다고 전해지는 선도산 신모는 본래 도교의 女仙으로 한반도에 건너와 선도산에 정착한 이른바 도래신(정재서, 「도교 설화의 정치적 專有와 민족 정체성」, 『도교문화연구』 31, 2009, 16-19쪽)이라고 하였다. 한편 김선주는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 2010, 13-15쪽에서 시조모 전승에서 시조모와 관련이 있는 시조는 혁거세가 아닌 시조비로 알려진 알영으로 보았다.

으로 가서 아들을 낳아, 海東의 시조왕이 되었다. 황제의 딸은 地仙이 되어 오래도록 仙桃山에 있는데, 이것이 그녀의 像이다.”라는 설명을 송 館伴學士 王黼에게 들었다.³³⁾ 그리고 가락국기에는 가락국의 수로가 구지봉에 내려왔다고 하였지만, 어산불영조에는 하늘에서 알이 바닷가에 내려왔는데, 그가 수로왕이라고 하였다.³⁴⁾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혁거세·주몽·탈해·수로 등은 난생으로 태어나는데, 알은 영웅의 기이한 탄생과 관련 있으며 생명의 원천 혹은 태양을 상징한다.³⁵⁾ 그리고 궤짝은 존재의 변화와 공간적 이동의 수단으로 적용된다.³⁶⁾ 3 신녀는 탈해와 같은 난생은 아니었지만, 함에 담겨 출자처와는 다른 변화를 겪으면서 바다를 건너왔다. 바다는 중심이 되는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세계와의 경계 공간으로 기능한다.³⁷⁾

이와 같이 3신녀와 허황옥, 선도산 신모는 바다를 건너온 이주자이다. 바다는 인간세계의 수평축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인간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이며, 분리와 경계를 의미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교류와 소통을 의미하는 공간이다.³⁸⁾ 이와 관련해서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강·천·정도 관심을 끈다. 주몽신화에서 하백의 딸이 웅심산 아래 압록강에서 살며, 여기서 천제의 아들을 만났다고 한다.³⁹⁾ 하백은 황하의 水神으로 殷商 아래로 주나라 말엽까지 계속해서 제사를 받던 신격이라고 한다.⁴⁰⁾ 『晏子春秋』 内篇諫上에서는

33) 『삼국사기』12, 신라본기 12, 경순왕 9년 “論曰 … 1) 臣富軾以文翰之任輔行 諱佑神館 見一堂設女仙像 館伴學士王黼曰 此貴國之神 公等知之乎 遂言曰 古有帝室之女 不夫而孕 爲人所疑 乃泛海抵辰韓生子 爲海東始主 帝女爲地仙 長在仙桃山 此其像也 2) 臣又見大宋國信使王襄祭東神聖母文 有娠賢肇邦之句 乃知東神則仙桃山神聖者也 然而不知其子王於何時 …”.

34) 『삼국사기』3, 탑상4, 魚山佛影, “…昔天卵下于海邊 作人御國 卽首露王…”.

35) 양성필, 「난생신화의 궤짝신화의 상관성 고찰」, 『탐라문화』 35, 2009, 93쪽.

36) 양성필, 위의 논문, 2009, 95-96쪽, 101-102쪽.

37) 탈해가 추방이라면 3신녀와 허황옥이 지상에서 바다로 향한 것은 자발적인 행위로, 바다 건너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오세정, 「한국 신화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26, 2012, 325-326쪽).

38) 오세정, 위의 논문, 2012, 330-331쪽.

39) 『삼국유사』1, 기이 1, 고구려, “… 我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神山下鴨綠邊室中 私之而往不返 父母責我無媒而從人 遂謫居于此 …”

“하백은 물을 나라로 하고 물고기와 자라 등을 백성으로 하였다”⁴¹⁾라고 하여 魚鼈의 통치자로, 『한비자』 内儲說上에는 하백을 대어로, 『搜神記』에서는 하백을 竽이라고 하듯이 하백은 물고기의 통치자나 혹은 물고기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⁴²⁾ 주몽은 부여에서 도망할 때 어별의 도움을 받고 있다. 다음은 알영과 관련된 내용이다.

1) ① 봄 정월, 용이 闕英井에서 나와 右脇에서 女兒를 낳았다. 老嫗가 보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거두어 길렀다. 우물 이름으로 이름하였다. ② 성장함에 德容이 있었다. 시조가 듣고 맞아서 妃로 삼았다. 賢行이 있고 內輔가 能하였다. ③ 이 때 사람들이 二聖이라 일렀다.⁴³⁾

2) ① 이 날, 沙梁里의 알영정(娥利英井이라고도 한다)가에 雞龍이 나타나 左脇에서 童女(용이 나타나 죽자 그 배를 갈라서 얻었다고도 한다)를 낳았다. ② 姿容이 수려하였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비슷하여 月城의 北川에서 목욕시켰더니 그 부리가 떨어졌다. 따라서 그 川 이름을 撥川이라 했다.⁴⁴⁾

위의 내용을 보면 알영정(아리영정)에서 용(계룡)이 나타나 알영을 낳았는데, 알영은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아 월성 북천에 목욕시키자 떨어졌다고 한다.

정·천은 신라 혁거세 출생과도 관련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나정 옆 수풀 사이에서 말이 무릎을 끊고 울고 있었다. 이에 가서 보니 갑자기 말이 보

40) 袁軻, 『中國神話通考』, 成都:巴蜀書社, 1993, 230쪽;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2003, 259쪽. 宣釤奎는 「하백신하고」, 『중국문학연구』 10, 2004, 7쪽에서 “하백이 갖는 의미는 일반적인 河神이라는 의미와 황하의 신, 하수를 관리하고 관장한다는 현실세계의 질서가 신화에 투영된 복합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41) “河伯以水爲國 以爲魚鼈爲民”

42) 宣釤奎, 앞의 논문, 2004, 13쪽.

43) 『삼국사기』 1, 신라본기 1, 시조혁거세거서간 5년, “① 春正月 龍見於闕英井 右脇誕生女兒 老嫗見而異之 收養之 以井名名之 ② 及長有德容 始祖聞之 納以爲妃 有賢行能內輔 時人謂之二聖”.

44) 『삼국유사』 1, 기이 1, 신라시조혁거세왕, “① 是日 沙梁里闕英井(一作娥利英井)邊 有雞龍現 而左脇誕生童女(一云龍現死而剖其腹得之) ② 姿容殊麗 然而唇似雞觜 將浴於月城北川 其觜撥落 因名其川曰撥川”.

이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삼국유사』에는 “양산 나정 옆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땅에 드리우더니, 흰 말 한 마리가 무릎을 끊고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혁거세는 『삼국유사』를 보면 형용이 단정하였으며 東泉에서 목욕을 시키니 몸에서는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밝게 빛났다고 하였다. 탈해는 ‘葬蹻川丘中’, ‘水葬未召蹻井丘中’ 했다고 하여, 사후에는 정·천과도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탐라 건국신화와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바다, 강·천·정은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는데, 이들 여성은 시조나 시조의 부와 혼인해 시조비내지는 시조모가 되었다. 탐라의 3신녀는 나이 순대로 3신인과 혼인하여 후술되듯이 탐라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 허황옥은 가락국으로 와서 수로왕의 비가 되었고 도산씨가 하나라를 돋고 요임금의 딸들이 순임금의 요씨를 일으킨 것과 같다고 하였다.⁴⁵⁾ 알영은 성장 후 혁거세와 혼인하여 혁거세 재위 기간 동안 그를 보필하였다.⁴⁶⁾ 고구려 건국신화의 유화는 하백의 딸로 해모수와 사통하여 주몽을 낳았다. 이후 주몽에게 弓矢를 만들어 주었으며 기마하기에 좋은 말을 가려내어 키우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박해를 피해 떠나는 주몽에게 오곡의 종자와 보리종자를 보내주었다.⁴⁷⁾ 신라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는 선도산 신묘에서 찾고 있는데, 선도산 신묘는 혁거세를 낳았고 계룡이 상서를 나타내어 낳은 알영을 선도산 신묘의 현신이라고 하였다.⁴⁸⁾

한편 한국고대 건국신화에서 문명권 중심부에서 이주한 남성은 토착세력인 여성과 혼인하고 그곳의 통치자가 되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이처럼 새로운 사회 건설은 주로 남성신에 의해 이루어졌다. 바다를 건너 이주한 탈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탈해는 토함산에 오른 뒤에 호공의 집에 숯과 숫돌을

45) 『삼국유사』2, 기이 2, 가락국기, “…况與王后而居也 比如天之有地 日之有陽之有陰 其功也塗山翼夏 唐煥興矯 頻年有得熊羆之兆 誕生太子居登公 靈帝中平六年己巳三月一日后崩壽一百五十七 …”.

46) 이와 관련해서 혁거세 17년(서기전 41)에 혁거세가 육부를 巡撫할 때 알영이 함께 따라갔다고 한 것도 참고된다.

47) 고구려 건국신화와 관련된 문헌과 그 연구성과는 채미하, 앞의 논문, 2006 참고.

48) 『삼국유사』에는 선도산 신묘가 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고 하여 『삼국사기』와는 달리 혁거세와 알영이 남매로 나온다.

감추어 두었다가 위계로 호공의 집을 빼앗는데,⁴⁹⁾ 이 속과 숫돌은 바로 철을 다루는 야장의 도구이다. 그러나 탈해는 박혁거세보다 늦게 신라에 들어왔지만 철기문명을 바탕으로 제4대 왕에 오른다.

그런데 탐라 건국신화를 보면 도래한 인물은 남성이 아니고 여성으로, 왕이 되지 않고 왕후가 되어 탐라국에 변화를 가져온다. 즉 탐라 건국신화에는 3신녀의 출현으로 수렵사회였던 탐라가 농업과 목축사회로 전환했다고 한다. 오곡종자가 선진문명이라는 것은 유화가 주몽에게 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⁵⁰⁾ 3신녀가 가지고 온 오곡 종자뿐만 아니라 망아지·송아지는 농경에 필요한 동력이었다. 이로 볼 때 3신녀는 바다 건너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온 인물들이며, 이들의 이주로 탐라는 농경과 목축 사회로 변하였다. 이것은 3신녀의 출신지인 ‘벽랑국’, ‘일본국’이 당시 탐라 보다 문화적으로 앞선 나라임을 말하는 것이다. 3신녀와 함께 온 사신이 구름을 타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바다는 강, 정과 함께 물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생명 자체도 근원적으로는 물에서 발생한 것이다.⁵¹⁾ 따라서 井, 淵, 泉(川), 江(河), 海의 물은 여성적 생명의 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²⁾ 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것의 변화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여겨졌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여성 이주자 중 허황옥은 錦繡綾羅·衣裳疋段·金銀珠玉·瓊玖服·琬器 등을 가지고 오는데, 이 물건들은 탐라 건국신화에서 3신녀가 가지고 온 오곡종자 등과 같은 선진 문화의 속성을 떤다. 그리고 허황

49) 『삼국유사』1, 기이 2, 제4탈해왕.

50) 현용준, 앞의 논문, 1983, 82~84쪽 및 85~86쪽; 허남춘, 앞의 논문, 1994: 앞의 논문, 2005, 6쪽.

51) 『管子』20, 刑勢解 64, “淵者 衆物之所生也 能深而不涸 則沈玉至 主者人之所仰而生也 能寬裕純厚 而不苛忮 則民人附 父母者子婦之所受 教也 能慈仁教訓 而不失理 則子婦孝 臣下者 主之所用也 能盡力事上 則當於主 子婦者親之所以安也 能孝悌順親 則當於親 故淵涸而無水 則沈玉不至 主苛而無厚 則萬民不附 父母暴而無恩 則子婦不親 臣下隨而不忠 則卑辱困窮 子婦不安親 則禍憂至 故淵不涸 則所欲者至 潶則不至 故曰淵深而不涸 則沈玉極”.

52) 금장태,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대출판부, 1994, 76-77쪽.

옥이 탄 배가 망산도로 들어올 때 붉은 빛의 둑(緋帆)을 높이 걸고 적황색 빛의 깃발(茜旗)을 달고 있는데, 이는 비단과 연관되는 신성상징일 것으로 추정되며⁵³⁾ 비단의 직조문화를 가지고 도래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허황옥은 가락국의 불교 전래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⁵⁴⁾

신라의 시조모인 선도산 신모는 일찍이 여러 天仙을 시켜 비단을 짜서 붉은 물을 들이고 朝衣를 만들어 지아비에게 주었고, 이 나라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비로소 신성한 중험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선도산 신모의 ‘纖羅’ 또한 직조문화를 가지고 아주한 집단의 의미를 지닌다.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에서도 연오랑과 세오녀가 신라를 떠나자 일월이 빛을 잃었고, 세오녀가 짠 비단(細綃)으로 일월이 빛을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을 ‘日月之精’으로 여겼고, 祭天한 곳을 영일현이라 했다고 한다.⁵⁵⁾ 이 설화는 직조술의 渡日을 상징한다.⁵⁶⁾

이상에서 탐라 건국신화의 3신녀와 가락국의 허황옥, 신라의 선도산 신모는 바다와 관련된 여성이주자로, 시조의 조력자인 시조비나 시조모가 되어 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백제 건국신화에 나오는 소서노는 시조비이자 시조모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시조의 어머니 소서노는 출본 사람 연타발의 딸로 처음에는 북부여의 우태와 혼인하여 비류와 온조 두 아들을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태가 죽자 소서노는 두 부여 아들을 데리고 출본에 와서 살았는데,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하여 출본에 오자 소서노는 주몽의 비가 되어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경제적인 도움도 주었다. 이후 주몽이 부여에서 온 유리를 태자로 삼자 소서노는 비류·온조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세웠다.⁵⁷⁾

시조모인 웅녀와 유화, 정견모주는 천신의 배우자로 시조를 낳고 기르고 시조를 도와 건국에 일조하였다. 고조선 건국신화에 보이는 웅녀는 『삼국유사』에 따르면 곰이었으나 신의 아들 환웅에게 사람되기를 벌어 환웅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사람이 되었고 또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원하여 인간으로

53) 윤철중, 「사소신화의 성립에 관한 고찰」, 『반교어문연구』 7, 1996, 12쪽. 그는 붉은 집과 꼭두서니빛이 신성상징이라고 했고 이 둑과 깃발도 비단으로 만들어진 직조문화의 산물이라고 했다.

54) 『삼국유사』3, 탑상4, 金官城婆娑石塔.

55) 『삼국유사』1, 기이2, 延鳥郎細鳥女.

56) 조동일, 「시조도래 건국의 중세인식」,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1999, 96-141쪽. 이상은 허남준, 앞의 논문, 2005, 9-10쪽.

57) 『삼국사기』23, 백제본기 1, 온조왕 즉위년.

변한 환웅과의 결합을 통해 단군을 낳았다.⁵⁸⁾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나온 수로가 금관가야를 건국했으며 바다를 건너온 허왕후와 결혼함으로써 건국을 완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⁵⁹⁾ 그런데 『신증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정견모주가 천신에 감응되어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시조를 낳았다는 것이다. 최치원이 쓴 釋利貞傳을 인용하여 가야산신 정견모주는 천신 이비가지에 감응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왕 뇌질청예를 낳았다고 한다.

시조모와 시조비의 선후 관계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집단의 근원이 되는 시조가 여성에 있다는 시조모에 대한 관념은 대체로 부계 중심 신화 이전에 모계 중심으로 서술하는 신화적 전통에 있었다고 한다.⁶⁰⁾ 즉 시조모에 대한 전승은 시조와 시조비 이전 단계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서노 관련 전승은 부계출계 사회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⁶¹⁾

탐라 건국신화의 3신녀는 3신인과 혼인하여 시조비가 된다. 바다를 통해 건너온 이들은 가지고 온 선진문물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킨다.⁶²⁾ 즉 3신인은 사냥과 수렵생활을 하다가 바다 너머에서 오곡의 씨·송아지·망아지 등을 가지고 온 3신녀와 혼인하여 탐라 사회는 수렵사회에서 농경, 목축을 하는 사회로 전이된다. 허황옥, 선도산 신묘의 직조술도 고대국가 건설의 중요한 문화기반이 되었다. 이것은 3신녀가 가지고 온 것과는 구별되는데, 이들이 이주한 곳이 이미 농경문화를 사회적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때문에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에 이주한 여성 이주자는 직조술을 지니고 들어와 새로운 문물을 전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3신녀는 수렵을 주 산업으로 하던 사회에 농경과 목축을 전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건

58) 『삼국유사』1, 기이 2, 고조선.

59) 『삼국유사』2, 기이 2, 가락국기.

60) 조현설, 앞의 책, 2003, 257-258쪽. 천혜숙은 선도산 신묘 신화의 ‘不夫而孕’ 요소는 모권제 또는 모계제의 혼적이라고 하였다(‘父性 不在’의 신화학과 聖母신앙의 문제,, 『역사민속학』 15, 2002, 23-24쪽).

61) 천혜숙, 위의 논문, 2002, 28쪽.

62) 오세정, 앞의 논문, 2012, 321쪽에서 우리 신화에서 바다는 선진문물, 혹은 선진문화의 수용과 직접 관련된 경우 많다고 하면서 가락국신화나 삼성신화에서는 바다 건너 등장 한 이인들을 통해 지상의 인간세계에 선진문화가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설할 수 있었다. 『영주지』의 ‘遂成人界’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IV. 3神女의 追崇과 위상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 보이는 이주자는 선진 문화와 기술을 토대⁶³⁾로 지 배자(시조) 혹은 지배자의 배우자(시조비)가 되었다. 이것은 탐라 건국신화의 3신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시조와 시조비(모)는 死後에 추숭되어 국가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우선 시조와 관련해서 『삼국사기』 제사지를 보면 고구려의 시조묘에 국왕들의 배알이 8차례 확인된다.⁶⁴⁾ 이러한 시조묘 제사의 주신은 주몽이라고 한다.⁶⁵⁾ 후술되듯이 태후묘는 동명왕의 어머니가 죽고 얼마 있지 않아 건립되었다. 반면 시조묘는 신대왕대 처음으로 시조묘에 대한 제사를 지낸 점⁶⁶⁾으로 미루어 그 이전 어느 시기에 건립되지 않았을까 한다. 태조왕대 주몽을 국조로 하는 의식이 성립되었고 이후 시조묘가 건립되었다는 견해⁶⁷⁾는 참고할 만한다.⁶⁸⁾

백제 한성-웅진시기 동명묘 제사의 대상은 범부여계의 조상인 동명이었으나, 사비시기 구태묘는 왕실의 직계조상으로 여겨진 구태를 제사지내는 것으로,⁶⁹⁾ 구태묘를 중국적인 종묘로 파악하고 있다.⁷⁰⁾ 즉 사비시기 구태묘 제사

63) 윤철중, 「탈해신화의 연구」,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7, 88쪽.

64) 신대왕 4년(168) 9월, 고국천왕 2년(180) 9월, 동천왕 2년(228) 2월, 중천왕 13년(260) 9월, 고국원왕 2년(332) 2월, 안장왕 3년(521) 4월, 평안왕 2년(560) 2월, 건무왕 2년(619) 4월이 그것이다.

65) 井上秀雄, 『古代朝鮮史序說-王者と宗教』, 寧樂社, 1978, 109쪽.

66) 신대왕과 고국천왕대의 시조묘 기사는 허구라는 견해가 있다(田中通彥, 「高句麗の信仰と祭祀」, 『酒井忠夫先生古稀祝賀記念論集 歷史における民衆と文化』(圖書刊行會), 1982, 734쪽; 武田幸男, 「始祖廟記事と高句麗王系」, 『東方學會立50周年記念東方學論集』(東方學會), 1997, 817-820쪽).

67) 시조로서 주몽에 대한 의식과 숭배가 태조왕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구려의 주몽묘 건립은 태조왕대부터 차대왕에 이르는 기간에 이루어졌을 것이나 차대왕대에 반태조왕 세력에 의해 정국이 주도되었으므로 차대왕을 시해하고 신대왕을 옹립한 친 태조왕 세력이 집권하자 시조묘 봉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이종태, 「삼국시대의 시조인식과 그 변천」, 『국민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6, 80-84쪽).

68) 이상은 채미하, 2006, 앞의 논문, 344-345쪽.

의 대상인 구태는 백제 왕실의 시조이고 구태묘는 도성 내에 세우고 廟祠를 올린 종묘적 성격으로 보기도 하고⁷¹⁾ 유후로부터 종묘제를 배워 부여왕 위 구태가 始國者로 설정되고 동시에 구태묘가 종묘로 성립되었다는 견해⁷²⁾도 있다.⁷³⁾

신라 남해왕 3년(6)에 설치된 시조묘⁷⁴⁾에는 박씨집단의 族祖인 혁거세를 모셨다가 아달라왕대 신라연맹체의 제천이 사로국의 시조묘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혁거세는 국조가 되었고, 신라 상고기 내내 시조묘의 주신이 될 수 있었다. 소지왕 9년(487)에 설치된 신궁의 주신은 혁거세로,⁷⁵⁾ 혁거세는 全 국가적 시조왕의 성격을 지녔다. 이와 같이 시조묘와 신궁에서 혁거세가 그 제사의 주신이었지만, 신라 중대에 오묘제⁷⁶⁾가 성립되면서 국조인 혁거세를 모신 신궁제사는 김성시조를 모시는 오묘제 보다 그 격에 변화가 있었다.⁷⁷⁾ 석씨집단의 족조인 탈해의 소상은 궐 안에 있다가 동악에 안치되는데, 그 시기는 문무왕 20년(680)으로 나온다.⁷⁸⁾ 동악은 토함산으로 탈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소이며 고려시대에는 동악대왕으로 불리기도 하였다.⁷⁹⁾ 이로 볼 때 시조신이었던 탈해는 신라 중대 이후 산신으로 그 신격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⁰⁾

탐라 건국신화의 3신인의 지중용출은 탄생의 의미인 동시에 곡신부활의

69) 양기석, 「백제 성왕대의 정치개혁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 1990, 23-24쪽; 김주성, 「백제 사비시대 정치사연구」, 전남대학교사학과박사학위논문, 1990, 45쪽.

70) 이와 관련해서 노명호, 「백제의 동명신화와 동명묘」, 『역사학연구』 10, 전남대, 1981, 73~76쪽; 박현숙, 「『삼국사기』 백제본기 은조왕조의 검토」, 『선사와 고대』 10, 1998, 87쪽; 박현숙, 「백제 건국신화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3 9, 2005, 48-49쪽.

71) 유원재, 『중국정사 백제전 연구(증보판)』, 학연문화사, 1995, 98-100쪽.

72) 김병곤, 「중국 사서에 나타난 백제 시조관과 시국자 구태」, 『한국고대사연구』 46, 2007, 178-187쪽.

73) 이상은 채미하, 「백제의 산천제사와 그 정비」, 『동국사학』 48, 2010, 48-49쪽.

74) 『삼국사기』 1, 신라본기 1, 남해차차옹 3년.

75) 『삼국사기』 3, 신라본기 3, 소지마립간 9년;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76) 『삼국사기』 8, 신라본기 8, 신문왕 7년;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77)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앞의 논문, 2014 참고.

78) 『삼국유사』 1, 기이 1, 제4탈해왕.

79) 『삼국유사』 1, 기이 1, 제4탈해왕; 『삼국유사』 1, 왕력 1, 제4탈해이질금.

80) 채미하, 앞의 논문, 2014, 186-187쪽 및 앞의 논문, 2016, 21쪽.

의미를 지니며 건국시조라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도 하였다.⁸¹⁾ 이와 같은 3신인에 대한 제사는 ‘처음에는 사당을 세우고 향사한 일이 없었으며 다만 廣壞堂이 있어 무당들이 빌고 굿하는 장소였는데,嘉靖 5년丙戌(중종 21년, 1526)에 목사 李壽童이 비로소 모홍혈 옆에 단을 쌓고 三乙那의 자손으로 매년 仲冬에 제향을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⁸²⁾ 광양당은 『신증동국여지승람』 38 전라도 제주목 사묘조에 나온다.⁸³⁾ 이로 볼 때 3신인에 대한 제사는 16세기 이전까지는 광양당에서 무격에 의해 무속적인 제사로 행해졌지만, 이후 유교식 제사로 지냈음을 알 수 있다.⁸⁴⁾ 그리고 한라산이 3신인의 탄생처였다고 한다면 모홍혈은 降神의 의례를 거행하던 제의장소였을 것이라고 하였다.⁸⁵⁾ 삼성혈에서 매해 穴祭(乾始祭)를 지내는데, 이 의례 방식은 地面으로 통한 구멍 곧 궤를 열어 神을 청하고, 제물을 그 구멍으로 地面에 통하게 넣어 신을 대접하고 신을 구멍을 통하여 地中으로 보내어 뚜껑을 닫는 것이다.⁸⁶⁾

한편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 보이는 시조비 중 허황옥은 영제 중평 6년 (189) 3월 1일에 죽었다(崩). 이 후 나라사람들이 龜旨의 동북쪽 언덕에 장사지냈고, 그녀를 잊지 못하여 왕후가 처음 배에서 내려 배를 매어둔 나룻가의 마을을 주포촌이라고 이름하고 비단바지를 벗은 산마루를 綾峴이라 하고 꼭

81) 허남준, 앞의 논문, 1994, 144쪽.

82) 初無建祠致祭之事只有廣壞堂而爲巫覡禱養之場矣嘉靖丙戌牧使臣李壽童始爲築壇於穴傍使乙那子孫每於仲冬行祭是白可… (高氏宗門會總本部, 1979, 「耽羅星主遺事」, 627-635쪽); 장주근, 1989, 앞의 논문, 72-73쪽에서 재인용, 77쪽.

83) 廣壞堂: 주 남쪽 한라 護國神祠에 있다. 속설에 전하기를, “漢擎山神의 아우가 나서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었고, 죽어서는 신이 되었다. 고려 때에 宋胡宗旦이 와서 이 땅을 제어하고 바다에 떠서 돌아가는데, 신이 화하여 배가 되어서 뜻대로 머리에 날아올랐다. 조금 있다가 북풍이 크게 불어서 종단의 배를 쳐 부셔 서쪽 지경 飛揚島 바위 사이에서 죽었다. 조정에서 그 신령스럽고 이상함을 포창하여 食邑을 주고 廣壞王을 봉하고 해마다 香과 폐백을 내려 제사하였고, 본조에서는 본읍으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하였다.” 하였다. ○ 상고하건대 호종단이 와서 고려에 벼슬이 起居舍人에 이르고 죽었으나, 와서 땅을 제어하다가 배가 침몰되었다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

84) 장주근, 앞의 논문, 1989, 74-77쪽.

85) 허남준, 앞의 논문, 1994, 143-144쪽.

86) 현용준, 「제주도 신화와 의례 형식에서 본 문화의 계통」, 『탐라문화』 13, 1993, 210-211쪽.

두서니빛 깃발이 나타나 들어온 바닷가를 旗出邊이라고 하였다.⁸⁷⁾ 8대 질지왕은 452년에 수로왕과 허황옥의 혼례 장소에 王后寺를 창건하기도 하였다.⁸⁸⁾ 이로 볼 때 허황옥은 죽은 이후 금관가야인에게 신양의 대상이었고, 그녀에 대한 추숭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⁹⁾ 이 중 질지왕이 수로왕과 합흔한 곳에 세웠다는 왕후사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首露王夫人祠를 절로 바꾼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⁹⁰⁾ 알영은 시조와 함께 二聖으로 여겨졌는데, ‘이 때[時]’는 신라 중대 이후로 알영은 시조와 함께 여전히 추숭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¹⁾

유화는 태후묘 뿐만 아니라 隧神祭, 扶餘神廟에서 ‘태후’, ‘수신’, ‘부여신’으로 고구려 국가제사의 대상이었다. 동명왕 14년(서기전 24) 8월에 동명왕의 어머니가 동부여에서 죽자 금와왕이 ‘태후’의 예로 장례를 지내고 神廟를 세웠다고 한다. 태조왕은 왕 69년(121) 10월에 부여에 순행하여 태후묘에 제사지내고 있다.⁹²⁾ 태후묘가 ‘동명왕의 모후’에 대한 제사였다고 한다면 태조왕대 이후 주몽을 국조로 하는 국조의식이 성립되면서 유화는 국모로 여겨졌고 그녀에 대한 제사는 수신제에서 이루어졌다.⁹³⁾ 수신제는 유화의 주몽 임태와 출산 신화를 암록장 가에서 재현한 의례였다. 유화는 부여족의 공동 시조를 낳았기 때문에 부여신으로도 불려졌고, 부여신묘에서 그 제사가 행해졌다.⁹⁴⁾ 부여신은 ‘刻木한 부인상’으로 나타나며 木隧로 나타난 수신보다는

87) 『삼국유사』2, 기이 2, 가락국기, “…靈帝中平六年己巳三月一日后崩 壽一百五十七 國人如嘆坤崩 葬於龜旨東北塢 遂欲忘子愛下民之惠 因號初來下纏渡頭村曰主浦村 解綾袴高岡曰綾峴 茜旗行入海涯曰旗出邊 媵臣泉府卿申輔…”. 이와 관련된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김태식, 「가락국기 소재 허왕후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102, 1998, 26-27쪽 참고.

88) 『삼국유사』 2, 기이 2, 가락국기, “銅知王 一云金銅王 元嘉二十八年卽位 明年爲世祖許黃玉王后 奉資冥福於初與世祖合御之地 創寺曰王后寺”.

89) 김태식, 앞의 논문, 1998, 31-32쪽.

90) 권주현, 「왕후사와 가야의 불교전래문제」, 『대구사학』 95, 2009, 55쪽. 한편 사당에서 절로 전환된 것은 신라 중대로 추정하기도 하였다(권주현, 「삼국사기에 보이는 4~5세기의 가야와 삼국과의 관계」, 『신라문화』 38, 2011, 66쪽). 이상은 채미하, 2016, 앞의 논문, 20~21쪽.

91) 채미하, 앞의 논문, 2014, 187-188쪽 참고.

92) 이상은 채미하, 앞의 논문, 2006, 342-344쪽 참고.

93) 수신제와 관련된 기록은 『삼국지』·『후한서』, 『구당서』·『신당서』·『한원』에 보인다.

구체적인 것으로 고구려 국모 뿐만 아니라 부여족 전체의 어머니로 추숭되었다.⁹⁵⁾ 이처럼 유화는 죽은 이후 국가제사의 대상이 되었고 고구려 말에는 주몽⁹⁶⁾과 마찬가지로 유화에 대한 신앙은 전국적으로 퍼져있었다.⁹⁷⁾ 유화는 수신의 성격 뿐만 아니라 농업신적 성격도 띠면서 ‘신모’로 불려졌다.⁹⁸⁾

선도산은 통일 이전 신라 오악의 하나였으며,⁹⁹⁾ 『삼국유사』 천사옥대조를 보면 진평왕대 鎮祐邦國하는 灵異가 많아 나라가 건립된 이래 언제나 三祀의 하나였고, 그 서열은 群望의 위에 있었다고 한다. 『삼국사기』 제사지 신라조에 서술, 선도산은 车梁에 있었다고 한다.¹⁰⁰⁾ 이로 볼 때 선도산은 신라가 나라를 세운 이래로 국가제사의 대상이었고 진평왕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최고의 신성산악이었다가¹⁰¹⁾ 통일 이후 신라 국가제사의 하나로 편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도산 신모는 신라 경명왕대 왕의 잃어버린 매를 찾아주어 봉작을 반기도 하였다.¹⁰²⁾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대가야 마지막 왕자의 세계를 정견모주로부터 기

94) 부여신묘과 관련해서는 『북사』·『주서』를 통해 알 수 있다.

95) 이상은 채미하, 2006, 앞의 논문, 363~364쪽 참고.

96) 『신당서』 220, 열전 145, 동이 고려 및 『주서』 49, 열전 41, 이역 상 고려; 『책부원귀』 369, 장수부 공취 2 이적 참고.

97) 『삼국사기』 21, 고구려본기 9, 보장왕 5년, “東明王母塑像 泣血三日” 및 『신당서』 220, 열전 145, 동이 고려 참조. 이상은 채미하, 앞의 논문, 2006, 365쪽.

98) 이상은 채미하, 앞의 논문, 2006 및 앞의 논문, 앞의 논문, 2016, 18~19쪽 및 20쪽 참고.

99) 『신증동국여지승람』 21 경주부 산천조에는 토함산을 동악, 금강산을 북악, 함월산을 남악, 선도산을 서연산(서악)이라고 하고 있다. 『삼국사기』 41, 열전 1, 김유신(상)에는 중악 단석산이 보인다.

100)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三山五岳已下 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 … 小祀 … 西述(車梁)”

101) 강영경은 앞의 논문, 2012, 57쪽에서 신라의 국가성장이 6촌장의 합의체에서 시작하였고 이후 신라왕은 박·석·김 3성의 교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선도산 신모는 국모신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거나 고구려와 백제처럼 거국적인 승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사회에서 박씨왕계의 사회적 위치와 비중의 변화에 따라 시기적으로 선도산 신모의 위치는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102) 『삼국유사』 5, 감통 7, 선도성모수희불사, “第五十四景明王好使鷹 詧登此放鷹而失之 燒於神母曰 若得鷹 當封爵 俄而鷹飛來止机上 因封爵大王焉”. 이상은 채미하, 앞의 논문, 2016, 22쪽.

억한 것은 정견모주가 조상신으로의 권능을 대가야 멸망 직전까지도 유지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¹⁰³⁾ 해인사의 정견천왕사에 모셔진 정견은 본래 대가야의 왕후로 죽어서 가야산 산신이 되었다고 하며¹⁰⁴⁾ 대가야가 신라에 통합된 이후 통일 이후 신라의 명산대천제사 중 소사에 가량악이 편제되었다.¹⁰⁵⁾

백제에서는 온조왕 13년(서기전 6) 2월 왕모 소서노가 죽자 온조왕 17년 4월에 묘를 세워 국모를 제사하였다고 한다.¹⁰⁶⁾ 온조왕은 왕모 소서노가 죽은 지 3개월 후에 국모가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니 국세가 안전하지 못해 반드시 나라를 옮겨야겠다고 하였다.¹⁰⁷⁾ 아마도 이 때부터 소서노는 국모로 여겨졌고 국모묘에 대한 건립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국모묘를 건립한 이후 그에 대한 제사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소서노를 국모묘에서 제사지냈을 것이다.¹⁰⁸⁾

탐라 건국신화를 보면 3신녀는 왕명으로 3신인과 혼인하기 위해 탐라로 온 이주자로, 나이순으로 배필이 정해졌다는 것에서 제주 신화에서 발견되는 독립적인 여신들과는 달리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¹⁰⁹⁾ 때문에 3신녀는 3신인의 배필로만 역할이 고정되어 탐라국의 母神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였다고 한다.¹¹⁰⁾ 하지만 3신녀는 오곡종자와 가축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

103) 서철원, 「대가야 건국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본 백제 건국신화의 인물 형상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3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이와 관련해서 나희라, 앞의 논문, 2009, 126~127쪽도 참고.

104) 천혜숙은 앞의 논문, 2002, 12~13쪽에서 정견모주를 신라의 선도산 신모와 같은 유형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105) 김태식, 「대가야의 세계와 道設智」, 『진단학보』 81, 1996, 11쪽과 16쪽. 그리고 김태식은 16-17쪽에서 대가야군 소재 推心의 主神은 대가야시조 伊珍阿鼓王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상은 채미하, 앞의 논문, 2016, 25쪽.

106)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왕 13년, “春二月 王母薨 年六十一歲”;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왕 17년, “夏四月 立廟以祀國母”.

107) 『삼국사기』 21, 백제본기 1, 시조 온조왕 13년, “夏五月 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 北有靺鞨 侵軼疆境 少有寧日 況今妖祥屢見 國母棄養 勢不自安 必將遷國 予昨出巡 觀漢水之南 土壤膏腴 宜郡於彼 以圖久安之計”.

108) 이상은 채미하, 앞의 논문, 2016, 19쪽.

109) 전영준, 「耽羅神話에 보이는 女性性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 61, 2016, 519쪽; 강현정, 「한국 고대 신화 속 여성성의 신화화 과정과 변용」, 『탐라문화』 55, 2017, 60-61쪽.

110) 강만생 외, 『제주여성사』 I, 81쪽.

켰다.¹¹¹⁾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시조비와 시조모는 농업신, 곡모신의 성격을 띠었다.¹¹²⁾ 그렇다면 탐라 건국신화의 3신녀가 오곡종자를 뿌리고 우마를 키우고 풍요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지모신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¹¹³⁾

인간이 대지에서 태어난다는 믿음은 동서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유포되어 있는 신앙이다. 대지는 살아 있는 형태를 자신의 본질로부터 끌어내어 발생시킨다. 대지는 비옥하기 때문에 살아있다. 대지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 생명이 부여되며, 대지로 돌아간 모든 것은 다시 생명이 주어진다.¹¹⁴⁾ 동·서양의 고대 신화와 의례의 유형을 보면 대지는 우주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만물을 낳고 열매를 맺는 무한한 능력으로 인해 가치가 부여되었고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¹¹⁵⁾ 농경사회에서 대지는 어머니로 이해되었으며 점차 지모신은 경작과 수확 즉 농경의 여신으로 대체되어갔다.¹¹⁶⁾

3신녀는 오곡종자를 가져온 풍요신격의 의미를 지니며 3신녀의 곡모신적 성격은 선도산 신모나 유화처럼, 신모 혹은 성모로 숭앙되었을 것이다.¹¹⁷⁾ 그리고 3신녀의 도래일에 맞추어 풍요신격을 맞이하는 의례를 1년에 한 번 거행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였을 것이다. 현재 제주도 전역에서는 2월 영등달에 영등 굿을 거행하는데, 이것은 바다를 건너 온 풍요신격에 대한 의례로 신명은 대체로 영등할망이다. 영등 굿이 바다에서 내방하는 여신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탐라 건국신화의 3신녀의 의례 역시 이와 같지 않았을까 한다. 이 의례와 관련해서 가락국기의 ‘戲樂思慕之事’가 관심을 끄는데, 이것은 望山島에서 古浦까지 건장한 남자들이 좌우편으로 나누어 배를 노를 저어 경주를 하는 것으로, 유천간과 신귀간이 허황옥을 맞이할 때의 신화적 사실을 재연한 경조행사이다.¹¹⁸⁾ 제주의 영등 굿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에서 영등신

111) 전경수, 「탐라신화의 고금학과 모성중심사회의 신화적 특성」,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31-32쪽.

112) 장지훈, 「한국 고대의 지모신 신앙」, 『사학연구』58·59, 1999, 81쪽; 한영화, 「고구려 지모신신앙과 母處制」, 『사학연구』58·59, 1999, 208~215쪽 및 앞의 주 1) 참고.

113) 강현정, 앞의 논문, 2017, 60-61쪽.

114) 멀치아 엘리아데, 『종교사개론』, 1993, 55쪽.

115) 멀치아 엘리아데, 위의 책, 1993, 230쪽 및 249-250쪽.

116) 멀치아 엘리아데, 위의 책, 1993, 235쪽.

117) 혀남춘, 앞의 논문, 1994, 147-148쪽.

118) 현용준, 앞의 논문, 1993, 214-215쪽도 참고

을 맞이하거나, 배를 타고 바다 먼 곳으로 영등신은 배송하는 의례를 행한다.¹¹⁹⁾

V. 맷음말

본 논문은 탐라건국신화에 보이는 3신녀의 역할과 그 위상을 한국 고대 건국신화와 비교하여 탐라건국신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살펴본 것이다. 탐라 건국신화는 영주지계와 고려사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상 용출한 3신인과 바다를 건너온 3신녀가 혼인한다. 3신인이 등장한 것은 한국 고대 건국 시조가 등장하던 사회보다 앞선 사회였으며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는 시조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탐라 건국신화에서는 3신인이 아닌 3신녀가 그 역할을 한다. 3신녀가 탐라에 온 이유는 3신인이 탄강하고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대업·개국·건국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 시조가 나라를 세우고 이후에 시조비를 맞이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 사회의 변화는 주로 남성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바다를 통해 이주한 탈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탐라 건국신화를 보면 이주한 인물은 3신인이 아닌 3신녀였고 3신녀의 출현으로 수렵사회였던 탐라 사회는 농업과 목축사회로 전환했다. 탐라 건국신화에서 3신녀가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가락국의 허황옥, 신라의 탈해와 같으며 함에 담겨 온 것은 탈해 신화와 비교된다. 3신녀는 탈해와 같은 卵生은 아니었지만, 함에 담겨 출자처와는 다른 변화를 겪으면서 바다를 건너왔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도 물을 담고 있는 공간인 강과 정이 등장하는데, 유화와 알영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바다, 강과 정은 탐라 건국신화 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는 여성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물의 기본적인 속성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탐라 건국신화 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여성신은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였다.

119) 허남춘, 앞의 논문, 2005, 7-8쪽. 영등굿에 대해 현용준, 앞의 논문, 1993, 214-215쪽 도 참고.

탐라 건국신화의 3신인에 대한 추승은 16세기 이전까지는 광양당에서 무격에 의해 무속적인 제사로 행해졌지만, 이후 유교적 의례로 변하였다. 3신녀는 나이 순서로 3신인과 혼인하는데, 이것은 제주 신화에서 발견되는 독립적인 여신들과는 구분된다. 하지만 3신녀가 오곡종자를 뿌리고 우마를 키운다는 점에서 풍요를 담당하는 지모신격에 해당하며, 3신녀의 곡모신적 성격은 선도산 신모나 유화처럼, 신모 혹은 성모로 숭앙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현재 제주 민속의 영등 굿과 연결 지어 이해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탐라 건국신화의 3신인과 3신녀의 위상은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지배자(시조) 혹은 지배자의 배우자(시조비)가 死後에 추숭되어 국가제사의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된다고 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현정, 「한국 고대 신화 속 여성성의 신화화 과정과 변용」, 『탐라문화』 55, 2017.
- 권주현, 「삼국사기에 보이는 4~5세기의 가야와 삼국과의 관계」, 『신라문화』 38, 2011.
- _____, 「왕후사와 가야의 불교전래문제」, 『대구사학』 95, 2009.
- 김두진, 「신라 6촌장신화의 모습과 그 의미」, 『신라문화』 21, 2003.
- 김병곤, 「사로 6촌의 출자와 촌장의 사회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22, 2001
- _____, 『신라 왕권 성장사 연구』, 학연문화사, 2003.
- _____, 「중국 사서에 나타난 백제 시조관과 시국자 구태」, 『한국고대사연구』 46, 2007.
- 김선주,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 2010.
- _____,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위상」, 『사학연구』 99, 2010.
- 김태식, 「가락국기 소재 허왕후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102, 1998.
- 김태식, 「대가야의 세계와 道設智」, 『진단학보』 81, 1996.
- 나희라, 「대가야의 신화와 의례」, 『대가야의 정신세계』, 2009.
- 노명호, 「백제의 동명신화와 동명묘」, 『역사학연구』 10, 전남대, 1981.
- 멀치아 엘리아데, 『종교사개론』, 1993.
- 武田幸男, 「始祖廟記事と高句麗王系」, 『東方學會立50周年記念東方學論集』, 東方學會, 1997.
- 박현숙, 「백제 건국신화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39, 2005.
- 서철원, 「대가야 건국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본 백제 건국신화의 인물 형상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3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 宣釤奎, 「하백신하고」, 『중국문학연구』 10, 2004.
- 양기석, 「백제 성왕대의 정치개혁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 1990.
- 양성필, 「난생신화의 궤짝신화의 상관성 고찰」, 『탐라문화』 35, 2009.
- 오세정, 「한국 신화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26, 2012.
- 袁軻, 『中國神話通考』, 巴蜀書社, 1993.
- 윤철중, 「사소신화의 성립에 관한 고찰」, 『반교어문연구』 7, 1996.
- 윤철중, 「탈해신화의 연구」,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7.
- 이종태, 「삼국시대의 시조인식과 그 변천」, 국민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6.
- 이지영, 『한국신화의 神格 유래에 관한 연구』, 태학사, 1995.

- 장주근, 「구전신화의 문헌신화화 과정」, 『선청어문-의민 이두현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18, 1989.
- 장지훈, 「한국 고대의 지모신 신앙」, 『사학연구』 58·59, 1999.
- 전경수, 「탐라신화의 고금학과 모성중심사회의 신화적 특성」,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 _____, 「상고 탐라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 『제주도연구』 4, 1987.
- 전영준, 「耽羅神話에 보이는 女性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 61, 2016.
- 田中通彦, 「高句麗の信仰 と祭祀」, 『酒井忠夫先生古稀祝賀記念論集 歴史における民衆と文化』, 圖書刊行會, 1982.
- 井上秀雄, 『古代朝鮮史序說-王者と宗教』, 寧樂社, 1978.
- 정진희, 「조선초 제주 삼성신화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0, 2006.
- 조동일, 「시조도래 건국의 중세인식」, 『하나이면서 여렷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1999.
- 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조현설, 「父性 不在의 신화학과 聖母신앙의 문제」, 『역사민속학』 15, 2002.
- _____,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2003.
- 채미하, 「고구려의 국모신앙」, 『북방사논총』 12, 2006.
- _____, 「백제의 산천제사와 그 정비」, 『동국사학』 48, 2010 .
- _____, 「신라의 6촌과 산악제사」, 『신라사학보』 23, 2011.
- _____,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의」, 『한국사학보』 55, 2014.
- _____, 「한국 고대 神母와 國家祭儀-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2, 2016
- 한영화, 「고구려 지모신신앙과 母處制」, 『사학연구』 58·59, 1999.
- 허남춘,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탐라문화』 14, 1994.
- _____, 「삼여신 도래신화와 축제 가능성」, 『탐라문화』 27, 2005.
- _____,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보고사, 2011.
- 현용준, 「고대 한국민족의 해양타계」,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 1983.
- _____, 「제주도 신화와 의례 형식에서 본 문화의 계통」, 『탐라문화』 13, 1993.

Abstract

The Role and Status of Three Goddesses in the Birth Myth of Tamla

Chai, Mi-Ha

This thesis is studying about the role and status of 3 goddesses in the birth myth of Tamla comparing with the ancient birth myth. The story of the birth myth of Tamla is that 3 gods from earth married 3 goddesses who came across the sea and the society changed. In the ancient birth myth in Korea, the progenitor changed the society but in the myth of Tamla, not 3 gods but 3 goddesses did that role.

So the reason 3 goddesses came to Tamla was related to the establishing nation. 3 goddesses' crossing the sea could be compared with Huh Hwangok of Karakguk and Talhae of Silla. Though their births were not out of eggs, they came across the sea contained in going through changes different from descent and after their arrival at Tamla, the society getting food by hunting and gathering changed to the one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farming. In the birth myth in ancient Korea, Yuwha and Alyoung were related with the river and the well. Each the sea, the river, and the well is the space containing water of which inherency is changing ceaselessly and that represents the change of the society. 3 gods and 3 goddesses in Tamla must have been worshipped after their death and this could be compared with that the progenitor and progenitor consort(mother) in the ancient birth myth in Korea were the subjects of the national rites.

* Research Professor in Korea univ.

The worshipping 3 goddesses was a Shamanistic rite but later changed to a confucian ceremony. The fact 3 goddesses brought 5 grains and seeds shows they have the character of mother goddess of grains and they were worshipped as the mother goddess or saint mother like Yuhwa and Seondosan mother goddess in Korean ancient birth myth.

Key words : Tamla, birth myth, 3 gods, 3 goddesses, saint mother

교신: 채미하 03014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7나길 42-4, 가동 102호
(E-mail: mhchai@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8. 01. 04
심사완료일 2018. 01. 30
제재확정일 2018. 01. 31

耽羅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金慶柱**

- I. 머리말
- II. 據點聚落의 出現과 成長
 - 1. 據點聚落의 出現
 - 2. 據點聚落의 成長
- III. 土器 樣式의 形成과 變遷
 - 1. 土器 樣式의 形成
 - 2. 土器 樣式의 變遷
- IV. 外來遺物의 交換과 對外交流
 - 1. 外來遺物의 交換
 - 2. 對外交流의 樣相
- V. 맷음말

국문요약

탐라시대 전기의 거점취락은 경제석축, 공동 창고군, 공공 건물지, 특수목적 주거지, 석조우물의 축조와 같이 이전에 없던 차별화된 취락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타날문토기의 영향으로 표준화된 외도동식토기가 출현하고 과자리식토기로 발전한다.

취락내 사회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했던 공인집단과 표준화된 토기제작의 전문 장인집단, 수공업 생산집단, 대외교역의 수행집단 등으로 이루

* 본고는 2017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신라사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어진 분업화된 사회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사회구성원을 통제하기 위한 상위계층의 존재도 상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탐라 전기 사회는 분업화된 전문 기술집단과 수장층이 존재하는 위계화된 취락사회로 해석되며 이는 바로 탐라정치체의 등장을 시사한다.

탐라 전기의 취락사회는 전남지역이 백제에 영역화되는 6세기 중반 이전까지 서남부권역의 마한세력을 거점으로 남부 가야와의 대외교역 루트를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은 3~5세기대 제주에서 출토된 외래계토기가 대부분 마한계토기이고 소가야계토기가 일부 동반되는 것으로 입증된다.

탐라의 상위계층은 안정적인 철수입과 선진문물을 도입하고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한반도 남부지역의 제소국과 교섭을 갖고 다원적인 외교활동을 지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거점취락, 외도동식토기, 곽지리식토기, 탐라정치체, 마한계토기, 소가야계토기

I. 머리말

고고학적으로 毀羅時代는 郭支貝塚 출토 일상토기인 赤褐色硬質土器의 하위 토기 양식을 기준삼아 전기와 후기로 크게 구분된다.¹⁾ 그리고 전기는 郭支里式土器, 후기는 高內里式土器를 標識로 논의되고 있다. 즉 탐라시대 전기와 후기는 대표적인 토기양식인 두 토기의 성행단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최근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곽지리식토기에 선행하는 外都洞式土器와 후출하는 終達里式土器가 인지되면서 탐라시대 전후기의 시대폭이 구체적으로 정립되는 분위기이다.

탐라시대 이전의 형성단계는 毀羅形成期²⁾, 毀羅成立期³⁾, 古毀羅時代⁴⁾ 등

1) 탐라시대는 이전까지 전기(0~500년)와 후기(500~900년)로 구분하고 있다(李清圭, 『濟州島考古學研究』, 學研文化社, 1995).

2) 강창화, 「古代 毀羅의 實體와 物資의 交流」, 『동아시아 역사상과 우리문화의 형성』,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2005.

3) 金慶柱, 「毀羅成立期 聚落의 形成과 變遷」, 『湖南考古學報』22輯, 湖南考古學會, 2005.

4) 이종철, 「제주도 송국리형취락의 특징과 시기 구분」, 『韓國青銅器學報』第21號, 韓國

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칭은 시대구분을 위한 용어로는 적절치 못하다. 특히 한국 고고학의 시대구분과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사적 연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⁵⁾ 탐라시대 전기는 선진문물과 철수입의 권한을 독점한 수장층의 출현, 원거리 교역의 중심邑落인 위계화된 거점취락의 조성, 철제 무기류와 같은 다량의 위신재가 매납된 상위 계층의 개인묘역 축조 등을 근거로 획기를 구분할 수 있다.⁶⁾

최근 탐라고고학의 진전된 연구성과를 반영하면 탐라시대는 대체로 3~9세기경에 해당한다. 또한 전후기의 전환기는 6세기 후반~7세기 전반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⁷⁾ 이와 같이 기존의 편년안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탐라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토기양식인 곽지리식토기에 대한 新年代가 적용되면서 시작되었다.⁸⁾ 신연대 적용 이전까지는 곽지폐총 출토 군곡리식 찰문토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⁹⁾과 교차편년에 전적으로 의존¹⁰⁾했기 때문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곽지리식토기와 동반되는 양이부호의 중심연대는 4~5세기에 해당하며 탐라시대 전기의 이른 시기에는 화순리식토기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된 외도동식토기가 표지적이다.¹¹⁾ 이를 참고하면 탐라시대 전기의 토기는 외도동식과 곽지리식토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외도동식토기는 타날문토기의 제작방식을 일부 차용¹²⁾한 것으로 신

青銅器學會, 2017.

- 5) 본고에서는 탐라시대 전기 문화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앞선 단계의 시대구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다만 청동기시대 이후와 탐라시대 전기 이전은 철기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6) 金慶柱, 「耽羅의 對外交流와 活動-文獻 史料와 考古學 資料의 活用」, 『제주도, 탐라의 형성과 발전』, 제25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 호남고고학회, 2017, 128-129쪽.
- 7) 金慶柱, 앞의 논문, 2017.
- 8) 김경주, 「고고학으로 본 고대 탐라」, 『섬, 흙, 기억의 고리』, 국립제주박물관, 2009, 173쪽.
- 9) 군곡리폐총 출토 경질찰문토기의 기종은 삼발형, 호형, 옹형, 시루 등이 확인될 뿐 양이부호는 포함되지 않는다(崔盛洛, 『韓國 原三國文化의 研究』, 學研文化社, 1993, 157-158쪽).
- 10) 李清圭, 앞의 책, 1995, 173쪽; 강창화, 「고대 탐라의 대외 물자교류」, 『제주학과 만남』, 2010, 46-47쪽.
- 11) 김경주, 「龍潭洞 鐵器副葬墓와 그 被葬者の 性格」, 『人類學 考古學 論叢』, 嶺南大學校 文化人類學科 40周年 記念論叢, 2012, 410쪽.
- 12) 韓志仙, 「土器를 통해서 본 百濟 古代國家 形成過程 研究」, 中央大學校 碩士學位論

제도기술의 도입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외도동식토기의 속성은 화순리 단계의 토기에서 일부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1세기대 이후 무문토기 제작수법에서 벗어나는 형태가 출현하고 3세기를 전후해서는 성형방법이 발전하면서 토기조합이 획일화된다. 제도기술의 변화는 외도동식토기의 생산과정이 가내 수공업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취락내 장인집단에 의해 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토기생산 공정의 획기적인 전환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사회 구조의 변동으로 연결된다.

최근 탐라전기의 물질문화에 대한 검토¹³⁾가 이루어진 바 있지만 구체적인 고고학적 특징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송국리문화의 변천과정에서 비롯된 주거형태와 토기양식에 대한 개략적인 고찰에 그치고 사회구조와 물질문화의 변천양상을 명쾌하게 설명하는데 부족하다. 탐라정치체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동시기 대표적인 취락구조와 토기양식을 함께 살펴 구체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外來遺物과 현지 재현품을 파악하여 대외교류의 양상과 함께 상위계층의 위계성을 파악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탐라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토기양식은 크게 외도동식토기와 꽈지리식토기로 대별된다. 후술하겠지만 타날문토기와의 동반 출토 양상을 보면 전자가 선행하는 형식으로 추정되지만 양식적 변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탐라시대 전기에 출현하는 새로운 토기는 생산체제의 변화를 시사하며 무문토기와는 다른 기술체계의 발전과 대량생산 체제로의 전환은 결국 취락내 상위계층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¹⁴⁾

본고에서는 탐라시대 전기의 문화를 밝혀내기 위해 동시기 취락구조를 고찰하고 토기 양식의 형성과 변천양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탐라의 영역내에서 출토되는 외래계 교환 토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탐라 전기의 대외교류 양상도 추적해보기로 하겠다. 탐라 전기의 문헌자료가 매우 영성하기 때문에 고고자료를 검토하고 당시의 사회구조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의

文, 2003, 26쪽.

13) 박경민, 「탐라전기의 물질문화,, 『제주도, 탐라의 형성과 발전』, 제25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 호남고고학회, 2017.

14) 金慶柱, 앞의 글, 2017.

미있고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따라서 탐라 전기 취락사회의 성격과 대외관계를 파악하므로서 동시기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다양한 정치체와의 교류양상을 규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II. 據點聚落의 出現과 成長

1. 據點聚落의 出現

탐라시대 전기의 취락은 대부분 제주 서북부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외도동취락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중심취락이 집중된 곳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동시기 취락이 다수 조성되었지만 거점취락으로 규정할만한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 취락의 표지적인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원형계가 암도적이며 아직까지 방형계 주거형태는 조사된 바 없다. 구체적으로 주거구조를 살펴보면 중앙부 양단에 중심주혈을 설치하거나 초석을 배치한 형태, 복잡한 내부구조를 갖춘 형태, 그리고 주거지 중앙의溝와 연결되는 壁溝를 설치한 형태, 무시설식 등 매우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특히 중앙부 양단에 초석을 배치하고 방사상으로 土積施設을 조성한 특수목적의 소위 외도동식주거지가 출현하는 점이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청동기시대 후기 이래 송국리형주거지 일색이던 제주지역은 서남부지역으로 파급된 후 지역화된 형태로 변화된다. 하지만 기원전 1세기 대 이후 주거지 내부 구조는 급격한 변천과정을 거치는데 대체로 내부 중앙부의 양단 주혈배치를 기본으로 하는 전형적인 송국리형주거 형태에서 벗어난 비전형적인 형식이 축조되기 시작한다.¹⁵⁾ 예를들면 주거지 내부 타원형 구덩이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양단 주혈배치가 일정치 않고 비대칭적으로 조성되기도 한다. 이로 보건대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전통은 서남부지역의 지역색을 갖춘 주거형태의 변천과정에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3세기대 접어들면 원형계가 지속되지만 기존의 주혈

15) 김경주, 「제주도의 초기철기문화」, 『제주도 청동기~초기 철기문화의 전개양상』, 국립제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청동기학회, 2016, 105쪽.

주거구조	주거형태	유적명
특수목적 주거지		외도동
		외도동
일반 주거지		용담동
		외도동

〈그림 1〉 탐라 전기의 주거지

다. 이러한 주거형태의 다양화는 결국 취락내 계층구조의 형성과 함께 위계화된 취락임을 의미한다.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 변화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남 서부지역의 예를보면 4세기 4/4분기까지는 방형계가 확인되지 않고 원형계가 대부분¹⁶⁾이며 5세기 1/4분기에 방형계가 등장하지만 5세기 2/4분기까지도 원형계가 여전히 점유율이 매우 높다. 경남 동부지역이 3~4세기대부터 방형계 주거지 일색인 것과는 비교되는 지역색을 보여주고 있다.¹⁷⁾ 반면에 전남 동부권의 주거지 평면형태는 대체로 섬진강유역과 동부해안권(여수·순천·광양)에서 원형계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부해안권에서 5세기 1/4분기까지 원형계 주거지가 지속되고 있다.¹⁸⁾

배치는 대부분 床面에 막바로 위치하거나 磁盤을 배치하여 그 위에 얹는 형태로 발전한다. 이와 같이 주거지 내부의 기둥배치가 수혈식→지상식으로의 전환은 상부 가구배치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생활환경과 주거구조의 개선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이해된다.

외도동식주거지는 내부구조가 매우 복잡한 형태의 주거구조로 출현한다. 이 밖에도 평면형태는 동일하지만 내부 시설이 전혀 배치되지 않거나 중심 주혈의 배치가 비대칭적이고 불규칙적인 형태가 다수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시기 주거형태는 다양하게 축조되기도 하지만 복잡한 구조의 주거구조와 비교적 단순한 형태가 공존하는 셈이

16) 權貴香, 「洛東江 以西地域 三國時代 住居址의 展開樣相」,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2, 88쪽.

17) 魏陽根, 「慶南地域 加耶時代 住居址에 대한 研究」, 慶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6, 72쪽.

18) 韓銳善, 「전남 동부지역 1~4세기 주거지 연구」, 順天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0, 87쪽.

최근 주거형식과 정치체의 영역을 연계하여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예컨대 낙동강 동안지역은 원형과 방형계의 평면형태 변화가 진행되면서 방형계로 정착되는데 서안지역은 원형계의 비율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전개양상은 동안지역이 사로국의 소국병합으로 인해 평면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서안지역은 6가야 연맹체이기 때문에 평면형태가 지속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은 변화양상은 문헌기사에 등장하는 동성왕 20년(498)의 무진주 친정설과 관련하여 고고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동성왕이 탐라(탐모라)를 정벌하기 위해 무진주에 진출했던 광주지역에는 3~4세기대 마한계 취락이 비교적 적고 대부분 5세기 이후 백제계 취락이 조성된다. 백제계 취락의 분포는 5세기 후반 동성왕의 무진주 친정 이후 직접 지배 영역으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하는 자료이다.²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정치체의 영역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변방지역까지는 적극적으로 파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남 동부지역의 원형계 평면구조는 이전부터 유지된 것일 뿐 가야지역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마한계의 4주식주거지와 가야토기의 유입은 상호 교류과정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에는 이곳이 마한의 변방으로서 백제의 영역화가 가장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²¹⁾

기원전 2세기대까지 제주 서남부지역권(화순·예래·강정)에서는 송국리형 주거지의 지역화를 공유한 동일한 취락이 병렬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기원전 1세기 이후 주거형태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며 3세기대 외도동식주거지와 같은 특수목적의 주거지가 출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탐라 전기에는 특수목적의 주거지와 일반적인 주거형태가 동시에 축조되고 이러한 차별성은 곧 위계화 혹은 계층화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일반적인 주거형태에 비해 특수목적의 주거지는 축조과정에서 많은 노동

19) 韓基民, 「영남지역 수혈식 건물지 연구」, 東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2, 81-82쪽.

20) 金承玉, 「취락으로 본 전남지역 마한 사회의 구조와 성격」, 『百濟學報』 11, 百濟學會, 2014, 64쪽.

21) 박미라, 「전남 동부지역 가야계토기 출토 주거지의 성격」, 『文化史學』 33, 韓國文化史學會, 2010, 81-82쪽.

력과 財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주거지가 보편적인 주거형태라고 본다면 특수목적 주거지는 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외도동취락내 수장층의 주거공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많은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외도동식주거지는 군집을 형성하지 않고 입지적 우월성이 드러나는 선택된 일정 공간에 단독적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특수주거지의 주변에는 정교하게 축조한 석조우물과 대규모 저장시설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탐라 전기의 대표적인 외도동식주거지를 송국리형주거지의 연장으로 이해하는 견해²²⁾가 있으나 지나친 논리적 비약에 다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형주거지는 가구배치상 중심 기둥 배치 구조가 필수적이며 앞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지상화되어 양단 초석을 얹는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이미 성행기의 송국리형주거지와 차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원삼국시대 이후 출현하는 경남 서부지역의 원형주거지 역시 구심구조를 갖는 형태²³⁾를 취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둥배치가 지상화되고 있다.

외도동취락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타원형구덩이와 내부시설이 전혀 없는 무시설식 주거지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구조의 형식학적 차이를 지역색으로만 논의하는 예²⁴⁾가 있지만 시간성을 간과한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외도동식주거지는 거점취락이 서북부권역으로 이동한 이후 축조된 것으로 시간성을 반영하는 주거형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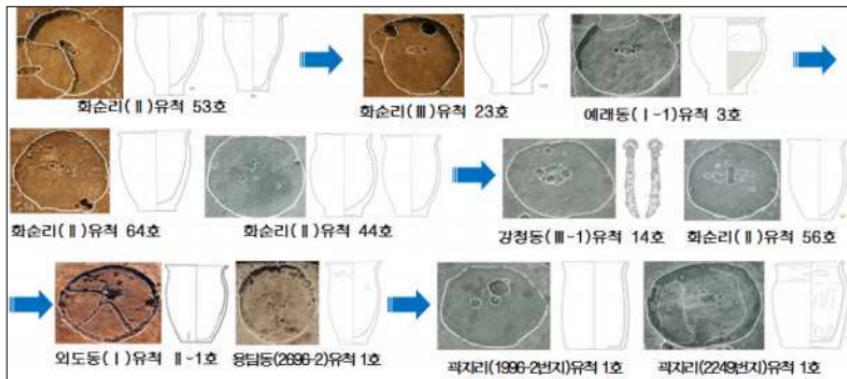
탐라 전기의 거점취락이 출현하기 이전 시기의 취락구조는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화순리취락이 대표적이다. 화순리취락은 광장을 중심으로 각각 주거, 생산, 제의, 분묘 공간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취락구조는 전 단계에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화순리유적의 성행기에는 일정한 분업화된 취락경관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복합적인 분묘의 단독적 축조는 상위계층의 출현을 의미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화순리취락은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위계화가 진행되는 단계에 해당하는 취락임을 추정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서남부권역의 화순리취락은 대외교류 과정에서 상위계층이 형성되고 위계화가 진행되는 중심취락으로 성장하게 된다.

22) 이종철, 앞의 논문, 2017.

23) 金羅英, 「嶺南地域 三韓時代 住居址의 變遷과 地域性」,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7; 趙泰熙, 「慶南地域 三韓: 三國時代 聚落研究」, 東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3.

24) 박경민, 앞의 논문, 77-78쪽, 2017.

탐라시대 전기에는 대규모 거점취락이 제주 서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축조되고 있다. 이처럼 거점취락의 이동은 철기시대 아래 급증한 대외교역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만조선의 멸망과 한군현의 설치로 漢의 선진문물이 남부지역으로 확산되는데 낙랑을 통해 발달된 철기와 선진문물이 도입되면서 이전 보다 대외교역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진한 지역은 목곽묘 축조단계인 2세기 중반부터 철광산이 개발되고 본격적인 철생산이 시작된다.²⁵⁾ 이로 인해 변진한 지역과 철을 매개로 한 교역과정에서 수장층이 출현하게 되고 한반도 서남부 지역 마한세력과의 원활한 교역체계를 개척하기 위해 해상 교통로상에 거점취락이 새롭게 조성된다. 논의를 참고하면 3세기 전후 새로운 주거형식과 전업생산 체제의 외도동식토기 출현, 철기부장묘의 축조, 계획된 거점취락의 조성, 대규모 토목공사의 시행은 동시기 탐라의 영역에서 급격한 문화변동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⁶⁾ 이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상위계층의 등장은 탐라시대의 획기를 구분짓는 고고학적 자료에 해당한다.



<그림 2> 철기~탐라시대 전기의 주거지 변천도

<그림 2>에서 철기시대 이후 주거형태와 토기의 변천양상을 살펴보면 화순리(Ⅱ)유적 44호주거지 단계부터 주거지 내부의 타원형구덩이와 중심주

25) 孫明助, 『韓國 古代 鐵器文化 研究』, 진인진, 2012.

26) 金慶柱, 앞의 글, 2017.

혈이 불규칙적으로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약저부 토기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전형적인 송국리형주거지에서 파생된 주거구조는 빠르게 재지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동반되는 토기 역시 저부 축약흔이 잔존하는 화순리식토기와 함께 축약흔이 소멸하면서 장동화되는 형태의 토기가 함께 확인되고 있다. 더 나아가 화순리(Ⅱ)유적 56호주거지 단계에는 중앙수혈의 양단에 초석과 주혈이 각각 배치된 형태가 출현한다. 이는 양단 주혈이 지상화되는 과정에 해당하며 동시기에는 저부축약 현상이 소멸된 토기들이 주체가 되고 있다.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면 화순리(Ⅱ)유적 56호주거지 단계부터는 외도동문화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강정동(Ⅲ-1)유적 14호주거지에서는 환두소도가 출토된 바 있다. 환두소도는 낙랑토성에서 확인²⁷⁾되며 특히 낙랑고분에서는 철장검과 동반 부장되는 사례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보면 낙랑군 설치와 함께 서북한 지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⁸⁾ 그러나 한군현의 축출 이후에는 한반도에 더 이상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또는 한군현과 관련된 계층의 소유물로 파악하기도 한다.²⁹⁾ 영남지방에서는 대형 목곽묘가 조영되면서 부장이 시작되며 대도의 출토량이 증가하는 3세기 후반에는 감소하기 시작한다.³⁰⁾

환두소도는 한군현 설치 후 유입되고 있고 영남지방의 사례를 참고하면 성행기는 1~3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강정동(Ⅲ-1)유적 14호주거지는 동시기의 주거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서남부권역에서 지역화된 송국리형 주거지는 1~2세기경 크게 변화과정을 거쳐 탐라 전기에 접어들면 외도동식주거지가 등장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서남부지역으로 파급된 송국리문화는 기원전 1세기 이후 급격한 변화 과정을 통해 재지화되고 1~2세기경 과도기를 지나 외도동식주거지로 전환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화 단계에 동반되는 토기는 대체로 저부축약 현상이 소멸된 형태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2세기

27) 정인성, 「낙랑 토성의 철기와 제작」, 『樂浪文化 研究』, 東北亞歷史財團, 2006, 148쪽.

28) 이나경, 「중부지역 출토 낙랑계토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6쪽.

29) 魯泰昊, 「原三國~百濟漢城期 中西部地域 鐵刀子의 變遷과 性格 研究」, 龍仁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4, 67쪽.

30) 林暎希, 「嶺南地域 原三國期 鐵劍·環頭刀의 地域別 展開過程」,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1, 56쪽.

이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지역에서 경질무문토기의 저부 축약현상이 소멸하는 것은 춘천 근화동유적 B구역 3호주거지 출토 외반구연옹을 참고하면 2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³¹⁾ 게다가 경질무문토기의 변천양상을 보면 타날문토기가 동반되는 2세기 중후반~3세기 전반경에는 구연부가 짧은 외반(10도 내외)→긴 외반(30도 이상)으로 변화되고 저부 축약흔이 축소된다.³²⁾

요컨대 3세기대 제주지역의 일상토기는 저부축약 현상이 소멸하고 판목압흔 성형수법을 활용한 외도동식토기로 전환되고 있다. 이처럼 동시기 새로운 토기의 출현과 함께 이전 보다 한층 발전된 특수목적 주거지의 등장은 위계화된 사회구조로의 변화를 시사한다.

2. 據點聚落의 成長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탐라시대 이전의 취락은 대부분 서남부권에 위치한다. 그리고 1~2세기대 주거형태는 지상식의 주혈배치 구조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2세기 중후반대 이후에는 신기종의 토기가 출현하면서 서북부권(용담동, 외도동, 하귀리, 꽈지리)으로 취락의 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게 된다. 물론 서남부권역에도 동시기 취락이 존재하지만 이전 단계의 거점취락은 축소되고 특정 목적의 소규모 취락으로 전락하게 된다.

예래동유적의 구획구로 둘러싸인 굴립주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水邊祭儀와 관련된 곳으로서 신성시되던 건물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석축은 방어의 개념이면서도 경계, 구획, 위계 등을 상징하는 고고학적 시설물이다. 특히 대규모 노동력이 투입되는 방어시설과 취락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제의 공간은 취락 단위에서 관리,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³³⁾

주거군의 변화와 배치는 취락내 위계를 반영하며 각 주거군에서 위계가 높은 주거는 광장과 인접하거나 취락내 중심에 위치한다. 즉 상위취락은 저장, 매장, 수공업 생산, 의례공간이 조성되며 이에 반해 중위취락에서는 저장, 대규모 매장공간이 관찰된다. 이외에 주거공간만 확인되거나 저장공간이

31) 沈載淵, 「嶺東·嶺西地域의 鐵器時代文化 研究」, 翰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1, 122쪽.

32) 韓志仙, 『 앞의 논문, 2003, 24~28쪽.

33) 송만영, 「청동기시대 취락 구조의 변화」, 『崇實史學』 33, 崇實大學校 史學科, 2014, 26쪽.

나 소규모 매장공간이 축조되는 경우는 일반취락으로 구분된다. 거점취락과 일반취락의 구분은 위계화된 취락의 중심권역에 읍락이 조성되고 정치체가 등장하기 때문이다.³⁴⁾ 이러한 맥락으로 보건대 대외교역의 중심취락과 달리 일반취락은 생산과 저장 위주의 주변취락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제주지역의 일반취락은 주거지가 확인된 예가 매우 적고 주로 저장혈을 중심으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취락이 기능별 입지의 유사성은 성립단계부터 입지선정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⁵⁾ 그렇다면 외도동과 용담동 일대 거점취락의 조성은 탐라 정치체의 중심지이며 대외교역의 거점과 밀접한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 한다. 이처럼 대외교역과 정치체의 중심에 형성된 취락은 위계화된 상위취락으로 해석된다.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탐라 전기에 조성된 서북부권역의 거점취락은 복수의 취락이 연계하여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3〉 탐라시대 전기의 거점취락 분포도

영남지방의 경우 3세기 후반 무렵 취락의 입지가 변화되고 대형취락이 등장하며 4세기대 이후에는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³⁶⁾ 이러한 동인에

34) 송만영, 2014, 앞의 글.

35) 공봉석, 「신라·가야 취락의 분화와 전개」, 『嶺南考古學』 73, 嶺南考古學會, 2015, 36쪽.

는 철제농기구의 발달과 보편화로 농업생산력과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증가 하였기 때문이다.³⁷⁾ 즉 4세기 이후 영남권역은 철기 대량생산체제로 전환되고 농경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혁신과 전업화된 생산체제는 정치 체의 권력에 의해 성립되었다.³⁸⁾ 영남권역 취락의 전개양상을 참고하면 외도동단계의 계획된 취락과 전업화된 토기생산체제로의 전환은 결국 탐라정치체의 상위계층 즉 수장층이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락내 수자원의 관리체계는 중앙집권적 정치조직과 관련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³⁹⁾ 예컨대 외도동과 하귀리취락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우물과 集水井 그리고 溝의 조성은 수자원과 연계된 유구에 해당하며 취락내 상위계층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외도동유적의 우물축조 양상을 보면 하단의 木造結構部를 제작하고 그 상부에 석조구조물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축조된 사례가 많다. 이와 동일한 형태는 백제 도성인 풍납토성내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대략 4세기 후반경으로 추정하고 있다.⁴⁰⁾

백제 왕실에서도 우물을 신성시 여겨 王都의 우물이라는 문헌기록이 남겨질 정도로 매우 중요시했음을 추정케 한다.⁴¹⁾ 특히 풍납토성 206호 우물 출토품을 살펴보면 광구장경호, 단경병, 횡병, 유공광구소호 등 주로 고분 부장품인 기종이 대부분이다. 풍납토성내 정교한 우물의 축조와 부장용 토기 매납행위는 왕실의 상위계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⁴²⁾ 이와 같은 의례과정을 보면 우물의 축조는 일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취락내 상위계층의 생활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외도동취락내 석조우물의 축조는 수장층과 관련된 특수시설로서 위계성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이다. 더불어 이러한 석조우물이 다수 축조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해적이며 당시 취락내 우물축조 기술자 집단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36) 공봉석, 앞의 논문 2015, 37쪽.

37) 이현혜, 「三國時代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 『韓國上古史學報』 8, 한국상고사학회, 1991.

38) 공봉석, 앞의 논문, 2015, 39~40쪽.

39)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김진준 역, 문학사상사, 2014, 31쪽.

40) 김도훈, 「風納土城 百濟 우물지에 관한 研究 試論」, 『白山學報』第84號, 白山學會, 2009; 황보경, 「한강유역 古代 우물에 대한 試論的 연구」, 『新羅史學報』 33, 신라사학회, 2015.

41) 이한솔, 「한성백제기 우물제사에 대한 고찰」, 仁荷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4.

42) 이한솔, 앞의 글, 2014, 25쪽.



〈그림 4〉 경계 석축유구(금성리)



〈그림 5〉 대형 건축물(하귀리)



〈그림 6〉 공공 건축물(하귀리)



〈그림 7〉 생산과 저장시설(하귀리)



〈그림 8〉 대형 석조우물(하귀리)



〈그림 9〉 외도동식주거리(외도동)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탐라 전기의 사회구조를 살펴보면 석축과 석조우물을 축조했던 토목기술자 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외도동식토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던 장인집단도 확인된다. 게다가 특수목적의 외도동식주거지와 대형 공공시설의 축조도 이루어진다. 이처럼 탐라 전기의 외도동식취락은 위계화된 취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배계층의 개인 유력묘인 적석목관묘가 특정 구역에 단독으로 조영되는 것은 바로 수장층의 존재를 상징한다. 고고학적으로 프레스티지(Prestige)는 소비자의 자기표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며 정보와 재화를 원활하게 교환하기 위해 威信財를 활용한다. 이러한 위신재는 희소성으로 인해 신분상징이나 위세강조에 적합하고 체제를 결속시키거나 통제하는데도 이용된다.⁴³⁾ 더 나아가서 수장 층의 상장의례는 지배층의 권력과 위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공공적인 행사에 해당한다.⁴⁴⁾

탐라정치체의 등장은 제주 서남부와 동북부지역의 이질적 집단을 단일 경제단위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거점취락내 계층구조의 위계화는 적석목관묘의 축조와 위신재인 철제 의기류를 다량 부장하는 상장의례의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상위계층의 특수목적 주거지 조성,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석축과 다양한 저장시설, 석조우물의 축조, 취락내 구획열 설치, 대규모 건축물의 조성은 위계성을 갖춘 취락을 상징하며 상위계층의 특수공간 조성과 함께 중심구역의 분리는 계층구조의 진전을 내포하고 있다.

國邑은 원래 일반 읍락과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국읍으로 성장하면서 土城과 같은 차별화된 시설물을 축조하게 된다.⁴⁵⁾ 외도동취락의 경우 취락의 중심부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석축이 조성되어 있는데 중심구역을 방어하고 그 경계를 구분짓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한 석축유구는 일반 읍락과는 구분되는 고고학적 증거임에 틀림이 없다.

외도동취락의 특수목적 주거지, 하귀리유적의 대형 건축물과 공동 창고군, 금성리와 외도동취락의 석축시설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노동력 동원이 요구된다. 이처럼 취락내 전문집단과 전체 구성원이 동원되는 토목사업의 진행은 상위계층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살펴보면 탐라시대 전기의 거점취락은 취락 구성원을 통제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위계체계가 갖추어진 국읍으로 성장하였음을 반증한다.⁴⁶⁾

요컨대 탐라전기의 거점취락은 방어용 석축, 저장용 공동 창고군, 대형 공동 건물지, 상위계층의 특수목적 주거지, 의례행위와 관련된 석조우물, 토기

43) 李晟準, 「漢城期 百濟 地域社會의 相互作用 研究」, 忠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4, 86-90쪽.

44) 브라이언 페이건 외, 『고대 문명의 이해』, 이청규 옮김, 사회평론, 2015, 152쪽.

45) 權五榮,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113쪽.

46) 權五榮, 앞의 글, 1996.

생산의 전문화와 통제, 대외교역의 중심 취락, 상위취락간 네트워크 형성 등 복합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탐라 전기의 취락은 복수의 취락으로 구성된 거점취락을 중심으로 대내적 교통로를 확보하고 대외교역을 추진하기 위한 위계화된 취락으로 성장하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취락내에는 토목기술자인 공인집단과 전업적인 토기제작을 위한 장인집단, 수공업 생산집단, 대외교역의 수행집단 등으로 이루어진 분업화된 사회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 분업화된 취락 구성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상위계층의 존재도 상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탐라 전기의 사회는 이전 단계의 분업화된 취락경관에서 더 나아가 대외교역의 확대로 인해 국읍으로 거론되는 거점취락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취락내 전문화된 기술집단의 존재와 상위계층의 출현은 위계화된 복합사회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탐라정치체의 상정을 입증해주기도 한다.

III. 土器 樣式의 形成과 變遷

1. 土器 樣式의 形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탐라 전기의 대표적인 토기 양식은 외도동식토기와 과자리식토기가 표지적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양 토기에 대한 특징을 검토하고 토기 양식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과자리식토기는 무문토기를 계승한 삼양동식토기와 외도동식토기를 포함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⁴⁷⁾ 하지만 최근 연구성과를 반영하면 적갈색경질토기⁴⁸⁾의 하위형식으로서 삼양동식→외도동식→과자리식토기로의 계

47) 李清圭, 앞의 책, 1995.

48) 적갈색경질토기는 경질무문토기 혹은 중도식토기와 맥락적으로 상통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삼국시대 이후의 토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는 후자의 두 용어가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적갈색경질토기는 탐라시대 전기(외도동식토기/과자리식토기)와 후기(고내리식토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김경주, 「濟州島 赤褐色硬質土器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35, 韓國上古史學會, 2001, 60쪽).

기적 발전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⁴⁹⁾ 여기서는 각 하위형식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꽈지리식토기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시도하고자 한다.

적갈색경질토기는 무문토기 제작수법을 계승하면서 타날문토기의 성형수법이 일부 채택⁵⁰⁾된 토기를 가리킨다. 따라서 무문토기에서 확인되지 않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관찰된다. 우선 외반구연호를 보면 최대경의 위치가 구연부에 위치하거나 동최대경과 비슷한 형태로 변화된다. 그리고 구연부의 외반정도가 강하게 변하면서 저부의 접합부는 판목압흔 정면수법이 적용되고 축약흔도 소멸한다. 즉 회전축을 이용한 제작방식⁵¹⁾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전축에 의한 판목압흔 성형은 타날문토기의 성형수법을 도입한 것으로 토기생산체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시사한다. 이처럼 적갈색경질토기의 제작은 무문토기와는 다른 기술적 생산체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철기시대 화순리단계의 토기 기종을 살펴보면 외반구연호, 파수부토기, 반형토기, 고배형토기, 개, 천발 등이 확인된다. 외도동식토기는 양이부호, 봉상절두형파수부토기가 새롭게 출현하며 꽈지리식토기는 파배와 원통형토기 등 현지 모방토기가 일부 추가될 뿐 대동소이하다. 파배는 백제와 가야 지역에서 제작되고 있는데 중심연대는 대체로 5세기 전반~후반경으로 편년되고 있다.⁵²⁾ 동반 출토된 원통형토기는 가야지역의 기대 혹은 영산강유역의 분주토기⁵³⁾를 재현한 것으로 추정되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

49) 金慶柱, 「三陽洞式土器의 始原에 對한 考察-外反口緣土器를 中心으로」, 『石心鄭永和 教授 停年退任紀念 天馬考古學論叢』, 2007, 202쪽.

50) 경질무문토기의 타날문토기 모방 현상을 보면 ①단순외반구연에서 30°이상의 외반구연화 ②동부의 팽창화 ③굽저부와 말각평저 및 원저식의 저부형태 ④격자타날문의 시문 ⑤저부 축약부의 목리조정 및 정지깍기 정면수법의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韓志仙, 앞의 논문, 2003, 26-27쪽).

51) 군곡리폐총 출토 경질찰문토기 단계(2세기 전반 이후)에는 물레성형이 발달되어 토기 기형의 대칭과 규격화가 진행된다(강귀형, 「군곡리 토기제작기술의 검토」, 『해남 군곡리폐총의 재조명』, 해남 군곡리폐총 벌굴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목포대학교박물관, 2016, 53쪽).

52) 河承哲, 「加耶西南部地域 出土 陶質土器에 대한 一考察」, 慶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1; 김규운, 「5~6世紀 小加耶附綴式 土器 設定」, 『한국고고학보』 76, 한국고고학회, 2010.

53) 林永珍, 「韓國 墳周土器의 起源과 變遷」, 『湖南考古學報』 17, 湖南考古學會, 2003.

적갈색경질토기의 기종에서 외반구연호는 구연부가 외반된 형태의 토기를 모두 괴자리식토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⁵⁴⁾ 하지만 필자는 최대경이 구연부에 위치하고 크게 외반되며 동체 최상위에서 강하에 내경하는 형식만을 괴자리식토기로 한정하여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구경과 동최대경이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장동화된 토기를 외도동식토기로 분류하였다.⁵⁵⁾

곽지폐총 5지구 출토 외반구연호는 최대경이 구연부에 위치하는 형식과 동최대경이 비슷한 형태가 동반 출토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괴자리식토기는 외도동식토기와 일정기간 병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괴자리식토기는 외도동식토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기종이 추가되는 양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괴자리식토기 중에 비교적 대형토기는 장동화 현상이 뚜렷하며 동최상위에서 강하게 내경하는 특징이 간취된다. 게다가 괴자리식토기 외반구연호는 대형토기에서 廣肩化 및 廣口外反化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토기는 출토양상과 기형을 보면 옹관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⁵⁶⁾ 이점은 3세기 중반 이후 전남지역 옹관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견부 상단에서 강하게 내경하다가 다시 외경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기 때문이다.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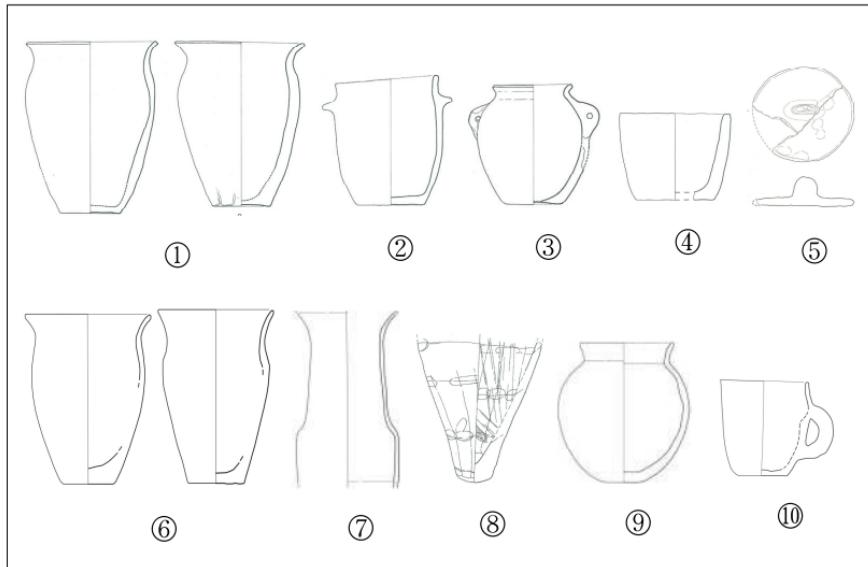
탐라의 영역에서 5세기대에는 파배와 원저구형단경호, 원통형토기 등 현지 재현토기들이 증가한다. 먼저 파배는 소가야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제주지역의 경우 舶載品은 아직 출토된 바 없고 괴지폐총 5지구에서 모방품(2점)이 확인된다. 백제지역의 경우 청주 신봉동고분군

54) 李清圭, 앞의 책, 1995.

55) 金慶柱, 앞의 논문, 2007, 202쪽.

56) 괴지폐총 5지구의 유물 출토 맥락을 보면 대형토기는 획치된 형태로 확인된다. 또한 일시적인 폐장유구로 추정(강창화, 「제주고고학 벌굴의 시발점이자 선사시대 편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 제주 서북부 괴지폐총」, 『제주학 산책』, 2012, 162쪽)하고 있고 동반되는 파배, 원통형토기, 양이부호 등은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는 점을 고려하면 분묘유적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원통형토기는 분묘 혹은 매장시설에서 출토되며 의례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신민철, 「곡교천일대 원삼국시대 원통형토기의 분포와 성격」,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79쪽).

57) 李暎撤, 「榮山江流域 蔡棺古墳社會의 構造 研究」,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1, 31쪽; 吳東蟬, 2008, 「湖南地域 蔡棺墓의 變遷」, 『湖南考古學報』 30, 湖南考古學會, 128쪽.



〈그림 10〉 西道동식토기(①~⑤)와 곽지리식토기(⑥~⑩)의 대표 기종

이 집중적으로 조성되는 시기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분묘 조영과 연관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⁵⁸⁾

곽지폐총 출토 파배⁵⁹⁾는 소가야지역과 비교하면 대략 5세기 1/4~2/4분기에 성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⁶⁰⁾ 동시기에 원통형기대가 동반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곽지폐총 출토 원통형토기 역시 모방품으로 추정된다. 소가야의 파배는 5세기 전반경 구경이 동최대경 보다 크고 D자형 파수가 부착된다. 그리고 5세기 중반⁶¹⁾ 내지 후반에는 동체부가 직선→곡선적⁶²⁾으로 변한다.⁶³⁾ 이를 참고하면 곽지폐총 5지구 출토 파배는 동체가 곡선형으로 변화되기 이전으로 원통형토기와 함께 5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점에 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58) 尹大植, 「淸州地域 百濟杷杯의 型式과 用度」, 忠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4, 38쪽.

59) 이와 동일한 형태는 가야계주거지에서 출토례가 많다(魏陽根, 앞의 논문, 2016, 54-55쪽).

60) 김규운, 앞의 논문, 2010, 18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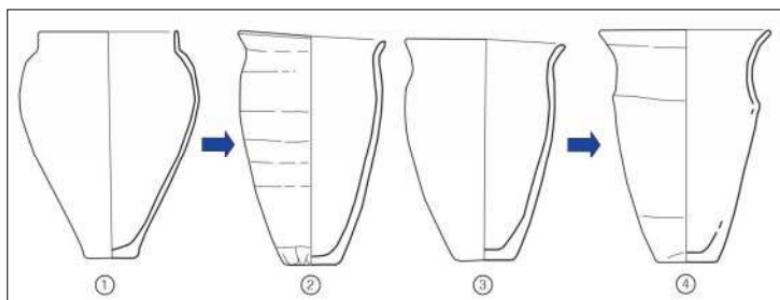
61) 金奎運, 「考古資料로 본 5~6세기 小加耶의 變遷」,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9.

62) 함안(아라가야)지역 파배의 변화양상도 대동소이하다(李政根, 「咸安地域 古式陶質土器의 生產과 流通」,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6, 45-47쪽).

63) 河承哲, 앞의 논문, 2001.

영산강유역은 함평 중랑과 장흥 상방촌에서 4~5세기 중반경 출현하며 외래토기의 영향으로 인식하고 있다.⁶⁴⁾ 이 밖에도 청주 신봉동고분군에서 유행하는 파배는 5세기 후반경 등장하며 가야계 파배와 함께 공반된다.⁶⁵⁾ 강원지역도 4세기 후반~5세기 중반대 영남지방에서 유입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⁶⁶⁾ 논의를 정리해보면 호남지역과 강원지역 출토 파배는 공통적으로 4~5세기 중반경 영남지역으로부터 유입되었다고 인식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외도동식토기와 꽈지리식토기는 외반구연호로 대표되는 기종을 공유하면서 일부 기종이 추가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전개양상과 달리 器高 40cm 이상의 대형토기는 외도동식과 꽈지리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양동식토기<그림 11-①>는 구연부가 직립하거나 내경하지만 외도동과 꽈지리식토기는 외반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꽈지리식토기는 최대경이 구연부에 위치하며 경부 최상단에서 강하게 내경한 후 다시 길게 밖으로 벌어지는 특징이 간취된다.



〈그림 11〉 대형토기의 변천 (①삼양동 ②외도동 ③용담동 ④꽈지리)

-
- 64) 정현, 「韓半島 中·西南部地域 原三國~三國時代 柏杯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68-69쪽.
- 65) 김낙중, 「토기를 통해 본 고대 영산강유역 사회와 백제의 관계」, 『湖南考古學報』 42, 湖南考古學會, 2012, 103쪽.
- 66) 李盛周·姜善旭, 「草堂洞遺蹟에서 본 江陵地域의 新羅化 過程」, 『강릉 초당동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9, 471-474쪽; 朴守榮, 「4~5世紀 嶺東地域의 考古學的研究-住居址와 墳墓資料를 中心으로-」,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0, 58쪽.



〈그림 12〉 토기저면의 회전축흔

하면서 크게 외반되는 특징이 추출된다. 이러한 기형과 성형수법의 상이성은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곽지리식토기에서는 성형시 점토판을 고정했던 회전축흔이 확인된다. 그림 12)의 토기 바닥면을 보면 梯形틀에 고정했던 흔적이 잔존하고 있다. 이는 곽지리식토기가 회전대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회전성형법은 외도동식토기 단계에 이미 도입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외도동식토기 단계가 되면 대체로 좌우 대칭적인 토기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평 대성리유적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중도식토기의 외반각도가 강화되고 동최대경이 상위로 이동하며 굽상저부가 소멸하면서 흔적만 잔존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⁶⁷⁾ 경질무문토기도 구연부가 짧은 외반→긴 외반으로 변화되고 저부 축약흔이 축소된다. 3세기 중반경에는 동최대경이 중위→상위로 이동하면서 장동화되고 있는데 동반되는 심발형과 장란형토기를 모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⁶⁸⁾ 외도동식토기 역시 굽상저부의 소멸, 외반각도의 강화, 동최대경의 이동, 축약저부의 소멸 등은 경질무문토기의 변천 양상과 궤를 같이 한다.

지금까지 논의로 보건대 3세기를 전후하여 한반도 중부와 남부지역의 경질무문토기는 타날문토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원지역 경질무문토기의 저부 축약현상이 소멸하는 것은 2세

용담동(2696-2번지)유적 11호 수혈유구 출토 대형토기(기고 46.0cm, 그림 11-③)는 외도동식토기와 함께 연질계 원저편구호, 봉상절두형파수부토기 등이 동반되는 점을 고려하면 외도동단계에 해당한다. 외도동 II-2구역 11호 수혈유구 출토 토기(기고 53.5cm, 그림 11-②)와 기형상 유사한 점도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이에 반해 곽지폐총 5지구 출토 대형토기(기고 42.2cm, 그림 11-④)는 경부에서 강하게 내경

67) 김일규, 「단계설정과 편년」, 『가평 대성리유적』, 京畿文化財研究院, 2009, 182-184쪽.

68) 韓志仙, 앞의 논문, 2003, 24-28쪽.

기 전반경으로 추정되고 있다.⁶⁹⁾ 화순리단계까지도 축약흔이 잔존하는 가운데 일부 소멸하는 토기들이 병행하지만 외도동단계는 축약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외도동단계에 축약현상이 완전히 소멸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3세기 이후로는 회전과 판목압흔 성형수법이 일반화된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이처럼 경질무문토기의 변화과정과 함께 전남 동부지역의 경우 3세기대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로 전환되는 점⁷⁰⁾을 감안하면 외도동식토기의 初現은 결국 2세기 후반~3세기 전반경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곽지폐총 7지구의 조사결과 전형적인 곽지리식토기 포함층에서 동반되는 외래토기는 대부분 경질계 타날문토기가 주체적이다. 이는 경질계토기의 성행기와 맞물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호남지역의 경우 4세기 후반 이후에 경질 타날문토기가 크게 성행⁷¹⁾하는 점을 고려하면 곽지리식토기의 중심연대는 이보다 다소 늦은 5세기대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외도동식과 곽지리식토기는 일부 대형토기에서 구분될 뿐 일반적인 토기에서는 양식적 변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형식학적 분류가 어렵다. 요컨대 곽지리식토기는 외도동식토기와 병행하는 토기로 기종분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토기 양식의 성립은 정치체의 형성과 관계가 있고 분포권은 영역을 보여주며 양식의 통합은 사회통합과 연동된다.⁷²⁾ 그렇다면 양식적 분포는 정치체의 영역과 교역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에 해당한다. 예컨대 가변성이 높은 화순리식토기에 비해 외도동식토기는 대체로 양식적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수법에서 획일성이 간취되고 있다. 토기의 양식과 정치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외도동식토기 단계는 최소한 단일 정치체의 형성과 사회통합을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구조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9) 沈載淵, 앞의 논문, 2011, 122쪽.

70) 朴美羅, 「全南 東部地域 1~5世紀 住居址의 變遷樣相」, 『湖南考古學報』 30, 湖南考古學會, 2008, 57쪽; 韓銑善, 앞의 논문, 2010, 56쪽.

71) 이지영, 「호남지방 3~6세기 토기가마의 변화양상」, 『湖南考古學報』 30, 湖南考古學會, 2008.

72) 朴升圭, 「加耶土器 樣式 研究」, 東義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0, 215-216쪽.

2. 土器 樣式의 變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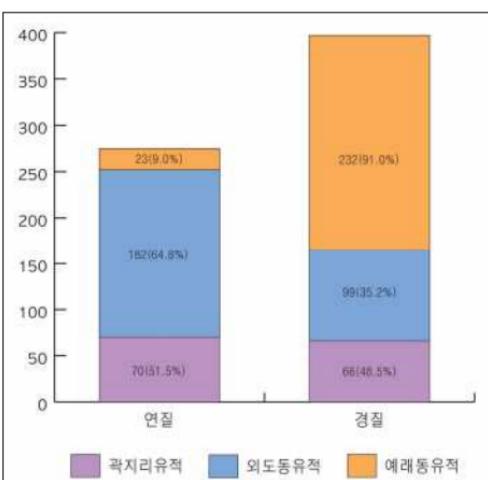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탐라시대 전기의 토기양식은 외도동식토기와 곽지리식토기로 대표된다. 본고에서는 두 양식의 토기와 동반되는 외래계 유물을 통해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곽지리식토기의 전환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제주지역에서 출토된 타날문토기의 연/경질도를 분석해보면 다음의 <표 1>, <그림 13>과 같다.

<표 1> 제주지역 출토 타날문토기의 연/경질도

유적명	연질	경질	합계(%)
곽지리	70(51.5)	66(48.5)	136(100)
외도동	182(64.8)	99(35.2)	281(100)
예래동	23(9.0)	232(91.0)	255(100)
합계	275(40.9)	397(59.1)	672(100)

탐라시대 전기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타날문토기를 살펴보면 곽지리와 외도동은 모두 연질토기가 경질계 보다 점유율이 높게 확인된다. 세 부적으로는 곽지리보다 외도동유적에서 연질계의 비율이 다소 높다. 이를 감안하면 외도동이 곽지리단계에 선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곽지리식토기는 외도동식토기와 병행하거나 계기적으로 발전된 형태의 속성을

갖춘 토기에 해당하며 광의의 개념에서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두 양식 토기는 형식학적 구분이 어렵고 기종구성과 제작방식에서도 상이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탐라시대 전기의



<그림 13> 유적별 타날문토기 연/경질 분포도

일상토기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예래동유적에서는 경질계의 비중이 급증하기 때문에 전술한 유적과 시간축의 상대서열이 가능하다. 연질토기의 점유율이 높은 외도동과 괴지리 유적의 중심연대가 예래동에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MS 분석에서도 전자가 선행하는 연대관을 보여주고 있어 참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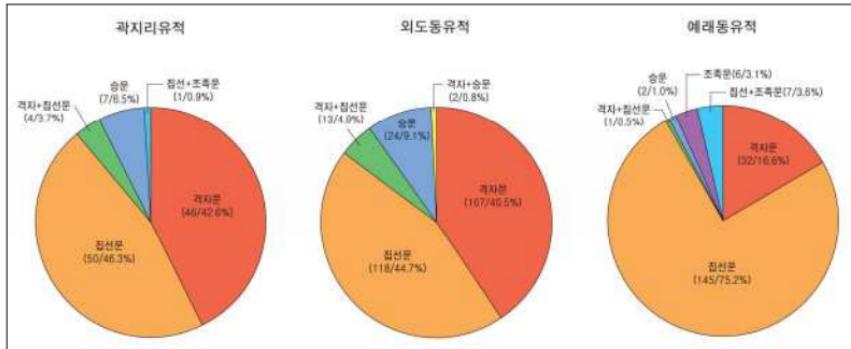
제주지역 타날문토기의 문양 분포⁷³⁾를 살펴보면 <표 2>, <그림 14>와 같다. 이를 참고하면 외도동과 괴지리는 격자문과 집선문이 높게 확인되고 있다. 반대로 예래동유적에서는 격자문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지만 집선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예래동유적(Ⅲ구역)은 AMS 분석결과 82값이 대체로 A.D. 340~ 660에 모두 풀롯되고 있다. 그리고 동반되는 타날문토기(255점)는 연질 23점(9.0%), 경질 232 (91.0%)점으로 경질계가 주류인 점을 고려하면 탐라 전기의 늦은 단계로 구분된다. 또한 문양별로 분류해 보면 집선문 145(75.1%)점, 격자문 32(16.6%)점, 조족문 6(3.1%)점, 집선+조족문 7(3.6%)점, 승문 2(1.0%)점, 집선+격자문 1(0.5%)점이 확인된다. 격자문의 비율이 축소되는 점도 탐라 전기의 이른 시기 유적과는 대조적이다.

예래동에서는 수혈유구가 크게 2개의 군집을 형성하며 축조되었는데 출토 유물의 조합상을 보면 외반구연옹과 심발형토기, 봉상절두형 파수부토기, 타날문토기 등이 동반되고 있다. 특히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옹은 구연부의 외반정도가 매우 약화되거나 직립구연에 가깝고 심발형토기 역시 고내리식 토기로 전환되는 단계의 과도기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경질계 타날문토기의 점유율이 매우 높고 조족문과 승문이 확인되지만 집선문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제주지역 출토 타날문토기의 문양별 분류

유적명	격자문	집선문	격자+집선문	승문	격자+승문	조족문	집선+조족문	합계(%)
괴지리	46(42.6)	50(46.3)	4(3.7)	7(6.5)	0(0.0)	0(0.0)	1(0.9)	108(100)
외도동	107(40.5)	118(44.7)	13(4.9)	24(9.1)	2(0.8)	0(0.0)	0(0.0)	264(100)
예래동	32(16.6)	145(75.2)	1(0.5)	2(1.0)	0(0.0)	6(3.1)	7(3.6)	193(100)
합계	185(32.7)	313(55.4)	18(3.2)	33(5.8)	2(0.4)	6(1.1)	8(1.4)	565(100)

73) 타날문토기는 완형의 개체수가 적어 구체적인 기종분석은 어렵지만 문양분석을 통해 유적별 전개양상은 개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4〉) 제주지역 유적별 타날문토기 문양 분류도

한편 호남지역의 예를 보면 격자문타날 일색이지만 5세기 중반 이후 백제의 영향⁷⁴⁾으로 승문타날이 등장한다.⁷⁵⁾ 그리고 4세기 후반 이전까지는 연질계가 압도적이며 무문과 격자문이 주류이고 집선문에 비해 격자문의 비율이 높다. 4세기 후반~5세기 후반에는 경질계토기가 증가하지만 여전히 격자문이 높게 확인된다. 하지만 5세기 말 이후에는 집선문과 승문의 비율이 높게 출토된다.⁷⁶⁾

전북지역은 3세기 전반~4세기 중반까지는 연질계가 우세하지만 4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경질계 토기가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승문계 문양이 등장한다.⁷⁷⁾ 이와 같이 전북지역으로 확산된 승문계 타날문이 영산강유역으로 파급되는 것은 다소 늦은 5세기 중반경에 해당한다. 전남 동부지역은 5세기대 회청색경질토기가 급증⁷⁸⁾하는데 영산강유역에 비해 다소 늦다. 강원지역도 5세기 후반경이 되면 격자타날은 소멸하고 승문과 집선문 타날로 대체된다.⁷⁹⁾ 전남동부와 강원지역의 예를 참고하면 제주지역도 경질계 타날문토기

74) 5세기 후반 백제의 웅진천도와 함께 중서부 내륙은 승문계가 주를 이루게 된다(成正鏞, 「錦山地域 三國時代 土器編年」, 『湖南考古學報』 16, 湖南考古學會, 2002, 68쪽).

75) 박순발, 「土器相으로 본 湖南地域 原三國時代 編年」, 『湖南考古學報』 21, 湖南考古學會, 2001, 96쪽.

76) 이지영, 앞의 논문, 2008.

77) 金垠井, 「湖南地域의 馬韓 土器·住居址 出土品을 中心으로」, 全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7, 81-82쪽.

78) 朴美羅, 앞의 논문, 2008, 53쪽.

79) 李昌鉉·辛裕梨, 「嶺東地方 三國時代 住居址 試論」, 『文化史學』 33, 韓國文化史學會,

의 중심연대는 대략 5세기쯤에 해당하며 승문타날이 제주지역으로 확산되는 시기는 5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된다.

외도동식토기와 동반 출토되는 타날문토기는 연질계토기의 비율이 높고 격자문이 우세한 점을 고려하면 중심연대는 4세기 후반 이전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전남지역에서 연질계 소성의 편구원저단경호는 3~4세기 중반까지 성행하며 4세기 중반 이후에는 경질계 타날문토기가 증가하면서 구형원저단경호가 성행하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⁸⁰⁾ 괴지폐총의 양상을 살펴보면 경질계토기의 점유율이 외도동에 비해 높게 확인된다. 또한 동반되는 양이부호, 원통형토기, 파배는 대부분 4~5세기에 위치한다. 그러나 승문과 조족문의 비율이 낮은 점으로 미루어 보면 5세기 말 이후로는 영산강유역과의 교류가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호남지방의 취락에서 출토된 토기의 변천양상을 살펴보면 대체로 3세기대의 호형토기는 연질계의 편구형이며 주로 집선문과 격자문이 시문된다. 5세기대는 경질화되고 동체가 구형 혹은 장동화되며 승문 타날의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이 간취된다.⁸¹⁾ 특히 영산강유역은 5세기 전반~중반경까지 격자계가 잔존하지만 5세기 중반~후반경에는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⁸²⁾ 이로 보건대 예래동유적에서 격자문이 급감하는 현상은 영산강유역의 격자계 소멸과 연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강원 영동지역과 호남지역에서 공통적으로 5세기 중반경 격자계→승문(집선문)계로 전환되는데 제주지역도 5세기 중반~후반경에는 승문계토기가 파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도동식과 괴지리식토기 단계의 타날문토기는 격자계가 압도적이며 승문계의 비율이 낮게 확인되는 점은 이러한 고고학적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탐라 전기의 대표적인 토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외도동식토기 전통이 계속 유지되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괴지리식토기의 일부 기종이 추가되거나 변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6세기 이후 괴지리식토기는 전형

2010, 51-52쪽; 李盛周·姜善旭, 앞의 논문, 2009, 476쪽.

80) 이은정, 「全南地域 3~6世紀 住居址 研究」, 『湖南考古學報』 26, 湖南考古學會, 2007, 46-47쪽.

81) 이영철, 「紀元後 3~5世紀代 湖南地方 聚落別 編年 檢討(II)」, 『研究論文集』 2, 湖南文化財研究院, 2002.

82) 박순발, 『백제토기 탐구』, 주류성, 2006, 131-132쪽.

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양식이 등장하는데 동반유물을 검토하여 고내리식토기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연구자별 경질무문토기의 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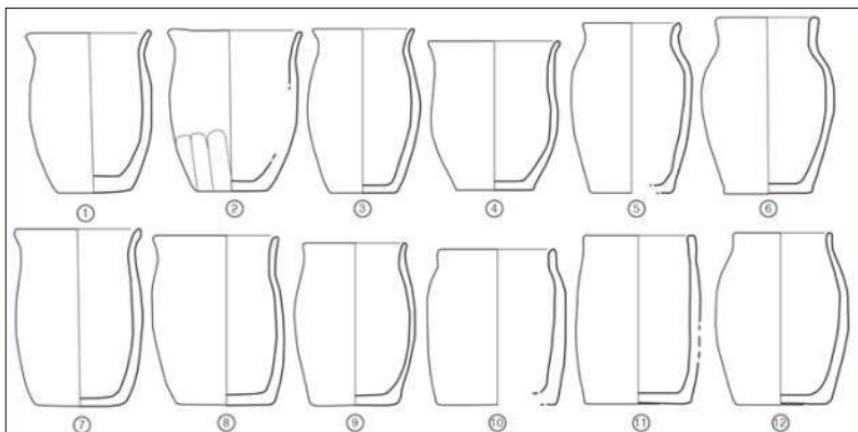
연구자	4세기			5세기	
	전반	중반	후반	전반	후반
강세호	●				
이승재	●				
신연식	●				
성정용	●				
이동희	●				
전동현			●		
정종태			●		
심재연				●	
박수영				●	
차우근				●	
이형주				●	
신종환				●	
박중국					●
이창희					●
강선욱					●
한윤선					●
이성주					
하진영					●

최근 중도식토기와 주거지는 북한강과 남한강 상류에서 6세기까지 지속된다는 견해가 있다.⁸³⁾ 그렇지만 <표 3>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경질무문토기는 4세기 중후반~5세기 전반경 소멸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동시기에 경질계 타날문토기가 보편화되는 양상을 고려하면 대체로 5세기 중반경에는 모방 혹은 절충형의 양식적 속성을 갖춘 토기가 잔존하더라도 전형적인 중도식토기는 소멸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서 경질무문토기는 5세기 중반을 전후해서 대부분 소멸하는 것으로 추정

83) 李盛周, 「철기시대 東北亞 제 지역사회와 技術革新과 社會變動」, 『先史와 古代』 38, 韓國古代學會, 2013, 209쪽.

된다. 곽지리식토기 역시 6세기대 접어들면 과도기적 양상의 토기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림15)는 종말기의 곽지리식 혹은 전환기의 종달리식으로 분류되는 토기이다. 대체로 이러한 토기양식은 백제 말기~통일기 제도기술의 영향으로 추정되며 과도기적인 형식인 소위 종달리식토기로 명칭된다.⁸⁴⁾ 이처럼 전환기의 곽지리식토기는 구연부의 외반정도가 완만하면서 약화되고 구경과 저경이 비슷하게 변화되며 전체적으로는 고내리식토기와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 전환기의 토기

(①~③곽지리 ④예래동 ⑤⑥상모리 ⑦외도동 ⑧⑨화순리 ⑩⑪종달리 ⑫고내리)

한편 전환기에 해당하는 종달리패총(2·3지구) 7~8층 출토 유물조합상을 살펴보면 먼저 토기는 소위 종달리식토기가 주류이며 장신화된 柳葉逆刺式과 已頭形鐵鎌이 동반 출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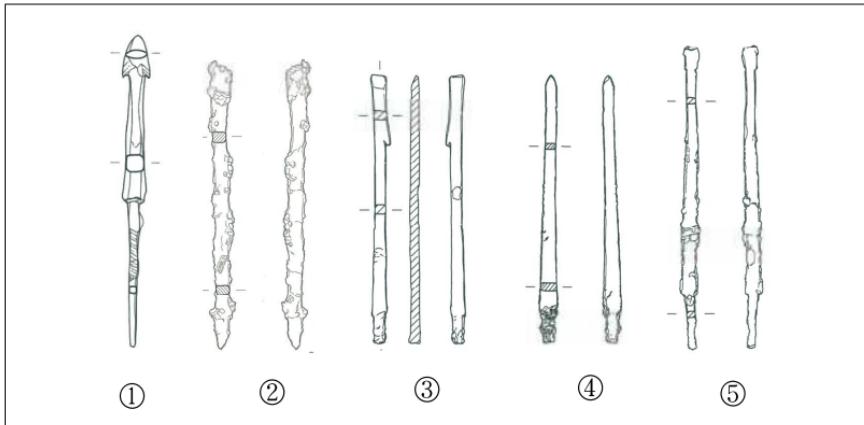
가야지역에서 철촉은 5세기 후반 이후 촉신의 장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6세기까지도 지속된다.⁸⁵⁾ 특히 종달리패총 7층 출토 철촉은 유엽역자

84) 朴宰賢, 「濟州島 殇羅時代土器 研究-종달리패총을 중심으로」, 公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4.

85) 李賢珠, 「三韓·三國時代 釜山地域 軍事體制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5; 張相甲, 「後期加耶의 軍事組織에 대한 研究」, 『嶺南考古學』 54, 嶺南考古學會, 2010.

식(C형)으로 장경촉에서만 확인되는 형식이며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유행한다.⁸⁶⁾ 이 외에도 예둔리 25호와 복천동 11호분에서 매납된 역자형과 사두형 철촉의 장경화 현상은 5세기 3/4분기에 시작하여 7세기 전반까지 출토된다.⁸⁷⁾

영산강유역의 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 유엽형 장경촉과 함평 신덕 1호분 출토 사두형 장경촉 역시 종달리 출토품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영산강유역에서는 대체로 5세기 후반~6세기 초반으로 편년⁸⁸⁾되며 유엽형 장경촉은 6세기 후반대까지 부장되고 있다.⁸⁹⁾



〈그림 16〉 종달리파총 출토 장신총

가야지역과 영산강유역의 편년을 수용하여 종달리파총(7층) 출토 역자형 장경촉의 성행기와 패총의 형성 및 폐기시기를 고려해 보면 6세기 중후반 이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종달리식토기의 출현기로 상정된다.

금성리유적 출토 완은 광양 마로산성 출토품과 형태적으로 비슷하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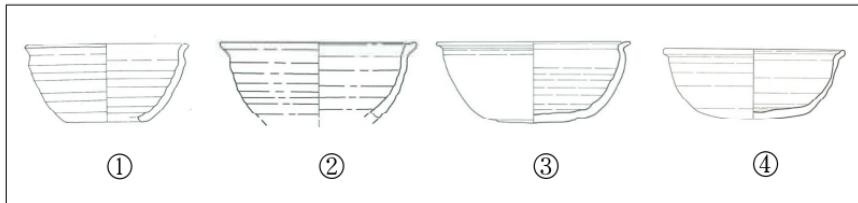
86) 李賢珠, 『앞의 논문』, 2005, 63-64쪽.

87) 李映周, 「加耶 鐵鎗에 관한 一考察」, 慶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1.

88) 李鉉起, 「榮山江流域 金屬遺物의 變遷 研究-古墳出土品을 中心으로-」, 木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2, 62쪽.

89) 김낙중, 「영산강유역 응관분에 부장된 금속제품의 성격」, 『영산강유역의 고분 I - 응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0, 371쪽.

러한 형태는 구연부가 크게 외반되고 통일신라의 대표적 기종인 인화문이 시문된 대부완이 동반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백제 말기~통일신라 전기에 집중 출토된다.⁹⁰⁾ 마로산성이 신라의 통제권에 포함되는 것은 백제가 멸망



〈그림 17〉) 통일기의 완

(①제주 금성리 ②제주 종달리 ③광양 마로산성 ④순천 송산유적)

한 이후이기 때문에 7세기 중반 이후에 해당한다.⁹¹⁾ 또한 순천 송산유적 출토품 역시 7세기 전반~중반으로 편년되고 있다.⁹²⁾ 두 유적의 중심연대를 고려하면 금성리유적 출토품은 7세기 중반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달리식토기의 출현과 괴자리식토기의 종말기는 대략 6세기 중후반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금성리유적에서 고내리식토기와 완이 동반되는 점을 참고하면 상한연대가 7세기 중후반대까지 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지역성을 갖춘 시원형의 토기 출현과 표준화 과정 그리고 소멸양상을 통해 정치체의 출현과 성장 및 소멸 프로세스를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외도동식토기의 출현과 괴자리식토기의 병행기 그리고 괴자리식토기의 퇴화과정에 동반되는 종달리식토기의 등장은 각각 탐라정치체의 등장→탐라정치체의 성장→탐라정치체의 신속이라는 문헌사적 맥락에 대입하여 살펴볼 수 있다.

90) 통일신라의 인화문 대부완은 7세기 중후반에 출현한다고 알려져 있다(구자린, 「統一新羅 臺附盤의 型式分類와 變遷-서울·京畿地域을 中心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51쪽).

91) 崔權鑄, 「光陽 馬老山城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 順天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9, 62-63쪽.

92) 정일 외, 『순천 좌지·송산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2011, 240-242쪽.

IV. 外來遺物의 交換과 對外交流

1. 外來遺物의 交換

탐라 전기의 대외교류와 관련된 외래유물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남 서부지역의 마한과 경남 서부지역 소가야계 토기가 주로 출토된다. 먼저 영산강유역의 마한계토기는 심발형토기, 원저단경호(편구형, 구형), 이중구연호, 양이부호, 개배 등이 확인된다. 반면 소가야계토기는 장경호, 발형기대, 광구호, 파배가 찾아진다.

마한계토기는 먼저 심발형토기<그림 18-①>가 일도동에서 출토된 바 있다. 호남지역 심발형토기는 6세기대까지 지속되지만 3~5세기대 집중되고 특히 3~4세기대 출토량과 유적이 가장 많다.⁹³⁾ 일도동 출토품은 기고(14.2 cm)와 격자타날 문양을 참고하면 전남지역에서 3세기 중반~4세기 중반경에 성행하는 형식에 해당한다.⁹⁴⁾ 이러한 편년을 수용하면 일도동 출토 심발형토기는 4세기를 전후하여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편구원저단경호는 대부분 연질소성으로 용담동과 외도동 일대에서 외도동식토기와 동반 출토되고 있다. 편구호는 전남지역에서 3~4세기 중반까지 유행하며 4세기대 이후 구형호로 전환⁹⁵⁾되고 대체로 4세기 중반경에는 일반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⁶⁾ 외도동식토기가 편구원저단경호와 동반 출토되는 점을 고려하면 3~4세기대를 중심연대로 상정할 수 있다.

양이부호는 편구형→구형으로 변화되고 耳部의 투공은 수직방향→수평방향으로 변화한다.⁹⁷⁾ 종달리패총(1819번지) 9층에서 출토된 연질계 양이부호<그림 18-⑪>는 구형동체에 일부가 수직방향으로 투공되어 있다. 구연부는 내경하는 형태로 중심연대는 5세기 초반~말에 위치한다. 동층위에서 곽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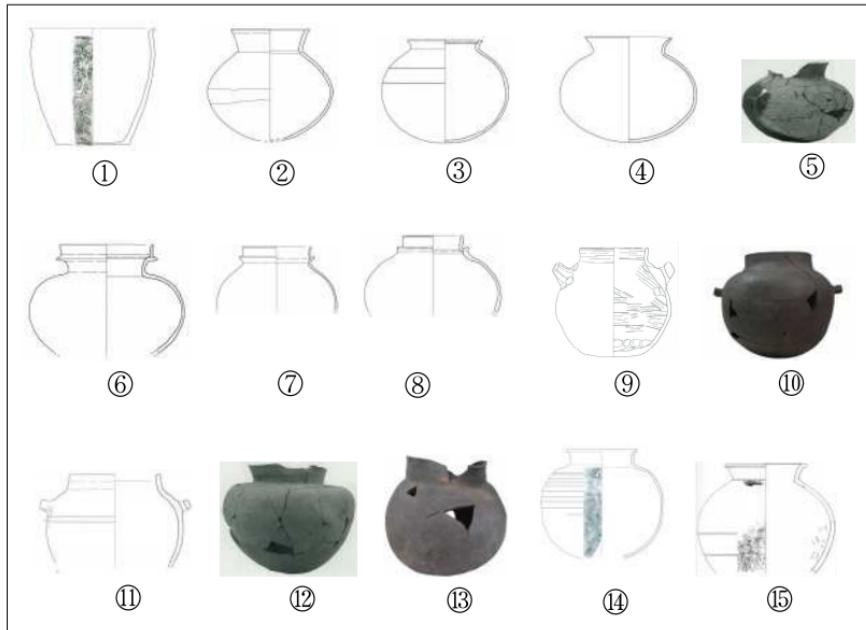
93) 宋恭善, 「三國時代 湖南地域 鉢形土器 考察」, 全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8, 97쪽.

94) 곽명숙, 「전남지역 주거지 출토 심발형토기 연구」, 『湖南考古學報』 47, 湖南考古學會, 2014, 96-97쪽.

95) 金垠井, 앞의 논문, 2017.

96) 韓玉珉, 「全南地方 土壙墓 研究」, 全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0, 20쪽.

97) 徐賢珠, 『榮山江 流域 古墳 土器 研究』, 學研文化社, 2006, 64쪽; 박영재, 「마한·백제권 양이부호 도입과정」,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65쪽.



<그림 18> 제주 출토 마한계토기

(①일도동 ②~④⑥~⑧⑬외도동 ⑤⑫용담동 ⑨꽉지리 ⑩금성리 ⑪⑭⑮종달리)

식토기가 병행하는 것을 보면 적절한 편년이라고 생각된다. 금성리 출토 양이부호<그림 18-⑩>는 4세기 초반~말에 경질 양이부호가 등장하는 점⁹⁸⁾을 고려하면 4세기 중후반경 이후로 추정된다.

4세기 후반~5세기 중반경에는 양이부호가 영산강유역에서 감소하고 전남 동부지역에서만 확인되는데 일부형태는 수직방향이 감소하면서 수평방향이 증가한다.⁹⁹⁾ 전남 동부지역의 전개양상을 바탕으로 종달리와 금성리 출토 양이부호는 모두 구형동체에 일부가 종방향으로 제작된 점을 고려하면 5세기 중반 이후로는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꽉지폐총 출토 양이부호는 장흥 지천리 출토품과 유사¹⁰⁰⁾하며 말각평저에 편구형 동체, 그리고 직립하는 구연부와 일부투공은 수직방향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양이부호는 주로 5세기대 성행하는 형식이지만 동시기는 평저 양이부호가 거의 소

98) 박영재, 앞의 논문, 2016, 101-102쪽.

99) 이진희, 「韓國 西南部地域 兩耳附壺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74쪽.

100) 최성락 외, 『장흥 지천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멸하면서 원저로 전환¹⁰¹⁾되고 연질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이전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도동 출토 이중구연호는 외반된 구연부의 하구연 내측에 상구연을 접합하는 형식으로 중서부와 호남지역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중구연호는 영산강유역에서 가장 성행했던 토기로 대략 3~4세기대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4세기 중반 이후 소멸되기 시작하여 6세기대까지 잔존한다.¹⁰²⁾

양이부호와 이중구연호는 전형적인 범마한계토기로 영산강유역을 비롯한 전남지방에서 3~5세기대 유행하는 토기 양식¹⁰³⁾에 해당하는데 외도동식 혹은 과자리식토기와 동반된다는 것은 양 지역간 교류와 유통과정의 동시기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종달리폐총(1819번지) 6층에서는 경질 단경호<그림 18-⑭>와 蓋杯 <그림 19-②>가 동반 출토되고 있다. 개배는 확실한 편평면이 존재하고 신부가 비교적 높은편으로 영산강 양식에 해당하며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주로 성행한다.¹⁰⁴⁾ 과자리폐총 출토 경질 盖<그림 19-①>는 잔존상태로 볼 때 능형태의 턱이 돌출된 형태로 사비기에 집중¹⁰⁵⁾되고 있지만 영산강유역에서는 5세기 후반에 정형화 된다.¹⁰⁶⁾

개배와 함께 출토된 단경호는 밀각평저에 구연부가 C자상으로 연결되며 동체부는 제형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고 승문이 시문된 것을 보면 영산강유역에서는 5세기 중반 이후에 해당한다.¹⁰⁷⁾ 게다가 동충위에서는 장경촉과 과자리식토기의 퇴화형이 병행하며 승문과 거치문이 출현하는 점을 고려하면 중심연대는 5세기 후반~6세기대로 편년할 수 있다.¹⁰⁸⁾ 이 밖에도 종달리

101) 이진희, 앞의 글, 2010.

102) 王준상, 「한국 서남부지역 이중구연호의 변천과 성격」, 『百濟文化』 42,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2010, 196쪽.

103) 최영주, 「고분 부장품을 통해 본 영산강유역 마한세력의 대외교류」, 『문화과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마한의 대외교류』, 25회 백제학술대회 발표자료, 2016, 85쪽.

104) 徐賢珠, 앞의 책, 2006; 김낙중, 앞의 논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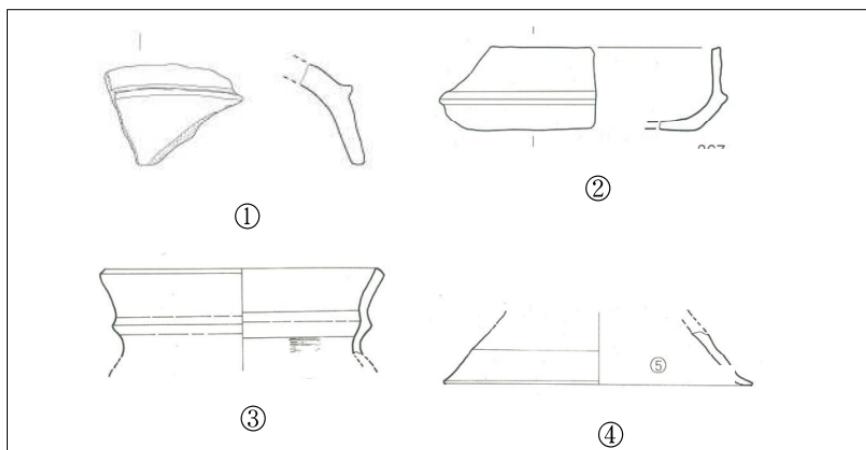
105) 土田純子, 「百濟 土器의 編年 研究-三足器·高杯·뚜껑을 중심으로」, 忠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3, 144쪽.

106) 徐賢珠, 앞의 책, 2006, 183-184쪽.

107) 姜銀珠, 「榮山江流域 短頸壺의 變遷과 背景」, 『湖南考古學報』 31, 湖南考古學會, 2009.

108) 거치문은 주로 마한의 대옹에 시문되는 문양으로 6세기 중반경 소멸한다(金垠井,

폐총(I) 2층에서는 광자리식토기와 함께 단경호<그림 18-⑯>가 동반 출토되었는데 구연단에 Σ 형태의 흠이 형성되어 있고 조족문이 시문된 점으로 볼 때 5세기 중후반~6세기 전반경에 해당한다.¹⁰⁹⁾ 같은 층위에서 승문이 출토되는 점, 전형적인 광자리식토기가 동반되는 점을 감안하면 영산강유역에서 6세기 중반 이후 조족문토기가 소멸하는 양상과 궤를 같이 한다.¹¹⁰⁾



〈그림 19〉 제주 출토 외래계토기

한편 가야계 유물은 장경호¹¹¹⁾와 광구호, 발형기대편이 출토되었는데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어렵다. 다만 광자리 5지구 출토 파배와 원통형토기는 소가야계 토기를 모티브로 모방한 현지재현품에 해당하고 외도동유적 출토 광구호 역시 소가야계 토기의 특징적인 기종이기 때문에 철제품과 함께 소가야 유물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해·부산지역의 장경호는 4세기 중반 이후 출현하며 5세기 초반~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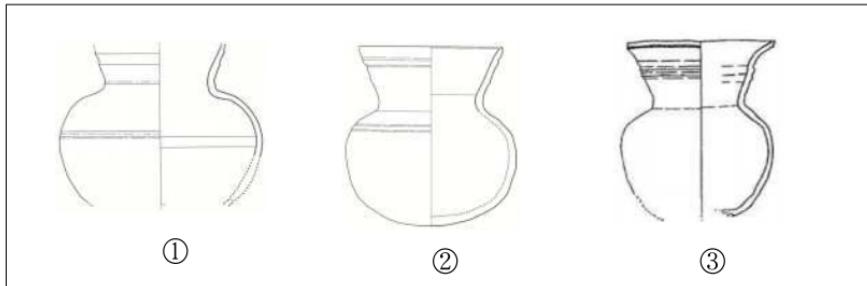
2017, 174쪽).

109) 이은정, 앞의 논문, 2007, 43-47쪽.

110) 崔榮柱, 「鳥足文土器의 變遷樣相」, 『韓國上古史學報』 55, 韓國上古史學會, 2006, 105쪽.

111) 소가야식 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인 수평구연호는 광구장경호와도 유사한데 5세기 2/4분기~6세기 중반까지 서부경남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趙榮濟, 2006, 120쪽). 하지만 수평구연호는 경부에 密集波狀文帶가 돌려져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구호와는 구분해서 살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에 유행하다 대부장경호가 출현하면서 감소한다.¹¹²⁾ 반대로 서부경남 지역은 5세기대¹¹³⁾ 이후 발형기대와 함께 장경호가 출현하면서 고식도질토기 문화는 소멸한다.¹¹⁴⁾



〈그림 20〉 탐라전기의 남부지역 토기
(①제주 외도동 ②순천 운평리 ③광주 월계동)

외도동 출토 장경호는 순천 운평리 2호분 출토품과 형태적 유사성이 찾아진다. 운평리 출토 장경호는 소가야 양식 토기에 해당하며 5세기 전반 혹은 중반경으로 편년되고 있다.¹¹⁵⁾ 그러나 영산강유역의 광주 월계동 출토 장경호는 한성 백제토기의 주요 기종으로 파악하고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으로 추정하기도 한다.¹¹⁶⁾ 이처럼 전남 서부와 동부지역에서 출토된 백제계와 소가야계 광구장경호는 대체로 5세기 중반~후반경에 성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지역도 동시기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계 장경호는 주로 분묘의 부장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성기(350~475년)에 집중되고 웅진과 사비기에는 매납된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¹¹⁷⁾ 반

112) 박광춘, 『새롭게 보는 가야고고학』, 학연문화사, 2006, 134-138쪽.

113) 소가야 지역의 수평구연호(장경호 혹은 광구호)의 출현은 5세기 1/4분기(金奎運, 2009, 37쪽)와 5세기 3/4분기(朴升圭, 2010, 49쪽)로 보는 견해가 있다.

114) 趙榮濟, 「西部慶南 加耶諸國의 成立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6, 40-41쪽.

115) 이동희 외, 『順天 雲坪里遺蹟 I』, 順天大學校博物館, 2008, 130쪽; 하승철, 「전남 서남해지역과 가야지역의 교류 양상」, 『전남 서남해지역의 해상교류와 고대문화』, 전남문화재연구소 연구총서 1, 혜안, 2014, 276쪽.

116) 김낙중, 앞의 논문, 2012, 107쪽; 최영주, 앞의 논문, 2016, 75쪽.

면 신라와 가야의 장경호는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경주지역은 단경호에서 변화하면서 구연부가 직립하고 있는데 반해 김해·함안 등 가야지역은 외반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¹¹⁸⁾ 논의를 정리하면 외도동 출토 장경호는 비백제계이면서 구연부의 외반화 현상을 감안하면 가야지역에서 유입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촌리유적 Ⅲ~Ⅳ기층에서 출토된 토기편은 소가야계의 광구호 구연부편(그림19-③)과 발형기대의 대각편(그림19-④)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기종분석이 어렵고 개체수가 부족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 차후 자료의 누적을 기대해 본다.

2. 對外交流의 樣相

탐라는 3세기경 거점취락인 읍락이 형성되고 수장층이 등장하면서 대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최근 연구성과를 참고하면 탐라 전기에는 영산강 유역의 마한세력을 거점으로 변진한 및 가야지역과 철을 매개로 한 다양한 교섭활동이 전개되었다.¹¹⁹⁾ 요컨대 탐라는 州胡가 개척한 교역로를 계승하여 전남 서남해안 지역의 신미제국을 기반으로 한반도 남부지역의 다양한 정치 체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기원전후 한 시기에는 제주지역 정치세력이 한반도 남부의 해남 군곡리와 사천 늑도를 연결하는 남해안 해상교역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역로는 한반도 중부지역을 경유해서 낙랑까지 연결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 제주지역에서 漢代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직접적인 교역과정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단정 짓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제주지역 출토 낙랑 혹은 漢式 土器가 알려진 바 없기 때문이다.¹²⁰⁾ 게다가 왜계토기 역시 아직까지 보고된

117) 박순발, 2006, 앞의 책, 166-167쪽.

118) 박광춘, 「신라·가야 단경호와 장경호의 연구」, 『石堂論叢』 66,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6, 172쪽.

119) 金慶柱, 앞의 논문, 2017, 128-129쪽.

120) 김경주, 「고고유물을 통해 본 탐라의 대외교역-한식유물을 중심으로」,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예가 없기 때문에 제주해협을 대상으로 남해안 일대의 마한 및 변진한 더 나아가서 낙랑과 왜를 아우르는 교역 네트워크를 고고학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현재까지 풀어내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탐라정치체가 형성된 이후 3~5세기까지는 영산강유역의 마한세력과 활발한 교류활동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고고자료를 통해 볼 때 영산강유역이 대체로 6세기 전반~중반경에 백제의 직접지배 질서속으로 편입되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기 탐라에서 출토된 외래계 유물을 살펴보면 영산강유역에서 성행하던 이중구연호와 양이부호 등 범마한계 토기가 대부분이다.¹²¹⁾ 이로 보건대 탐라시대 전기는 마한과의 지속적인 교섭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부가야와 철을 매개로한 교역이 유지되던 시기이다.

전남지역의 마한계 토기가 3~5세기까지 탐라와의 교류과정에서 끊임없이 교환되는 점으로 미루어 동시기까지 영산강유역의 마한세력과 교섭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소가야계토기는 5세기대를 중심으로 탐라에 유입되고 있다. 그렇지만 백제계 유물의 조합상은 일부 기종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교류관계를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탐라는 6세기 전반까지 전남 서남부지역에 존재했던 마한세력을 거점으로 5세기대에는 소가야와의 교섭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남 동부지역과 경남 서부지역은 고고자료를 통해 보면 양 지역간 연관성이 매우 높다.¹²²⁾ 이와 같이 두 지역 고고자료의 상사성을 참고하면 탐라의 수장층이 전남 동부지역을 경유하여 남부가야와의 교섭을 추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교섭과정은 전남 서남부(탐모라/하침라)→전남 동남부(임나4현)→경남 서남부(소가야)로 연결되는 교역로 개설이 추진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한편 영산강유역에서 출토되는 소가야식 토기는 대부분 5세기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전남 동부권은 4세기부터 경남 서부지역과 구별하기 어려운

121) 金慶柱, 앞의 논문, 2017.

122) 하승철, 「외래계문물을 통해 본 고성 소가야의 대외교류」,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1, 189쪽.

동일한 토기가 파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소형의 고분은 소가야식 토기의 비율이 높고 수장층 고분에서는 대가야계 유물이 집중되는 것을 보면 경제적 교섭과 수장층간 교섭대상이 상이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¹²³⁾ 이러한 맥락을 참고하면 선진문물의 도입과 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탐라의 수장층은 한반도 남부지역 제소국과의 교섭과정에서 경제적 실리추구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경제적 측면에서는 영산강유역을 포함한 서남부지역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면 정치적 측면에서의 교섭은 서부경남지역의 가야세력과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철의 수입은 긴밀한 정치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남부가야와의 지속적인 교섭과 결연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4세기대까지는 변진한의 철기문화를 계승한 김해세력이 철생산과 유통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5세기에 접어들면 기존 철생산지인 낙동강 하구, 남강 일대의 함안권역, 황강중심의 옥전세력인 대가야권역 등 크게 3개의 생산 유통권이 구획된다.¹²⁴⁾ 탐라는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여 철생산과 유통의 중심지가 전환되는 것을 인지하고 함안(아라가야)권역과의 교섭 활동에 매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가야의 철생산과 유통망의 재편에 따른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면 남강 일대의 함안권역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주지역에서 출토되는 소가야계 토기도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소가야는 아라가야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5세기 2/4분기에 소가야 양식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두 지역이 동일한 토기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¹²⁵⁾

5세기 중후반대 섬진강유역과 동남부권은 가야연맹체 권역에 들어가지만 고흥·보성을 포함하는 서남부권은 백제의 영향권에 포함된다. 전남 동부지역은 4세기 후반부터 가야문화가 유입되고 5세기 후반~6세기 초반까지 남해안 권역은 가야의 영향권속으로 흡수되고 있다.¹²⁶⁾ 이러한 정치적 영역 변화는 탐라가 가야권역과의 교섭을 위해서 전남 서부지역의 마한연맹체를 거점

123) 河承哲, 「小加耶의 考古學的 研究」, 慶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5, 33쪽.

124) 孫明助, 앞의 책, 2012, 117쪽.

125) 朴升圭, 앞의 논문, 2010, 196쪽.

126) 이동희, 「 삼국시대 전남동부지역의 문화상과 교류 」, 『 삼국시대 남해안지역의 문화상과 교류 』, 제3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韓國考古學會, 2011, 128쪽.

으로 동부권역을 통해 남부가야와 연결되는 교역루트를 개설하여 철을 포함한 선진문물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5세기~6세기 초반까지 탐라는 지속적인 철수입을 위해 서남부 마한연맹체를 거점으로 섬진강을 포함하는 전남 동부권의 제소국을 경유하여 남부 가야연맹체와 교섭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배경은 동시에 제주에서 출토되는 고고자료를 검토해 보면 대체로 토기는 영산강 유역의 범마한계토기가 주류이며 반대로 철은 동남권의 남부 가야지역에서 수입하였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가야계 토기가 소량이지만 확인되는 점도 이와 같은 교역과정에서 교환된 舶載品으로 여겨진다.

금속기와 같은 이국적인 재료는 중앙의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장거리 교역을 통해 수입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공동체 수준의 거점취락 간 교역

을 통해 유입¹²⁷⁾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탐라시대 전기의 타날문 토기와 고급 철기류, 옥 제품 등은 제주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상위계층의 대외교역을 통해 수입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대외교류는 탐라의 수장층이 한반도 남해안 일대의 제소국 및 정치 세력과 교섭을 통해 교역로를 개설하고 지속적인 선진문물의 도입루트를 구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1〉 5세기 후반~6세기 초반의 교역로(案)

정된다.

6세기 중반경에 이르면 영산강유역은 백제의 직접지배 질서속으로 완전히

127) 브라이언 페이건 외, 이청규 옮김, 앞의 책, 2015, 246쪽.

편제되고 섬진강유역의 전남 동부권역도 영역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전 까지 전남 서남부→전남 동남부→경남 서남부로 연결되는 제주해협권의 고대 교역루트는 6세기 중반 이후 완전히 해체된다. 백제의 전남권 전역에 대한 영역화와 직접지배는 탐라의 다원적인 대외교류와 활동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자치권이 보장된 신속과정을 거쳐 간접지배 권역에 포함된다.¹²⁸⁾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탐라는 3세기대 거점취락을 조성하고 단일 정치체의 수장층이 등장하면서 활발한 대외교류 활동을 통해 철을 비롯한 다양한 선진문물이 유입되었다. 특히 3~4세기대 탐라는 영산강유역의 마한세력을 거점으로 동남부지역의 변진한 또는 남부 가야세력과도 교류관계를 유지하였다. 5~6세기 초반까지도 이러한 교역체계가 지속되면서 탐라는 다원적 외교활동과 교섭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철을 확보하는 한편 선진문물과 정보를 공유하는데 전력하였다. 하지만 탐라는 6세기 중반경 백제에 신속되면서 외교권이 위임된 반자치적인 國체제를 유지하였지만 대외교섭과 교류의 창구는 백제를 통해 일원화된다.

V. 맷음말

탐라는 3세기 전후 제주 서북부지역에 거점취락을 조성하였고 한반도 남부지역 제소국과의 대외교류를 통해 성장한 수장층이 등장한다. 거점취락은 방어용 석축, 저장용 공동 창고군, 대형 공공 건물지, 상위계층의 특수목적 주거지, 제의와 관련된 석조우물, 토기 생산의 전문화와 통제, 대외교역의 중심 취락, 상위취락간 네트워크 형성 등 복합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복수의 상위취락과 연계된 거점취락을 중심으로 대내적 교통로를 확보하고 대외교역을 위한 위계화된 취락사회로 성장한다.

한편 취락내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담당했던 공인집단과 표준화된 토기 제작의 전문 장인집단, 수공업 생산집단, 대외교역의 수행집단 등으로 이루어진 분업화된 사회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한 상

128) 金慶柱, 앞의 논문, 2017.

위계층의 존재도 상정된다. 이처럼 탐라 전기의 취락사회는 전문화된 기술집단과 수장층이 존재하는 위계화된 복합사회에 해당하며 이는 바로 탐라정치체의 등장을 시사한다.

탐라 전기의 대표적인 토기 양식은 외도동식토기와 꽈지리식토기가 표지적인데 양 토기는 대형토기에서 형식학적으로 구분될 뿐 양식적 가변성이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외도동식토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꽈지리식토기의 일부에서 기종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계통의 토기로 해석된다. 또한 동반되는 외래계토기는 대체로 영산강유역의 범마한계 토기가 주류이며 백제계 토기 양식은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다. 반면 5세기대 이후에는 소가야계 토기가 동반되는 점을 고려하면 동시기 교섭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탐라 전기의 취락사회는 영산강유역이 백제에 영역화되는 6세기 중반 이전까지 전남 서남부권역의 마한세력을 거점으로 전남 동부지역을 경유하여 남부 가야와의 활발한 대외교류가 진행되었다. 탐라의 영역에서 3~5세기대의 중심연대를 갖는 외래토기는 대부분 범마한계토기이며 소가야계토기가 일부 동반되는 점은 앞서 살펴본 교역체계를 입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고고자료를 참고하면 탐라는 안정적인 철수입과 선진문물을 도입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반도 남부지역의 제소국과 교섭을 갖고 다원적인 외교활동을 지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1. 연구논저

- 강귀형, 「군곡리 토기제작기술의 검토」, 『해남 군곡리폐총의 재조명』, 해남 군곡리폐총 발굴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목포대학교박물관, 2016.
- 姜善旭, 「江陵地域 新羅化 過程 研究」, 江陵原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0.
- 강세호, 「영서지역 철기문화 연구-주거유적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姜銀珠, 「榮山江流域 短頸壺의 變遷과 背景」, 『湖南考古學報』 31, 湖南考古學會, 2009.
- 강창화, 「古代 殇羅의 實體와 物資의 交流」, 『동아시아 역사상과 우리문화의 형성』,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고대사연구소, 2005.
- _____, 「고대 탐라의 대외 물자교류」, 『제주학과 만남』, 제주학연구자모임, 2010.
- _____, 「제주고고학 발굴의 시발점이자 선사시대 편년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제주 서북부 과지폐총」, 『제주학 산책』, 제주학연구자모임, 2012.
- 공봉석, 「신라·가야 취락의 분화와 전개」, 『嶺南考古學』 73, 嶺南考古學會, 2015.
- 곽명숙, 「전남지역 주거지 출토 심발형토기 연구」, 『湖南考古學報』 47, 湖南考古學會, 2014.
- 구자린, 「統一新羅 臺附盤의 型式分類와 變遷-서울·京畿地域을 中心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權貴香, 「洛東江 以西地域 三國時代 住居址의 展開樣相」,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2.
- 權五榮, 「三韓의「國」에 대한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 金奎運, 「考古資料로 본 5~6세기 小加耶의 變遷」,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9.
- _____, 「5~6世紀 小加耶樣式 土器 設定」, 『한국고고학보』 76, 한국고고학회, 2010.
- 金慶柱, 「濟州島 赤褐色硬質土器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35, 韓國上古史學會, 2001.
- _____, 「耽羅成立期 聚落의 形成과 變遷」, 『湖南考古學報』 22, 湖南考古學會, 2005.
- _____, 「三陽洞式土器의 始原에 對한 考察-外反口緣土器를 中心으로」, 『石心鄭永和 教授 停年退任紀念天馬考古學論叢』, 2007.
- _____, 「고고학으로 본 고대 탐라」, 『섬, 흙, 기억의 고리』, 국립제주박물관, 2009.
- _____, 「龍潭洞 鐵器副葬墓와 그 被葬者の 性格」, 『人類學 考古學 論叢』, 嶺南大學

校 文化人類學科 40周年 記念論叢, 2012.

- _____, 「고고유물을 통해 본 탐라의 대외교역-한식유물을 중심으로」,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 _____, 「제주도의 초기철기문화」, 『제주도 청동기~초기 철기문화의 전개양상』, 국립제주박물관·한국 청동기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청동기학회, 2016.
- _____, 「耽羅의 對外交流와 活動-文獻 史料와 考古學 資料의 活用」, 『제주도, 탐라의 형성과 발전』, 제25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 호남고고학회, 2017.
- 金羅英, 「嶺南地域 三韓時代 住居址의 變遷과 地域性」,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7.
- 김낙중, 「영산강유역 옹관분에 부장된 금속제품의 성격」, 『영산강유역의 고분 I-옹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0.
- _____, 「토기를 통해 본 고대 영산강유역 사회와 백제의 관계」, 『湖南考古學報』 42, 湖南考古學會, 2012.
- 김도훈, 「風納土城 百濟 우물지에 관한 研究 試論」, 『白山學報』 84, 白山學會, 2009.
- 金承玉, 「취락으로 본 전남지역 마한 사회의 구조와 성격」, 『百濟學報』 11, 百濟學會, 2014.
- 金垠井, 「湖南地域의 馬韓 土器-住居址 出土品을 中心으로」, 全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7.
- 김일규, 「단계설정과 편년」, 『가평 대성리유적』, 京畿文化財研究院, 2009.
- 魯泰昊, 「原三國~百濟漢城期 中西部地域 鐵刀子의 變遷과 性格 研究」, 龍仁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4.
- 박경민, 「탐라전기의 물질문화」, 『제주도, 탐라의 형성과 발전』, 제25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 호남고고학회, 2017.
- 박광춘, 『새롭게 보는 가야고고학』, 학연문화사, 2006.
- _____, 「신라·가야 단경호와 장경호의 연구」, 『石堂論叢』 66,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6.
- 朴美羅, 「全南 東部地域 1~5世紀 住居址의 變遷樣相」, 『湖南考古學報』 30, 湖南考古學會, 2008.
- 박미라, 「전남 동부지역 가야계토기 출토 주거지의 성격」, 『文化史學』 33, 韓國文化史學會, 2010.
- 朴守榮, 「4~5世紀 嶺東地域의 考古學의 研究-住居址와 墳墓資料를 中心으로-」,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0.
- 박순발, 「土器相으로 본 湖南地域 原三國時代 編年」, 『湖南考古學報』 21, 湖南考古學會, 2008.

- 會, 2001.
- _____, 『백제토기 탐구』, 주류성, 2006.
- 朴升圭, 「加耶土器 樣式 研究」, 東義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0.
- 박영재, 「마한·백제권 양이부호 도입과정」,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朴宰賢, 「濟州島 耽羅時代土器 研究-종달리패총을 중심으로」, 公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4.
- 朴重國, 「呂자형 주거지를 통해 본 중도문화의 지역성」, 한신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10.
- 브라이언 페이건 외, 『고대 문명의 이해』, 이청규 옮김, 사회평론,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11, 2015.
- 徐賢珠, 『榮山江 流域 古墳 土器 研究』, 學研文化社, 2006.
- 成正鏞, 「錦山地域 三國時代 土器編年-百濟와 加耶勢力 사이의 內陸交通路에 대한 理解를 위하여-」, 『湖南考古學報』 16, 湖南考古學會, 2002.
- 孫明助, 『韓國 古代 鐵器文化 研究』, 진인진, 2012.
- 宋恭善, 「三國時代 湖南地域 鉢形土器 考察」, 全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8.
- 송만영, 「청동기시대 취락 구조의 변화」, 『崇實史學』 33, 崇實大學校 史學科, 2014.
- 신민철, 「곡교천일대 원삼국시대 원통형토기의 분포와 성격」,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申年植, 「3~5세기 호서지방 주거지 연구」, 崇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3.
- 申鍾煥, 「忠北地方 三韓·三國土器의 變遷」, 『考古學誌』 8,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7.
- 沈載淵, 「嶺東·嶺西地域의 鐵器時代文化 研究」, 翰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1.
- 吳東蟬, 「湖南地域 龫棺墓의 變遷」, 『湖南考古學報』 30, 湖南考古學會, 2008.
- 왕준상, 「한국 서남부지역 이중구연호의 변천과 성격」, 『百濟文化』 42,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2010.
- 魏陽根, 「慶南地域 加耶時代 住居址에 대한 研究」, 慶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6.
- 尹大植, 「清州地域 百濟杷杯의 型式과 用度」, 忠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4.
- 이나경, 「중부지역 출토 낙랑계토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李東熙, 「全南東部地域 複合社會 形成過程의 考古學의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5.
- _____, 「삼국시대 전남동부지역의 문화상과 교류」, 『삼국시대 남해안지역의 문화상과 교류』, 제3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韓國考古學會, 2011.
- 이동희 외, 『順天 雲坪里遺蹟 I』, 順天大學校博物館, 2008.

- 李釗起, 「榮山江流域 金屬遺物의 變遷 研究-古墳出土品을 中心으로-」, 木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2.
- 李盛周, 「漢城百濟形成期 土器遺物群의 變遷과 生產體系의 變動-實用土器 生產의 專門化에 대한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71, 韓國上古史學會, 2011.
- _____, 「 철기시대 東北亞 제 지역사회의 技術革新과 社會變動」, 『先史와 古代』 38, 韓國古代學會, 2013.
- 李盛周·姜善旭, 「草堂洞遺蹟에서 본 江陵地域의 新羅化 過程」, 『강릉 초당동유적』, 韓國문화재조사연구 기관협회, 2009.
- 李晟準, 「漢城期 百濟 地域社會의 相互作用 研究」, 忠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4.
- 李承宰, 「중부지방 원삼국시대 중도식 무문토기 연구」, 崇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6.
- 李映周, 「加耶 鐵鏃에 관한 一考察」, 慶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1.
- 李映撤, 「榮山江流域 甕棺古墳社會의 構造 研究」,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1.
- _____, 「紀元後 3~5世紀代 湖南地方 聚落別 編年 檢討(Ⅱ)」, 『研究論文集』 2, 湖南文化財研究院, 2002.
- 이은정, 「全南地域 3~6世紀 住居址 研究」, 『湖南考古學報』 26, 湖南考古學會, 2007.
- 李政根, 「咸安地域 古式陶質土器의 生產과 流通」,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6.
- 이종철, 「제주도 송국리형취락의 특징과 시기 구분」, 『韓國青銅器學報』 21, 韓國青銅器學會, 2017.
- 이지영, 「호남지방 3~6세기 토기가마의 변화양상」, 『湖南考古學報』 30, 湖南考古學會, 2008.
- 이진희, 「韓國 西南部地域 兩耳附壺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李昌鉉·辛裕梨, 「嶺東地方 三國時代 住居址 試論」, 『文化史學』 33, 韓國文化史學會, 2010.
- 이창희, 「탄소14연대를 이용한 중도식토기의 연대」, 『韓國基督教博物館誌』 12,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2016.
- 李清圭, 『濟州島 考古學研究』, 學研文化社, 1995.
- 이한솔, 「한성백제기 우물제사에 대한 고찰」, 仁荷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4.
- 李賢珠, 「三韓·三國時代 釜山地域 軍事體制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5.
- 이현혜, 「三國時代의 農業기술과 사회발전-4~5세기 新羅社會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8, 한국상고사학회, 1991.
- 李炯周, 「韓國 古代 부뚜막施設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林永珍, 「韓國 墳周土器의 起源과 變遷」, 『湖南考古學報』 17, 湖南考古學會, 2003.
- 林暎希, 「嶺南地域 原三國期 鐵劍·環頭刀의 地域別 展開過程」,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1.
- 張相甲, 「後期加耶의 軍事組織에 대한 研究」, 『嶺南考古學』 54, 嶺南考古學會, 2010.
- 全東賢, 「漢城百濟期 烹煮容器의 形成과 變遷」, 崇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0.
- 정일 외, 『순천 좌지·송산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2011.
- 정 현, 「韓半島 中·西南部地域 原三國~三國時代 杷杯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정인성, 「낙랑 토성의 철기와 제작」, 『樂浪文化 研究』, 北方研究叢書 20, 東北亞歷史財團, 2006.
- 정종태, 「湖西地域 長卵形土器의 變遷樣相」, 『湖西考古學』 9, 湖西考古學會, 2003.
-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 군, 쇠』, 김진준 역, 문학사상사, 2014.
- 趙榮濟, 「西部慶南 加耶諸國의 成立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6.
- 趙泰熙, 「慶南地域 三韓·三國時代 聚落研究」, 東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3.
- 車宇根, 「北漢江 流域과 南漢江 流域의 鐵器時代 聚落 研究」, 翰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7.
- 崔權鎬, 「光陽 馬老山城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 順天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9.
- 崔盛洛, 『韓國 原三國文化의 研究』, 學研文化社, 1993.
- 최성락 외, 『장흥 지천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 崔榮柱, 「鳥足文土器의 變遷樣相」, 『韓國上古史學報』 55, 韓國上古史學會, 2006.
- _____, 「고분 부장품을 통해 본 영산강유역 마한세력의 대외교류」, 『문현과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마한의 대외교류』, 25회 백제학술대회 발표자료, 2016.
- 土田純子, 「百濟 土器의 編年 研究-三足器·高杯·뚜껑을 중심으로」, 忠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3.
- 河承哲, 「加耶西南部地域 出土 陶質土器에 대한 一考察」, 慶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1.
- 하승철, 「외래계문물을 통해 본 고성 소가야의 대외교류」,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1.
- 하승철, 「전남 서남해지역과 가야지역의 교류 양상」, 『전남 서남해지역의 해상교류와 고대문화』, 전남문화재연구소 연구총서 1, 혜안, 2014.
- _____, 「小加耶의 考古學的 研究」, 慶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5.

- 하진영, 「호남지역 경질무문토기의 편년과 성격」,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韓基民, 「영남지역 수혈식 건물지 연구-B.C. 3세기~A.D. 3세기를 중심으로」, 東亞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 韓玉珉, 「全南地方 土壤墓 研究」, 全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0.
- 韓鉉善, 「전남 동부지역 1~4세기 주거지 연구」, 順天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 韓志仙, 「土器를 통해서 본 百濟 古代國家 形成過程 研究」, 中央大學 碩士學位論文, 2003.
- 황보 경, 「한강유역 古代 우물에 대한 試論的 연구-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33, 신라사학회, 2015.
- ※ 발굴조사보고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함

2. 그림 출처

- 그림 4)-제주대학교박물관, 『애월~신창간 국도 12호선 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곽지리·금성리)』, 2006.
- 그림 5)~그림 8)-湖南文化財研究院, 『濟州 下貴1里遺蹟』, 2010.
- 그림 9)-濟州文化藝術財團, 『濟州 外都洞遺蹟』, 2005.

Abstract

The Settlement Structures and Social Aspects during the Former Half of Tamra

Kim, Kyoung-Ju*

The base settlements of the former half of the Tamra period show differentiated settlement structures not found in the previous period such as boundary stonework, joint warehouses, public building sites, special-purpose residence, and stone wells. In addition, the Oidodong-type pottery, which was standardized by the influence of the paddling-patterned pottery, emerged and developed into the Gwakjiri-type pottery.

As for the social structure within the settlement, they formed a specialized social structure consisting of the group of public figures in charge of large-scale public works, the group of professional artisans in charge of standardized pottery production, the group of manual industry-based production, and the group of overseas trade. It is estimated that there was an upper class to control these members of the society. As mentioned earlier, the society during the former half of Tamra is interpreted to have been a hierarchical settlement society with specialized professional technical groups and the ruling class, which implies the emergence of the Tamra political body.

The settlement society during the former half of Tamra had active exchanges with Southern Gaya via the overseas trade route with its base in the Mahan force in the southwestern region until the middle sixth century

* Assistant Director of Jeju Cultural Heritage Institute.

when the Jeonnam region was incorporated into the territory of Baekje. This context is verified by the fact that most of the foreign pottery excavated in Jeju in the third to fifth century was the Mahan-style pottery with the Sogaya-style pottery accompanying it in some cases.

It is estimated that the upper class of Tamra had negotiations with small states in the southern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inued its pluralist diplomatic activities with them in order to ensure the stable import of iron, introduce advanced civilization, and obtain various pieces of information.

Key words: base settlement, Oidodong-type pottery, Gwakjiri-type pottery, Tamra political body, Mahan-style pottery, Sogaya-style pottery

교신: 김경주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2길 3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E-mail: tamra1000@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8. 01. 02

심사완료일: 2018. 01. 26

게재확정일: 2018. 01. 31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장창은**

- I. 머리말
- II. 『三國志』 東夷傳의 ‘州胡’
- III.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耽羅’
- IV. 『魏書』 列傳 高句麗의 ‘涉羅’
- V. 맷음말

국문요약

고대 탐라국에 대한 호칭은 ‘州胡’에서부터 ‘耽羅’·‘毛羅(托羅)’·‘儋羅’·‘涉羅’, 그리고 ‘耽牟羅’까지 다양한 표기로 사서에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모두를 동일 대상인 탐라국에 대한 이표기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삼국사기』 백제본 기의 耽羅와 『魏書』 고구려전에 나오는 ‘涉羅’의 실체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三國志』 東夷傳의 韓傳에 나오는 州胡는 ‘오랑캐 마을’ 내지 ‘섬 오랑캐’로 해석된다. 문면으로 보았을 때 중국 측에 의한 타칭이다. 『後漢書』 東夷列傳에는 州胡國 으로 표기되어 있어 탐라국 이전 제주의 고대국가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고 있다. 주 호국이 제주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연구자는 없다. 다만 주 호가 교역한 韓中の 실체는 연구자 간 견해 차이가 있다. 韓의 실체 규명은 주호가

* 이 논문은 2017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또한 2017년 12월 22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과 신라사학회가 공동 주최한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하였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제주로 비정될 수 있는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제주시 산지항에서 출토된 貨泉 등 王莽錢은 주호국이 1세기 대에 중국과 교류했음을 시사한다. 중국 화폐의 한반도 유입은 본토와의 직접적인 교역보다는 漢郡縣(樂浪郡)을 매개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가 漢郡縣과 弁·辰韓·倭로 이어지는 교역경로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항과 용담동·삼양동 등에서 화폐와 철제 무기류·옥환 등 중국이나 진·변한 계통의 위신품이 출토되는 까닭은 주호국이 이들의 교역체계에 능동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다. 주호국의 교역범위는 전남지역의 마한을 중심으로 진·변한 지역을 망라하였다. 제주도산 토기가 나주시 수문 패총, 해남 군곡리 유적, 사천 늑도에서 출토된 것은 그 실증적인 고고자료이다.

제주의 고대국가가 毀羅國으로서 한반도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三國史記』 백제본기가 최초의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5세기 후반인 문주왕~동성왕대에 탐라국은 백제에 공납을 바치는 종속관계에 있었다. 이와 달리 『日本書紀』에는 탐라와 백제의 통교가 508년에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기왕에는 백제본기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면에는 백제가 4세기 후반인 근초고왕대에 전남지역까지 진출해 영역지배 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 다만 백제본기의 탐라를 제주도로 보는 데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일본서기』의 해당 기록이 백제계 계통이어서 사료 가치가 높다는 점, 동성왕이 정벌하려 했던 毀羅가 제주도라면 무진주[광주]에 도착한 백제 군사에 대해 탐라가 스스로 와서 죄를 빌었다는 내용이 어색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그 결과 백제본기의 탐라를 전남 강진과 해남지역에 있었던 소국으로 비정하였다. 백제본기 탐라의 실체는 향후 검토할 여지가 남아 있다.

『魏書』 열전 고구려전에 따르면, 504년에 고구려 문자명왕(491~519)이 북위 선무제에게 사신을 보내 그동안 조공했던 황금과 珍을 더 이상 바칠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황금은 夫餘에서 나고, 珍은 涉羅에서 나는 것인데, 부여는 勿吉에게 쫓기는 바가 되었고, 섭라가 백제에게 병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涉羅’의 실체이다.

한진서가 『海東繹史』에서 ‘섭라’를 제주로 비정한 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계승하였다. 특히 珍을 말 재갈 장식에 사용하는 소라와 전복으로 보거나, 마노로 보되 그 생산지를 제주도로 이해하였다. 이와 달리 珍을 (백)마노로 보거나, 涉羅[신라]가 백제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珍을 바칠 수 없다는 문구도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고구려와 탐라의 관계를 입증해 줄 만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점, 『晉書』 부견전에 사용된 신라 국호 ‘薛羅’가 ‘涉羅’와 음운상 같다는 신

경준의 주장에 근거해 涉羅 = 新羅일 가능성이 마련된 점, 珣의 실체가 말 재갈 장식 보다는 옥의 범주에 포함되는 마노가 더 유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涉羅’는 제주도보다는 신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

주제어 : 탐라국, 州胡, 王莽錢, 珣, 涉羅

I. 머리말

한국 고대의 시기 제주도에는 ‘탐라’로 불린 독립 왕조가 있었다. 탐라국의 역사는 독자적인 역사서가 남아 있지 않은 까닭에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탐라국이 일찍부터 한반도 및 중국·일본의 국가들과 교류를 추구한 결과 교역 상대국의 역사서에 그 존재가 단편적으로나마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탐라국으로 추정되는 국가에 대한 칭호가 사서마다 다르게 나와 있어 다소 혼란스럽다. 『三國志』 東夷傳에는 다른 자료와는 이질적인 ‘州胡’로 표기되어 있고, 『三國史記』 百濟本紀와 『日本書紀』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耽羅(耽羅)’로 기록되어 있다. 『三國遺事』에는 ‘毛羅(托羅)¹⁾로 남아 있다. 이와 달리 중국 사서인 『隋書』와 『北史』 東夷列傳 百濟傳에는 각각 ‘聃牟羅國’과 ‘耽牟羅國’으로 표기되어 있다.²⁾ 한편 『新唐書』 劉仁軌傳에는 ‘儋羅’로, 『高麗圖經』에도 같은 이표기인 ‘聃羅’가 제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³⁾ 그리고 『魏書』 列傳 高句麗傳에 나오는 ‘涉羅’,⁴⁾도 탐라로 이해하는 경우가 다수이다.⁵⁾

1) 『三國遺事』 卷1, 紀異2, 馬韓에는 ‘毛羅’로, 같은 책 卷3, 塔像4, 黃龍寺九層塔에는 ‘托羅’로 되어 있다.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도 제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耽羅’ 이외에 ‘毛羅’가 간혹 남아 있다(『高麗史』 卷13, 世家13, 睿宗 8년 6월조; 『高麗史節要』 卷4, 靖宗 9년 12월조).

2)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百濟(中華書局 點校本 1819쪽[이하 쪽수만 표기]). 『北史』 卷94, 列傳82, 百濟(3121쪽).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20년(498)에도 “耽羅 卽耽牟羅”라고 하였다.

3) 『新唐書』 卷108, 列傳33, 劉仁軌(4084쪽).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 城邑 封境.

4) 『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麗(2216쪽). 같은 내용이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7, 文咨明王 13년(504)조에도 실려 있다.

이렇듯 고대 탐라국에 대한 호칭은 ‘주호’에서부터 ‘탐라’·‘탁라’·‘담라’·‘섭라’, 그리고 ‘탐모라’까지 다양한 표기로 사서에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모두를 동일 대상인 탐라국에 대한 이표기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삼국사기』 백제본기 문주왕 2년(476)과 동성왕 20년(498)에 백제와 공납 관계를 맺은 應羅를 제주가 아닌 전남 강진·해남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주장한 연구가 발표된 후⁶⁾ 이를 수용하는 연구성과도 쌓이고 있다. 아직까지 다수 가 백제본기의 應羅를 제주로 이해하고 있지만, 백제본기의 탐라를 제주도로 볼 수 없다는 소수설의 문제의식도 경청할 만한 대목이 있다. 『魏書』 고구려 전에 나오는 ‘涉羅’도 신라로 파악한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 여부가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했다. 탐라국 관련 문헌자료가 적다는 미명하에 엄정한 사료비판 없이 만들어진 고대 탐라국의 역사상은 자칫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三國志』 동이전에 나오는 ‘州胡’의 실체와 자료에 함의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호와 그 교역대상이었던 ‘韓中’의 실체에 대한 기준 연구성과를 검토한 후, 관련 고고자료의 분석을 통해 탐라국과 한반도 국가의 교역범위 및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三國史記』 백제본기의 ‘應羅’가 통설대로 제주도를 지칭하는 것인 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탐라와 백제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재인식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Ⅳ장에서는 『魏書』 열전 고구려에 남아 있는 ‘涉羅’의 실체를 검토하고자 한다. 섭라가 제주도라면 고대 탐라국이 일찍부터 고구려와 교류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섭라가 신라라면 전혀 다른 각 도에서 활용할 자료가 되는 셈이다. 관련 연구성과를 망라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인 이해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⁷⁾ 이 논문은 고대 탐라국

5) 이 외에 『三國志』와 『後漢書』에 나오는 ‘亶洲(澶洲)’를 제주도로 비정하는 주장도 있다. ‘단주’가 徐福(徐市)이 머문 곳으로 나온 데서 도출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6) 李根雨, 「熊津時代 百濟의 南方境域에 대하여」, 『百濟研究』 2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7 및 「탐라국 역사 소고」, 『釜大史學』 30, 부산대학교 사학회, 2006.

7) 논문 제목에 부합하는 연구범위는 10세기 무렵까지 해당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학

의 실체와 국제적 위상을 살피는 데 있어 기초적인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 의도에 부합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성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三國志』 東夷傳의 ‘州胡’

『三國志』 東夷傳의 韓傳 말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1. 또 州胡가 馬韓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에 있다. 그 사람들은 대체로 키가 작고 언어는 韓과 같지 않다. [그들은 : 필자 주, 이하 생략] 모두 鮮卑[族]처럼 머리를 깎았다. 옷은 오직 가죽으로 해 입고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 그들의 옷은 위만 있고 아래는 없기 때문에 거의 나체와 같다. 배를 타고 왕래하며 韓에서 [물건을] 사고판다.⁸⁾

사료 1은 고대 탐라국이 역사서에 처음 기록된 것으로 주목받았다. ‘州’에 ‘고을’·‘마을’·‘섬’의 뜻이 있으므로, 州胡는 ‘오랑캐 마을·고을’ 내지 ‘섬 오랑캐’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⁹⁾ 문면으로 보았을 때 제주도 내 국가의 자칭이기보다는, 중국 측에 의한 타칭으로 생각된다.¹⁰⁾ 주호에 담긴 부정적 의미 때문에 이를 國名이나 地名으로 보지 않고, 특정한 인종에 대한 칭호로 보기

술대회 전체의 기획적인 측면과 단일 논문으로서의 분량을 고려해 6세기까지만 다루었다.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

- 8)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韓(852쪽) “又有州胡 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豬 其衣有上無下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買韓中.” 『後漢書』 卷85, 東夷列傳75, 韓(2820쪽)에도 “馬韓之西 海島上有州胡國 其人短小 髮頭 衣韋衣 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 貨市韓中”이라고 하여 같은 내용이 축약된 채 실려 있다.

- 9) 권오영은 ‘섬 오랑캐’로(권오영, 「고대 제주와 동아시아」,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본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편, 서경문화사, 2009, 79쪽), 전경수는 ‘섬에 사는 야만족’으로 해석했다(전경수, 「先州胡에서 耽羅國까지」,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69쪽).

- 10) 신용하는 『三國志』와 『後漢書』에 나오는 ‘亶洲(澶洲)’를 당시 탐라국의 호칭으로 보고, 중국이 이를 편하하려는 의도에서 州胡로 부른 것으로 보았다(慎鏞慶, 「耽羅國 명칭의起源에 관한 한 연구」, 『韓國學報』 107, 一志社, 2002, 93~95쪽). 그러나 단주가 제주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도 한다. 곧 주호가 제주도 원주민사회 전체에 대한 칭호가 아니라, 지역 내의 외부 포로집단 내지 표류민 집단에 대한 특수칭호를 기록한 사람이 원주민사회와 혼동하여 사용했다는 것이다.¹¹⁾ 그러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後漢書』 동이열전 한전에서 ‘州胡國’으로 기록했고, 3세기 이전 제주도에 존재했던 세력의 명칭이 다른 문헌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므로 편의상 ‘주호국 시기’로 부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¹²⁾

주호국의 위치에 대해 일찍이 山東과 요동반도 사이의 廟島列島로 본 주장이 제기되었다.¹³⁾ 하지만 고조선의 위치를 요동지방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호 위치의 기준점이 되는 馬韓까지도 압록강 계선으로 비정한 것이어서 따르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주호국이 곧 지금의 제주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연구자는 없다.¹⁴⁾ 다만 ‘마한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이라는 방위가 실제와 맞지 않는 점에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중국 사서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방위관련 기록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舊唐書』와 『新唐書』 백제전에는 “왕이 사는 곳에 동·서로 두 성이 있다”고 했다.¹⁵⁾ 두 성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성시대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든지 웅진~사비시대의 웅진성과 사비성이든지 동·서가 아닌 남·북으로 왕성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隋書』와 『北史』의 백제전에는 탐라의 크기에 대해 “남·북으로 천여 리이고 동·서로 수백 리이다”라고 해서 방향이 반대로 기록되어 있다.¹⁶⁾ 한국과 중국 간의 황해 직항로가 개통되지 않았을 가능성성이 큰 3세기

11) 李丙燾, 「州胡考」, 『韓國古代史研究』(수정판), 博英社, 1976, 297~299쪽.

12) 3세기 이후 州胡國에서 耽羅國으로의 변화 시기는 Ⅲ장의 연구 결과에 따라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13) 리지린, 『고조선 연구』, 과학원출판사, 1963; 열사람, 1989, 286~287쪽.

14) 주호를 제주로 비정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병도, 앞의 논문, 1976, 297~299쪽 ; 李清圭, 『濟州島 考古學 研究』, 학연문화사, 1995, 318쪽; 진영일, 「三國志·三國史記의 州胡·耽羅國 연구」, 『인문학연구』 6, 제주 대 인문학연구소, 2000: 「주호와 탐라국」, 『고대중세 제주역사탐색』, 보고사, 2008, 44~46쪽; 高昌錫, 『耽羅國時代史』, 서귀포문화원, 2007, 29~31쪽; 권오영, 앞의 논문, 2009, 81쪽; 전경수, 앞의 책, 2010, 74쪽.

15)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百濟(5329쪽) “其王所居有東西兩城”; 『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百濟(6198쪽) “王居東西二城.”

16)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百濟(1820쪽) “其南海行三月 有身冉牟羅國 南北千餘里

이전의 상황에서 중국인이 제주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듯하다. 따라서 중국적 관점에서 기록한 방위가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료 전체의 가치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주호가 제주로 비정될 수 있는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는 그들이 韓과 교역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中韓’으로 판독해 그 실체를 찾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예컨대 3세기 『三國志』에서 지칭하는 中韓은 弁韓이고, 5세기대 范曄이 『後漢書』에서 고쳐 쓴 ‘韓中’은 三韓 전체를 의미한다는 주장이다.¹⁷⁾ 『후한서』 동이열전의 사료적 가치가 『삼국지』 동이전보다 못하다는 학계의 통설에 기반해 『삼국지』 동이전대로 ‘中韓’으로 본 후, 그 실체를 3세기 후반 영산강 유역 일대에서 마한 연맹을 주도했던 新彌國과 주변 소국으로 비정하기도 했다.¹⁸⁾ 또한 ‘中韓’을 중국과 삼한의 합침으로 보고 주호가 중국 및 한반도와 해상교류를 전개한 것으로 이해한 연구도 있다.¹⁹⁾ 그러나 『삼국지』의 모든 판본이 ‘中韓’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市買韓中’을 ‘市買中韓’으로 표기한 『삼국지』의 판본은 明代毛氏의 ‘汲古閣本’이다.²⁰⁾ 이와 달리 宋 紹興本과 中華書局 點校本에는 ‘市買韓中’으로 되어 있다. 곧 ‘韓中’과 ‘中韓’은 판본상의 차이일 가능성이 크므로 면밀한 논증 없이 자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후한서』의 ‘貨市韓中’까지 고려하여 주호국이 ‘韓中’과 교역한 것으로 보고 ‘韓’의 실체를 찾는 것으로 하겠다.

주호국이 교역한 韓은 三韓 중에서 우선 제주도와의 시인도와 항해 거리상 가장 가까운 전남 해안지역에 위치한 馬韓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²¹⁾

東西數百里.”; 『北史』 卷94, 列傳82, 百濟(3122쪽) “其南海行三月 有耽牟羅國 南北千餘里 東西數百里.”

17) 全京秀,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濟州島研究』 4, 1987, 34~37쪽;
전경수, 「先州胡에서 殇羅國까지」,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70~72쪽.

18) 진영일, 「三國志·三國史記의 州胡·耽羅國 연구」, 『인문학연구』 6, 제주대 인문학연구소, 2000: 「주호와 탐라국」, 『고대중세 제주역사탐색』, 보고사, 2008, 47~53쪽.

19) 강봉룡, 「한국고대의 해로와 제주 해양교류사」, 『해양문화의 보고 제주바다』(국립제주박물관 편), 서경문화사, 2017, 92쪽.

20) 國史編纂委員會, 『中國正史朝鮮傳』譯註1, 1987, 195쪽.

21) 李清圭, 『濟州島 考古學 研究』, 학연문화사, 1995, 318~319쪽, 334쪽. 글자의 판독은 中韓으로 했지만 주호와의 교역 대상국으로 신미국을 중심으로 마한을 주목한 진영일

다만 그것이 주호국 교류의 범위를 마한으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주호국 교류의 범위를 살피기 위해서는 고고자료를 주목해야 한다. 다행히 어렵잖하게나마 주호국의 대외교류 양상과 범위를 시사해줄 만한 단서가 있다.

1928년 제주시 건입동 산지항 축조 공사 때 五銖錢 4점, 貨泉 11점, 大泉五十 2점, 貨布 1점 등 18점의 중국 화폐가 출토되었다.²²⁾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의 주거지와 구좌읍 종달리 패총에서도 각각 화천 2점과 1점이 출토되었다.²³⁾ 또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의 오수전 11점, 화천 5점, 대천오십 5점도 제주도 출토품이 유력하다.²⁴⁾ 오수전은 前漢 武帝 元狩 5년(B.C. 118) 半兩錢을 파하고 처음 주조한 후, 唐 高祖 武德 4년(621)에 開元通寶를 주조할 때까지 700여 년 이상 사용하였다.²⁵⁾ 화천은 王莽이 新(A.D. 8~23)을 세운 후 주조한 이른바 ‘王莽錢’이다. 天鳳 元年(14)에 만들어서 後漢 光武帝 16년(A.D. 40)에 왕망전을 폐기할 때까지 사용하였다. 화포도 화천과 같이 주조한 것으로 화천 25배의 가치를 지녔다.²⁶⁾ 대천오십은 왕망 居攝 2년(A.D. 7)에 주조되어 화포와 화천을 주조할 때까지 사용한 동전이다.²⁷⁾ 화포와 대천오십은 남한지역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출토되었다.

왕망전은 사용된 시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호국이 1세기 대에 중국과 교류했음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²⁸⁾ 특히 제주도 외에도 빈

의 연구도 의미가 있다.

- 22) 梅原末治·藤田亮策, 「濟州島山地港出土の一括遺物」, 『朝鮮古文化綜鑑』I, 德養社, 1947, 57~59쪽(金京七, 『湖南地方의 原三國時代 對外交流』, 학연문화사, 2009, 140쪽에서 재인용).
- 23) 제주사정립추진위원회 외, 『濟州錦城里遺蹟』, 2001; 申大坤 외, 『濟州終達里遺蹟』I, 2006(김경칠, 위의 책, 2009, 142~143쪽에서 재인용).
- 24) 李清圭·康昌和, 「제주도 출토 漢代 화폐유물의 한 예」, 『韓國上古史學報』17, 한국상고사학회, 1994, 581~583쪽.
- 25) 丁福保 編纂, 『歷代古錢圖說』, 齊魯書社, 2006, 100쪽, 136쪽; 김경칠, 앞의 책, 2009, 148쪽.
- 26) 『漢書』卷24下, 食貨志4下(1184쪽) “天鳳元年 復申下金銀龜貝之貨 頗增減其貞直 而罷大小錢 改作貨布 長二寸五分 廣一寸 首長八分有奇 廣八分 其闊好徑二分半 足枝長八分 間廣二分 其文右曰貨 左曰布 重二十五銖 直貨泉二十五 貨泉徑一寸 重五銖 文右曰貨 左曰泉 枚直一 與貨布二品並行.”; 김경칠, 앞의 책, 2009, 151~152쪽.
- 27) 『漢書』卷24下, 食貨志4下(1177쪽) “王莽居攝 變漢制 以周錢有子母相權 於是更造大錢 徑寸二分 重十二銖 文曰大錢五十.”; 丁福保 編纂, 앞의 책, 2006, 101쪽.
- 28) 다만 매납 시기는 화폐의 전세기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공반 출토 유물과의 비교·검토

번하게 출토되고 있는 화천의 출토지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아시아의 교역경로와 주호국의 교역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화천의 출토 양상을 살펴보면, 평양 남정리 116호분에서 2점, 나주 복암리 랑동 유적에서 2점, 해남 군곡리 패총에서 1점, 김해 회현리 패총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²⁹⁾ 그리고 최근에는 광주광역시 복룡동 유적의 1호 토광묘에서 화천 50여 점이 꾸러미 형태로 출토되었다.³⁰⁾ 이들 지역은 모두 서남해의 해안이나 영산강 유역의 수운이 닿는 물길 교통로의 요충지에 해당한다. 화천 이외에 중국 漢代 화폐의 한반도 출토 양상을 살펴보면³¹⁾ 이러한 특징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곧 화폐의 교역이 해상교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중국 화폐의 한반도 유입은 본토와의 직접적인 교역이라기보다는 한군현(낙랑군)을 매개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지』 동이전에 따르면, 弁辰에서 생산된 철을 韓·漢·倭人们이 모두 와서 사가며, 낙랑과 대방의 두 군현에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³²⁾ 또 王莽의 地皇 연간(A.D. 20~22)에 辰韓의 右渠帥였던 염사치가 낙랑으로 귀순하고자 했을 때 낙랑 茅中에서 큰 배를 타고 진한에 들어가서 염사치와 그 무리를 데려갔다.³³⁾ 脫解가 처음 금관가야에 왔다가 떠날 때 변두리 교외나루에 이르러, 중국으로부터 오는 배가 닿는 물길을 따라가려고 했다는 기록도 전한다.³⁴⁾ 이를 통해 1세기 초에 이미 낙

가 필요하다.

- 29) 김경칠, 앞의 책, 2009, 153쪽의 표 ‘남한지역 출토 화천 현황’과 박선미,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2009, 342쪽의 표 ‘한반도의 중국 화폐 출토 현황’을 종합하였다.
- 30)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6년 1월 18일 ; 『계간 한국의 고고학』 31, 주류성출판사, 2016, 6쪽.
- 31) 박선미, 앞의 책, 2009, 341쪽의 지도 ‘한반도에서 조사된 화폐유적의 위치’ 참고.
- 32)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弁辰(853等) “國出鐵 韓·漢·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 33)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韓(851等) “至王莽地皇時 廉斯鑄爲辰韓 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落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 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 為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鑄曰 我當降漢樂浪 汝欲去不 戶來曰 可 (辰)鑄因將戶來(來)出詣含資縣 縣言郡 郡即以鑄爲譯 從芩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 降伴輩尙得千人 其五百人已死...”
- 34) 『三國遺事』 卷2, 紀異2, 駕洛國記.

랑과 진·변한 사이에 바닷길을 통한 교통로가 개통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곧 낙랑에서 서남해안을 거쳐倭까지 이르는 교역경로를 상정하는 것은³⁵⁾ 자연스러운 이해이다. 실제로 『삼국지』 동이전 왜전에는 한군현에서 왜국까지 가는 경로를 삼한 영토의 서남해안을 따라 물길을 이용해 狗邪韓國[김해]에 도착한 후, 이곳에서 대마도를 경유해 가는 것으로 자세히 남겨 놓았다.³⁶⁾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군현과 변·진한-왜로 이어지는 교역경로 상에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왕망전이 다량으로 출토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것은 주호국 시기 다른 고고자료의 출토 양상을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겠다. 제주시 용담동 무덤유적에서 철제 장검(86cm) 2기와 단검 1기, 그리고 화살촉·도끼·투겁창 등 다량의 철제 유물이 출토되었다.³⁷⁾ 이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철제 장검이었는데, 그 이유는 손잡이 부분의 양쪽에 소용돌이[고사리] 모양의 장식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었다.³⁸⁾ 같은 유물이 금강 변에 위치한 세종시 용호리 유적과 포항 옥성리 유적, 김해 양동리 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용호리 유적 1호 주구묘에서 출토된 쇠칼은³⁹⁾ 김해 양동리의 것과 매우 흡사해 마한과 변한 수장총 사이 교류의 실체를 상징하는 고고자료로 주목받았다.⁴⁰⁾ 고사리 문양의 철제장검이 출토된 영남지역의 무덤은 2~3세기대 목곽묘이다. 그렇다면 용담동 출토 장검도 진·변한 영남지역과의 교역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⁴¹⁾ 또한 삼양동 유적 출토 玉環도 재질[軟玉]과 형태상[편육각형]

35) 김경칠, 앞의 책, 2009, 154~155쪽; 김경주, 「고고유물을 통해 본 耽羅의 대외교역-漢式 유물을 중심으로-」,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153쪽.

36)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倭(854쪽) “倭人在帶方東南大海之中…從[帶方]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裏 始度一海 千餘裏至對馬國….”

37)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전시유물도록, 2011, 81~83쪽.

38) 빨굴 당시에는 떨어져 있어 원형 장식의 용도를 몰랐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애초에 손잡이에 부착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39) 李南奭·李賢淑, 『燕岐 龍湖里 遺蹟』, 공주대학교 박물관·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2008, 12~16쪽.

40) 이남석·이현숙, 위의 보고서, 2008, 43쪽; 우재병, 「무덤과 祭祀遺蹟을 통해 본 5~6세기 百濟와倭」, 『韓國史學報』 45, 고려사학회, 2011, 52~54쪽. 우재병은 변한 중심세력이 마한 수장총에 준 위신재로 파악하였다.

낙랑의 것과 동일하므로 그곳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⁴²⁾

이로써 주호국이 낙랑·대방·마한·변·진한·왜의 교역체계에 능동적으로 동참했음을 알 수 있다.⁴³⁾ 그것은 고고자료의 사례에서처럼 제주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제품과 각종 위신품을 얻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존에 꼭 필요한 소금의 조달 문제도 개재되어 있었을 법하다. 沖庵 金淨이 제주도로 유배 온 1520년 8월~1521년 10월까지를 기록한 『濟州風土錄』에 따르면, 제주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소금이 거의 나지 않아 진도와 해남 등지에서 사들인다고 되어 있다.⁴⁴⁾ 18세기 중·후반 제주의 사회상이 오롯이 담긴 『增補耽羅誌』에도 제주의 바닷가가 모두 바위라서 염전이 매우 적고, 무쇠가 나지 않아 가마솥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아서 소금이 매우 귀하다고 되어 있다.⁴⁵⁾ 소금의 희소성은 고대 주호~탐라국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며, 외부로부터 들여와야 하는 중요 수입 품목이었을 것이다.⁴⁶⁾

제주에서 출토된 중국 화폐의 용도는 출토양이 적고 일부에 구멍이 뚫려 있음에 주목한 결과 위신품으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⁴⁷⁾ 다만 구멍이 뚫린 화폐가 일부에 불과하고, 최근 광주광역시 복룡동 유적에서 화천꾸러미 50점이 출토된 것과, 여수시 거문도에서 980여 점의 오수전

41) 이정규, 앞의 책, 1995, 192쪽; 권오영, 앞의 논문, 2009, 87~88쪽 ; 김경주, 「龍潭洞 鐵器副葬墓와 그 被葬者の 性格」, 『인류학 고고학 논총』(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개설 40주년 기념논총), 학연문화사, 2012, 395~398쪽; 김경주, 앞의 논문, 2013, 137~139쪽.

42)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2005, 35쪽; 권오영, 앞의 논문, 2009, 84~85쪽; 김경주, 앞의 논문, 2013, 145~147쪽.

43) 김경주, 앞의 논문, 2013, 153~156쪽.

44) 『沖庵先生集』 卷4, 南土六章章八句 濟州風土錄 “地環巨海而鹽不產 欲煮田鹽如西海 則無鹽可耕以取汲 欲煮海鹽如東海則水淡 功百倍而所得絕少 必貿於珍島海南等處.”

45) 『增補耽羅誌』 第1, 濟州 土產 “鹽: 海濱皆是礁嶼 斥鹵之地甚少 此地又不產水鐵 有釜者無多 故鹽極貴.”: 『國譯 增補耽羅誌』,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원, 2016, 162쪽.

46) 이정규, 앞의 책, 1995, 307쪽.

47) 秦榮一,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濟州島史研究』 3, 제주도사연구회, 1994: 앞의 책, 2009, 33~35쪽; 이정규, 앞의 책, 1995, 197쪽; 李鉉起, 「考古學 資料를 통 해 본 古代 南海岸地方 對外交流-貨幣와 卜骨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9-2, 역사문화학회, 2006, 132~133쪽; 김경칠, 「南韓地域 출토 漢代 金屬貨幣와 그 성격」, 『湖南考古學報』 27, 호남고고학회, 2007: 앞의 책, 2009, 157~158쪽.

이 출토된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무역 거점항에서는 결제의 수단으로 화폐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제주 산지항의 경우도 전면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것이 아닌 만큼 이러한 측면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⁴⁸⁾

제주도산 토기가 나주시 수문 패총, 해남 군곡리 유적, 사천 늑도에서 출토되었다.⁴⁹⁾ 결국 이러한 고고자료의 출토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호국의 교역범위는 거리상 가장 가까운 전남지역의 마한을 중심으로 진·변한 지역을 망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주호국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인 교역활동의 결과였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III.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耽羅’

제주의 고대국가가 耽羅國으로서 한반도의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가 최초의 기록이다.

2-① 여름 4월에 耽羅國이 토산물을 바치니 왕이 기뻐하여 [탐라국의] 使者를 恩率로 삼았다.⁵⁰⁾

② 8월에 왕이 耽羅가 貢賦를 바치지 않자 몸소 정벌하고자 武珍州에 이르렀다. 탐라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벌었으므로 그만두었다.(耽羅는 곧 耽牟羅이다.)⁵¹⁾

③ 2년 12월. 남쪽 바다 중의 耽羅人이 처음으로 百濟國과 통교하였다.⁵²⁾

48) 진영일이 위신재로서 화폐의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제주도의 유력자가 산지항을 기점으로 주변 국가들과 거래하기 위한 국제무역 결제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라 본 것은 의미가 있다(진영일, 앞의 책, 2009, 30쪽).

49) 崔盛洛, 『海南 郡谷里貝塚』Ⅲ, 목포대학교 박물관, 1989, 42~43쪽; 이청규, 앞의 책, 1995, 297쪽; 李清圭, 「韓中交流에 대한 考古學的 探討」, 『韓國古代史研究』 32, 한국고대사학회, 2003, 119쪽; 이재현, 「원삼국시대 남해안 해상교류시스템—늑도유적의 발굴성과와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大丘史學』 91, 대구사학회, 2008, 5쪽; 김경주, 앞의 논문, 2013, 151쪽; 『국제무역항 늑도와 하루노쓰지』(사천 늑도유적 발굴 3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진주박물관, 2016, 93쪽.

50)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文周王 2년(476).

51)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20년(498).

사료 2-①~②를 통해서 보면, 耽羅國은 5세기 후반인 문주왕 2년(476)에 처음 백제와 관계를 맺었다. 기록상으로는 특별한 배경 없이 탐라국이 스스로 백제에게 토산물을 바쳤고, 문주왕이 이를 기쁘게 생각해 탐라 사신에게 백제 16관등 중 3위에 해당하는 恩率을 내려주었다. 문주왕 2년이면 백제가 고구려 장수왕의 급습을 받아 漢城을 함락당하고, 어쩔 수 없이 熊津으로 천도했던 475년 직후였다. 문주왕으로서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공납을 바치기 위해 온 탐라국의 사절단이 매우 반가웠을 법하다. 때문에 탐라국의 왕도 아닌 사신에게 고위 관등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476년 탐라국 사절단의 백제 방문은 일회성에 그쳤던 것 같다. 동성왕 20년(498) 탐라가 공물과 조세를 바치지 않자 국왕이 봄소 이를 정벌하고자 나섰던 것이다. 동성왕이 武珍州[광주광역시]에 이르자 탐라가 그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빌면서 동성왕의 탐라 정벌은 무마되었다. 곧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따르면 5세기 후반인 문주왕~동성왕대에 탐라국은 백제에 공납을 바치는 종속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사료 2-③)는 이와 달리 탐라와 백제의 통교가 508년에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탐라와 백제 관계의 개시 시점을 『삼국사기』보다 30여 년 늦게 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상치되어 보이는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의 기록 중 어느 것을 취신해야 할까?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삼국사기』의 편찬자가 탐라를 제주도로 인식하였다. 동성왕 20년조 기록의 말미에 “耽羅卽耽牟羅”라는 分註를 달았는데, 이는 대상 본문에 대한 분주자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부분의 분주는 『삼국사기』 편찬 당시의 것이다.⁵²⁾ ‘耽牟羅’는 『隋書』와 『北史』에서 제주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 용례가 있으므로,⁵³⁾ 이를 알고 있었던 『삼국사기』의 편찬자가 耽羅를 탐모라, 곧 제주도라도 설명한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은 전통시대의 사서에 충실히 계승되었다. 『고려사』 지리지와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백제본기의 탐라와 백제 간 교섭기록을 각각 耽羅縣과 濟州牧조에 집어넣었다.⁵⁴⁾ 『신증동국여지승람』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록을 제주목 건

52)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년(508) 12월.

53) 李康來,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1996, 27쪽.

54) 앞의 각주 2 참조.

치연혁에 실었다.⁵⁵⁾ 안정복의 『東史綱目』에도 백제본기의 탐라국을 제주도로 인식한 것으로 볼 때,⁵⁶⁾ 조선시대에 백제본기 탐라국의 실체를 제주도 이외의 대상으로 생각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다. 『삼국사기』의 주석서는 물론이거니와⁵⁷⁾ 많은 연구자들이 백제본기의 탐라를 제주도로 파악하고 있다.⁵⁸⁾ 그에 따라 지금의 제주도에 있었던 탐라국이 5세기 후반에 백제와 대외관계를 맺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 되었다. 이들이 5세기 후반에 탐라와 백제의 관계를 인정하는 기저에는 백제가 그 이전에 전남지역까지 진출해 영역지배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전남지역 진출을 시사해주는 기록을 살필 수 없다. 때문에 기왕에 주목한 기록이 『日本書紀』 神功紀 49년조이다.

그에 따르면, 신공황후가 49년에 백제 장군 木羅斤資 등에게 명령하여 卓淳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이어서 比自体·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의 7국을 평정하였다. 또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古奚津에 이르러 南蠻 忧彌多禮를 무찔러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백제왕 肖古와 왕자 貴須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고, 이 때 比利·辟中·布彌支·半古의 4읍이 스스로 항복했다.⁶⁰⁾ 학계에서는 신공 49년을 2주간 인하해서 369년(근초고왕 24)으로

55) 『高麗史』卷57, 志卷11, 地理2 汲羅縣; 『世宗實錄』卷151, 地理志 全羅道 濟州牧.

56)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濟州牧 建置沿革.

57) 『東史綱目』第2下, 丙辰 신라 자비왕 19년·고구려 장수왕 64년·백제 문주왕 2년; 같은 책 第3上, 戊寅 신라 소지왕 20년·고구려 문자왕 7년·백제 동성왕 20년.

58) 李丙燾 역주, 『三國史記』 하(신장판), 을유문화사, 1983, 70쪽, 73쪽;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譯註 三國史記』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691쪽; 개정 중보판, 『역주 삼국사기』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734쪽.

59) 김영심, 「웅진·사비시기 百濟의 領域」,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2003, 109~110쪽; 이도학, 「한성 함락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탐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논총』3, 한국전통문화학교, 2005: 『고구려 광개토왕릉 비문 연구』, 서경, 2006, 478~479쪽; 고창석, 『汲羅國時代史』, 서귀포문화원, 2007, 34쪽; 강종원, 『백제 국가권력의 확산과 지방』, 서경문화사, 2012, 51~52쪽; 노중국,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2012, 456~457쪽; 노중국, 「백제의 영토 확장에 대한 몇 가지 검토」, 『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2)』, 한성백제박물관, 2014, 25~26쪽; 정재윤, 「삼국시대 나주와 영산강 유역 세력의 동향」, 『歷史學研究』62, 호남사학회, 2016, 40~41쪽.

보고, 군사 작전의 주체를 백제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때 백제가 정별한 南蠻 忧彌多禮를 전남 강진으로 보는 것이 대세이다.⁶¹⁾ 그에 따라 백제 근초고왕(346~375) 때 전남지역까지 진출해 마한 잔여세력을 복속했다는 것이 문헌사학자 사이에 통설로 자리 잡았다.⁶²⁾ 그랬을 때라야 문주 왕대에 탐라[제주도]가 백제와 관계를 맺고, 동성왕이 몸소 영산강 유역의 무진주까지 군사를 이끌고 가는 행위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제본기의 탐라를 제주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 선구적인 연구는 이근우가 발표하였다. 그가 주장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서기』 기록(사료 2-③)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점이다. 계체 2년의 탐라를 남해 바다 가운데에 있다고 묘사했으므로 지금의 제주도가 분명하고, 또 방위관념에 백제 측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백제계 사료인 「백제본기」의 내용일 가능성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 임나지배 등 『일본서기』의 편찬 의도와 무관한 데도 굳이 기록되었으므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지적이다.⁶³⁾ 따라서 탐라와 백제가 508년에 처음 통교했다는 기록을 쉽게 부

60)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49년(249) 3월 “春三月 以荒田別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氏等 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 奉上沙白蓋盧 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沙沙奴跪(是二人 不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 與沙白蓋盧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 平定比自体南加羅喉國安羅多羅卓淳 加羅 七國 仍移兵 西廻至古奚津 屠南蠻 忧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 四邑。”

61) 忧彌多禮의 일본훈 ‘トムタレ’에서 ‘トム’은 전남 강진군의 옛 이름인 ‘道武’와 음운이 통하고, ‘タレ’는 ‘드라’·‘들’로서 멸판이나 국을 의미한다(노중국, 「문헌기록을 통해 본 영산강 유역-4~5세기를 중심으로-」, 『백제와 영산강』, 학연문화사, 2012, 46쪽). 신공기 49년조의 의미와 관련 지명에 대한 위치 비정은 이병도, 「近肖古王拓境考」, 『韓國古代史研究』(수정판), 博英社, 1976, 512~514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62) 다만 신공기 49년조를 백제의 전라도 지역 진출로 생각하더라도 369년 이후 백제의 영산강 유역과 전남지방에 대한 영역지배 여부는 문헌사학자와 고고학자, 그리고 연구자 간 논란이 분분하다. 여기에서는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성정용·노중국·임영진·김낙중·서현주·이영철·김창석, 『백제와 영산강』, 학연문화사, 2012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63) 李根雨, 「熊津時代 百濟의 南方境域에 대하여」, 『百濟研究』 2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7, 51~52쪽 및 「탐라국 역사 소고」, 『釜大史學』 30, 부산대학교 사학회, 2006, 450쪽. 백제본기와의 상충되는 면 때문에 이 기록의 사료적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록이 백제계통이었다는 데에는 『일본서기』 역주서에서도 인식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둘째, 동성왕이 정벌하려 했던 汲羅가 제주도라면 무진주[광주]에 도착한 백제 군사가 제주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못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탐라가 스스로 와서 죄를 빌었다는 내용이 어색하다는 것이다. 동성왕이 애초에 제주도를 정벌하고자 했다면 육로로써 무진주를 경유하기보다는 제주로 배를 띄울 수 있는 목포나 강진·해남에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⁶⁴⁾

셋째,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의 기록을 근초고왕대로 치환해서 백제가 4세기 중·후반에 전남지역을 영유했다는 입론에 신중해야 함을 지적하였다.⁶⁵⁾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주왕~동성왕대에 백제와 관계를 맺은 汲羅(耽牟羅)는 신공기 49년조에서 백제가 南蠻으로 인식하면서 도륙했던 忧彌多禮를 계승한 강진·해남지역 세력에 대한 호칭으로 파악하였다. 결국 백제가 영산강 유역과 전남지역에 진출한 시기를 『삼국사기』를 존중해 동성왕대로 보고, 해남·강진과 교류했던 탐라[제주도]가 508년에 백제와 처음으로 통교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⁶⁶⁾

이근우의 연구 이후 그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는 연구성과가 적지 않게 발표되었다.⁶⁷⁾ 특히 문안식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탐라(탐모라)의 구체적인 위치로 해남군 북일면 일대를 주목하였다. 이곳에 있는 신월리토성 등 성곽 유적과 신월리·방산리 등의 고분유적에 주목한 결과였다.⁶⁸⁾ 또한 5세기 말 이

같이 하고 있다(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II)』, 일지사, 2003, 40~41쪽; 연민수 외, 『譯註 日本書紀』 2, 동북아역사재단, 2013, 271~272쪽).

64) 이근우, 앞의 논문, 1997, 52쪽 및 앞의 논문, 2006, 453~454쪽.

65) 이근우, 앞의 논문, 2006, 448~451쪽.

66) 이근우, 앞의 논문, 1997, 52~53쪽 및 앞의 논문, 2006, 451~454쪽.

67) 김병남, 「百濟 東城王代 대외 진출과 영역의 확대」, 『韓國思想과 文化』 22, 한국사상 문화학회, 2003, 238~241쪽; 문안식, 『백제의 홍망과 전쟁』, 혜안, 2006, 299~300쪽; 강봉룡, 「금강·영산강유역의 세력동향과 백제의 경영」, 『熊津都邑期의 百濟』(백제문화 사대계 연구총서4),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7, 266~268쪽 및 『바닷길로 찾아가는 한국 고대사』, 경인문화사, 2016, 86~88쪽; 朱甫璥, 「5~6세기 錦江上流 지역의 정치세력과 그 향방」, 『大丘史學』 106, 대구사학회, 2012, 185~186쪽; 金慶柱, 「耽羅의 對外交流와 活動—文獻 史料와 考古學 資料의 활용—」, 『제주도, 탐라의 형성과 발전』(제25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호남고고학회, 2017, 134~136쪽.

68) 文安植, 「百濟의 西南海 島嶼地域 進出과 海上交通路 掌握」, 『百濟研究』 55, 충남대 백제연구소, 2012, 284~285쪽; 「고대 강진과 그 주변지역 토착세력의 활동과 추이」,

후 백제와 조공외교 관계를 맺고 복속되었다는 문헌기록과 달리 제주도에서 백제계 위세품이 거의 없는 실정을 고려해 백제와 탐라의 관계에 회의적이거나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주장도 있다. 탐라가 7세기 말 신라와 조공관계를 맺은 이후 과지리 패총유적, 삼양동 제사유적, 종달리 패총유적 등에서 신라 양식의 인화문 희색도기가 출토되는 양상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⁶⁹⁾

그런데 문주왕과 동성왕대 백제와 관계를 맺은 탐라를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파악하는 데 가장 결림돌이 되는 부분은 『일본서기』처럼 제주도임이 분명한 耽羅와 한자 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데 있다. 이 때문인지 일부 연구자들은 『삼국사기』의 분주 耽牟羅가 耽羅[강진·해남]의 원래 호칭이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⁷⁰⁾ 하지만 ‘탐모라’는 『수서』와 『북사』에서 제주도를 지칭하는 호칭이었고, 『삼국사기』의 편찬자가 당시 문주왕~동성왕대 탐라의 실체를 제주도로 설명하기 위한 분주였다. 곧 ‘탐모라’를 고대 강진과 해남의 고유 지명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많은 연구자들이 문주왕~동성왕대의 耽羅로 비정하는 강진지역과 ‘耽羅’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일까?

‘康津’이라는 이름은 조선 태종 때에 道康縣과 耽津縣을 합치면서 한 글자씩을 따서 생긴 명칭이다. 이때 治所는 耽津에 두었다.⁷¹⁾ 道康縣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지명으로 백제시대에는 道武郡이었고, 신라 경덕왕 이후 陽武郡으로 불렸다.⁷²⁾ 지금의 강진군 병영면으로 비정된다.⁷³⁾ 耽津縣은 백제시대의 冬晉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이후 耽津縣으로 불려 조선 태종 때까지 사용하였다.⁷⁴⁾ 지금의 강진군 강진읍으로 비정된다.⁷⁵⁾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지명이 바로 ‘耽津’이다.

『歷史學研究』 52, 호남사학회, 2013, 145~149쪽; 「백제의 전남지역 마한 제국 편입 과정」, 『百濟學報』 11, 백제학회, 2014, 124~126쪽.

69) 이청규, 「탐라·우산국의 발전과 대외교류」, 『해상활동의 고고학적 기원과 전개』, 경인문화사, 2016, 306~307쪽, 312~313쪽.

70) 이근우와 문안식이 대표적이다.

7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7, 康津縣 建置沿革.

72) 『三國史記』 卷36, 地理3, 武州 陽武郡;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7, 康津縣 建置沿革.

73)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譯註 三國史記』 4, 1997, 344쪽.

74) 『三國史記』 卷36, 地理3, 武州 陽武郡;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7, 康津縣 建置沿革.

75)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譯註 三國史記』 4, 1997, 345쪽.

『고려사』 및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제주목조에는 ‘제주가 殇羅로 불린 이유가 신라시대에 殇津[강진]에 닿아서 신라 조정에 조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⁷⁶⁾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부회에 불과하다.⁷⁷⁾ 왜냐하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殇羅 호칭을 유보하더라도, 이미 『일본서기』에 508년 이전에 ‘耽羅’가 제주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진현 산천조에는 ‘九十浦가 있는데 殇羅의 사자가 신라에 조공할 때에 배를 여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름을 殇津이라 했다’는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남아 있다.⁷⁸⁾ 곧 殇津 때문에 殇羅라는 호칭이 생긴 것이 아니라, 殇羅와 교역했기 때문에 나루터의 이름이 신라시대에 殇津이 되었고, 이후 강진의 중심지로서 강진을 대표하는 지명이 된 것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殇羅는 문무왕 2년(662)에 신라와 처음 관계를 맺고 조공관계를 맺었다.⁷⁹⁾ 그렇다면 7세기 중반 이후 탐라가 바다를 건너 도착했던 강진지역이 ‘耽津’으로 불리다가 경덕왕대 이후 정식 지명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탐라와 교역했던 나루’에서 붙여진 강진의 옛 이름 ‘耽津’은 곧 ‘탐(라)나루’이다. 그렇다면 통일신라시대부터 사용했던 殇津[‘탐(라)나루’]과 殇羅[제주도] 지명을 동시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혼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주왕~동성왕대 백제와 조공관계를 맺은 탐라가 제주도인지 강진지역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다만 면밀한 논증 없이 세워진 통설[탐라=제주]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해 보인다. 논리적으로 문주왕~동성왕대 백제본기의 殇羅를 강진지역으로 비정하는 주장에도 경청할 만한 대목이 있다. 사료 2-①~②의 문면을 음미해 보면, 이러한 측면의 설득력이 배가됨을 알 수 있다.

사료 2-①에서는 구체적인 계기 없이 殇羅國이 토산물을 바치니 문주왕이

76) 『高麗史』 卷57, 志卷11, 地理2 殇羅縣; 『世宗實錄』 卷151, 地理志 全羅道 濟州牧;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建置沿革。

77) 일찍이 韓鎮書에 의해 이러한 측면이 지적되었다(『海東繹史』 卷16, 世紀16, 諸小國 殇羅).

7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7. 康津縣 山川 “九十浦 在縣南六里 源月出山南流與縣西之水合爲九十浦 殇羅星子朝新羅時泊舟于此 固名曰耽津.”

79)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上 2년(662).

기뻐하여 탐라국의 使者에게 恩率을 내려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사료 2-②에서 동성왕이 탐라를 정벌하기 위해 무진주까지 나아간 까닭은 탐라국이 애초에 약속했던 貢賦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문주왕 2년(476)에 탐라국이 백제에게 토산물을 바친 것이 자발적인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직전 해인 475년에 백제가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했기 때문일 것이다.⁸⁰⁾ 말하자면 백제의 웅진 천도에 따라 탐라의 방위에 위기의식이 고조되었고, 사전정지작업 차원에서 곧바로 토산물을 바치고 조공을 약속했던 것이다. 이후 백제가 고구려의 남진 방어에 주력하면서 탐라와의 관계가 느슨해지자 탐라가 조공을 소홀히 하면서 동성왕의 親征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탐라의 위치에 어울리는 곳은 제주도보다는 전남의 강진지역이지 않을까 싶다.

IV. 『魏書』列傳 高句麗의 ‘涉羅’

『魏書』 열전 고구려전에는 6세기 초반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자료가 전한다. 여기에서 다소 생경한 ‘涉羅’라는 국가명이 언급되는데, 이를 제주도와 관련짓는 연구가 많다. 해당 기록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3. 正始 연간[504~507]에 世宗[北魏 宣武帝]⁸¹⁾ 東堂에서 그[고구려] 사신 芮悉弗을 만났다. 실불이 나아가 말했다. “고[구]려는 [북위에] 하늘과 같은 정성으로 여러 대에 걸쳐 충성하여 토산물 朝貢을 빼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黃金은 夫餘에서 나오고, 珊는 涉羅에서 나는 것인데, 지금 부여는 勿吉에게 쫓기는 바가 되었고, 涉羅는 백제에게 병합되었습니다. 國王인 臣 雲[文咨明王]은 끊어진 의리를 잇는 것을 생각하여 [夫餘와 涉羅 사람들을] 모두 우리나라로 옮겨 살게 했습니다. 두 가지 물건을 王府에 올리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두 도적 때문입니다.”⁸¹⁾

80)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蓋鹵王 21년(475); 같은 책, 卷26, 百濟本紀4, 文周王 즉위년(475).

81) 『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麗(2216卒) “正始中 世宗於東堂引見其使芮悉弗 悉弗進

사료 3에서는 504년에 고구려 문자명왕(491~519)이 북위 선무제에게 사신을 보내 그동안 조공했던 조공품 중에서 황금과 珞를 더 이상 바칠 수 없는 사정을 말했다. 그 이유는 곧 황금은 夫餘에서 나고, 珞는 涉羅에서 나는 것인데, 부여는 勿吉에게 쫓기는 바가 되었고, 섭라가 백제에게 병합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涉羅’의 실체이다.

조선후기의 학자 한진서는 『海東繹史』에서 ‘섭라’를 제주로 비정하였다. 그 논리로 “後魏書에서는 涉羅라고 칭하였고, 隋書에서는 脣牟羅라 칭했다. 唐書에서는 僮羅라 칭하고, 또 殇浮羅·毛羅라 칭했는데, 이는 모두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방언에 島를 ‘섬(剝)’이라 하고, 國을 ‘나라(羅羅)’라 하는데, 殇·涉·僮 세 음은 모두 섬(剝)과 서로 음이 비슷하다. 대개 섬나라를 이른 것이다.”를 내세웠다.⁸²⁾ 말하자면 음운상 ‘섭라’가 ‘섬나라’와 유사하므로 ‘탐라’·‘담라’와 같이 제주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涉羅’를 제주도로 비정하는 연구성과는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일찍이 장도빈⁸³⁾·이홍직⁸⁴⁾·고창석⁸⁵⁾·이청규⁸⁶⁾가 섭라를 제주도로 파악하였다. 다만 별다른 논증이 뒷받침된 것은 아니었다. 섭라를 제주도로 이해하는데 논리를 보강한 연구자는 진영일과 이도학이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섭라에서 생산해 고구려에 공납했던 ‘珂’였다.

진영일은 모로하시 데쓰지(諸橋轍次)의 『大漢和辭典』에서 珞의 용례를 추

曰 高麗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夫餘 珞則涉羅所產 今夫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國王臣雲惟繼絕之義 悉遷于境內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 같은 기록이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文咨明王 13년(504)조에도 실려 있다. 다만 『魏書』의 “國王臣雲惟繼絕之義 悉遷于境內”이 『삼국사기』에는 빠져 있다.

82) 『海東繹史』 卷16, 世紀16, 諸小國 殇羅 “耽羅: 鎮書謹案 殇羅海島國也 後魏書稱涉羅 隋書稱𦥫牟羅 唐書稱僮羅 又稱耽浮羅毛羅皆一也 東國方音 島爲之剝 國爲之羅羅 耽涉僮三音 並與剝相類 蓋云島國也.”

83) 張道斌, 『朝鮮史』 52, 동아일보 1932년 9월 6일: 『韓國의 魂』, 경학사, 1998, 329~330쪽.

84) 李弘植, 「日本書紀所載 高句麗關係記事考」, 『東方學志』 1·3, 1954·1957 : 『韓國古代史의 研究』, 신구문화사, 1971, 138쪽.

85) 高昌錫, 『耽羅國時代史』, 서귀포문화원, 2007, 35~36쪽. 관련 내용의 최초 편찬은 1987년에 이루어졌다.

86) 李清圭, 『濟州島 考古學 研究』, 학연문화사, 1995, 321~323쪽.

출하였다.⁸⁷⁾ 그 결과 ① 옥의 이름, ② 소라 종류로서 바다에서 나며 큰 것을 珍라 하며 검고 노란 색깔을 띤다. 그 뼈는 희며 말을 장식한다(螺屬也生海中 大者爲珍 黃黑色也 其骨白 可以飾馬), ③ 조개로 만든 말 재갈의 장식, ④ 재갈(馬勒), ⑤ 흰 마노(白瑪瑙)의 용례 중에서 ②~④를 주목하였다. 곧 소라나 전복 종류로서 말재갈을 장식하는 데 쓰였던 珍의 생산지는 제주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또한 당나라의 5품 이상 관리들이 말 재갈 장식으로 사용하였던 玉珍를 방증자료로 삼았다.⁸⁸⁾ 진영일의 연구는 ‘涉羅’를 제주도로 비정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논증이 가해진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크다. 이도학도 珍를 말 재갈 장식에 사용하는 패류로 보았다.⁸⁹⁾ 이후 『大東韻府群玉』을 통해 珍을 瑪瑙로 보고 마노의 산지가 제주도임을 논증하였다.⁹⁰⁾ 진영일과 이도학의 연구 이후에도 涉羅를 제주도로 이해한 연구가 축적되었다.⁹¹⁾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 조랑말박물관에서도 ‘설라’를 제주도로 파악하여 전시 설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87)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7, 大修館書店, 1979, 900쪽.

88) 秦榮一,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形成考」, 『濟州島史研究』 3, 제주도사연구회, 1994: 『고대중세 제주역사탐색』, 보고서, 2008, 99~103쪽. 이밖에 涉羅가 신라일 경우 백제에 병합되는 내용이 당시 양국의 상황과 맞지 않는 점, 탐라의 어원에 대한 어학적 측면이 고려되었다.

89)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개정판) 『살아 있는 백제사』, 휴머니스트, 2003, 445~446쪽.

90) 이도학, 「한성 함락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탐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논총』 3, 한국전통문화학교, 2005: 『고구려 광개토왕릉 비문 연구』, 서경, 2006, 476~479쪽. 『大東韻府群玉』 卷6, 下平聲에 “珍: 碼礪. 貝大者-[珍]”라고 했고,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古蹟에 “高齡田 在州東一里 診傳唐船來敗處 今治田者或掘得瑪瑙等寶物 以爲唐人所遺”라고 하였다. 그 역시 신라가 백제에 병합된 적이 없고, 신라 國호로서 ‘涉羅’가 사용된 적이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91) 朴眞淑, 「百濟 東城王代 對外政策의 變化」, 『百濟研究』 3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101쪽; 김영심, 「웅진·사비시기 百濟의 領域」,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2003, 110~111쪽; 정진술, 『한국해양사』, 해군사관학교, 2009, 143쪽; 전경수, 「先州胡에서 耽羅國까지」,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79쪽; 윤명철, 「해양 교류로 본 탐라사」,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287~288쪽; 김선숙, 「『梁職貢圖』·『梁書』의 신라 국호 異稱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32, 국학연구소, 2017, 35~36쪽. 김영심이 이도학의 논리를 따랐고, 나머지는 별다른 논증을 하지 않았다.

『위서』의 섭라를 제주도로 보는 연구자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문주왕~동성왕대의 탐라도 제주로 파악한 후 계기적인 역사 해석을 하였다. 예컨대 이청규는 탐라가 476년 문주왕 때 백제에 조공을 하다가 이후 중단하고 고구려에 조공을 했고, 498년 동성왕의 위협으로 고구려와의 조공을 중단하고 다시 백제로 돌아섰다고 이해하였다.⁹²⁾ 윤명철은 고구려가 백제를 압박할 정치적인 목적과 함께 진귀한 남방의 물산을 획득하고자 탐라와 교역을 했었는데, 백제로 인해 그것이 좌절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동성왕이 탐라 정벌을 위해 무진주까지 내려간 것도 탐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⁹³⁾ 이와 같이 『위서』 섭라의 실체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殇羅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역사 해석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위서』의 ‘涉羅’를 제주도가 아닌 신라로 본 연구도 있었다. 일찍이 조지훈이 珂를 신라산 玉으로 보고 ‘涉羅’를 신라 국명의 異寫로 조심스럽게 추정하였다.⁹⁴⁾ 이용범도 신문 칼럼에서 천마총 출토 금관에 대해 논하면서 涉羅의 珂를 신라의 硬玉으로 언급하였다.⁹⁵⁾ 이후 노태돈이 신라를 고구려의 천하관에 속해 있는 조공국으로 설정하면서 ‘涉羅’를 신라로 파악하였다.⁹⁶⁾ 김현숙⁹⁷⁾·주보돈⁹⁸⁾·정재윤⁹⁹⁾이 이를 받아들여 섭라를 신라로 이해하였다.

92) 이청규, 앞의 책, 1995, 321~323쪽. 이청규는 이후 고고학적 차원에서 5세기대 백제와 탐라의 관계를 신중하게 보았지만 당시에는 백제본기 기록에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93) 윤명철, 앞의 논문, 2013, 287~299쪽.

94) 趙芝薰, 「신라 國號 연구 논고-新羅原義攷-」, 『高大五十周年紀念論文集』, 1955: 『한국학연구』(조지훈전집8), 나남출판, 1996, 67~68쪽.

95) 李龍範, 동아일보 1973년 7월 30일자.

96) 盧泰敦, 「5세기 高句麗人の 天下觀」, 『韓國史 市民講座』 3, 一潮閣, 1988: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371~372쪽.

97) 김현숙, 「4~6세기경 小白山脈 以東地域의 領域向方」, 『韓國古代史研究』 26, 한국고대사학회, 2002, 108쪽.

98) 朱甫瞰, 「新羅國家 形成期 金氏族團의 성장배경」, 『韓國古代史研究』 26, 2002, 147~148쪽 및 「熊津都邑期 百濟와 新羅의 關係」,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편, 서경, 2003, 208~209쪽.

99) 정재윤, 「집권 기반의 확립과 영토 확장」, 『熊津都邑期의 百濟』(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

이들은 모두 瑰를 (白)瑪瑙로 보았다. 또한 신라가 백제에게 병합되었다는 기록은 과거 고구려의 속민으로 인식되던 신라가 백제와 동맹을 맺어 반고구려 연합전선을 맺고 있는 데 대한 외교적 修辭로 해석하였다.¹⁰⁰⁾ 실제로 梁 元帝 蕭繹이 莆州刺史 재임(526~539) 때 父王 武帝(502~549)의 재위 4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린 「梁職貢圖」에도 신라가 백제에 종속된 나라로 묘사되어 있다.¹⁰¹⁾ 신라가 독자적으로 南朝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기 어려웠던 시절 백제의 주도로 이루어진 외교관계에서 백제가 의도적으로 신라를 낚춤으로써 자신의 외교적 지위를 보장받고자 했던 것이다.¹⁰²⁾ 고구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 북위에 과장을 했을 법하다. 그렇게 보면 涉羅[신라]가 백제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瑰를 바칠 수 없다는 문구를 외교적 수사로 본 지적은 수긍할 만한 것이다.

이노우에 아오기(井上直樹)는 고구려와 탐라의 관계에 대한 사료가 없고, 고구려의 남방 진출선이 제주도까지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본적인 문제 의식을 가졌다. 그리고 434년 신라가 백제에게 예물로 황금과 明珠를 보낸 기록¹⁰³⁾을 주목하였다. 여기서의 명주를 신라에서 생산된 玉이나 瑪瑙의 종류로 파악한 후 그것이 곧 瑰이며, 자연 涉羅도 신라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¹⁰⁴⁾ 김진한도 이에 공감하였다.¹⁰⁵⁾

다만 ‘설라 = 신라설(이하 신라설로 약칭)’ 연구자들의 주장에 일리 있는 대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라 = 제주설(이하 제주설로 약칭)’의 연구자들에 비해 논리가 다소 세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계의 연구경향은 제주설이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위서』의 ‘설라’는

서4),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7, 184~185쪽.

100) 주보돈이 대표적이다.

101) 「梁職貢圖」(北宋摹本) “百濟…旁小國有 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
汝·下枕羅等附之.” ‘스로’를 신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02) 강종훈도 「양직공도」의 이 부분을 傳言 과정에서의 의도적 왜곡 사례에 포함시켰다.
곧 신라 사신이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백제가 이를 교묘히 이용
해 마치 신라마저 백제에 부용된 나라이 것처럼 양나라 지배층에게 과장한 것으로 보
았다(강종훈, 『한국고대사 사료비판론』, 교육과학사, 2017, 109~110쪽).

103)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祇麻立干 18년(434).

104) 井上直樹, 「高句麗の對北魏外交と朝鮮半島情勢」, 『朝鮮史研究會 論文集』 38, 朝鮮
史研究會, 2000, 191~193쪽.

105) 金鎮漢, 『高句麗 後期 對外關係史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0, 63쪽.

과연 제주도일까 신라일까? 필자는 섭라가 신라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지지하면서 논지를 보강하고자 한다.

첫째, 고구려와 탐라 관계의 사실성 문제이다. ‘제주설’에는 504년 이전에 고구려와 탐라[제주도]가 瑰를 매개로 하는 조공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전제되어 있다. 물론 탐라와 고구려의 항해능력과 造船術로만 보면 두 나라 간에 교역경로가 개통되어 있었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고구려와 탐라의 관계를 입증해 줄 만한 문헌과 고고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주호국 단계부터 탐라의 교역양상은 한반도 국가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 아닌 탐라국의 필요에 의해 추구된 능동적 교역이었다. 탐라국이 필요로 했던 철제품 등의 각종 위신품과 소금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백제 및 가야와의 교역으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다. 탐라로서는 백제를 건너 뛰어 원거리에 위치한 고구려와 교류할 만한 적극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위서』의 기록을 『삼국사기』에 옮겨 적으면서 누락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곧 부여가 물길에게 쫓기고, 섭라가 백제에게 병합되자 문자명왕이 부여와 섭라 사람들을 고구려로 옮겨 살게 했다는 부분이다. 『삼국사기』만을 근거로 섭라의 실체를 찾는 연구자들은 이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부여의 경우 『위서』의 내용과 부합할 만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 있다. 곧 문자명왕 3년(494)에 부여왕과 처자가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는 대목이다.¹⁰⁶⁾ 다만 섭라의 경우 신라민이든 제주도민이든 고구려로 사민시켰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외교적 수사이기는 하지만 부여의 경우를 볼 때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상당한 규모의 사민이나 이주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제주도에서 고구려로 이러한 것이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따른다. 신라의 경우 국경선을 맞대고 있고, 전쟁을 통해 두 나라 간에 지속적인 영역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民의 이주가 빈번하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고구려 입장에서는 부여에 대한 정보는 과장하기가 어려웠을 터이므로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했고, 신라와 백제에 대한 정보를 북위가 알기 쉽지 않았음을 감안해 적당히 과장·왜곡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듈다.

106)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7, 文咨明王 3년(494).

둘째, 그렇다면 涉羅가 신라 국호인가 하는 문제이다. 『삼국사기』·『삼국유사』와 중국 사서, 금석문에 남아 있는 신라 국호로는 ‘新羅’ 이외에 ‘斯羅’·‘斯盧’·‘徐耶伐’·‘徐羅伐’·‘鷄林’ 등이 알려져 있다.¹⁰⁷⁾ 그런데 『晉書』苻堅傳에는 380년 前秦 내부에서 발생한 苻洛의 모반 사건 때 부락이 병사 지원을 위해 사신을 보낸 주변 국가의 명단에 高句麗·百濟·薛羅가 함께 언급되어 있다.¹⁰⁸⁾ 여기서 薛羅는 문맥상 新羅가 유력하다. 실제로 『資治通鑑』에서는 해당 기사를 서술하면서 ‘薛羅’를 ‘新羅’로 고쳐서 표기하였다.¹⁰⁹⁾ 「海印寺 妙吉祥塔誌」에도 설라가 신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 적이 있으므로¹¹⁰⁾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신라를 설라로 표기한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이로써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신라 국호로서 ‘薛羅’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晉書』의 薛羅에 대해 조선 영조대의 학자 신경준은 『頤齋遺藁』에서 주목할 만한 해설을 하였다.

4. 晉書 苻堅傳에서 新羅를 薛羅라 하였다. 대개 신라는 처음에 徐伐羅라고 칭했는데, 徐伐 두 글자를 합하여 소리내면 薛의 음과 서로 비슷하다. 또한 지금 서울사람들이 內官을 관장하는 御膳者를 薛里라고 하는데, 薛의 음이 ‘薛’으로 ‘涉’의 소리와 같다. 또한 ‘徐’와 ‘伐’의 초성 둘을 합한 것이니 薛과 같은 遺語 일 뿐이다.¹¹¹⁾

107) 신라 국호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朱甫墩, 「新羅 國號의 確定과 民意識의 成長」, 『九谷 黃鍾東教授 停年紀念 史學論叢』, 1994;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1998과 채미하, 「신라 국호의 양상과 ‘계림’」, 『新羅史學報』 37, 신라사학회, 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108) 『晉書』 卷113, 載記13, 苻堅上(2902卒) “[苻]洛…分遣使者徵兵於鮮卑烏丸高句麗百濟及薛羅 休忍等諸國 並不從.”

109) 『資治通鑑』 卷104, 晉紀26, 孝武帝 太元 5년(380) 中華書局 點校本(1997), 3293쪽.

110) 黃壽永, 「五臺山寺吉祥塔詞·哭緇軍」, 『韓國金石遺文』(제5판), 一志社, 1994, 177쪽.

111) 『頤齋遺藁』 卷25, 雜著 華音方言字義解 “晉書苻堅傳 以新羅爲薛羅 蓋新羅初稱徐伐羅 徐伐二合聲 與薛音相近 又今京人呼內官管 御膳者爲薛里 而薛音似 如涉聲 亦徐及伐初聲二合 如薛之遺語耳.” 薛은 薛의 異體字이다. 『진서』와 『이재유고』의 薛羅는 채미하, 앞의 논문, 3쪽과 6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함을 전한다.

곧 신경준은 薛羅에서 ‘薛’의 음이 ‘涉’과 같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薛羅’와 ‘涉羅’가 음운상 같고 그것이 모두 신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신경준의 견해를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涉羅’를 新羅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로서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섭라가 제주도를 지칭하는 표기로 사용된 용례는 『魏書』 이외에 없다. 또한 고대 국어 음운의 실상을 잘 모르지만涉羅는 제주도를 지칭하는 ‘耽羅’·‘毛羅(托羅)’·‘儋羅’·‘耽牟羅’ 등과 상호 간에 음운적 계통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셋째, 珂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제주설’의 연구자는 珂를 소라나 조개 종류로서 말 재갈을 장식하는데 쓰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珂가 소라와 조개에서 채취한 것이라면 그 생산지로 제주가 유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 보면涉羅를 제주도로 생각한 선입관이 珂의 여러 용례 중에서 유독 ‘소라와 조개로 만든 말 재갈’에 주목하게끔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珂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耽羅志』·『輿地圖書』·『증보탐라지』 등의 각종 지리서에서 제주도의 土產品 목록에도 남아 있지 않다. 사실 『大漢和辭典』에서 제시한 珂의 용례 중 1~2번은 玉 또는 백마노였다. 조개로 만든 말 재갈은 3~5번 째 용례로서 우선순위에서 보면 珂가 옥의 종류로서 마노일 가능성이 더 큼을 알 수 있다.¹¹²⁾ 『대동운부군옥』에서도 조개 중 큰 것을 珂라고 했지만, 그에 앞서 珂가 碼礪[瑪瑙]임을 먼저 기술하였다.¹¹³⁾

이도학의 경우 珂를 마노로 보고 그 산지가 제주도라는 논리를 내세워 ‘제주설’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마노는 제주의 토산품이 아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고적조에 남아 있는 高齡田에서도 唐의 배가 여기에 유실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마노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¹¹⁴⁾ 설사 마노가 제주에서 채취되었더라도 마노의 생산을 제주도로만 국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우만 하더라도 마노가 토산품으로 소개된 지역은 울산과 삼척으로서¹¹⁵⁾ 신라의 영역 안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고고자료도 금관총에서 마노제 관옥과 다면옥·환옥 등이 출토되었고, 경주 조양동 유적에

112)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7, 大修館書店, 1979, 900쪽.

113) 각주 90의 사료 참고.

114) 각주 90의 사료 참고.

11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2, 蔚山郡 土產; 같은 책 卷44, 三陟都護府 土產.

서도 마노의 출토 사례가 있다.¹¹⁶⁾

‘金科玉條’나 ‘金枝玉葉’ 등의 고사성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로부터 중국에서 귀하게 여겨 온 玉은 金과 세트로 상관성 있게 취급되었다. 신라의 금관에 곡옥을 매단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434년 신라가 백제에게 ‘황금과 明珠’를 바친 것¹¹⁷⁾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고대에는 금을 天精으로 옥을 地靈으로 여겨 ‘精金靈玉’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¹¹⁸⁾ 백제의 경우도 「砂宅智積碑」에 따르면, 의자왕 14년(654)에 사택지적이 불교에 귀의해 원찰을 건립할 때 金을 뚫어 보배로운 금당을 세우고 玉을 갈아 보배로운 탑을 세웠다고 한다.¹¹⁹⁾ 결국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고구려가 북위에 황금과 더불어 조공을 했던 珍는 마노 내지 크게 보아 옥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함이 더 자연스럽다.

V. 맷음말

고대 탐라국에 대한 호칭은 ‘州胡’에서부터 ‘耽羅’·‘毛羅(托羅)’·‘儋羅’·‘涉羅’, 그리고 ‘耽牟羅’까지 다양한 표기로 史書에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모두를 동일 대상인 탐라국에 대한 이표기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耽羅와 『魏書』 고구려전에 나오는 ‘涉羅’의 실체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三國志』 東夷傳의 韓傳에 나오는 州胡는 ‘오랑캐 마을’ 내지 ‘첨 오랑캐’로 해석된다. 문면으로 보았을 때 중국 측에 의한 타칭인 듯하다. 『後漢書』

116) 濱田耕作·梅原未治, 『慶州金冠塚と其遺蹟』(古蹟調査特別報告3), 朝鮮總督府, 1924~28; 『慶州 金冠塚 發掘調査報告書』(國譯),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11, 76~77쪽, 147쪽 ; 『新羅古墳 情密測量 및 分布調查 研究報告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11, 84~85쪽; 이한상,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2004, 48쪽.

117) 각주 103의 출전 참고.

118) 김양동, 「고대 한국 曲玉의 기원과 상징에 대한 문화사적 검토」, 『新羅史學報』 25, 2012, 404쪽.

119) 권인한·김경호·윤선태 공동편집, 「砂宅智積碑」, 『한국고대문자자료연구』 백제(상)-지역별, 주류성, 2016, 357~358쪽. “甲寅年 正月九日奈祇城 砂宅智積 慶身日之易往慨體月之難還 穿金以建珍堂 鑿玉以立寶塔 巍巍慈容 吐神光以送雲 羌羌悲狠含聖明以.”

東夷列傳에는 州胡國으로 표기되어 있어 탐라국 이전 제주의 고대국가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고 있다. 주호국이 지금의 제주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연구자는 없다. 다만 주호가 교역한 韓中の 실체에 대해서는 연구자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다. 韓의 실체 규명은 주호가 제주로 비정될 수 있는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제주시 산지항에서 출토된 貨泉 등 王莽錢은 주호국이 1세기 대에 중국과 교류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화천과 중국 화폐의 한반도 출토 양상을 살펴보면, 서남해의 해안이나 영산강 유역의 수운이 미치는 물길 교통로의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 화폐의 한반도 유입은 본토와의 직접적인 교역보다는 한군현(낙랑군)을 매개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가 한군현과 변·진한·왜로 이어지는 교역경로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항과 용담동·삼양동 등에서 화폐와 철제 무기류·옥환 등 중국이나 진·변한 계통의 위신품이 출토되는 까닭은 주호국이 이들의 교역체계에 능동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다. 주호국의 교역범위는 거리상 가장 가까운 전남지역의 마한을 중심으로 진·변한 지역을 망라하였다. 제주도산 토기가 나주시 수문 패총, 해남 군곡리 유적, 사천 늑도에서 출토된 것은 그 실증적인 고고자료이다.

제주의 고대국가가 殇羅國으로서 한반도의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가 최초의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5세기 후반인 문주왕~동성왕대에 탐라국은 백제에 공납을 바치는 종속관계에 있었다. 이와 달리 『일본서기』에는 탐라와 백제의 통교가 508년에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기왕에는 백제본기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백제가 4세기 후반인 근초고왕대에 전남지역까지 진출해 영역지배 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 통설과 다르게 백제본기의 탐라를 제주도로 보는 데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일본서기』의 해당 기록이 백제계 계통이어서 사료 가치가 높다는 점, 동성왕이 정벌하려 했던 殇羅가 제주도라면 무진주[광주]에 도착한 백제 군사에 대해 탐라가 스스로 와서 죄를 빌었다는 내용이 어색하다는 점,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의 기록을 근거로 백제가 4세기 중·후반에 전남지역을 영유했다는 입론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그 결과 백제본기의 탐라를 전남 강진과 해남지역에 있었던 소국으로 비정하였다. 백제본기 탐라의 실체는 향후 검토할 여지가 남아 있다.

『魏書』 열전 고구려전에 따르면, 504년에 고구려 문자명왕(491~519)이

북위 선무제에게 사신을 보내 그동안 조공했던 황금과 瑰를 더 이상 바칠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황금은 夫餘에서 나오고, 瑰는 涉羅에서 나는 것인데, 부여는 勿吉에게 쫓기는 바가 되었고, 섭라가 백제에게 병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涉羅’의 실체이다.

한진서가 『海東繹史』에서 ‘섭라’를 제주로 비정한 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계승하였다. 특히 瑰를 말 재갈 장식에 사용하는 소라와 전복으로 보거나, 瑪瑙로 보되 그 생산지를 제주도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瑰를 (백)마노로 보거나, 涉羅[신라]가 백제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瑰를 바칠 수 없다는 문구도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고구려와 탐라의 관계를 입증해 줄 만한 문헌과 고고자료가 남아 있지 않음 점, 『晉書』부견전에 사용된 신라의 국호 薛羅가 涉羅와 음운상 같다는 신경준의 주장에 근거해 涉羅 = 新羅일 가능성성이 마련된 점, 瑰의 실체가 말 재갈 장식보다는 옥의 범주에 포함되는 마노가 더 유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涉羅’는 제주도보다는 신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

참 고 문 헌

1. 사료

『宣和奉使高麗圖經』『三國史記』『三國遺事』『高麗史』『高麗史節要』『世宗實錄』『新增東國輿地勝覽』『冲庵先生集』『耽羅志』『東史綱目』『海東釋史』『頤齋遺藁』『增補耽羅誌』『大東韻府群玉』
 『漢書』『三國志』『後漢書』『晉書』『魏書』『北史』『隋書』『舊唐書』『新唐書』『日本書紀』

2. 연구논저

강봉룡, 「금강·영산강유역의 세력동향과 백제의 경영」, 『熊津都邑期의 百濟』(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_____, 『바닷길로 찾아가는 한국 고대사』, 경인문화사, 2016.

_____, 「한국고대의 해로와 제주 해양교류사」, 『해양문화의 보고 제주바다』(국립제주박물관 편), 서경문화사, 2017.

강종원, 『백제 국가권력의 확산과 지방』, 서경문화사, 2012.

강종훈, 『한국고대사 사료비판론』, 교육과학사, 2017.

강창화, 「고대 탐라의 형성과 전개」,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본 제주의 역사와 문화』(국립제주박물관 편), 2009, 서경문화사.

高昌錫, 『耽羅國時代史』, 서귀포문화원, 2007.

권오영, 「고대 제주와 동아시아」,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본 제주의 역사와 문화』(국립제주박물관 편), 2009, 서경문화사.

金京七, 「南韓地域 출토 漢代 金屬貨幣와 그 성격」, 『湖南考古學報』 27, 호남고고학회, 2007.

_____, 『湖南地方의 原三國時代 對外交流』, 학연문화사, 2009.

金鎮漢, 『高句麗 後期 對外關係史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0.

김경주, 「龍潭洞 鐵器副葬墓와 그 被葬者の 性格」, 『인류학 고고학 논총』(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개설 40주년 기념논총), 학연문화사, 2012.

_____, 「고고유물을 통해 본 殇羅의 대외교역-漢式 유물을 중심으로-」, 『탐라사의

-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 _____, 「耽羅의 對外交流와 活動—文獻 史料와 考古學 資料의 활용—」, 『제주도, 탐라의 형성과 발전』(제25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호남고고학회, 2017.
- 김병남, 「百濟 東城王代 대외 진출과 영역의 확대」, 『韓國思想과 文化』 2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 김선숙, 「『梁職貢圖』·『梁書』의 신라 국호 異稱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32, 국학연구소, 2017.
- 김양동, 「고대 한국 曲玉의 기원과 상징에 대한 문화사적 검토」, 『新羅史學報』 25, 신라사학회, 2012.
- 김영심, 「웅진·사비시기 百濟의 領域」,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2003.
- 김현숙, 「4~6세기경 小白山脈 以東地域의 領域向方」, 『韓國古代史研究』 26, 한국고대사학회, 2002.
- 노중국,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2012.
- _____, 「문헌기록을 통해 본 영산강 유역—4~5세기를 중심으로—」, 『백제와 영산강』, 학연문화사, 2012.
- _____, 「백제의 영토 확장에 대한 몇 가지 검토」, 『근초고왕 때 백제영토는 어디까지였나』(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2), 한성백제박물관, 2014.
- 盧泰敦, 「5세기 高句麗人の 天下觀」, 『韓國史 市民講座』 3, 一潮閣, 1988 :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 리지린, 『고조선 연구』, 과학원출판사, 1963 : 열사람, 1989.
- 文安植,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 _____, 「百濟의 西南海 島嶼地域 進出과 海上交通路 掌握」, 『百濟研究』 55, 충남대 백제연구소, 2012.
- _____, 「고대 강진과 그 주변지역 토착세력의 활동과 추이」, 『歷史學研究』 52, 호남사학회, 2013.
- _____, 「백제의 전남지역 마한 제국 편입과정」, 『百濟學報』 11, 백제학회, 2014.
- 박선미, 「한반도 출토 漢代 화폐와 그 의미」, 『先史와 古代』 28, 한국고대학회, 2008.
- _____,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2009.
- 朴眞淑, 「百濟 東城王代 對外政策의 變化」, 『百濟研究』 3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 慎鏞廈, 「耽羅國 명칭의 起源에 관한 한 연구」, 『韓國學報』 107, 一志社, 2002.
- 오창명, 「제주(濟州)의 옛 이름 재해석」,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 우재병, 「무덤과 祭祀遺蹟을 통해 본 5~6세기 百濟와 倭」, 『韓國史學報』 45, 고려사

학회, 2011.

윤명철, 「해양 교류로 본 탐라사」,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李康來,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1996.

李根雨, 「熊津時代 百濟의 南方境域에 대하여」, 『百濟研究』 2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7.

_____, 「탐라국 역사 소고」, 『釜大史學』 30, 부산대학교 사학회, 2006.

이도학, 「한성 함락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탐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논총』 3, 한국전통문화학교, 2005 : 『고구려 광개토왕릉 비문 연구』, 서경, 2006.

李鉅起, 「考古學 資料를 통해 본 古代 南海岸地方 對外交流-貨幣와 卜骨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9-2, 역사문화학회, 2006.

李丙燾, 「州胡考」, 『韓國古代史研究』(수정판), 博英社, 1976.

이재현, 「원삼국시대 남해안 해상교류시스템-늑도유적의 발굴성과와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大丘史學』 91, 대구사학회, 2008.

李清圭·康昌和, 「제주도 출토 漢代 화폐유물의 한例」, 『韓國上古史學報』 17, 한국상고사학회, 1994.

李清圭, 『濟州島 考古學 研究』, 학연문화사, 1995.

_____, 「韓中交流에 대한 考古學的 접근」, 『韓國古代史研究』 32, 한국고대사학회, 2003.

_____, 「탐라·우산국의 발전과 대외교류」, 『해상활동의 고고학적 기원과 전개』, 경인문화사, 2016.

이한상,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2004.

李弘植, 「日本書紀所載 高句麗關係記事考」, 『東方學志』 1·3, 1954·1957 : 『韓國古代史의 研究』, 신구문화사, 1971.

張道斌, 『朝鮮史』 52, 동아일보 1932년 9월 6일 : 『韓國의 魂』, 경학사, 1998.

全京秀,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濟州島研究』 4, 1987.

_____, 「先州胡에서 耽羅國까지」,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정재윤, 「집권 기반의 확립과 영토 확장」, 『熊津都邑期의 百濟』(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4),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7.

_____, 「삼국시대 나주와 영강 유역 세력의 동향」, 『歷史學研究』 62, 호남사학회, 2016,

정진술, 『한국해양사』, 해군사관학교, 2009.

- 趙芝薰, 「신라 國號 연구 논고—新羅原義敎—」, 『高大五十周年紀念論文集』, 1955: 『한국학연구』(조지훈 전집8), 나남출판, 1996.
- 朱甫噲, 「新羅國家 形成期 金氏族團의 성장배경」, 『韓國古代史研究』 26, 2002.
- _____,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 『北方史論叢』 11, 고구려연구재단, 2006.
- _____, 「5~6세기 錦江上流 지역의 정치세력과 그 향방」, 『大丘史學』 106, 대구사학회, 2012.
- 진영일, 「三國志·三國史記의 州胡·耽羅國 연구」, 『인문학연구』 6, 제주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00 : 「주호와 탐라국」, 『고대중세 제주역사탐색』, 보고사, 2008.
- _____,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耽羅文化』 3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 『고대중세 제주역사탐색』, 보고사, 2008.
- 채미하, 「신라 국호의 양상과 ‘계림’」, 『新羅史學報』 37, 신라사학회, 2016.
- 井上直樹, 「高句麗の對北魏外交と朝鮮半島情勢」, 『朝鮮史研究會 論文集』 38, 朝鮮史研究會, 2000.
- 丁福保 編纂, 『歷代古錢圖說』, 齊魯書社, 2006.

3. 발굴보고서 및 도록, 기타

-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2005.
- 濱田耕作·梅原末治, 『慶州金冠塚と其遺蹟』(古蹟調查特別報告3), 朝鮮總督府, 1924~28: 『慶州 金冠塚 發掘調查報告書』(國譯),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11.
- 李南奭·李賢淑, 『燕岐 龍湖里 遺蹟』, 공주대학교 박물관·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2008.
-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7, 大修館書店, 1979.
- 崔盛洛, 『海南 郡谷里貝塚』 III, 목포대학교 박물관, 1989.
-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유물도록, 2001.
- 국립진주박물관, 『국제무역항 늑도와 하루노쓰지』(사천 늑도유적 발굴 30주년 기념 특별전), 2016.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新羅古墳 情密測量 및 分布調查 研究報告書』, 2011.

Abstract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Research and Major Issue of Tamna in Ancient

Jang, Chang-Eun*

The Name for Tamna was recorded variously ‘Juho(州胡)’, ‘Tamna(耽羅)’, ‘Takra(毛羅)’, ‘Damra(儋羅)’, ‘Tammora(耽牟羅)’, ‘Seobra(涉羅)’ etc.

First of all, The Juho(州胡) recorded in *Sangukji Dongjeon*(三國志 東夷傳) is almost certain that now Jeju-do. Juho-guk made an exchange with Three Han States(三韓) in 1st to the 4th century. The important exchange goods Juho-guk gained was iron prestige, Chinese Coins, salt, etc.

According to *Sanguk Sag*(三國史記), Tamna(耽羅) paid tribute to Baekje in the late 5th century. But At this time of Tamna was unsure whether to Jeju-do. Some researchers argued that Tamna located in Gangjin and Haenam region, Jeollanam-do.

The Recorded in *Weisud*(魏書) for Seobra(涉羅), Many researchers think the substance is Jeju-do. Because They understood that Ga(珂) is Products made of Abalone or Conch. But Ga(珂) may be Agate or Jade. Seobra(涉羅) was used for the name of Silla. Therefore The substance of Seobra(涉羅) Silla as it might be appropriate.

Key words : Tamna, Juho(州胡), Chinese Coins(王莽錢), Ga(珂), Scobra(涉羅)

* Prof. of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 장창은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E-mail: onionjang@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7. 12. 26

심사완료일: 2018. 01. 26

게재확정일: 2018. 01. 31

일반논문

백제 威德王·武王代 對高句麗 견제의 외교적 합의
선봉조

『三國遺事』 소전 변재천녀와 통일신라법종 ‘奏樂天人像’의 연관성
강현정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과 실태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지역 扁額懸板 연구
오창림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강만익

‘우리나라의 도깨비 도로 - 심리학적 설명과 활용 제안
오성주

호텔 직원의 감정노동이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절효과 - 제주지역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백정민·조문수

백제 威德王·武王代 對高句麗 견제의 외교적 함의

선봉조*

- I. 머리말
- II. 위덕왕의 對高句麗 견제 '請爲軍導'
 - 1. 598년 위덕왕의 對隋使行
 - 2. '請爲軍導'의 외교적 함의
- III. 무왕의 對高句麗 견제 '請討高麗'
 - 1. 607년 武王의 對隋使行
 - 2. '請討高麗'의 배경과 목적
- IV. 고구려 견제로 인한 백제의 실익 與否
- V. 맷음말

국문요약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는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강유역의 지배권을 두고 벌인 두 나라의 전면적인 대립은 4~5세기의 절정기를 지나 6세기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었다. 553년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하면서부터는 이러한 양국의 관계에 변화가 동반되는 듯 했다. 백제와 고구려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한강유역이 신라로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서로 간의 대립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백제와 고구려는 7세기 전반까지도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598년과 607년 백제 위덕왕과 무왕은 각각 隋를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는 정책을 취했다. 고구려 역시 즉각적인 보복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백제와 대립각을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세웠다. 또한 626년에는 백제가 唐에게 고구려의 조공로 방해를 하소연하면서 중재를 요청하는 등 두 나라의 관계가 대립적이었던 것으로 사료에 나타난다.

기존연구에서는 백제가 신라에 대한 공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구려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던 것으로 인식했다. 그렇지만 당시에 보이는 백제와 고구려의 대립은 세력균형이라는 국제관계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백제와 고구려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신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국 간의 전쟁은 고구려-신라, 백제-신라 사이에서 발생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문점에 착안하여 위덕왕과 무왕의 對隋外交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것은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사행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제는 1차 사행을 통해 고구려와 隋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후 2차 사행을 통해 고구려에 대한 견제의사를 隋에 피력했던 것이다. 즉, 애초부터 고구려 견제를 목표로 한 사행이 아니라 통상적인 외교의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추진된 외교였다. 그러다보니 위덕왕의 경우에는 고구려-隋 전쟁이 끝난 시점에 고구려 정벌의 軍導가 되기를 청하는 등 중대한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백제가 본래 의도했던 목적은 隋와의 관계 개선이었다. 위덕왕의 경우 고구려와 신라에 비해 뒤쳐진 국가적 위상, 隋로부터 조공을 거절당하는 등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다. 무왕은 아막성 전투의 참패, 가뭄과 기근 등 대내 외적 악재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때에 隋와 고구려가 전쟁을 벌인다는 소식을 접하자 백제는 고구려 정벌에 동참한다는 외교적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隋의 환심을 사고자 했다. 이것이 사료에서는 고구려에 대한 백제의 견제로 비춰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덕왕과 무왕의 대고구려 견제는 고구려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였다기보다는 대수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외교전술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598년과 607년 백제 대수외교의 외교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주제어: 위덕왕, 무왕, 청위군도, 청토고려, 대수외교

I. 머리말

三國의 경쟁관계에서 대립의 기본 축은 백제와 고구려였다. 고구려의 대방군 공격으로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이래¹⁾, 樂浪·帶方이 사라지는

4세기 무렵에 이르면 兩國의 대립은 전면전의 양상으로 발전되었다.²⁾ 이 과정에서 고구려 故國原王과 백제 蓋齒王이 각각 상대방의 공격으로 죽임을 당하는 등 감정적인 원한 또한 깊어져 갔다. 두 나라 모두 부여에서 나왔다는 出自 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동시에 부여를 계승한다는 미묘한 경쟁의식 역시 함께 지니고 있었다.³⁾ 여기에 한강유역의 지배권이라는 현실적 이해관계도 맞물리면서 백제와 고구려의 대립은 삼국시대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다.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553년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하면서부터다. 두 나라가 서로 국경선을 맞대지 않게 되면서 상호 공방보다는 신라의 팽창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이 전환되었다. 실제로 전쟁의 양상은 고구려-신라, 백제-신라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백제와 고구려는 이전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협력관계로 발전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사료에서는 두 나라의 관계가 여전히 대립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백제는 598년과 607년에 각각 고구려를 견제⁴⁾하려 했고 이에 고구려는 보복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나온다.⁵⁾ 또한 626년 무렵에도 백제는 고구려가 조공로를 방해한다고 唐에 하소연하는 등 여전히 고구려를 견제하고 있었다.⁶⁾ 두 나라의 갈등이 7세기 전반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채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한 이유에 대해 기존연구에서는 백제가 신라 공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구려의 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對隋外交

1)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2, 貢稽王 卽位年條.

2)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樂浪과 帶方은 각각 313년과 314년에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 병합된 것으로 나온다. 두 나라 사이의 완충지역이 사라지자 얼마 지나지 않은 369년 무렵 고구려가 步騎 2만을 동원하여 백제와 전쟁을 벌였다. 이처럼 양국의 대립은 4세기부터 본격화되었고 그 양상은 전면전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3) 李道學, 「高句麗와 百濟의 出系 認識 檢討」, 『高句麗研究』 20, 高句麗研究會, 2005.

4) '고구려 견제'라는 의미는 백제가 隋를 통해 고구려에 압박을 가하는 제반 행위 모두를 일컫는 용어다. 威德王과 武王의 請兵外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請爲軍導', '請討高麗' 등으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들을 모두 묶어 '고구려 견제'라 칭하고자 한다.

5)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45年(598)條·武王 8年(607)條

6)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武王 27年(626)條.

를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았다.⁷⁾ 그렇지만 고구려의 개입을 차단해서 백제가 얻을 실익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료에서 전하는 실상과 이를 해석한 기존의 견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시 백제와 고구려의 대립은 세력균형의 일반적인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백제와 고구려 모두 신라로부터 한강을 재탈환하고자 했고 특히 고구려는 北으로 隋에 맞서는 한편 南으로는 신라와 교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을 맞대지 않은 두 나라가 당면의 적을 두고 대립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 또한 백제의 고구려 견제가 직접적인 군사행동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 구현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7세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는 사료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오랜 세월 동안 대립관계를 이어온 두 나라가 한 순간에 과거의 적대감을 청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강유역이 신라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삼국이 국경선을 공유하는 시대는 마감되었고 백제와 고구려가 남과 북으로 신라를 둘러싼 형태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새로운 통일왕조가 수립되는 등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국제환경이 도래했다.

7)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1, 90~91쪽; 李昊榮, 「麗濟連和說의 檢討」, 『慶熙史學』, 9·10합본, 경희대학교 사학회, 1982, 22쪽;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景仁文化社, 1997에 재수록; 梁起錫, 「百濟 威德王代 王權의 存在形態와 性格」, 『百濟研究』 2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0, 47쪽; 金壽泰, 「百濟의 滅亡과 唐」, 『百濟研究』 2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1, 155쪽; 김영하, 「삼국과 남북국의 사회성격」, 『한국사』 3, 한길사, 1995(1994년 초판), 81쪽; 俞元載, 「백제의 대외관계」, 『한국사』 6·삼국의 정치와 사회2 백제-, 國史編纂委員會, 2013(1997년 초판), 128쪽; 양종국, 「7세기 중엽 義慈王의 政治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 『百濟文化』 3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2, 203쪽; 정동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46, 한국역사연구회, 2002, 40~41쪽; 김주성, 「6~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상호관계」, 『高句麗研究』 20, 高句麗研究會, 2005, 197쪽;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역사학회 역음, 일조각, 2006, 63쪽; 丁善溶, 「隋·唐 초기 中國의 世界秩序의 变화과정과 삼국의 대응」, 『新羅史學報』 12, 新羅史學會, 2008, 110쪽; 『한중관계 2000년』, 소나무, 2008에 재수록; 박윤선, 「무왕대 전반기 삼국의 각축과 백제의 외교」, 『한국고대사연구』 53, 한국고대사학회, 2009, 259쪽.

각국의 외교 정책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배경이다.

이 글은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7세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를 다시 해석해 보려는 시도다. 방법적으로는 598년 백제 위덕왕의 대수외교와 607년 무왕의 대수외교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당시 백제가 어떠한 과정 아래 고구려를 견제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백제 외교의 또 다른 함의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7세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가 변화되는 단초도 함께 확인할 것이다.

II. 威德王의 對高句麗 憲제 ‘請爲軍導’

1. 598년 威德王의 對隋使行

한강유역이 신라에 넘어가기 전까지 백제의 전통적 적대국은 고구려였다. 이는 고구려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삼국의 세력균형은 신라를 매개로 유지되고 있었다. 백제 聖王이 신라 眞興王의 야심을 용인⁸⁾하면서까지 신라와의 동맹을 유지했던 것은 고구려를 격퇴하고 한강유역을 재탈환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553년 동맹이었던 신라에 배신을 당하게 됨으로써 백제가 그토록 탈환하고자 했던 한강유역은 신라에게 넘어갔다.

그렇다면 백제는 적대국을 어느 곳으로 설정해야 할까? 상식적으로 볼 때 백제의 적은 신라가 되는 게 마땅하다. 신라의 한강유역 점유로 인해 백제는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지 않게 된 반면, 신라는 백제가 그토록 회복하고자 했던 한강유역을 동맹파기라는 방법으로 차지했기 때문이다. 양국의 국경 역시 한반도 중남부를 가로지르던 단계에서 벗어나 지금의 경기 남부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국경이 확장된 만큼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 훨

8) 550년 백제와 고구려가 道薩城, 金峴城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 신라 眞興王은 異斯夫를 보내 두 城을 빼앗았다. 그런데 이 시기는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을 때다. 신라는 541년 백제의 화진을 받아 들였고 이후 548년에는 백제를 공격한 고구려를 격퇴시켜 주기까지 했다. 이렇듯 羅·濟同盟이 유효한 상태임에도 신라 진홍왕은 자국의 실리를 위해 백제에 대한 공격도 주저하지 않았다.

씬 높아졌다. 더욱이 백제는 신라와의 전투에서 과거 고구려 長壽王에게 당했던 것 이상의 손실마저 입었다. 백제가 적국의 설정을 고구려에서 신라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6세기 말이나 7세기 초 아막성 전투(620)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을 상정한 연구는 이러한 변화상을 반영한 견해로도 볼 수 있다.⁹⁾ 그런데 威德王의 행보는 사뭇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랐다. 위덕왕은 中原王朝인 隋를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다.

- ① 百濟 威德王 45년(598): 가을 9월에 王은 長史 王辯那로 하여금 隋에 들어가 조공하게 하였다. 王은 隋가 遼東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듣고 使臣을 보내 表를 올려 軍導가 되기를 청하였다(請爲軍導). …(中略)… 고구려가 자못 그 사실을 알고 국경을 쳐들어 왔다. 겨울 12월에 王이 죽었다. …(後略)¹⁰⁾

위 사료에서 보면 위덕왕은 재위 45년이 되는 598년에 隋가 고구려와 전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表를 올려 軍導가 되기를 청했다고 한다. 598년이면 백제가 한강유역을 상실한 이후 무려 45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 동안 백제는 신라에 대해 2차례의 공격만 단행했을 뿐¹¹⁾ 고구려와는 어떠한 충돌도

9) 김주성은 위덕왕대의 백제와 평원왕대의 고구려가 신라를 협공하기 위해 상호 협조했을 것으로 보았다(김주성, 앞의 논문, 2005, 196쪽). 신형식 역시 위덕왕이 적대국가인 고구려와 접근하는 여제동맹을 꾀했지만 신라의 한강 하류 지역 점령으로 인해 실질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했다(신형식, 『백제의 대외관계』, 주류성, 2005, 82쪽). 김은숙은 6세기 말 倭의 요청을 계기로 위덕왕이 고구려와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했다(김은숙,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韓日關係史研究』 26, 韓日關係史學會, 2007, 50쪽). 한편, 신라고립이라는 목표 아래 백제-고구려-倭로 이어지는 군사협력이 성립되었다거나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아막성 전투가 추진되었다는 견해도 있다(今西龍, 『百濟史研究』, 京城, 近澤書店, 1934, 212~216面; 山尾幸久, 「大化前後の東アジア情勢と日本の政局」, 『日本歴史』229, 東京, 日本歴史會, 1967, 28面; 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 『聖德太子論集』, 京都, 平樂寺書店, 1971, 40·44面; 石母田正,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 1971, 23面; 李成市, 「高句麗와 日隋外交」, 『이우성정년기념논총』, 창작과 비평사, 1990, 158~159쪽; 서영교, 「阿莫城 전투와 倭」, 『歷史學報』216, 歷史學會, 2012, 260~263쪽). 그렇지만 598년과 607년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6세기 말이나 7세기 초에 두 나라가 협력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10)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45年條.

11) 威德王 8년(561)과 24년(577)에 신라를 공격한 기록이 있다.

없었다.¹²⁾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신라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면모를 보인 위덕왕이 재위 말년에 그것도 죽기 3개월 전에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기존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 백제가 신라를 원활하게 공격하기 위해 고구려의 개입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백제 위덕왕은 577년 이후 신라를 공격하지 않았다. 사료에 보이지 않는 국지전은 있을 수 있으나 대규모의 전투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라를 공격한 일이 없는데 신라 공격을 원활하게 하고자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 자체부터 성립되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이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구려의 개입’이라는 것이 무엇

12) 『三國史記』에 따르면 백제와 신라의 관산성 전투는 554년 7월에 종결됐다. 그리고 3 달 후인 10월 고구려는 백제가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한 틈을 타 백제 熊川城을 공격했다고 나온다. 그러나 관산성 전투의 종결은 『日本書紀』를 참조할 경우 12월이라 할 수 있다. 『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 15年條를 보면, 餘昌(威德王)이 12월 9일 오후 6시(酉時) 管山城을 점령하는 것으로 나오며 그 직후 명왕(聖王)이 신라군에게 사로잡혀 죽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金泰植은 「百濟本紀」의 기사에서 ‘7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新羅本紀」 같은 해의 기사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해당記事에서 7월에 해당하는 기록은 明活城을 축조했다는 기사뿐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기사는 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그 사이에 是歲가 생략된 것으로 보았다(김태식, 「5~6세기 高句麗와 加耶의 관계」, 『北方史論叢』 11, 고구려연구재단, 2006, 165쪽). 장창은도 『日本書紀』의 기록에 근거 관산성 전투가 7월경에 시작되어 12월에 끝난 것으로 보았다(장창은, 「6세기 중반 한강유역 쟁탈전과 管山城 戰鬪」, 『震檀學報』 111, 震檀學會, 2001). 필자 역시 앞의 견해에 동의한다. 관산성 전투의 종결을 12월로 보는 것이 정황상으로도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만약 7월에 백제가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10월 크게 군사를 일으킨 고구려를 막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가 12월 관산성 전투에서 3만에 가까운 병력을 상실하기 이전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다면 나름대로 고구려를 막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당시 백제가 신라와의 전쟁에서도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전투 능력은 큰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백제가 비록 신라와 전투를 벌이고 있었음에도 고구려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백제 熊川城 공격은 管山城 전투가 벌어진 이후의 전투가 아니고 그 이전에 벌인 전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의 熊川城 공격이 管山城 전투 이전에 벌어졌다고 하면, 威德王 즉위 초에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고구려의 개입이라는 것은 결국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가지 밖에 없다. 고구려와 신라가 동맹관계에 있을 경우다. 백제가 신라를 공격할 때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백제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백제는 중원왕조를 통해 고구려를 견제함으로써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에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백제와 신라의 관계 이상으로 대립적이었다. 고구려와 신라의 교전상황은 오히려 백제에게 이로움을 주는 요소다.

다자간의 관계에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점은 상대방 혹은 제3국의 입장이다. 백제가 對新羅戰을 수행하기 위해 고구려의 개입을 배제하려 했다고 보았지만 정작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의 다툼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고구려가 빼앗긴 땅은 신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의 방향은 신라를 향할 수밖에 없다. 한강유역을 둘러싸고 나타난 거의 모든 전투가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서 발생되고 있었다. 고구려가 백제를 두 차례 공격하기는 했지만 이는 모두 일회성의 보복공격이었다. 백제가 隋에 고구려 공격을 요청한 데에 따른 대응차원이었다. 이때를 제외하고 고구려가 백제에 위협을 가한 적은 백제멸망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고구려가 백제를 견제할 의도가 없었는데 백제가 고구려의 개입을 차단하려고 했다는 것은 난센스다.

그나마 제기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은 制海權의 충돌이다.¹³⁾ 6세기 말까지 신라가 경기도 서부 지역과 경기만 일대의 제해권(대중원사행로 등등)을 확실히 장악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제해권을 둘러싼 백제와 고구려의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다. 그런데 신라가 7세기에 들어오면서 한강 以北에 대한 공격로의 구축, 경기 서부지역에 대한 거점성의 확보와 보축 등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신라가 경기도 서부 지역과 경기만 일대의 제해권을 안정화시키는 상황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다투 이유는 없었다.

598년 위덕왕의 고구려 견제 이유로 하나 더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위덕

13) 제해권의 충돌, 신라의 한강유역 점유 과정에 대해서는 필자의 학위논문 「7세기 濟·麗同盟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의 1장 1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왕과 백제 지배층이 갖는 고구려에 대한 적대감이다. 위덕왕은 관산성 전투의 패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당시의 전투로 아버지인 성왕이 전사했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회복한 한강유역을 다시 신라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密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¹⁴⁾ 고구려에 대한 구원이 남아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45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과거의 구원을 끌어와 고구려를 견제하려 했다는 것은 국제 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백제가 고구려를 처음 견제하려고 했던 598년 무렵 고구려는 백제에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고구려는 요서 지역을 둘러싸고 隋와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었고¹⁵⁾ 남쪽으로는 신라를 공격하고 있었다. 豐陽王代에 온달이 신라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¹⁶⁾ 따라서 598년을 즈음한 시점에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받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덕왕은 왜 갑자기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일까? 일단 598년 위덕왕의 對隋使行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결과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확한 先後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해석문이 아닌 原文으로 당시 상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4)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3年 5月條를 보면, “百濟·加羅·安羅가 中部 德率 木易今敦과 河內部阿斯比多 등을 보내어 高麗가 新羅와 더불어 通和하고 세력을 합쳐 신의 나라와 任那를 멸하려고 도모합니다. 그러므로 삼가 구원병을 청해 먼저 불시에 공격하고자 합니다.”라는 문장이 보인다. 이로 볼 때 백제는 552년경부터 고구려와 신라의 통화를 어느 정도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麗羅密約에 관해서는 노태돈, 「고구려의 한수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1976; 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11, 고구려연구재단, 2006; 朱甫墩, 「5~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北方史論叢』 11, 고구려연구재단, 2006; 강민식, 「552년 백제의 한강유역 포기와 신라·고구려 밀약설(密約說)」, 『先史와 古代』 40, 韓國古代學會, 2014; 이영재, 「麗羅密約說의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80, 韓國古代史學會, 201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5) 고구려가 요서 지역을 선제공격한 시점이 바로 이 무렵이다. 이때의 일로 隋文帝의 고구려 정벌이 추진되었다(『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8, 豐陽王 9年條).

16) 『三國史記』 卷45, 列傳5, 「溫達傳」을 보면, 영양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곧바로 출군을 요청한 것으로 나온다. 영양왕의 즉위년이 591년이니 고구려는 590년 무렵에 신라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1 『隋書』: 開皇十八年 昌使其長史王辯那來獻方物 屬興遼東之役 遣使奉表 請爲軍導.¹⁷⁾

②-2 『三國史記』: 秋九月 王使長史王辯那 入隋朝獻 王聞隋興遼東之役 遣使奉表 請爲軍導.¹⁸⁾

사료 ②-1은 『隋書』 「百濟傳」으로 위덕왕이 長史 王辯那를 파견한 이후 ‘屬興遼東之役 遣使奉表 請爲軍導’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풀이하면 “때마침¹⁹⁾ (隋가) 요동에서 군사를 일으키자 사신을 보내 軍導가 되기를 청하는 表를 올렸다.”라고 해석된다. 사료 ②-2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인데 위덕왕이 隋가 ‘遼東之役’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파견했다는 내용이다. 두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598년 백제의 對隋使行이 2번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위덕왕은 왕변나를 보낸 이후 隋와 고구려의 갈등 관계를 파악했고(1차 사행)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행을 통해 軍導를 자청했다(2차 사행).

598년 백제의 사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첫 번째인 왕변나의 사행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삼국사기』(②-2)에서는 그 시점을 9월로 보았다. 『수서』(②-1)에서는 특정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삼국사기』에서 왕변나의 사행 시점을 9월로 특정한 것은 『수서』가 아닌 『資治通鑑』을 인용한 결과다.

③ 『資治通鑑』: ④ 秋九月 己丑 師還 死者什八九. 高麗王元亦惶懼遣使謝罪 上表稱 遼東糞土臣元 上於是罷兵 待之如初. ⑤ 百濟王昌遣使奉表 請爲軍導. 帝下詔諭以 高麗服罪 眇已赦之 不可致伐. 厚其使而遣之. 高麗頗知其事 以兵侵掠其境.²⁰⁾

17) 『隋書』 卷81, 列傳46 東夷「百濟傳」

18)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45年條.

19) ‘屬’은 ‘때마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漢韓大辭典』, 民衆書林, 1998, 622쪽 ‘屬’). 『중국정사조선전』 2 『隋書』 「백제전」(國史編纂委員會편, 2004 165쪽)에서도 ‘마침’으로 해석했다.

20) 『資治通鑑』 卷178, 「隋紀」2, 文帝 開皇 18年 9月條.

사료 ③ 『자치통감』에서는 9월에 고구려 정벌을 갔던 군사가 돌아왔는데 죽은 자가 열에 8~9명이라고 했다. 고구려 또한 두렵고 당황하여 사죄를 청하니 황제가 군사를 물리고 처음과 같이 대했다고 한다(ⓐ). 百濟王昌(威德王)이 ‘遣使奉表 請爲軍導’ 했음을 언급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다 (ⓑ). 그런데 여기에서는 王辯那가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遣使’라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자치통감』을 참조하면 백제가 사신을 보낸 시점이 9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왕변나의 사행이 9월에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삼국사기』가 왕변나의 사행을 9월로 본 것은 『수서』와 『자치통감』의 기록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나온 錯誤로 보인다.²¹⁾

〈표 1〉 『三國史記』「百濟本紀」에서 王辯那의 使行을 9월로 본 이유

출전	원문
『隋書』「百濟傳」	昌使其長史王辯那來獻方物 屬興遼東之役 遣使奉表 請爲軍導
	+
『資治通鑑』	秋九月 …(中略)… 百濟王昌遣使奉表 請爲軍導

↓ ↓ ↓

『三國史記』「百濟本紀」	秋九月 王使長史王辯那 入隋朝獻 王聞隋興遼東之役 遣使奉表 請爲軍導
--------------	-------------------------------------

<표 1>에서 보듯이 『삼국사기』는 『수서』의 ‘내용’에 『자치통감』의 ‘시점’을 결합하여 『삼국사기』「백제본기」를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9월을 사행 시점으로 본 것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그 뒤의 내용을 같이 연결하다보니 위덕왕이 왕변나를 보내 조현하고 이후 다시 奉表하여 ‘請爲軍導’하는 내용이 모두 9월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개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결합되는 착오가 생긴 것이다.

왕변나가 9월에 隋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정황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왕변나가 입조한 9월은 공교롭게도 隋의 고구려 원정군이 회군한 시점이다. 고구려는 豊陽王 8년(597) 말 혹은 9년(598) 初²²⁾에 말갈을 동원해 요서

21) 『개정증보譜註 三國史記』3, 주석편(상)(정구복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781쪽, 각주33)역시 『三國史記』에서 보이는 9월은 『資治通鑑』에 의거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과악하지 않았다.

22) 고구려의 遼西 공격 시점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資治通鑑』에는 開皇 18

지역을 공략했다.²³⁾ 이에 隋文帝는 598년 2월, 30만의 병력을 동원해 고구려 정벌을 실행했다. 그러나 군량 운반의 실패와 역병, 태풍 등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회군했다. 이 시점이 바로 9월 21일이다.²⁴⁾ 그렇다면 『삼국사기』에서 언급한 9월은 ‘王聞隋興遼東之役’이라 할 수 있는 때라 기보다는 隋의 회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왕변나가 隋에 도착한 시점은 최소한 9월 이전, 구체적으로는 1월~3월경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때마침 遼東之役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문구를 참조하면 그 시점이 전쟁 직전, 혹은 직후로 추정되기 때문이다.²⁵⁾ 따라서 왕변나는 598년 초에 입조했고 여기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덕왕은 9월에 다시 사신을 보내 ‘請爲軍導’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근거로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은 『삼국사기』의 해당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충분한 비교검토 후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다.²⁶⁾ 기록 자체만 놓고 보면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

년(598) 2월 甲辰日(3일)條와 乙巳日(4일)條 사이에 해당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乙巳日에 漢王 楊諒과 王世積을 行軍元帥로 삼아 고구려 토벌을 준비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요서 공격은 최소한 2월 이전의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침략 사실이 보고체계를 통해 황제에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고구려의 실제 요서공격은 597년 말에서 598년 1월 사이에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23)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 8, 豐陽王 9年條.

24) 『資治通鑑』卷178, 「隋紀」, 2, 文帝開皇 18年 9月條, “秋九月 己丑 師還 死者什八九”

25) 백제의 사신이 隋까지 가는 기간은 보통 2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598년 초에 입조했던 조공사신이 백제에 돌아오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2차 사신단을 꾸려 隋에 들어간다고 하면 단순계산으로도 5~6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2차 사신단이 9월에 隋에 도착했다면 1차 사행은 1~3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제로서는 나름 신속한 외교활동을 벌이기는 했지만 2차 사신단이 도착하는 9월에 고구려와 수의 전쟁이 종결됨으로써 백제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참고로 대중사행의 기간에 대해서는 권덕영, 『고대한중외교사』, 일조각, 1997 및 엔난, 김문경 역주, 『엔난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을 참조하기 바란다.

26) 『삼국사기』에 대해서는 기준에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4세기 이전 초기기록에 대한 신뢰성 여부(강종훈, 「新羅 上古紀年の 再檢討」, 『韓國史論』 26, 서울大學國史學科, 1991; 「『三國史記』 新羅本紀 初期記錄의 紀年問題 再論」, 『歷史學報』 162, 역사학회, 1999; 선석열,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 혜안, 2001; 「신라본기의 전거자료 형성과정: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42, 한국고대사학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료배치에 착오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그 해석 역시 새롭게 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해당 사료를 해석하는데 있어 신중함을 요하며 이를 근거로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가 대립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두 번째 결론은 백제가 애초부터 고구려를 견제할 목적으로 왕변나를 파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외교를 수행하는 와중에서 왕변나가 隋와 고구려의 전쟁을 간파하자²⁷⁾ 위덕왕이 그것을 외교적으로 이용하고자 추진한 것이 바로 ‘청위군도’의 외교였다. 고구려에 대한 적대적 감정에 기반을 두고 치밀하게 준비한 외교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請爲軍導’의 외교적 함의

위덕왕 45년(598)의 對隋外交는 외교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다. 바로 여기서 백제의 고구려 견제 의도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고

회, 2006)에서부터 「백제본기」의 사료적 성격과 역주에 대한 연구(이강래,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분주 검토, 『사학연구』 74, 한국사학회, 2004; 강종훈,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사료 계통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한국고대사학회, 2006; 임기환, 『삼국사기』 백제본기 대외관계 기사의 재구성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52, 한국고대사학회, 2008; 노중국, 「백제사의 몇 가지 문제: 『삼국사기』 백제본기 역주 작업과 관련하여」, 『신라사학보』 27, 신라사학회, 2013; 전덕재, 『三國史記』 百濟本紀 記錄의 基本原典과 改撰, 『역사와 담론』 80, 호서사학회, 2016)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 전체에 대해 사료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도 축적되어 있다(申瀞植, 『三國史記 研究』, 一潮閣, 1981; 『삼국사기의 종합적 연구』, 경인문화사, 2011; 이강래, 『삼국사기 형성론』, 일지사, 2007; 『삼국사기 인식론』, 일지사, 2011; 강종훈, 『삼국사기 사료비판론』, 여유당, 2011). 그러나 이 글에서 언급한 사료 해석의 신중론은 앞의 연구들과 같이 『三國史記』의 사료적 성격이나 인식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598년 위덕왕의 대수사행과 관련해 나타나는 부분적 오류만을 지적하는 입장이다. 『수서』와 『자치통감』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술적인 오류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7) 왕변나의 직책은 長史였는데 『資治通鑑』에 보면, 留異가 陳을 염탐하기 위해 보낸 王漸의 직책이 바로 長史였다. 유이는 장사 왕시를 이용해 陳의 허실을 엿보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外示臣節 恒懷兩端’하는 자세를 취했다. 따라서 왕변나도 請兵을 목적으로 파견된 사신이 아니라 隋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파견된 사신이라고 할 수 있다. ‘請爲軍導’를 언급한 使臣은 王辯那가 아니라 2차 使行 때의 使臣이다.

구려 견제를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구려와 수의 갈등을 빌미로 급작스럽게 구사하다 보니 그와 같은 시기적인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백제의 고구려 견제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압박이었다기보다는 隋와 고구려의 갈등관계에 착안해 구사한 외교전술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해당 외교는 對隋關係에서 그 본래 목적을 찾을 수 있다.

〈표 2〉 威德王代의 對中原外交

연도	내용	대상國家
9년(562)	陳이 백제왕 餘命 ²⁸⁾ 을 撫東大將軍으로 삼음(『隋書』卷3, 「本紀」3, 世潮 潤2月朝, 『三國史記』에는 기록 없음).	陳
14년(567)	北齊에 조공(『北齊書』卷8, 「帝紀」8, 10月條, 『三國史記』에는 기록 없음).	北齊
14년(567)	9월 陳에 조공(이하 『三國史記』「百濟本紀」威德王代 기사).	陳
17년(570)	北齊의 後主가 王을 使持節侍中 車騎大將軍 帶方郡公 백제왕으로 삼음.	北齊
18년(571)	北齊의 後主가 또 王을 使持節 都督 東青州諸軍事 東青州刺史로 삼음.	北齊
19년(572)	北齊에 조공.	北齊
24년(577)	7월에 陳에 조공. 11월에 北周에 조공.	陳 / 北周
25년(578)	北周에 조공.	北周
28년(581)	隋에 조공. 隋의 고조가 王을 上開府儀同三司 帶方郡公으로 삼음.	隋
29년(582)	隋에 조공.	隋
31년(584)	陳에 조공.	陳
33년(586)	陳에 조공.	陳
36년(589)	隋의 표류선을 잘 대우해 보내 줌. 또한 사신을 보내 조공.	隋
45년(598)	王辯那를 隋에 조공. 隋에 사신을 보내 軍導가 되기를 청함.	隋

〈표 2〉는 위덕왕대에 기록된 대중원외교²⁹⁾의 모습들이다. 위덕왕의 대외정책은 대체로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³⁰⁾ 남조보다는 북조에

28) 백제왕 餘命은 聖王을 말하는데 관산성 전투에서 聖王이 전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책봉한 것으로 보고 있다(梁起錫, 「百濟 威德王代의 對外關係」, 『先史와 古代』19, 韓國古代學會, 2003, 236~237쪽). 그리고 이때 陳이 백제의 요청이 없음에도 책봉한 것은 신왕조 수립을 기념하기 위해 주변제국의 군왕들에게 관작을 수여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坂元義種, 『百濟史の研究』, 壞書房, 1978, 192쪽). 특히 북조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던 陳이 북조를 외교적으로 견제할 요량으로 백제에 책봉호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양기석, 앞의 글, 2003, 237쪽).

29) 일반적으로 對中國外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中國’이라는 국가명은 현대의 관점이다. 물론 고대에서도 ‘중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는 ‘중화’에 대응되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국가명으로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중국외교라는 용어 대신 ‘對中原外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더 치중한 사실을 근거로 고구려 견제를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³¹⁾ 그런데 표에 보이는 외교관계 기사가 위덕왕대에 나타난 업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사료의 편향성에 기인한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이는 위덕왕의 활동은 위의 외교관계 기사를 제외하면 신라에 대한 공격 2차례, 기상관련 내용 2차례가 있을 뿐이다. 그나마 신라와의 투쟁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위덕왕은 외교를 통해 국내외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했던 목적 역시 위덕왕의 외교 중시 성향에서 찾을 수 있다.

위덕왕 36년(589) 백제는 표류하고 있는 隋의 戰船 한 척을 발견했다. 백제는 隋의 병사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었고 이것을 기회로 사신을 함께 보내는 등 적극적인 對隋外交를 전개했다. 백제의 이러한 모습은 대중원외교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던 위덕왕의 일관된 모습이었다. 더욱이 隋가陳(557~589)을 멸망시켜 명실상부한 중국의 통일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隋에 대한 백제의 관계개선 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았다. 그렇지만 隋의 반응은 백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아래의 사료에서는 백제에 대한 隋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 ④ 百濟 威德王 36년(589): 王이 필요한 물건을 후하게 주고, 아울러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진나라를 평정한 것을 축하했다. 고조가 이를 좋게 여겨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백제왕이 이미 진나라를 평정한 것을 듣고 멀리서 표를 올렸다. …(중략)… 어찌 자주 사신을 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와서 서로 상세히

- 30) 위덕왕의 대중원외교를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보는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梁起錫, 「百濟 威德王代 王權의 存在形態와 性格」, 『百濟研究』2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0; 송민호, 「百濟 威德王代의 王權強化政策에 대한 일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梁起錫, 앞의 논문, 2003; 김병남, 「百濟 威德王代의 정치상황과 대외관계」, 『韓國上古史學報』43, 韓國上古史學會, 2004; 김수태, 「百濟 威德王의 정치와 외교」, 『한국인물사연구』2, 한국인물사연구회, 2004.
- 31) 박윤선, 「위덕왕대 백제와 남북조의 관계」, 『역사와 현실』61, 한국역사연구회, 2006, 89~93쪽. 한편, 백제가 북조와 교류하게 된 것을 고구려뿐 아니라 신라마저 등장하는 정세의 변화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으며(양기석, 앞의 논문, 2003, 238쪽), 백제가 북조와 교류하게 된 것이 북조와 고구려의 관계도 있었지만 북조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고려한 측면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수태, 앞의 논문, 2004, 176쪽).

알았으니 지금 이후부터는 별도로 조공할 필요가 없으며 침도 또한 사신을 보내지 않도록 할 것이니 왕은 마땅히 알지어다.”³²⁾

백제의 적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隋는 형식적인 차원의 답례만 하고 있다.³³⁾ 이는 隋 煙帝나 唐 太宗이 고구려에게 藩臣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³⁴⁾ 조공을 하지도 말 것이며 隋 역시 사신을 보내지도 않겠다는 것은 백제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다지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곧 백제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었음을 의미한다.³⁵⁾ 대외관계를 중요한 기치로 삼았던 위덕왕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다.

백제가 통일왕조인 隋와의 관계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고구려는 590

32)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36年條.

33) 黃約瑟은 隋 文帝가 주변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遂性論을 견지한 것으로 보았다. 隋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현상을 유지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黃約瑟, 「隋나라의 高句麗에 대한 認識을 試論함」, 『高句麗文化國際學術會論文集』, 해외한민족연구소, 1994, 77~81쪽). 余昊奎는 589년 무렵 隋가 백제에게 매년 入貢할 필요가 없다고 한 배경을 이러한 隋의 政策基調에서 찾고 있다. 또한 隋가 신라 역시 큰 비중을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여호규, 「책봉호 수수를 통해 본 수·당의 동방정책과 삼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61, 한국역사연구회, 2006, 43쪽).

34) 隋 文帝는 589년 이후 고구려가 방어적으로 돌변하자 597년 이를 책망하는 磬書를 고구려에 보냈다(『隋書』 卷81, 列傳 第46 東夷「高麗傳」). 隋 煙帝 역시 突厥 啓民可汗의 처소에서 고구려의 사신에게, “그대가 본국에 돌아가거든 그대 임금에게 속히 입조하라고 전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啓民과 더불어 그곳에 순행하겠다.”라고 하였다(『隋書』 卷3, 煙帝紀 大業三年 8月條). 이상의 모습은 비록 隋가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향한 것은 아니지만 고구려를 隋의 영향력 내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라고는 볼 수 있다. 이는 唐 太宗 역시 마찬가지였다. 中原王朝의 이러한 성향을 보았을 때, 隋가 조공을 하겠다는 百濟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35) 隋의 반응이 냉담했던 것은 隋가 보기에도 백제의 국력이 그다지 강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여호규, 「6세기 말 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한국역사연구회, 2002, 9~10쪽 ; 김주성, 「6~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상호관계」, 『高句麗研究』 20, 高句麗研究會, 2005, 196쪽). 반면에 盧重國은 隋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가 585년 백제가 陳에 사신을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노중국,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2012, 364쪽).

년 요동군공에 책봉된 데 이어 그 이듬해 고구려왕으로 다시 책봉되었다.³⁶⁾ 신라는 594년 신라왕에 책봉되었다.³⁷⁾ 물론 위덕왕은 그 이전인 581년에 隋文帝로부터 上開府儀同三司帶方郡公에 책봉되기는 했다.³⁸⁾ 그러나 이때는 隋가 중원을 통일하기 전이었다. 북조의 隋와 통일왕조인 隋의 국제적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백제는 여전히 대방군공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고구려와 신라가 각기 고구려왕과 신라왕으로 책봉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백제로서는 隋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혹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598년 무렵 고구려와 隋의 갈등이 백제의 정보망에 포착되었다. 백제 위덕왕으로서는 답보 상태에 있던 隋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좋은 기회로 판단했고 이 수단으로 고구려 정벌의 군도가 되기를 자처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⁹⁾ 백제가 갈등관계에 있지 않았던 고구려를 끌어들인 이유는 국제관계의 속성에 따른 판단이었다. ‘敵의 敵은 나의 동지’라는 말처럼 백제가 고구려를 적대시한다는 것은 곧 백제가 隋의 동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백제가 隋의 고구려정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조공도 하지 말라는 隋의 무관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隋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598년 백제 외교에서의 핵심은 隋와의 관계 개선이었다. 지금의 국제관계에서도 외교적 고립은 국내정세의 불안을 초래한다. 또한 경쟁국들에 비해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백제의 행위 역시 지금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또한 중원왕조와의 안정적인 교류는 왕권의 정당성 및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였다. 내정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隋와의 우호적인 관계는 요구되었다. 577년 신라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對新羅戰線에 별다른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다. 고구려와의 충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관계 변화의 조짐 역시 전무했다. 이러한 때에 백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중원왕조 밖에 없었다. 위덕왕대에 보이는 다수의 사신 파견은 이

36)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 8, 豐陽王 卽位年條.

37)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4, 眞平王 16年條.

38)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 5, 威德王 28年條.

39) 이에 대해 노중국은 威德王이 중국 대륙을 통일한 隋의 힘을 인정하고 隋 중심의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았다(노중국, 앞의 책, 2012, 364쪽).

시기의 급박했던 백제의 형편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었다.⁴⁰⁾ 그렇지만 백제가 고구려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변하는 정세에 무리하게 대응하다보니 對隋外交는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고구려로부터 국경을 침략 당했다. 고구려로서는 후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복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III. 武王의 對高句麗 견제 ‘請討高麗’

1. 607년 武王의 對隋使行

598년 백제의 對隋外交는 실패로 돌아갔다. 隋가 고구려의 사죄를 명분으로 백제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백제는 오히려 고구려의 보복공격을 초래했다. 그런데 武王(600~641) 역시 과거 위덕왕대와 동일한 형태의 고구려 견제를 시도했다.

⑤ 武王 8년(607): 봄 3월에 扌率 燕文進을 隋에 보내 조공하였다. 또 佐平 王孝隣을 보내 조공하고 아울러 고구려를 칠 것을 요청하였다 隋 煙帝가 이를 허락하고 고구려의 움직임을 엿보도록 하였다. …(下略)⁴¹⁾

무왕은 재위 8년이 되는 607년 처음으로 隋에 사신을 파견했다. 횟수로는 9년 만에 재개된 대수사행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隋는 文帝(581~604)에서 煙帝(604~618)로 皇位가 교체되었다. 백제는 위덕왕이 죽고 惠王(598~599)과 法王(599~600)의 뒤를 이어 무왕이 즉위했다. 무왕은 두 나라의 왕조가 교체된 이후 隋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의미에서 燕文進을 파견해 조공했다. 9년 만에 재개된 조공사행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고구려를 토벌하도록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긴급하다면 모를까 무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제3국에 대한 토벌을 요청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형태가 앞서 보았던 598년의 사행

40) 愈元載, 『앞의 논문』, 2003, 127~128쪽.

41)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武王 8年條.

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다.

⑥-1 威德王 45年(598): 秋九月 ①王使長史王辯那 入隋朝獻. ⑤王聞隋興遼東之役 遣使奉表 請爲軍導.⁴²⁾

⑥-2 武王 8年(607): 春三月⁴³⁾ ①遣扞率燕文進 入隋朝貢. ⑤又遣佐平王孝隣入貢 兼請討高句麗.⁴⁴⁾

사료 ⑥-1은 598년 위덕왕이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을 때의 기사이며, 사료 ⑥-2는 607년 무왕이 고구려를 견제할 때의 기사다. 두 사료를 비교 검토하면 모두 ①하고 나서 곧이어 ⑤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①를 1차 사행이라고 한다면 ⑤가 2차 사행이 된다. 598년에는 왕변나가 1차 사행의 사신이었다고 한다면, 607년에는 연문진이 1차 사신이었다. 그리고 양쪽 모두 1차 사행이 있는 직후에 곧바로 2차 사행이 이루어졌다. 598년의 2차 사행의 사신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607년에는 왕효린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수서』 「백제전」의 문장을 보면 더욱 확실해 진다.

⑦-1 開皇 18年(598): 昌使其長史王辯那來獻方物 屬興遼東之役 遣使奉表 請爲軍導.

⑦-2 大業 3年(607): 璋遣使者燕文進朝貢. 其年 又遣使者王孝隣入獻 請討高麗.⁴⁵⁾

사료 ⑦-1은 앞서 살펴보았다. ‘屬’의 해석에 착안, ‘때마침 遼東之役’을 알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사료 ⑦-2는 『수서』 「백제전」 大業 3년의

42)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45年條.

43) 607년의 對隋使行에서 燕文進이 파견된 시점이 3월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598년 王辯那의 사행이 9월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때의 사행 역시 年初에 바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보복 공격이 5월에 이루어졌다면 그 이전에 고구려가 백제의 ‘請討高麗’를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월에 隋에 들어간 사신은 燕文進이 아니라 王孝隣으로 봐야한다. 燕文進은 607년 1월경 혹은 그 이전에, 王孝隣은 3월경에 隋에 들어갔고 이를 인지한 고구려가 5월에 보복공격을 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44)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8年條.

45)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百濟傳」.

기사로 “其年 又～”라고 하며 使行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보여 준다. 따라서 두 번의 대수외교는 모두 1차 사행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請爲軍導’ 혹은 ‘請討高麗’ 목적의 사행을 추가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시점과 인물만 달랐지 내용이나 형태는 거의 동일한 기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과거 598년의 대수사행에서 왕변나가 알아낸 것은 隋와 고구려가 전쟁에 돌입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607년 연문진이 알아낸 것은 무엇이었을까? 隋는 604년 7월 為帝(604~618)가 2대 황제로 등극함으로써 대외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隋 為帝는 즉위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결국 정통성 논란이 일었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끊임없는 대외 정벌을 추진했다.⁴⁶⁾ 또한 고구려에게는 臣屬을 주장하는 등 文帝와는 달리 주변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隋의 黃門侍郎 裴矩는 ‘高句麗 郡縣論’을 언급했고 이를 바탕으로 為帝는 입조를 거부할 경우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⁴⁷⁾ 隋 炅帝의 이러한 성향으로 볼 때 머지않은 시점에 고구려와 隋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개연성은 매우 높아 보였다.

598년 고구려·隋 戰爭 이후 고구려가 사죄의 表를 올림으로써 隋와의 관계가 이전으로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었다.⁴⁸⁾ 고구려는 요서 지역을 두고 隋와의 갈등을 지속했고 돌궐 등을 사이에 두고도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양국 사이에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여지는 충분했다. 607년 무렵 隋 炅帝가 돌궐 啓民可汗의 처소에서 고구려의 사신과 맞닥뜨린 일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었다.⁴⁹⁾

隋의 황제가 주변국을 복속하려는 야망을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隋와 고구려의 관계가 여전히 갈등관계에 있었다는 정황을 무왕은 연문진의 사행을 통해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608년 신라가 결사표를 올리고 백제와 비슷

46) 朴漢濟, 「7世紀 隋唐兩朝의 韓半島 進出經緯에 대한 一考察」, 『東洋史學研究』 43, 1993. 隋·唐의 대외정책, 특히 고구려 원정과 관련해서는 윤용구, 「수당의 대외정책과 고구려원정 - 裴矩의 ‘郡縣回復論’을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5, 고구려연구재단, 2005에 여러 견해들이 소개되어 있다.

47)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8, 豐陽王 18年條.

48)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8, 豉陽王 9年條.

49) 고구려·隋 전쟁이 612년에 발발했지만 그 조짐은 炜帝의 즉위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607년 돌궐에서 고구려의 사신에게 경고를 보낸 것 역시 炜帝의 대고구려정책의 일환 이었다.

하게 對隋請兵外交⁵⁰⁾를 펼친 것도 隋와 고구려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따라서 武王은 이러한 국제정세를 이용할 목적으로 즉시 王호란을 隋에 보내 고구려 토벌을 요청했다. 이것이 607년 무왕의 고구려 견제 정책이었다.

2. ‘請討高麗’의 배경과 목적

한 번의 실패를 겪었던 백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형태의 외교정책을 취한 것은 분명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607년의 고구려 견제는 598년에 그것을 추진했던 정치세력의 경험에서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위덕왕을 이어 무왕대에도 정국을 장악하고 있던 귀족세력이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여 동일한 형태의 외교정책을 구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수외교가 다시 전개된 것은 602년 阿莫城 전투의 참패⁵¹⁾ 이후 무왕의 책임론이 대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막성 전투 이후 무왕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했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4만에 가까운 병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왕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⁵²⁾ 또한 귀족들이 4만에

50) 李昊榮은 신라와 백제가 對隋請兵外交를 펼친 것은 두 나라 모두 고구려의 압박을 크게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당시의 請兵外交는 현실적으로 절실한 외교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李昊榮, 앞의 책, 1997, 342쪽). 그러나 이는 신라에 국한되는 사실이다. 백제는 이 당시 고구려로부터 실질적 압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시도하기 전까지 고구려가 백제에 위협을 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1)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武王 3年條.

52) 김병남은 阿莫城 전투를 武王의 의지에 의해 주도된 군사동원이 아니라 백제 정국을 좌우하던 귀족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았다. 그리고 아막성 전투의 패배는 귀족세력들의 약화를 가져왔고 이것이 무왕의 정국 장악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이해 했다(김병남, 「百濟 武王代의 阿莫城 전투 과정과 그 결과」, 『全南史學』 22, 全南史學會, 2004). 박민경 역시 아막성 전투의 패배로 5좌평을 중심으로 실권을 장악하였던 귀족세력이 붕괴했을 것으로 보았다(박민경, 「武王·義慈王代 政局運營의 研究」, 『韓國古代史研究』 20, 韓國古代史學會, 2000, 575쪽). 반면에 김주성은 무왕에 의해 전투가 주도된 것으로 보았다(金周成, 「百濟 泗沘時代 政治史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02쪽). 阿莫城 공격에 국한시키지는 않았지만 정동준 역시 무왕 초기 신라와의 전쟁은 친왕세력에 의해 수행되었을 것으로 보았고(정동준, 앞의 논문, 2002, 44쪽), 박종욱은 아막성 전투가 ‘무왕’, ‘영토확장’이라는 상징성에 영향을 받았

가까운 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는지는 의심스럽다. 신라에 대한 공격의지는 귀족들이 아니라 무왕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아막성 전투 이후 전쟁 패배의 책임이 귀족에게 돌아가 상대적으로 武王의 왕권이 강화되었다고 하면 좀 더 활발한 정책추진이 보여야만 했다. 그러나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602년 이후 신라로부터 침략을 받는다거나 온갖 자연재해로 국가가 피폐해지는 모습만 확인되고 있다. 607년에 이르러 대수외교를 다시 전개하고는 있지만 곧바로 고구려의 보복공격을 받음으로써 백제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아막성 전투 이후 무왕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무왕의 주도권이 회복된 것은 607년의 대수외교로 인해 고구려로부터 보복공격을 받은 이후로 판단된다.

602년 아막성 전투의 패배로 백제는 管山城 전투 이후 치러진 대규모의 전투에서 모두 패배했다. 577년 위덕왕이 전략적으로 준비한 對新羅 공격은 3천 7백여 명의 전사자만 남기고 실패했다. 위덕왕은 이후 신라에 대한 더 이상의 군사공격을 감행하지 못했다. 무왕 또한 즉위 후 대규모의 신라공격을 감행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패배했다. 심각한 타격을 입은 무왕은 611년 가잠성 공격 때까지 신라에 대한 어떠한 군사공격도 추진하지 못했다.⁵³⁾

이러한 상황에서 605년 신라가 공격해 왔다.⁵⁴⁾ 당시 전투의 규모나 승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군사력 동월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당시 신라의 공격은 백제에게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1년 뒤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가뭄이 크게 들어 기근현상까지 생겼다.⁵⁵⁾ 무왕 초기의 대내외적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고 이는 귀족세력들에게도 상당한 위기감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607년 무왕의 대수외교는 대내외적 곤궁함을 탈피할 목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구려를 토벌해 달라는 요청 역시 隋의 고구려 적대 정책에 동조하면서 백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외교적 전술로 볼 수 있다. 598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

다고 함으로써 무왕에 의해 주도된 전투로 보고 있다(박종욱, 「602년 아막성 전투의 배경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69, 한국고대사학회, 2013, 205쪽).

53) 611년 가잠성 공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구려와의 충돌 가능성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54)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6年條.

55)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7年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⁵⁶⁾

598년과 607년 백제가 대수외교를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은 5세기 蓋國王代의 일과 극명히 비교된다.⁵⁷⁾ 개로왕은 472년 北魏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는 고구려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압박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두 나라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 충돌 역시 빈번했다.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군사적 충돌은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개로왕은 또한 자신의 아들과 딸을 바치면서까지 請兵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외교에 있어서의 修辭的인 표현이겠지만 당시 개로왕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의지는 개로왕 자신이 예하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출전하겠다는 다짐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백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백제는 마침내 북위에 대한 조공을 끊어버리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내용을 위덕왕·무왕대의 정세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개로왕대는 고구려의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했으며 실제 군사충돌도 이어지고 있었다. 둘째, ‘軍導’가 되겠다거나 고구려를 토벌해 달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직접 예하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백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과감히 조공을 끊고 있다. 위덕왕대 ‘請爲軍導’의 요청이 거절당했지만 무왕이 다시 청병을 요청

56) 朴京哲은 554년 이후 고구려와 백제가 무력충돌을 주고받으며 추구할 國益이 없어졌다 고 했다(朴京哲, 「麗羅戰爭史의 再檢討」, 『韓國史學報』 26, 高麗史學會, 2007, 72쪽). 노중국은 607년 무왕이 隋에 사신을 파견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한 것은 고구려 문제를 이용해 隋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盧重國, 앞의 책, 2012, 367쪽).

박윤선 역시 고구려와 隋 사이에서의 양단책, 그리고 고구려 견제라는 백제의 對隋·對唐관계의 목표가 과연 양립 가능한가라는 문제제기를 하였다(박윤선, 「백제 국제관계사 연구동향과 시기구분 시론」, 『百濟學報』 3, 百濟學會, 2015, 72쪽). 윤성환은 607년 무렵 백제가 굳이 고구려 견제를 위해 무리하게 나설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았다. 백제의 안위나 신라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도 무리하게 고구려를 자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백제는 고구려와의 관계를 개선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시킬 필요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윤성환,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연구」, 『鄉土서울』 79, 서울特別市 市史編纂委員會, 2011, 21쪽).

57) 蓋國王 18년(472)에 보이는 내용은 國書가 전해지는 까닭에 매우 구체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표를 올렸다고만 되어 있는 威德王·武王대의 使行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행의 전후 사정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보인다.

하는 것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武王은 612년 隋가 고구려원정에 실패한 뒤에도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있는 등 청병 요청과 조공 사행은 별개로 보고 있다.

개로왕대와 위덕왕·무왕대의 대중원외교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위덕왕대와 무왕대에 나타나는 고구려 견제는 개로왕대에 비하면 무척 소극적이었다.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곧 고구려 견제에 다른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과 함께 백제의 입장에서는 절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고구려의 공격 이후에 보이는 백제의 대응방식도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두 차례 대수외교의 결과로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즉각적인 보복공격을 당했다. 598년에는 북변을 침입 당한 것으로 그쳤지만⁵⁸⁾ 607년에는 松山城과 石頭城을 공격당해 3천여 명을 고구려에 빼앗겼다. 그럼에도 백제는 고구려에 대한 어떠한 대응 공격도 하지 않았고 이를 隋에 하소연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611년경부터는 고구려와 은밀히 통화하기까지 이른다. 이처럼 백제의 소극적인 대응과 일관성 없는 태도로 볼 때 두 번의 고구려 견제 모두 백제의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백제의 대외정책이 일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對高句麗 정책이 명확히 수립되지 못했던 것에서도 기인한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백제가 마주한 최대 적은 신라였고, 고구려는 오히려 협력의 대상이었다. 그렇지만 백제가 곧바로 고구려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기에는 그동안의 대립 구도가 너무나 공고했다. 적과 아군을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백제의 정책결정자들은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실행계획 없이 대외정책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분적인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 견제는 隋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명분 혹은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⁵⁹⁾ 백제로서는 고구려를 적극적으로 견제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58) 이때의 공격을 막은 이가 惠王의 아들 孝順, 즉 法王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주성, 「6~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상호관계」, 『高句麗研究』 20, 高句麗研究會, 2005, 197쪽).

59) 申灝植은 對隋請兵外交가 백제에서 시작된 것은 백제사회가 허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라의 請兵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중국의 군사적 우월감에 만족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았다(申灝植, 『三國史記 研究』, 一潮閣, 1981,

앞서 사행의 분석을 통해 확인했듯이 백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고구려 견제를 계획하지는 않았다. 遣隋使가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부차적으로 ‘請爲軍導’, ‘請討高麗’했던 것이다. 위덕왕은 隋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왕권의 권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對高句麗·對新羅關係를 안정적으로 이끌고자 했을 뿐이다. 武王 역시 과거 정치세력들의 경험치를 공유하면서 隋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자 노력했는데 이것의 수단으로 사용된 전술이 바로 고구려 견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IV. 고구려 견제로 인한 백제의 실익 與否

필자는 6세기 末에서 7세기 初를 지나는 시기에 이르면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고구려 역시 백제를 견제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살펴본 사료 분석의 결과와 함께 당시의 지정학적 구도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갈등 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논리다. 그럼에도 백제의 對隋外交가 본질적으로는 고구려 견제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의문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갖는 공통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정황적 측면에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려면 백제가 그 견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請爲軍導’, ‘請討高麗’라는 것은 결국 고구려에 대한 선전포고이기 때문이다. 6세기 말~7세기 초 삼국의 역학관계에서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는 것은 곧 신라에 또 다른 여지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백제의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던 목적은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세 가지 중의 하나일 것이다.

230~231쪽). 그러나 필자는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라가 請兵을 요청한 것은 고구려의 지속적인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열세에서 비롯되었다. 반면, 백제의 청병은 고구려와 隋의 대립구도에서 隋의 입장에서 옹호함으로써 隋의 군사적 우월성을 높여주기 위한 외교적 전술의 일환이었다.

〈표 3〉 추정 가능한 백제의 고구려 견제 목적과 기대 효과

견제의 목적	기대 효과	意志의 程度
1. 고구려에 대한 실질적 견제	1-1.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지 않음. 전통적 갈등관계에 기반을 둔 적대감	소극적
	1-2. 京畿灣 일대 制海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적극적
	1-3. 한강유역에서 고구려 영향력의 감소	적극적
2. 고구려와 隋의 갈등 조장	결과적으로 1-3과 동일한 목적이 ⇒ 한강유역에서 고구려의 영향력 감소	적극적
3. 對隋關係의 개선 및 강화	3-1. 隋와의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킴 애초부터 고구려를 견제할 의도가 없었으며 수의 好意를 사기 위해 고구려와의 적대감을 부각시킴	소극적
	3-2. 안정적인 배후 지원 세력을 확보하여 신라공략에 집중	소극적

첫 번째는 백제가 고구려 견제의 목적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중에서 1-1은 舊怨에 기반을 둔 백제의 적대감이 고구려 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그렇지만 국제관계의 염중함 속에서 구원을 빌미로 적대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설령 과거의 구원을 풀기 위해 598년 고구려를 견제했다고 한다면 고구려의 보복공격이 있었을 때 반드시 대응공격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충돌을 피하고자 했다면 607년에 또 다시 같은 형태의 외교를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2의 경우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백제와 고구려가 제해권을 다퉁다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다. 비록 신라가 7세기 이전 한강 하류지역과 경기만에서의 영향력이 미미했다고는 하지만 상황은 점차 신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해의 제해권이라는 것도 신라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서는 논의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의 영향력을 무시한 채 제해권 다툼을 한다는 것은 핵심을 비껴간 논의가 될 수 있다.

1-3은 지금까지 학계의 일반적인 시선이 아닐까 한다. 백제의 고구려 견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다. 백제가 신라와의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의 간섭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위해 중원왕조를 통해 고구려를 견제했다는 논리다. 이 논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2. 고구려와 隋의 갈등 조장’의 목적과 일치한다. 고구려가 隋와 갈등을 빚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강유역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3국이 서로 물고 물리는 역학구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원왕조로 하여금 또 다른 적대 세력인 고구려를 붙잡아 두는 것, 혹은 한강유역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시도가 유효할 수는 있다. 아무래도 한강유역에서 백제가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정은 고구려가 백제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성립될 수 있다. 사료를 통해서는 고구려가 백제에 위협을 가하는 어떠한 시도도 확인할 수 없다.

지정학적 구도 또한 이를 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었다. 당시 상황은 고구려가 신라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백제 역시 신라와 다투고 있었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백제와 고구려 두 곳을 모두 상대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신라가 바로 백제와 고구려의 공통 적국이었다. 그렇다면 백제의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신라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주는 것이 오히려 득인 셈이다. 신라가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할 동안 백제는 또 다른 전선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 6세기 중엽 ~ 7세기 초 백제와 신라의 교전 지역

연도	내용	위치 비정
561	백제가 신라 변경 공격.	위치 미상
577	백제가 신라의 서쪽 변방 주·군을 공격하자 신라가 이찬 세종을 보내 백제군을 쳐서 깨뜨림(백제군 3천 7백 전사).	—善郡(경상북도 구미시)
578	신라가 백제의 開也山城을 공격함. ⁶⁰⁾	전라북도 익산시
579	백제가 熊峴城과 松述城을 쌓아 蒜山城·麻知峴城·內利西城의 길을 막음.	옹현성(충청북도 報恩으로 추정) 내리서성(충청북도 永同으로 추정)
602	백제가 신라 阿莫城을 공격.	阿莫城(전라북도 남원시)
605	신라가 동쪽 변경을 공격.	백제의 동쪽 변경
612	백제가 신라의 가잠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킴.	가잠성(경기도 안성, 충청북도 괴산, 영동 등으로 비정)

60)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4, 眞智王 3年條에서는 “與百濟閼也山城”으로 되어 있다. 보통 해석본에서는 “백제에게 閼也山城을 주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각주를 달아 ‘侵’, ‘擧’ 혹은 ‘擊’으로 별도 표기하고 있다. 閼也山城은 지금의 전라북도 益山市로 비정되기 때문에 이는 당시의 정세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與’의 해석을 ‘侵’(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63쪽)이나 ‘擊’(북한 고전연구실편, 『삼국사기』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백제가 한강유역을 상실한 이후 신라와 공방을 벌이는 곳은 대개가 동쪽 접경지대였다. 백제가 동북쪽의 접경지대에 대한 공략을 시도한 것은 武王 27년(627) 熊津에 군대를 집결시켰을 때이다.⁶¹⁾

다음으로 고구려와 신라의 충돌은 한강유역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표 5〉 6세기 중엽~7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의 교전 지역

연도	내용	위치 비정
590년대	要陽王 즉위 후 溫達이 신라가 빼앗은 한강 以北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 출전함. 신라군과 교전하다 阿旦城에서 전사함(『三國史記』「온달전」).	阿旦城(충청북도 단양으로 비정)
603	고구려 장군 高勝이 신라 北漢山城을 공격. 진평왕이 漢水를 건너와 방어함.	서울시·구리시
604	신라가 南川州(경기도 利川)를 폐하고 北漢山州를 다시 설치함	서울시·구리시
608	고구려가 신라의 북쪽 변경을 습격하여 8천 명을 사로잡음	신라의 북쪽 변경
608	고구려가 신라의 牛鳴山城을 험락시킴	牛鳴山城(강원도 춘천으로 비정)

<표 5>에서 보듯이 고구려와 신라는 590년대 이후 지금의 남한강 상류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온달의 신라 공격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최소한 지금의 丹陽·堤川을 둘러싼 죽령 이북 지역에서 교전을 치렀던 것으로 판단된다.⁶²⁾

상, 1958, 95쪽)의 誤字로 보고 “백제의 闕也山城을 공격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하다(鄭求福 외, 『(개정증보)譯註 三國史記』 3, 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132쪽, 각주169).

61)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 5, 武王 28年條.

62) 이는 阿旦城의 위치를 지금의 충청북도 단양으로 비정한 견해에서 비롯되었다. 溫達이 전사한 阿旦城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지금의 구리시 광진구의 아차산성에 비정하는 견해와 丹陽의 온달산성에 비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필자는 이 阿旦城을 단양의 온달산성으로 보고 있다. 만약 阿旦城이 아차산성이라고 한다면 신라가 590년대에 이미 한강 以北을 다시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경기도 이천의 南川州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 阿旦山城 일대에 北漢山州가 다시 설치되는 것은 604년 무렵에 가서야 가능했다. 비록 603년 비록 고구려가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했다고 하지만 이는 신라가 한강을 넘어온 것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신라가 고구려의 반격을 막아낸 이후 비로소 北漢山州를 설치한 것으로 볼 때 그 무렵이 신라가 한강

603년에 이르면 고구려의 공격 방향은 한강 하류지역으로 옮겨 온다. 고구려는 신라 북한산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하였다. 신라는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시킨 후 그 기세를 몰아 568년에 폐지했던 북한산주를 604년 다시 설치했다. 북한산주의 재설치는 신라가 한강 以北 지역으로까지 지배력을 확장시키겠다는 의지였다. 이후 고구려가 신라의 북쪽 경계를 습격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8천여 명을 사로잡아갔다는 기록으로 봤을 때 대규모의 치소가 존재했던 북한산주 부근으로 판단된다. 또한 牛鳴山城을 함락시켰다고 했는데 이곳은 지금의 춘천시 혹은 경기도 동북부 일대로 비정된다.⁶³⁾ 온달이 전사한 이후 고구려가 죽령 이북으로 다시 밀려난 것으로 보이지만 7세기 초에 이르러 한강 하류의 北岸에서 다시 신라를 압박해 나가고 있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고구려는 신라와 북한강 상류지역에서부터 한강 하류지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전선을 유지하고 있었고, 백제는 지금의 충청북도와 전라지역의 중북부 지역을 경계로 교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백제 ⇔신라, 고구려 ⇔신라의 형태였지 백제 ⇔고구려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

以北에 대한 본격적인 확장정책을 시행한 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차산성 시굴조사 결과, ‘北’, ‘北漢’, ‘漢山□’ 등의 기와명이 보이는 것을 보면 당시에도 북한산성이라는 명칭이 쓰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 외에도 한강 以北에서 신라가 성벽을 보축 한다거나 관방유적을 활용하는 시기가 7세기를 넘어서야 활발해 지는 것을 고려해 봐도 590년 무렵에 온달이 아차산성 일대에서 신라와 교전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阿旦城의 위치에 대한 논쟁은 최근까지도 진행 중이며 그간에 축적된 연구업적 역시 방대하다. 이에 관한 최근의 연구동향은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2014, 283~296쪽 및 윤성호, 「『三國史記』溫達傳 所載 阿旦城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學報』 66, 高麗史學會, 2017을 참고하기 바란다.

- 63) 牛鳴山城은 지금의 강원도 안변(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 『朝鮮學報』 54, 朝鮮學會, 1970, 41쪽; 鄭求福 외, 앞의 책, 2012, 532쪽 각주38; 강종훈, 「7세기 삼국통일전쟁과 신라의 군사활동-660년 이전 대고구려전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24,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2004, 233쪽) 또는 춘천(서영일,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高句麗研究』 11, 高句麗研究會, 2001, 37쪽; 박종서, 「고구려 娘臂城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 한국국학진흥원, 2010, 127쪽으로 비정하고 있다. 혹은 광주산맥 以南의 경기 동북부 내지 춘천 일대로 보기도 한다(장창은,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高句麗의 南進과 對新羅 領域向方」, 『高句麗渤海研究』 44, 高句麗渤海學會, 2013, 86쪽).

다.⁶⁴⁾ 즉 7세기 초 삼국의 역학구도는 상호 공방의 단계에서 벗어나 백제와 고구려가 모두 신라를 공격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한강유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면 여기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은 다름 아닌 신라다. 신라는 서쪽으로 백제,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동시에 상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남진 여력이 없어지면 신라는 백제와의 교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한강유역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은 백제에게失이 되면 되었지 결코得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백제가 한강유역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을 배제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고구려를 견제함으로써 백제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한다면隋와의 관계를 개선·강화하고자 하는 외교적言辭로 밖에 볼 수 없다. 다만 문제는 백제의 의도와는 별개로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隋와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후방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백제는 고구려를 끌어들여隋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이득은 없었고 오히려 국경을 침략당하는 피해만 입었다. 백제로서는對隋外交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고 향후 외교정책의 방향도 새롭게 정립해야만 했다. 이에 백제는 현실적인 자구책을 강구했는데 이것이 훗날隋와의 우호관계 속에서도 고구려와의 협력을 은밀히 추진하는二重外交로 나타났다.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는 607년 고구려의 보복공격을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V. 맷음말

백제와 고구려의 협력에 대해 학계에서는 643년의 麗·濟連和를 그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7세기 전반까지도 양국이 서로 대립

64) 598년과 607년 고구려의 백제 공격은 교전이라기보다는 고구려의 일방적인 보복공격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토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상호 교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료에서의 모습 때문이다. 백제는 598년과 607년, 그리고 626년에 고구려에 대한 견제를 추진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 기록들을 액면 그대로 인용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백제가 신라 공격을 위해 고구려의 간섭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뚜렷한 이유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598년과 607년 백제의 고구려 견제는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인 압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었으며 고구려 역시 백제의 對新羅戰을 간섭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거나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는 행위는 오히려 서로에게 득이 되면 되었지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한 목적은 고구려와의 관계보다는 對隋關係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백제의 견제와 고구려의 보복공격이라는 표면적인 형태를 고려하면 두 나라의 관계는 대립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결과론적인 판단이다. 결과 이전에 백제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반대로 고구려는 백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던 598년과 607년 무렵은 신라의 한강유역 점유가 공고해져가는 시점이었다. 한강유역을 탈환하고자 했던 백제와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신라의 팽창을 저지하고 그들을 압박해 가는 것이 대외정책의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러한 때에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한 것은 분명한 외교적 실수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던 본질적인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백제가 고구려를 끌어들인 이유는 대수관계의 개선이 본래의 목적이다. 고구려에 대한 적대적인 의사표시는 隋의 호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고구려의 보복공격 역시 대립구도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고구려가 처한 현실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보면 隋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남으로는 신라와 긴장관계에 있었다. 여기에 더해 백제까지 공격해 들어온다면 아무리 고구려라 할지라도 戰況을 낙관할 수만은 없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예상되는 위협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즉각적인 보복공격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 사이의 갈등관계에 바탕은 둔 전투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상황조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598년과 607년 백제의 고구려 견제는 고구려와의 대립관계에 기반을 둔 충돌이라기보다는 대수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백제의 외교전술로 이해하는 것이 당시의 실상에 더 가까운 해석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백제는 두 차례에 걸친 고구려와의 충돌 끝에 새로운 관계정립을 추진해 나갔는데 이것이 611년 무렵 고구려와의 은밀한 협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참 고 문 헌

1. 사료

『三國史記』

『隋書』

『資治通鑑』

2. 연구논저

강민식, 「552년 백제의 한강유역 포기와 신라·고구려 밀약설(密約說)」, 『先史와 古代』 40, 韓國古代學會, 2014.

강종훈, 「新羅 上古紀年の 再檢討」, 『韓國史論』 26, 서울大 國史學科, 1991.

강종훈, 「『三國史記』 新羅本紀 初期記錄의 紀年問題 再論」, 『歷史學報』 162, 역사학회, 1999.

강종훈, 「7세기 삼국통일전쟁과 신라의 군사활동-660년 이전 대고구려전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24,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2004.

國史編纂委員會편, 『중국정사조선전』 2, 2004.

김병남, 「百濟 威德王代의 정치상황과 대외관계」, 『韓國上古史學報』 43, 韓國上古史學會, 2004.

_____, 「百濟 武王代의 阿莫城 전투 과정과 그 결과」, 『全南史學』 22, 全南史學會, 2004.

金壽泰, 「百濟의 滅亡과 唐」, 『百濟研究』 2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1.

김수태, 「百濟 威德王의 정치와 외교」, 『한국인물사연구』 2, 한국인물사연구회, 2004.

김영하, 「삼국과 남북국의 사회성격」, 『한국사』 3, 한길사, 1995.

김은숙,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韓日關係史研究』 26, 韓日關係史學會, 2007.

金周成, 「百濟 泗沘時代 政治史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김주성, 「6~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상호관계」, 『高句麗研究』 20, 高句麗研究會, 2005.

김태), 「5~6세기 高句麗와 加耶의 관계」, 『北方史論叢』 11, 고구려연구재단, 2006.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1.

- 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11, 고구려연구재단, 2006.
- 노중국,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2012.
- 朴京哲, 「麗羅戰爭史의 再檢討」, 『韓國史學報』 26, 高麗史學會, 2007.
- 박민경, 「武王·義慈王代 政局運營의 研究」, 『韓國古代史研究』 20, 韓國古代史學會, 2000.
- 박윤선, 「위덕왕대 백제와 남북조의 관계」, 『역사와 현실』 61, 한국역사연구회, 2006.
- _____, 「무왕대 전반기 삼국의 각축과 백제의 외교」, 『한국고대사연구』 53, 한국고대사학회, 2009.
- 박윤선, 「백제 국제관계사 연구동향과 시기구분 시론」, 『百濟學報』 3, 百濟學會, 2015.
- 박종서, 「고구려 娘臂城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 한국국학진흥원, 2010.
- 박종욱, 「602년 아막성 전투의 배경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69, 한국고대사학회, 2013.
- 朴漢濟, 「7世紀 隋唐兩朝의 韓半島 進出經緯에 대한 一考察」, 『東洋史學研究』 43, 1993.
- 북한 고전연구실편, 『삼국사기』 상, 1958.
- 서영교, 「阿莫城 전투와 後」, 『歷史學報』 216, 歷史學會, 2012.
- 서영일,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高句麗研究』 11, 高句麗研究會, 2001.
- 선봉조, 「7세기 濟·麗同盟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선석열, 「신라본기의 전거자료 형성과정: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42, 한국고대사학회, 2006.
- 송민호, 「百濟 威德王代의 王權強化政策에 대한 일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申澄植, 『三國史記 研究』, 一潮閣, 1981.
- 신형식, 『백제의 대외관계』, 주류성, 2005.
- 梁起錫, 「百濟 威德王代 王權의 存在形態와 性格」, 『百濟研究』 2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0.
- 梁起錫, 「百濟 威德王代의 對外關係」, 『先史와 古代』 19, 韓國古代學會, 2003.
- 양종국, 「7세기 중엽 義慈王의 政治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 『百濟文化』 31, 公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2.
- 여호규, 「6세기 말 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한국역사연구회, 2002.
- 여호규, 「책봉호 수수를 통해 본 수·당의 동방정책과 삼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61, 한국역사연구회, 2006.

- 俞元載, 「백제의 대외관계」, 『한국사』 6, 國史編纂委員會, 1997.
- 윤성환,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연구」, 『鄉土서울』 79, 서울特別市市史編纂委員會, 2011.
- 윤성호, 「『三國史記』溫達傳 所載 阿旦城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學報』 66, 高麗史學會, 2017.
- 윤용구, 「수당의 대외정책과 고구려원정 - 裴矩의 ‘郡縣回復論’을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5, 고구려연구재단, 2005.
- 李道學, 「高句麗와 百濟의 出系 認識 檢討」, 『高句麗研究』 20, 高句麗研究會, 2005.
- 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 李成市, 「高句麗와 日隋外交」, 『이우성정년기념논총』, 장작과 비평사, 1990.
- 이영재, 「麗羅密約說의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80, 韓國古代史學會, 2015.
- 李昊榮, 「麗濟連和說의 檢討」, 『慶熙史學』, 9·10합본, 경희대학교 사학회, 1982.
- _____,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景仁文化社, 1997.
-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역사학회 역음, 일조각, 2006.
- 장창은, 「6세기 중반 한강유역 쟁탈전과 管山城 戰鬪」, 『震檀學報』 111, 震檀學會, 2001.
- _____,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高句麗의 南進과 對新羅 領域向方」, 『高句麗渤海研究』 44, 高句麗渤海學會, 2013.
- _____,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2014.
- 정동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46, 한국역사연구회, 2002.
- 정구복 외, 『(개정증보)譯註 三國史記』 3, 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 丁善溶, 『한중관계 2000년』, 소나무, 2008.
- _____, 「隋·唐 초기 中國의 世界秩序의 변화과정과 삼국의 대응」, 『新羅史學報』 12, 新羅史學會, 2008.
- 朱甫墩, 「5~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北方史論叢』 11, 고구려연구재단, 2006.
- 黃約瑟, 「隋나라의 高句麗에 대한 認識을 試論함」, 『高句麗文化國際學術會論文集』, 해외한민족연구소, 1994.
- 山尾幸久, 「大化前後の東アジア情勢と日本の政局」, 『日本歴史』 229, 東京, 日本歴史會, 1967.
- 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1971.
- 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 『朝鮮學報』 54, 朝鮮學會, 1970.
- 坂元義種, 『百濟史の研究』, 壽書房, 1978.

Abstract

The Diplomatic Implications of the Threat to Koguryo(高句麗) posed by King Mu(武王) and King Wideok(威德王) of Baekje(百濟)

Seon, Bong-Jo*

Since the 4th century, Baekje and Koguryo have come into conflict against each other because of the hegemony of the Hangang River(漢江) basin. After Silla(新羅) occupied the Hangang River Basin, relations between Baekje and Koguryo were expected to change. As both countries did not share common border any more, they seemed to change their main enemy to Silla.

By the way, contrary to general expectation Baekje and Koguryo continued to fight until the first half of the 7th century. King Wideok(威德王) and King Mu(武王) tried to hold Koguryo in check in 598 and 607 each. Previous studies accepted that Baekje needed to hold Koguryo in check to attack Silla effectively.

However, the conflict between Baekje and Koguryo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nature of balanced power. Since Silla controlled the Hangang River basin that Koguryo and Baekje wanted so much, the two countries had to consider Silla as the target of the attack. Actually most of the combat occurred between Baekje and Silla or Koguryo and Silla. There was no practical benefit that Baekje and Koguryo could be gained by keeping each

* Researcher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other in check.

On analyzing the dispatch of envoys of Baekje toward Sui dynasty, I could find out that it had been carried out as two-step process. Firstly, Baekje sent an ordinary envoy to Sui dynasty and got the information that Sui dynasty try to attack to Koguryo. On the basis of this information, Baekje dispatched special envoy who ask for attack to Koguryo to Sui dynasty. If Baekje had tried to threaten Koguryo from the start, it would have expressed its intention long before the war ended. But Baekje suggested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war between Sui dynasty and Koguryo after the end of the war. This was the result of a lack of willingness and information of war situation.

The main purpose Baekje intended was not the check to Koguryo but promoting friendship with Sui dynasty(隋). Around 7th century, as Baekje was diplomatically isolated, a breakthrough to resolve a crisis was needed. So Baekje took advantage of an opportunity of conflict between Sui dynasty and Koguryo. This very thing was expressed as a check against Koguryo.

Key words: King Mu, King Wideok, Diplomacy with Sui dynasty, Koguryo·Sui War

교신: 선봉조 135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62

효자촌그린타운 화성아파트 622동 1002호

(E-mail: 0815seon@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7. 12. 30

심사완료일: 2018. 01. 24

제재확정일: 2018. 01. 31

『三國遺事』 소전 변재천녀와 통일신라 범종 ‘奏樂天人像’의 연관성

강현정*

- I. 머리말
- II. 『三國遺事』 소전 ‘辯才天女’ 기록
 - 1. 『삼국유사』 권5 피은편
 - 2. 변재천녀신앙의 전래
- III. 統一新羅梵鍾 ‘奏樂天人像’의 思想的 淵源
 - 1. 통일신라시대 범종과 주악천인상
 - 2. 주악천인상과 변재천녀
- IV. 맺음말

국문요약

본고는 『三國遺事』의 ‘朗智乘雲普賢樹’와 ‘緣會逃名文殊帖’에 등장하는 다소 낯선 존격인 辩才天女에 대한 시론적 접근에서 출발하였다. 불교경전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문헌자료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당대 현실사회에서 신앙되었을 가능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변재천녀신앙은 어떻게 구체화되었을까. 이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가고자 소의경전과 『삼국유사』의 관련 기록 및 통일신라시대 범종에 나타나는 주악천인상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힌두의 ‘사라스바티’에서 출발한 ‘변재천녀’는 불교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辯才天·辨才天’, ‘美音天’, ‘妙音天’, ‘妙音菩薩’ 등으로 한역된다. 언어와 학문, 예술과 음악

* 제주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을 주제하는 존격으로서, 도상적으로는 무기류를 비롯한 다양한 지물과 함께 등장하는 多臂像과 비파를 연주하는 二臂像으로 그려진다.

음악이란 기본적으로 ‘소리’에서 출발한다. 도구를 가지고 音과 律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음악이 된다. 사람의 성대로 소리를 만들어 내면 그것은 말소리가 되고 眞言이 되며 念佛供養이 된다. 언어와 학문, 예술과 음악을 주제하는 변재천녀(묘음보살)는 『法華經』에서 소리공양, ‘樂供養’을 통해 선업을 쌓은 존재로 그려진다. 바로 이 점에서 ‘주악천인상’과 ‘변재천녀’와의 연관관계를 그려볼 수 있다.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변재천녀신앙이 당대의 현실세계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 즉 오늘날 ‘주악천인상’라 일컬어지는 형태로 구체화되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악천인상 조성의 사상적 연원을 『法華經』·『金光明經』·『金光明最勝王經』 등에 근거를 둔 변재천녀(묘음)와의 연관관계에서 찾는다면, 지금까지 단순히 장식적·문양적 측면에서만 해석되어오던 이를 ‘주악천인상’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본고의 출발점이었던 『三國遺事』 문헌기록의 변재천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 신앙세계에 나타났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함과 동시에 그동안 미학적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았던 주악천인상의 사상적 연원, 조성의 근본적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변재천녀, 사라스바티, 묘음보살, 주악천인상, 『삼국유사』

I. 머리말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대와 주제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의 사실에 대한 문헌자료의 분석을 기본 출발점으로 삼고는 있으나, 시대와 주제에 따라서 문헌사학의 틀을 깨고 비문헌적 자료를 이용하거나 인접학문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것 역시 과거를 보다 종합적으로 재현해 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고고학적 성과나 미술사학적 성과는 종종 역사 연구에 활용된다. 이는 불교사 내지는 불교문화사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사에 있어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를 따로 설명하는 것이 사족일 만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있어서 불교는 한국사의 전개에 지대한 영

향을 끼쳤다. 이러한 불교사 내지는 불교문화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는 일차자료는 역시 『三國遺事』라 할 것이다. ‘三國의 遺事’라기보다 13세기 불교 상황을 담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¹⁾ 불교가 유입·전래되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사찰이 세워지고, 시대에 따른 새로운 사상과 신앙이 전개되는 과정을 빼곡히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는 편하될 수 없다. 때문에 불교미술사와 불교고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三國遺事』는 바이블에 비견²⁾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교문화 연구의 보고인 『삼국유사』에 다소 생소한 존격인 ‘辯才天女’와 관련된 기록이 「避隱篇」의 ‘朗智乘雲普賢樹’와 ‘緣會逃名文殊帖’에 전해 온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³⁾ 『삼국유사』의 전체 분량으로 보았을 때, 단 두 편의 기록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절대분량 면에서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 컵의 물’에 대한 시각의 차가 허용된다면, 단 두 편이기는 하나 ‘변재천녀’의 존격이 거명되고 있다는 점은 해당 시기 변재천녀에 대한 신앙형태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능성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추적해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본고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변재천녀’에 대한 의문의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하는 소박한 발원에서 출발하였다. 단 두 편의 기록이기는 하나, 개별 존격의 명칭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해당 시기 그와 관련한 신앙형태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변재천녀의

1) 남동신, 「『삼국유사』의 史書로서의 특성」, 『불교학연구』 16, 불교학연구회, 2007, 62-67쪽. 고대문화의 원형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문헌으로 『삼국유사』를 평가하였던 최남선 아래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삼국유사』가 실제로는 “‘三國의 遺事’라기보다 4세기에서 13세기 말까지의 광범위한 연대를 시간적 낙차가 있는 상태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고대문화의 원형’일 수 없으며, 고대문화에 대한 ‘고려인들의 인식의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엄기표, 「又玄「高裕變의 『三國遺事』塔像 인식」, 『韓國佛教史研究』 5, 한국불교사학회, 2014, 120-122쪽; 「佛教 考古學과 美術史에서 『三國遺事』의 활용과 과제」, 『한국 고대사연구』 79, 2015, 248-265쪽.

3) 변재천녀를 독립적인 논문의 주제로 다룬 것은 양은용(‘변재천녀 신앙의 불교적 변용’,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7,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007)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이는 변재천녀가 등장하는 사료가 지극히 제한적이며, 또한 관련된 유물로서 파악된 것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까닭일 것이다.

정확한 직능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형태로 신앙되었을까? 또한 문헌기록에 남아있는 변재천녀는 흔히 호국성중이라 일컬어지는 무수한 존격 중의 하나였을 것이라는 막연함 외에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형상 내지는 도상적 형태를 알 길이 없다.⁴⁾ 평면적인 지면에 채워져 있는 기록을 보다 생생히 구현해내기 위하여 다면적인 접근방법, 즉 문헌사학과 불교학·미술사학 등의 인접학문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변재천녀’는 본래 ‘사라스바티(Sarasvatī)’라는 베다 시대의 강의 여신, 물의 여신이었다. 후대에는 언어, 학문, 예술, 음악을 주재하는 신격으로, 소의 경전에 따라서 ‘辯才天’·‘辨才天’·‘辨財天’·‘美音天’·‘妙音天’·‘妙音菩薩’ 등으로 한역된다.⁵⁾ 그런데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변재천녀 기록이 제시하는 주요 연대는 문무왕 신유년(661)과 원성왕대(785~798)이다. 이는 신라 중대와 하대에 속하는 시기인데, 해당 시기의 상원사 범종(725년)을 비롯한 다수의 통일신라시대의 범종에는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소위 ‘주악천인상’이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辯才天’·‘辨才天’·‘辨財天’·‘美音天’·‘妙音天’·‘妙音菩薩’이라고도 한역되는 변재천녀는 언어·학문·예술·음악을 주재하는 존격으로서 다양한 지물을 지니는 多臂像과 琵琶를 연주하는 二臂像으로 그려진다. 특히 비파를 연주하는 二臂像是 음악의 주재하는 존격의 특징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악천인상’이라 명칭되어 온 범종의 문양과 일련의 연관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양자의 연관성을 모색하는 것을 논문의 핵심주제이자 목적으로 삼고 논지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4) 조승미는 『금광명경』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여신들-변재천, 귀자모, 길상천, 견뢰지신, 보리수신-에 대한 연구에서 『삼국유사』의 변재천녀 설화를 소개하고는 있으나, ‘영취산, 법화경, 보현보살’ 등은 단지 고승을 신통력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변재천 신앙 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었다. 『금광명경』에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변재천이나 의례화 되지 못하고 신앙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금광명경』의 여신들과 한국불교에서의 그 신앙문화,, 『불교학연구』 39, 2014, 306-309쪽, 330-312쪽).

5) 中村元·福永光司·田村芳朗·今野達 編, 『仏教辭典』, 岩波書店, 1989, 715쪽; 賴富本宏·下泉全曉, 『密敎仏象図典』, 人文書院, 1994, 244-245쪽.

II. 『三國遺事』 소전 ‘辯才天女’ 기록

1. 『삼국유사』 권5 피은편

『三國遺事』 卷5 避隱篇의 ‘朗智乘雲普賢樹’와 ‘緣會逃名文殊帖’ 기록에는 ‘辨才天女·辯才天女’가 등장한다. 먼저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낭지승운보현수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한다.

삽량주 아곡현의 영축산 삽량은 지금의 양주다. 아곡은 아서라고도 하고, 또 이르길 구불 혹은 굴불이라고 한다. 지금 울주에 굴불역을 두었는데,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있다. 신이한 스님이 암자에 여러 해 살았는데, 마을에서는 모두 알지 못했고, 스님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항상 法華經을 읽어, 이에 신통력이 있었다. 용삭 연간 초에 사미 智通-이량공伊亮公의 집에 노비였다-이 17세에 출가하였는데, 이 때에 까마귀가 와서 울며 이르길, “영축산에 가서 朗智에게 의탁하여 제자가 되어라.” 하였다. 지통이 그것을 듣고, 그 산을 찾아 골짜기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 문득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말하길, “나는 普賢菩薩로, 너에게 계戒品을 주고자 하여, 그 까닭에 여기에 왔다.” 하였다. 이에 계를 베풀고 마치자 사라졌다. 지통은 신심을 깨닫고, 지혜가 깨우쳐지고 문득 원만해졌다. 마침 길을 가던 한 스님을 만나서 이에 낭지스님이 어디에 사는지를 물으니, 스님이 말하길, “어찌 낭지를 묻느냐?” 하니, 지통이 신이한 까마귀의 일을 자세히 말하였다.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길, “내가 그 낭지인데, 지금 당 앞에 또한 까마귀가 와서 알리니, 성스러운 아이가 있어 스님에게 의탁하려고 올 것이니, 마땅히 마중 나가 그를 맞이하라 하였다.” 이에 손을 잡고 감탄하여 말하길, “신령스런 까마귀가 너를 깨우쳐 나에게 의탁하게 하였고, 나에게 알려 너를 맞이하게 하니, 이 어떤 상서로움인가? 마땅히 산신령이 몰래 도운 것이다. 전하여 이르길 이 산의 주인은 辨才天女라고 한다.” 지통은 그것을 듣고 울며 사례하여 낭지에게 예배하였다. 이후고 계를 주려고 하니, 지통이 말하길, “저는 마을 입구의 나무 아래에서, 이미 보현보살에게 정계를 받았습니다.” 하였다. 낭지가 감탄하여 말하길, “좋구나! 너는 이미 친히 보현보살의 滿分之戒를 받았구나. 나는 태어난 이후로 저녁때까지 삼가하고 겸손하였으나, 지금까지 성인을 만나길 염원했으나, 오히려 이르지 못했으나, 지금 너는 이미 받았으나 나는 너에게 멀리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고는, 반대로 지통에게 예를 올리고, 이로 인해 그 나무를 普賢이라 하였다. 지통이 말하길, “법사는 여기에 머문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까?” 낭지가 말하길, “법흥왕 정미년에 처음 발을 들였으니, 지금 얼마나인지는 모르겠다.” 하였다. 지통이 산에 온 때가, 이미 문무왕 즉위 원년 신유년(661년)이니, 계산하

면 이미 135년이다. (...중략...) 스님은 일찍이 구름을 타고 중국의 清涼山에서 머무르며, 대중을 따라 강의를 듣고 조금 있다가 돌아왔다. 그 스님은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여겼으나, 거주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하루는 대중에게 말하길, “항상 여기 있는 이를 제외하고, 別院에서 온 스님은 각기 사는 곳의 이름 있는 꽃과 특이한 식물을 가져와서 도량에 바쳐라.” 하였다. 낭지는 다음날 산 중의 이상한 나무 가지 하나를 꺾고 돌아와 바쳤다. 그 스님이 그것을 보고 말하길, “이 나무는 범어로 恒提伽라 부르는데, 이것을 赫이라 하고, 오직 西竺과 海東의 두 영축산에만 그것이 있다. 이 두 산은 모두 제10 법운지 보살이 사는 곳이니, 그는 반드시 성스러운 사람이다.” (...중략...) 『靈鷲寺記』에 이르길, 낭지는 일찍이 말하길, “이 암자의 터는 迦葉佛 때의 절터이다.” 하고, 땅을 파서 燈缸 2개를 얻었다. 元聖王대에 대덕 緣會가 와서 산 속에 살면서, 스님의 傳을 지어, 세상에 내보냈다.⁶⁾

위의 기록은 까마귀의 도움으로 훗날 『錐洞記』를 저술하게 된 智通이 朗智스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전하고 있다. 기록의 첫 머리에는 공간적 무대인 靈鷲山에 이름 모를 신이한 스님이 늘 『법화경』을 읽어서 신통력이 있다 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석가모니의 설법장소인 영취산 혹은 영축산이란 이름

6) 『三國遺事』 卷5 避隱8, 朗智乘雲普賢樹, “歟良州阿曲縣之靈鷲山 歹良今梁州 阿曲一作西 又云求佛又屈弗. 今蔚州置屈弗廟, 今存其名. 有異僧庵居累紀, 而鄉邑皆不識, 師亦不言氏名. 常講法華仍有通力. 龍朔初有沙彌智通, 伊亮公之家奴也. 出家年七歲, 時有烏來鳴云, ‘靈鷲去投朗智爲弟子.’ 通聞之, 尋訪此山來憩於洞中樹下. 忽見異人出曰‘我是普大士欲授汝戒品, 故來爾.’ 因宣戒訖乃隱. 通神心豁爾, 智證頓圓. 遂前行路逢一僧乃問朗智師何所住, 僧曰‘奚問朗智乎?’ 通具陳神鳥之事. 僧莞爾而笑曰, ‘我是朗智, 今茲堂前亦有烏來報, 有聖兒投師將至矣, 宜出迎故來迎爾.’ 乃執手而嘆曰, ‘靈鳥驚爾投吾, 報予迎汝是何祥也. 犹山靈之陰助也. 傳云山主乃辨才天女.’ 通聞之泣謝投禮於師. 既而將與授戒, 通曰‘予於洞口樹下已蒙普賢大士乃授正戒.’ 智嘆曰, ‘善哉. 汝已親稟大士滿分之戒. 我自生年來夕惕慇懃, 念遇至聖而猶未能昭格, 今汝已受, 吾不及汝遠矣.’ 反禮智通, 因名其樹曰普賢. 通曰‘法師住此其已久’ 如曰, ‘法興王丁未之歲始寓足焉, 不知今幾.’ 通到山之時乃文武王卽位元年辛酉歲也, 計已一百三十年矣. (...中略...) 師嘗乘雲往中國清涼山, 隨衆聽講俄頃卽還. 彼中僧謂是隣居者然罔知攸止. 一日令於衆曰, ‘除常住外, 別院來僧各持所居名花異植來獻道場.’ 智明日折山中異木一枝歸呈之. 彼僧見之乃曰, ‘此木梵号恒提伽, 此云赫, 唯西竺·海東二靈鷲山有之. 彼二山皆第十法雲地菩薩所居, 斯必聖者也.’ (...中略...) 灵鷲寺記云, 朗智嘗云, ‘此庵趾乃迦葉佛時寺基也.’ 堀地得燈缸二. 隔元聖王代有大德緣會來居山中, 撰師之傳行于世. 按華嚴經, 第十法雲地今師之馭雲, 蓋佛庵屈三指, 元曉分百身之類也歟. 讀曰. 想料嵒藏百歲間, 高名曾未落人寰, 不禁山鳥閑饒舌, 雲馭無端洩往還.”

을 낭지-지통 일화의 공간적 배경으로 하였다는 것, 또한 『법화경』을 항상 읽어서 신통력이 있었다는 무명의 스님, 지통이 까마귀로부터 낭지를 찾아갈 것을 일러 받고 영취산으로 행하던 중 나무 밑에서 보현보살을 친견하여 수계하고, 이후 그 나무를 보현수라 명명하였다는 일련의 과정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낭지는 이러한 과정에 등장하는 까마귀가 신령스런 산의 도움으로 인한 것이며, 산의 주인은 ‘辨才天女’라 밝히고 있다.

다음은 ‘緣會逃名文殊帖’⁷⁾의 기록으로 이곳에서도 ‘변재천녀’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승 緣會는 일찍이 靈鷲山에 숨어 살면서 언제나 『法華經』을 읽고 보현관행을
닦았는데, 뜰의 연못에는 항상 연꽃 몇 떨기가 있어 사찰 시들지 않았다. 지금의 靈
鷲寺 龍藏殿이 연회의 옛 거처이다. 국왕 元聖王이 상서로운 이적을 듣고 불러 벼슬
을 주어 國師로 삼고자 하였다. 스님이 이 소식을 듣고만 암자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서쪽 고개 바위 사이를 넘어갈 때 한 노인이 이제 막 밭을 갈다가 묻기를, “스님은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하였다. [스님이] 말하기를, “내가 듣자니, 나라에서 잘못 듣
고 나를 관작으로 얹어매려고 하므로 피해서 갑니다”고 하였다. 노인이 듣고서 말하
기를, “여기서도 팔 수 있을 것인데, 어찌해서 수고로이 멀리서 팔려고 합니까? 스님
이야말로 이름 팔기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고 하였다. 연회는 그가 자기
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고 듣지 않았다. 마침내 몇 리를 더 가다가 시냇가에서 한
노파를 만났는데 묻기를, “스님은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하였다. [연회는] 처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노파가 말하기를, “앞에서 사람을 만났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한 노인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심하여 불쾌해서 또 오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노파가 말하기를, “文殊大聖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연회는 [그 말을] 듣고 놀라고 송구스러워 급히 노인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기를, “聖者의 말씀을 감히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냇가의 그 노파는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하였다.

7) 『三國遺事』 卷5 避隱 8, 緣會逃名文殊帖, “高僧緣會嘗隱居靈鷲, 每讀蓮經修普賢觀行, 庭池常有蓮數朵四時不萎. 今靈鷲寺龍藏殿是緣會舊居. 國主元聖王聞其瑞異欲徵拜爲國師. 師聞之乃棄庵而遁. 行跨西嶺峴間有一老叟今爾耕間, ‘師奚適.’ 曰‘吾聞邦家濫聽繆我以爵故避之爾.’ 叟聽曰, ‘於此可賈, 何勞遠售. 師之謂賣名無狀乎.’ 會謂其慢已不聽. 遂行數里許溪邊遇一嫗問, ‘師何往.’ 苓如初. 嫗曰, ‘前遇人乎.’ 曰‘有一老叟侮予之甚懼且來矣.’ 嫗曰, ‘文殊大聖也, 夫言之不聽何?’ 會聞卽驚悚遽還翁所扣額陳悔曰, ‘聖者之言敢不聞命乎. 今且還矣. 溪邊嫗彼何人斯.’ 叟曰, ‘辯才天女也’, 言訖遂隱. (...中略...) 師之感老叟處因名文殊帖, 見女處曰阿尼帖”.

노인이 말하기를, “辯才天女입니다”고 하고 말을 마치자 그만 숨어버렸다. (...중략...) 스님이 노인에게 감응 받은 곳을 文殊帖이라고 하고, 여인을 만난 곳을 阿尼帖이라고 하였다.

朗智乘雲普賢樹 바로 뒤에 나오는 緣會逃名文殊帖의 기록은 『法華經』을 읽으며 보현행을 닦던 연희가 원성왕의 부름을 피하고자 할 때, 노인으로 현시한 文殊大聖과 노파의 모습으로 등장한 辯才天女의 一喝로 다시 돌아와 왕의 부름을 받고 국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연희가 왕의 부름을 피하고자 하였던 것은 세속적인 관직과 명예를 피하고자 하였던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수보살이 이러한 연희를 꾸짖은 것은 연희가 보살행을 행하는 자로서 대승적 가치를 저버릴 수 있다는 점, 즉 중생의 성불을 도와야하는 승려의 의무를 자칫 방기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한 연희가 계속 그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였을 때, 변재천녀가 노파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이상의 두 기록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三國遺事』 「避隱篇」 朗智乘雲普賢樹·緣會逃名文殊帖의 주요 내용

	朗智乘雲普賢樹	緣會逃名文殊帖
공간 배경	삽량주 아곡현의 灵鷲山	靈鷲山, 영축사 용장전
시간 배경	옹燭(661~663) 연간초, 법흥왕 정미년, 문무왕 즉위년(661)	원성왕대, 현안왕대, 함통 4년(863)
주요 내용	① 무명의 신이한 스님, 법화경, 신통력	① 고승 연희, 법화경, 보현행
	② 노비출신 지통사미, 까마귀의 효시로 영축산 낭지를 찾아감	② 원성왕(785~798)이 연희의 이적을 듣고 국사로 삼고자 부름.
	③ 도중에 지통이 나무아래 휴식중, 보현보살친견, 수계	③ 이를 안 연희가 암자를 베리고 피함
	④ 지통이 낭지스님을 만남.	④ 도중에 만난 노인과의 대화, 도망가는 연희를 꾸짖음
	⑤ 낭지스님 역시 까마귀의 효시로 지통이 올 것임을 예견.	⑤ 노인을 무시하고 다시 길을 가던 중, 시냇가에서 노파를 만남
	⑥ 신조-까마귀, 山主인 변재천녀 영험	⑥ 노파가 노인이 문수대성임을 알려줌
	⑦ 낭지가 이미 지통이 보현보살에게 수계했음을 알고 지통에게 예를 올림	⑦ 노인에게 돌아간 연희, 노파가 변재천녀임을 알게 됨.
	⑧ 그 나무를 보현수라 명명	⑧ 암자로 돌아와 왕의 부름에 응하여

		입궐, 국사로 봉해짐
⑨ 낭지-법흥왕(514~540) 정미년 입산	⑨ 현안왕대(857~860) 왕사 죄	
⑩ 지통-문무왕 원년(661) 입산, 훗날 의상의 제자로 『추동기』 저술	⑩ 咸通四年(경문왕3년, 863)에 죽. 원성왕대와 연대가 다름	
⑪ 낭지승 중국 청량산(오대산)에 구름타고 왕래	⑪ 노인에게 감응받은 곳-문수점 명명.	
⑫ 第十法雲地菩薩의 거처 영취산, 赫木寺라 명명	⑫ 여인만난 곳-아니점 명명.	
⑬ 낭지가 이곳을 가섭불시대의 절터라 하고 땅을 파고 등항 2개를 얻음.		
⑭ 원성왕대 대덕 연회가 낭지스님의 傳을 지음	⑬ 찬	
⑮ 찬		

이들 기록을 종합해 보면, 모두 석가모니의 설법지와 동일명칭인 灵鷲山에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보살행을 수행하던 낭지와 연회가 각각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은 석가모니불의 두 협시로 등장하는 보살이라는 점에서 연관성을 보이며 또한 연회가 낭지전을 지었다는 것에서도 신라의 ‘靈鷲山’을 중심으로 한 법화신앙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기록에 ‘변재천녀’가 등장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삼국유사』 전체 내용 중에서 해당 기록 외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변재천녀’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王歷篇」을 제외한 「紀異篇」에서부터 「孝善篇」까지 대략 130여개의 개별조목 중, 단 두 편의 기록은 결코 많은 분량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변재천녀’라고 하는 존격 명칭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빈도수만으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변재천녀’라는 존격명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당대에 그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소 생소한 ‘변재천녀’의 존격명이 등장하고, 이것이 신앙되었다면 어떠한 형태로 신앙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경전에 나타나는 변재천녀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2. ‘변재천녀신앙’의 전래

‘변재천녀’는 본래 ‘사라스바티(Sarasvatī)’라는 베다 시대의 강의 여신, 물의 여신이었다. 후대에는 언어, 학문, 예술, 음악을 주재하는 신격으로, 불교 경전에 따라 ‘辯才天’·‘辨才天’·‘辨財天’·‘美音天’·‘妙音天’·‘妙音菩薩’ 등으로 한역된다.⁸⁾ 변재천녀가 등장하는 경전 중 하나인 『金光明經』은 北涼의 曇無讖이 414년에서 421년 사이에 한역한 경전이다. 『금광명경』 제1 서품에서 석가모니가 王舍城의 耆闍崛山에서 수많은 불보살과 권속과 더불어 사천왕, 야차, 대변천신에서 설법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제3품의 참회품에서 신상보살이 금으로 된 쇠북을 보는 꿈을 꾸고 다음날 기사굴산으로 가서 꿈에서 보았던 금 쇠북 이야기와 참회의 노래를 부처님께 아뢰는데, 다음의 내용이 주목된다.

금광명경의 법문은/ 천 겁이란 오랜 세월을 두고/ 지은 모든 악과 극중(極重)한 악업을 모조리 덜어 없애 주네/ 누구든지 성심으로/ 한 번 참회하는 이는 이런 많은 죄가 모두 멸하여 없어지나니/…(중략)…/가지가지 풍악과 공후·쟁·괴리와 크고 작은 거문고 등을 연주하여 갖가지 미묘한 음악을 그들이 얻어 듣기를 원하네.⁹⁾

경전에서 공후, 쟁, 괴리, 거문고 등의 구체적인 악기가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신라사회에 『금광명경』이 전래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옛날 법흥대왕이 자극전에서 즉위하고 (…중략…) 대왕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아아, 과인은 덕이 없이 왕업을 계승하니, 위로는 음양의 조화를 훼손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즐거움이 없으므로 정무의 여가에 마음을 불도에 두고자 하지만, 누구와 함께 동반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에 내양한 자가 있어 성은 朴, 자는 嚴觸 혹은 異次라고 한다. (…중략…) 龍顏을 우러러보고 [왕의] 뜻을 눈치 채고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옛사람은 비천한 사람에게도 계책을 물었다고 하니, 중죄를 피하지 않고 [대왕의 뜻을] 여쭙기를 원합니다”고 하였다. (…중략…) 왕이 말하기를, “실을 베

8) 주 5) 참고.

9) 北涼 三藏法師 曙無讖譯, 『금광명경』 1. 서품; 『한글대장경』 K.1465(40-626).

http://abc.dongguk.edu/ebsi/c2/sub2_pop.jsp.

어 저울에 달더라도 한 마리 새를 살리려고 했고¹⁰⁾, 피를 뿌리고 목숨을 끊어서라도 일곱 마리의 짐승을 스스로 불쌍히 여겼다. 나의 뜻은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것인데,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느냐? 네가 비록 공덕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죄를 폐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고 하였다. 사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버리기 어렵지만 제 목숨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신이 저녁에 죽어 아침에 대교가 행해진다면, 佛日이 다시 중천에 오르고 聖主께서는 길이 편안하실 것입니다”고 하였다.¹¹⁾

위 기록은 元和 연간에 南潤寺의 沙門 一念이 지은 龍香墳禮佛結社文의 내용으로 염축 즉 이차돈이 불교공인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그런데 ‘洒血摧命自怜七獸’은 김영태의 지적¹²⁾처럼 『金光明經』에 나오는 布施王子 摩訶薩埵가 깊주린 호랑이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보시행을 했다는 故事¹³⁾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흥왕대 이전에 이미 『금광명경』이 신라사회에 소개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⁴⁾

이후 『금광명경』은 여러 차례 다시 한역되었다. 曇無讖의 4권(19품) 한역 외에 北周 武帝代(561-578) 舍幅多의 『金光明更廣大辯才陀羅尼經』 5권(20품), 梁 承聖元年(552) 眞諦의 『金光明帝王經』 7권(23품), 隋 寶貴가 기존의 한역본

10) 解肉枰軀의 고사는 『大智度論』에 근거한다. 고행 중이던 尸毘王을 시험하고자 帝釋天王은 매로 둔갑하고 비수말마친은 비둘기로 변하였다. 매에게 죽기던 비둘기가 왕에게 뛰어들자 왕은 자신의 살을 베어 매에게 주었고, 급기야는 온몸을 절을 위에 올려놓으면서 그 비둘기의 생명을 대신하였다(『大智度論』 제35권, <http://abc.dongguk.edu/ebti/c2/sub1.jsp>,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11) 『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厭觸滅身, “昔在法興大王垂拱紫極之殿 (…中略…) 大王嘆曰, ‘於戲, 寡人以不德丕承大業, 上虧陰陽之造化, 下無黎庶之歡, 萬機之暇留心釋風。誰與爲伴.’ 粵有內養者姓朴, 字獸觸 或作異次, (…中略…)瞻仰龍顏知情擊目奏云, ‘臣聞古人問策蕪蕘, 願以危罪啓諮.’ (…中略…) 王曰 ‘解肉枰軀將贖一鳥, 洒血摧命自怜七獸。朕意利人, 何殺無罪。汝雖作功德不如避罪.’ 舍人曰 ‘一切難捨不過身命。然小臣夕死大教朝行, 佛日再中聖主長安.’”

12) 김영태, 「삼국시대의 신주신앙」, 『한국밀교사상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6, 72-74쪽.

13) 『金光明經』 권 4 捨身品(大正藏 16, 354-456).

14) 이와 관련하여 김영태는 『금광명경』, 『금광명최승왕경』에 대하여 원효의 『金光明經疏』 8권, 憶興의 『金光明經略意』 1권, 『金光明最勝王經略贊』 5권, 『最勝王經疏』 10권(5권), 勝莊의 『金光明最勝王經疏 8卷』, 道(遁)倫의 『金光明經略記』 1권, 太賢의 『金光明經述記』 4卷, 同料簡 1卷 등 신라사회에서 이들 경전에 대한 소 해석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지적한 바 있다(위의 논문, 1986, 73-74쪽).

을 編한 『合部金光明經』 8권(24품, 593년), 唐 義淨의 『金光明最勝王經』 10권(31품, 703년)¹⁵⁾등은 변재천녀의 대표적인 소의경전이다. 이 중 ‘대변재천녀 품’¹⁶⁾에는 대변재천녀와 석가모니불의 대화를 통해 災變과 본성의 어긋남, 질병의 고통, 싸움, 전쟁, 나쁜 꿈, 귀신, 방자, 도깨비, 저주, 횡사 등의 모든 악의 장애와 재난을 없애겠다고 서원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 때 대변재천녀가 대중 가운데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법사 중에서 ①이 금광명최승왕경을 말하는 이는 제가 반드시 그에게 지혜를 더하게 해주겠으며 장엄과 변재를 갖추게 하겠습니다. 만일 저 법사가 이 경 가운데 글자나 글귀 뜻에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 모두 기억하여 능히 잘 깨닫도록 하겠고, 다시 걸림 없는 다라니 총지(懶持)를 알려 주겠습니다. (...중략...) 또 이 경전을 듣는 이로 하여금 모두 생각할 수 없는 변재와 다함이 없는 큰 지혜를 얻게 하고, 여러 가지 견해를 잘 알고 모든 기술을 능히 알도록 해 주겠습니다. 생사에서 벗어나 속히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세에서는 목숨을 더하게 하고, 사는 데 필요한 기구를 모두 원만하게 받도록 해 주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꼭 이 경을 지니는 법사와 이 경전을 듣기를 좋아하는 이를 위하여 그 주문과 약과 목욕하는 법을 말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나쁜 본성과 재변(災變), 처음 태어나면서 가진 본성과 어긋남과 질병의 고통·싸움·전쟁·나쁜 꿈·귀신·방자·도깨비·저주·횡사, 이러한 모든 악의 장애와 재난을 모조리 없애겠습니다. (...중략...) ②여기에 안식향을 들 피우고 5음(音)의 연주 소리 끊지 말며 깃발과 일산으로 장엄하고 비단도 걸어 단장(壇場) 네 귀에 들 달아 두라. (...중략...) 그 때 교진여 바라문이 위의 찬탄과 주찬법(呪讚法)을 말하여 변재천녀를 칭찬하고 나서 여러 대중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변재천녀에게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보살펴 줄 것을 청하여 ③이 세상 가운데서 걸림 없는 변재와 총명, 큰 지혜와 교묘한 말솜씨, 넓고 깊은 빼어난 재주, 논의를 아름답게 꾸미는 재주를 얻어 뜻을 따라 성취하여 의심하여 걸림이 없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이렇게 지성으로 은근하고 정중하게 청해야 한다.”¹⁷⁾

15) <http://abc.dongguk.edu>, 동국역경원, 『불교사전』; 김영태, 위의 논문, 72쪽.

16) 『金光明最勝王經』「大辯才天女品」制十五之二, ‘爾時佛告辨才天女, 善哉善哉。仙天女。汝能流布是妙經王。擁護所有受持經者。及能利益一切衆生。令得安樂。說如是法。施與辨才不可思議。得福無量。諸發心者。速趣菩提’(『大正藏』 16-438): http://abc.dongguk.edu/ebti/c2/sub2_pop.jsp, 『金光明最勝王經』 K.127(9-1291) 15.

17) http://abc.dongguk.edu/ebti/c2/sub2_pop.jsp 『금광명최승왕경』 K.127(9-1291) 15. 「대변재천녀품」,

위의 기록 중 ①은 변재천녀의 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광명최승왕경』을 따르는 이들에게 지혜와 변재의 능력을 주고 제시되어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겠다는 것이며, ②는 그 구체적인 방편에 해당하는 것인데, 5음의 연주소리를 끊지 말라 하는 점은 ‘樂供養’의 중요성을 일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은 다시 ①과 연결되어, 변재천녀의 직능 내지는 영험과 관련된 것으로 그가 걸림 없는 변재와 총명, 지혜, 언어, 학문 등의 직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¹⁸⁾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라사회에는 일찌감치 『金光明經』과 『金光明最勝王經』이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고, 경전을 통하여 변재천녀신앙이 유입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변재천녀신앙은 현실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되었을까. ‘변재천녀’라는 관념으로만 신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역시 신앙의 형태, 혹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변재천녀’의 존재가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종교예술이 그렇듯 회화나 조각 등으로의 시각화·형상화는 신앙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신앙심을 진작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는 변재천녀신앙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일 터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변재천녀의 도상적 특징을 알 수 있는 예로 알려진 바가 없다.¹⁹⁾ 신앙의 형태를 짐작케 하는 유물의 부재는 ‘삼국시대에 변재천신앙이 의례로서 정형화되지 못하여 신앙문화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을 낳기도 하였다.²⁰⁾

18) 이와 같은 변재천녀의 직능과 관련하여 양은용은 앞서 살펴본 『삼국유사』의 낭지승운 보현수와 연회도명문수점의 기록에서 등장하는 까마귀가 신라시대로부터 미래를 예견하는 영물로 인식되었다는 점, 또 朗智와 智通이라는 이름 역시 변재천녀의 지혜와 변재라는 성격과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하였다(앞의 논문, 232-235쪽).

19) 일반적인 변재천녀의 도상적 특징은 활, 화살, 칼, 창, 도끼 등의 무구류를 비롯한 다양한 지물을 들고 있는 四臂·八臂의 多臂像과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二臂像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경우, 10세기 돈황에서 3면 8비의 다양한 무기류를 지니고 있는 변재천불화가,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팔과 지물이 유실되어 정확한 지물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나라 동대사 八臂 변재천 입상이 있다. 특히 일본은 뱀의 형태인 우하신과 연결되어 비파와 함께 白蛇가 등장하기도 한다(조승미, 「동아시아 불교 여신의 민간신앙화-중국의 귀자모와 일본의 변재천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82, 한국불교학회, 2017, 347-353쪽; 양은용, 앞의 논문, 229-231쪽 참고바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도상적 특징을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다.

20) 조승미, 앞의 논문, 2014, 306-309쪽, 330-312쪽.

그런데 불교신앙의례에 필요한 佛殿四物²¹⁾ 중 하나인 梵鍾은 범음을 울리는 佛具인데, 이를 종신에는 소위 ‘주악천인상’이 보여 주목된다. 이를 주악천인상과 변재천녀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장에서는 『삼국유사』 피은편 변재천녀 기록의 시대적 배경에 해당하는 통일신라시대 범종의 주악천인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²²⁾

III. 統一新羅梵鍾 ‘奏樂天人像’의 사상적 연원

1. 통일신라시대 범종과 ‘주악천인상’

불교공예의 한 부분인 범종은 불교의례에 사용되는 의식용구의 하나이다. 그런데 기왕의 범종연구는 현존하는 最古의 동종인 통일신라시대의 상원사 종을 비롯한 신라범종, 고려범종, 조선종으로 양식적 변천 및 중국과 일본종과의 차이점 등에 주목하여 종의 구조적 측면, 특히 용뉴에 많은 노력과 인접국인 중국의 종, 일본종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에 집중되어 왔다.²³⁾ 그 결과 기존 범종연구에서 ‘飛天像’ 혹은 ‘奏樂天人像’에 대한 집중

21) 자현스님, 『사찰의 상징체계』, 불광출판사, 2012, 96쪽.

22) 흔히 ‘비천상’ 혹은 ‘주악천인상’이라 일컬어지는 문양은 비단 범종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진해 온 불교의 전래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돈황석굴 등의 벽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천인의 형상, 그리고 탑파나 부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최선일, 「統一新羅時代 梵鐘에 표현된 天人像 연구」, 『신라 사학보』 15, 2009; 김성혜, 「원주 일산동 불상 주악상의 음악사적 조명」, 『음악과 민족』 48, 민족음악학회, 2014 참조바람). 그러나 본고는 변재천녀와 주악천인상의 연관성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측면에서 그 사상적 연원을 찾는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문헌자료 기록의 시대적 배경에 해당하는 통일신라시대 범종에 나타난 주악천인상으로 대상을 좁혀서 논지를 전개해가도록 하겠다.

23) 한국의 범종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일본에 소장된 한국범종의 조사를 시작으로 17세기경 伊藤東涯의 對馬國府八幡鐘에 대한 연구에서부터(平井良平, 앞의 책, 33쪽) 이후 명치시대에 들어와 ‘몽고종’ 혹은 ‘조선종’이란 이름으로 초기 일본인 학자를 중심으로 범종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후 平井良平은 『朝鮮鐘』(각천서점, 1974)에서 한국의 종을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별 종의 특징을 기술하고 개별 탁본자료와 도판을 수록하였다. 특히 명치유신이나 한국전쟁 당시

적인 연구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듯하다. 李美也是 5쪽 분량의 제한된 글에서 ‘비천상’을 주제로 언급하고 있는데 미적 표현방식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들 문양이 범종에 등장하게 된 근본적 이유나 사상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²⁴⁾ 최선일은 통일신라 범종을 대상으로 먼저 기년명과 무기년명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각기 지니고 있는 악기에 따라서 혹은 천의나 얼굴형의 표현, 자세 등을 천인상의 유형을 분류하고,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²⁵⁾ 그런데 그는 ‘飛天’이라는 단어가 경전상의 명칭이라 볼 수 없기에 ‘天人’이라 불러야 한다는 의견²⁶⁾에는 동의하면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근거로 ‘주악천인상, 공양천인상, 합장천인상, 무용천인상’ 등으로 분류하여

망실된 범종의 경우도 이전에 작성된 탁본과 파손 부분들을 참고로 도해를 수록하여 현재까지도 ‘한국종’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후 한국인 학자로는 고유섭, 황수영 등을 거치면서 한국종 연구는 그 기원과 특히 용뉴와 구조적 특징규명에 집중되었으며, 나아가 공명을 만들어내는 매커니즘에 집중되었다. 종합적인 범종의 조사보고서인 『한국의 범종』(국립문화재연구소, 1996)에는 1972년에서 197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조사한 범종 176구에 대한 조사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개별 범종에 대한 연구로, 2권으로 구성된 『성덕대왕신종 종합보고서』(국립경주박물관, 『성덕대왕신종: 종합논고집, 종합조사보고서』, 1999)가 발간되어 범종에 대한 미술사적, 역사적 연구와 더불어 과학적 접근 또한 이루어졌다. 2003년에는 직지성보박물관에서 300 여점의 범종을 정리하고 100여점의 탁본을 수록한 『직지성보박물관 특별전 하늘꽃으로 내리는 깨달음의 소리 韓國의 梵鍾 拓本展』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범종연구를 둘러싼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뒤돌아보는 논문들(최웅천, 「한국 범종 연구의 성과와 과제: 기원과 전형 양식으로의 완성, 전성과 쇠퇴의 1세기」, 『불교미술』 22, 동국대학교 박물관, 2011; 「황수영 박사의 한국 범종 연구와 성과」, 『강좌미술사』 43, 2014)과 곽동해, 「한·중·일의 조형양식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재홍, 「신라 통일기 범종의 명문 분석과 사회상-상원사 범종의 명문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8, 한국고대사학회, 2012 등 한국종의 양식적 특징을 규명하는 논문에서 비교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신라범종에서 조선범종에까지 이르는 한국종의 일반적인 양식적 특징 및 변천과 관련된 것은 논외로 하고 변재천녀의 전래 및 초기신 양형태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의 범종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그 중에서도 종신부에 나타나는 통칭 ‘주악천인상’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4) 李美也, 「범종에 나타난 천인상」, 『고고역사학지』 8, 동아대학교, 1992.

25) 최선일, 앞의 논문, 2009.

26) 吉村怜, 「南朝的天人の日本への傳播」, 『日本美術全集 2-法隆寺から薬師寺』, 講談社, 1990, 171쪽; 최선일, 위의 논문, 44쪽 재인용.

역시 경전에 근거한 존격명으로 분류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기준에 막연히 ‘비천상’이라 부르던 단계에서 분명 진일보한 것이나, 수인이나 지물에 따라서 어렵지 않게 불·보살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금까지 천부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미비한 것에서 오는 한계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들 ‘주악천인상’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아름다운 문양으로서 장식과 장엄적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범종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점, 즉 ‘주악천인상’이 범종에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사상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이들 ‘주악천인상’이라 통칭되어온 문양의 조성의미를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망실되었으나 자료가 남아있어 추적 가능한 것과 일본에 소재한 것까지를 포함하여, 통일신라시대 범종을 대상으로 주악천인상의 실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²⁷⁾

1) 上院寺梵鐘(725년)

먼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범종인 상원사동종(725년)²⁸⁾이다. 총고와 구경은 167×90.3cm이며 上帶(肩帶)에는 橫笛과 腰鼓를 취하고 있는 상이 2구, 下帶(口緣帶)에는 琴, 橫笛, 腰鼓, 琵琶를 연주하고 있는 상이 陽鑄되어 반원형의 구획 안에 총 4구가 배치되어 있다. 종래에 유곽이라 일컬어지던 蓮廓의 左右에는 반원형의 구획 안에 단독 주악상이 배치되어 있고, 연곽 하단에는 횡적과 요고를, 그리고 종신의 앞·뒤면에는 공후와 생황을 연주하고 있는 주악상이 각각 1구씩 배치되어 있다.

27) 이하 신라범종은 平井良平의 「新羅時代」, 『朝鮮鐘』, 角川書店, 昭和49年, 41-67쪽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제시되어 있는 도판 자료 중 사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사진을 이용하였으며([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3727&cid=46657& categoryId=46657](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3727&cid=46657&categoryId=46657)), 도해 및 탁본사진은 平井良平의 앞의 책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8) 오대산 상원사에 전래하는 통일신라의 범종으로 조선시대의 척불당시 안동의 고찰에서 안동 문류로 옮겨졌던 것이 다시 상원사로 옮겨지게 된 경위가 『永嘉誌』에 수록되어 있다(최웅천, 「황수영 박사의 한국범종연구와 성과」, 『강좌미술사』 43, 2014, 286쪽).



〈도 1-1〉 상원사 범종



〈도 1-2〉 종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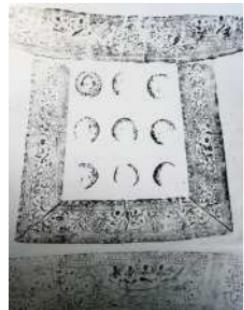
〈도 1-3〉 상대 및 연곽일부



〈도 1-4〉 상대 세부



〈도 1-5〉 하대 세부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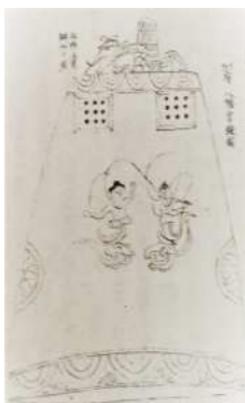
〈도 1-6〉 상대·연곽·하대

2) 无盡寺銘梵鐘(745년)

日本 國府八幡宮 소장된 종이었으나, 명치유신의 神佛分離 소동 때, 망실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江戸時代에 松崎懐堂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

29) 최선일, 앞의 논문, 2009, 48쪽 <사진 3> 주악천인상.

탁본이 동경국립박물관에 남아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탁본에 의하면 크기는 총고 72.7cm×구경 56.3cm이다.³⁰⁾ 상대, 하대, 연과대의 문양도 상원사종의 것과 같은 문양, 반원형의 구획을 지어놓은 것 등이 상원사종과 유사한데, 상원사와 달리 반원형 안에는 주악천인상은 없다. 다만 종신에 2구 1조의 요고와 횡적을 연주하는 천인상이 확인된다. ‘天寶四載乙酉思仁大角干爲賜夫只山村无盡寺鍾成...’라는 명문을 통해, 신라 경덕왕4년(745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¹⁾



〈도 2-1〉 무진사명법종 도해



〈도 2-2〉 종신부

3) 聖德大王神鍾(771년)

총고와 구경 330.0×227.0cm인 성덕대왕신종은 銘文에서 밝히고 있듯이 성덕왕을 기리기 위하여 경덕왕대에 銅 12萬斤을 들여 대종을 鑄成하려 하였으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자, 惠恭王이 부왕의 뜻을 이어 大曆六年(771)에 완성한 巨鐘이다.³²⁾ 본 종에 시문되어 있는 상은 악기를 지니고 있지 않은데, 이는 성덕왕 사후에 그 업적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위해 조성되었다는 주성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악천인상’이 등장하는 범종의 예에서는 제외된다 하겠다.

30)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범종』,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240쪽.

31) 平井良平, 앞의 책, 45-46쪽.

32)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범종』,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241쪽.



〈도 3-1〉 성덕대왕신종(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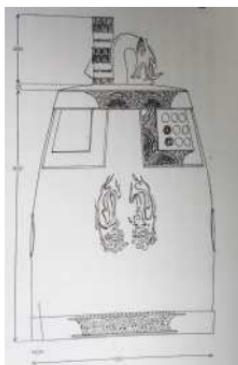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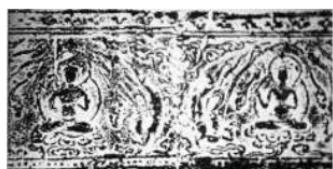
〈도 3-2〉 종신부



〈도 3-3〉 종신부

4) 禪林院址 破鍾(804년)

1948년 10월 江原道 江陵郡 新西面 米川里의 사지에서 발굴되었다. 본 종의 최초 보고자는 李弘植이며 종은 그 다음해인 49년 11월에 월정사로 옮겨졌으나, 한국전쟁 당시 파괴되었다. 현재는 그 파편 일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50년 정월에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이홍직이 사진과 탁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근거로 발표한 일이 있어서, 현재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³³⁾ ‘貞元’ 명문을 근거로 804년(애장왕 5)이라는 정확한 연대를 지니게 되었다.

〈도 4-1〉 선림원지법종
복원도〈도 4-2〉 종신부 및
하대

〈도 4-3〉 하대 세부

33) 平井良平, 앞의 책, 49-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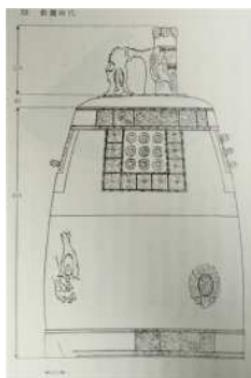
종신부에는 다른 신라종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신부에 주악상 2구 1조의 형식이 보이는데, 횡적과 요고를 연구하고 있는 상이다. 특이한 점은 하대에 두광과 신팔까지 겹비한 결가부좌한 불상이 연이어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상대에는 반원형 구획이 마련되어 있으나 주악천인상은 보이지 않는다.

5) 蓮池寺銘 梵鍾(833년)

총고 111.8cm×구경 66.3cm로 성덕대왕 신종, 상원사 범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범종이며, 현재 日本 常宮神社 보물고에 소장된 것으로,³⁴⁾ 일본에 있는 한국의 범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명인 ‘太和7年3月’의 명문이 있는 범종이다. ‘태화7년’은 興德王8年(833)에 해당하는데, 江戶時代부터 주목을 받아 많은 학자들이 그 명문에 대해 논평을 했다.³⁵⁾ 상하대와 유곽대부분은 꽈 쪽이 넓고, 상하대는 같은 문양의 파도사이에 암초가 있는 듯한 문양인데, 주악천인상은 보이지 않는다. 종신에는 당좌 사이에 각 1구의 천인상이 요고를 지니고 양손을 벌리며 날아오는 듯 표현되어 있는데, 그 기운생동한 모양이 보는 이로 하여금 환희심마저 들게 한다.



〈도 5-1〉연지사명범종(833)



〈도 5-2〉 도해



〈도 5-3〉 종신부

34) 이진원, 「한국고대악기의 악기사학적 재검토」, 『한국고대음악사의 재조명』, 민속원, 2007, 2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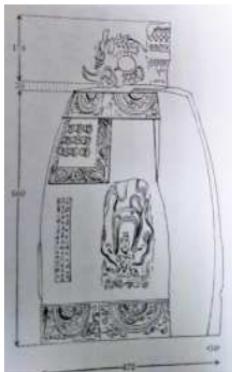
35) 平井良平, 위의 책, 53-56쪽.

6) 松山村大寺銘 梵鐘(904년)

日本 宇佐神宮 소장으로, 신라시대의 명문있는 종 중 가장 후대의 것으로,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³⁶⁾ 1815년 봄, 山崎美成는 우좌팔번신사에서 발견하였는데 天復四年甲子(904)로 시작되는 명문을 보고 탁본을 해 두었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조선종임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다.³⁷⁾ 총고 85.8cm, 구경 47.2cm이며 오른쪽 부분은 유실되어 있다. 상대와 하대의 문양은 반원형 구획안에 주악천인상은 보이지 않으나, 종신부의 당좌 좌우에 해당하는 곳에 양손을 들어 올리고 요고를 치는 천인상 각 1구가 양각으로 주조되어 있다. 그런데 당조와 좌측면천인의 중간에 연곽 아래에 길이 21cm, 폭 5.8cm의 장방형으로 구획된 공간에 명문이 있다. ‘天復四年甲子二月廿日松山村/ 大寺鍾成內文節本和上能與本村主...’의 명문이 있는데, 천복 4년은 당 명종의 연호로 4년은 효공왕 8년으로 904년에 해당한다.



〈도 6-1〉
송산촌대사명법종 전체



〈도 6-2〉 도해



〈도 6-3〉 종신부

36) 이진환, 앞의 책, 2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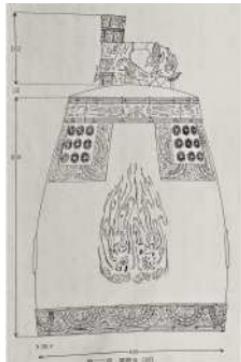
37) 平井良平, 위의 책, 57-59쪽.

7) 日本 雲樹寺 所藏 梵鐘³⁸⁾

日本 島根縣安來市清井町에 있는 臨濟宗의 거찰에 소장되다가, 松江市의 島根縣立博物館에 옮겨졌다. 총고 75.3cm, 구경 44.0cm의 소형동종으로 상원사의 동종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하다. 龍頭는 목 부분에서 파손·절단되어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상원사 동종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중앙의 종신부에는 상대에는 연과와 연과 사이에 종신 중앙부와 마찬가지로 2구 1조의 주악천인상이 배치되어 각각 횡적과 요고를 연주하고 있다. 연과대와 하대에는 주악천인상은 배치되어 있지 않다.



〈도 7-1〉 일본 운수사 소장 범종



〈도 7-2〉 도해



〈도 7-3〉 종신부

8) 원주 출토 범종 하대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범종 하대 일부분만 남아있다. 강원도 원주시 근처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한다. 하단 부분의 두께 5.2cm, 하단부분의 폭은 11.2cm정도이다. 하대에 폭 11cm 정도로 구획되어져 있고, 개별 구획안에는 천인상이 각각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이는 부분에는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천인상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장엄방식은 북위 아래 종종 보이는

38) 無紀年이기 하나 앞서 살펴본 상원사종(725)와 무진사명범종(745)와 매우 유사한 점을 들어 두 종이 제작된 연대로 보아 8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平井良平, 위의 책, 60쪽.

것이지만, 한국에는 8세기에 속하는 석조층탑의 기단장식에 이용되고 있다. 단 범종에 표현된 것은 이것이 유일한 예이다.³⁹⁾



〈도 8〉 원주 출토 범종하대

9) 實相寺 破鐘



〈도 9-1〉 실상사파종 종신부



〈도 9-2〉 도해



〈도 9-3〉 종신부

全羅北道 南原郡 山內面의 실상사 경내 약사전 동남쪽에서 출토된 것으로, 이후 동국대학교에 보관되고 있다. 구경은 1m에 가까운 대형 범종인데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부분은 종신하부만으로 용두를 포함한 종의 상반부분은 없다. 현재 남아있는 종신에는 당좌, 천인상과 하대가 확인된다. 2곳에 마련된 당좌 사이에 2구 1조의 천인상이 있는데, 신라종의 양식상 반대편에서 2구 1

39) 상원사 종의 경우 하대폭이 11.5cm이며로 구경은 90cm, 실상사 파종의 경우는 하대 폭이 13cm로 구경은 99.5cm인 것을 감안하여 남아 있는 하대로 이 범종의 완전한 모습을 추정해 보면 총고 1m를 넘고, 구경은 90cm에 가까우리라 추정된다.(平井良平, 앞의 책, 62쪽).

조의 천인상이 있었을 터이나, 화재로 인해 유실되고 없다. 천인상의 오른쪽은 橫笛을 불고,⁴⁰⁾ 왼쪽은 笙簫을 불고 있다. ‘貞元二十年銘’(804)이 있는 강원도 미천리출토, 선림원지 범종과 유사하여 이 종의 제작연대 추정에 유력한 지표가 되고 있다.⁴¹⁾

10) 日本 光明寺 所藏 梵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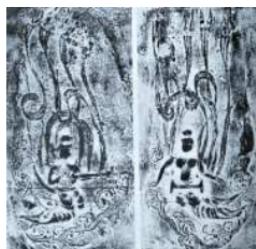
일본 島根縣大原郡加茂町大竹에 있는 광명사 범종은 총고 88cm, 구경 51cm으로, 종신부에 당좌가 2곳 배치되어 있다. 연곽 좌우의 측대에 상부는 甲冑(갑옷과 투구)를 입은 천부의 입상이 있고, 하단에는 합장한 동자의 좌상이 표현되어 있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 종신 좌우측면의 하부에는 천인상 각 1구씩이 돌출되어 주조되어 있는데, 좌측면은 비파를, 우측면은 요고를 연주하고 있는 상이다. 하대에도 반원형 구획 주약천인상이 한 구씩 배치되어 있다. ‘大正初年’ 처음 발견되었고, 범종의 주조당시의 명문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본으로 옮겨진 이후에 새겨진 명문⁴²⁾으로 인해, 통일신라 후반에 주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 10-1〉
일본 광명사
소장 범종



〈도 10-2〉 도해



〈도 10-3〉 종신부



〈도 10-4〉
상대·연곽·하대

40) 平井良平, 『조선종』, 1974에는 縱笛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황미연은 입가에 피리의 끝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횡笛으로 보아야 함을 지적하였다(『전북 소재 유물에 나타난 주 악도상연구』, 『예술문화』 2, 전주대 예술문화연구소, 1997, 63쪽).

41) 平井良平, 위의 책, 62쪽.

42) 平井良平, 앞의 책, 63쪽.

11) 清州雲泉洞梵鐘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된 청주운천동 범종은 1970년 충청북도 청주시 雲泉洞에서 최용문 소유의 땅에서 신축공사시 불상, 금고 등과 동반 출토되었다. 지표로부터 약 70cm정도 밑에 매몰되어 있었으며, 발견 당시 범종의 위아래가 전복된 상태로 나왔는데, 그 안에 금동보살상 1구와 '己丑六月日在銘'의 金鼓 1, 향완 2, 鐙製鉢 2개가 들어있었다. 향완과 밭은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식되어 있었으나, 보살상, 금고와 범종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고, 발견지에서는 무수한 기와편과 고려자기편이 흩어져 출토된 것으로 보아 사찰지로 추정되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동반한 금고에 '□陽寺'라는 명문이 있어서 사명일 가능성이 있다. 종신고 64cm, 구경 47cm, 용뉴고 14cm로 전체 총고대 구경의 비율이 136을 넘어서, 일반적인 신라 명문종과 비슷하고, 또 광명사종과 서로 전후한 시기, 즉 9세기 중엽 내지는 후반의 것으로 필시 동일 工人이거나 혹은 동일 工房에서 주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³⁾

무늬가 없는 구연대를 두르고, 당좌의 바로 위에 주형의 접속선이 있어서 종신의 상하 구분선처럼 보이는데 그 선 바로 위에 당좌와 교체하여 2구의 비천상이 陽鑄되어 있다. 그 중 1구는 비파를 들고 있는 주악상이며 다른 한구는 악기를 들고 있지 않은 듯하다. 연곽대에는 반원형안에 배치된 천인상이 확인되나 역시 악기는 보이지 않는다.



〈도 11-1〉
청주운천동 범종



〈도 11-2〉 종신부



〈도 11-3〉
종신부, 상대, 연곽측면

43) 平井良平, 앞의 책, 66-67쪽.

이상으로 살펴 본 11기의 통일신라시대 범종을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紀年銘부터 無紀年銘으로 배치하고 이를 범종에 나타난 주악천인상의 악기 를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통일신라시대 범종과 악기⁴⁴⁾

연번	명칭	소재지	조성연대	등장 악기	총고×구경 (cm)	비고	紀年
1	上院寺梵鐘	강원도 오대산	725	橫笛/腰鼓 琴/琵琶 笙箏/笙簧	167×90.3	완품	紀年銘
2	无盡寺銘梵鐘	전북·일본 동경국립박물관	745	橫笛/腰鼓	72.7×56.3 ⁴⁵⁾ (복원치수 90.3×56.4 ⁴⁶⁾)	망실	
3	聖德大王神鍾	국립 경주박물관	771	柄香爐 供養像 (극락왕생기원)	330×227 ⁴⁷⁾ 366.3×222.7 ⁴⁸⁾	완품	
4	禪林院址梵鐘	국립중앙박물관	804	橫笛/腰鼓	122.0×68.0	파손	
5	蓮池寺銘梵鐘	日本 常宮神社	833	橫笛/腰鼓	111.1×66.3	완품	
6	松山村大寺銘 梵鐘	日本 宇佐神宮	904	腰鼓	85.8×47.2	파손	
7	日本 雲樹寺 所藏 梵鐘	日本 雲樹寺	8세기 전반추정	腰鼓/橫笛	75.3×44.0	완품	
8	原州 出土 梵鐘 下帶	동국대 박물관	9세기추정	琵琶	미상	파손	
9	實相寺破鐘	동국대 박물관	9세기추정	橫笛/笙簧	총고미상 구경 98.0	파손	
10	日本 光明寺 所藏 梵鐘	日本 光明寺	9세기추정	琵琶/腰鼓	88.1×51.0	파손	
11	淸州雲泉洞梵鐘	국립 청주박물관	9세기추정	橫笛/琵琶	78.0×47.4	완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덕대왕 사후에 그 업적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위해 조성된 성덕대왕 신종의 경우는 그 鑄成의 목적으로 인해 공양상이 陽鑄되어 있고, 일반적인 통일신라범종에 등장하는 ‘주악천인상’은 보이지 않는

44) 『朝鮮鐘』(平井良平, 1974), 『韓國의 梵鐘』(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韓·中·日 鐘의 造形樣式研究」(곽동해,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최선일(앞의 글, 2009), 이진원(앞의 논문, 2007)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45)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범종』, 1996, 240쪽.

46) 곽동해, 앞의 논문, 2000, 96쪽.

47)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241쪽.

48) 곽동해, 앞의 논문, 2000, 95쪽.

다. 그 외의 망실된 것까지를 포함한 나머지 10기의 통일신라시대 범종에는 요고, 횡적, 종적, 생황, 제금, 공후, 비파 등의 다양한 악기가 등장하였다. 즉 주악천인상이 빠짐없이 표현된 것이다.⁴⁹⁾ 그런데 이들은 왜 범종에 시문되어 나타난 것일까. 주악천녀와 변재천녀의 상관관계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주악천인상'과 '변재천녀'

기본적으로 공양과 일승의 세계를 만드는 법구인 범종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最古의 한국종인 상원사동종 이전에도 범종이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三國遺事』「興法篇」의 '原宗興法厭觸滅身'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한다.

진흥대왕 즉위 5년 갑자에 大興輪寺를 지었다. 태청 초년(547년)에 양나라 사신 沈湖가 사리를 가져왔고, 天嘉 6년(565년)에는 진 사신 劉思가 승 明觀과 함께 내경(內經)을 받들고 왔다. 절과 절들은 별처럼 벌여 있고, 탑과 탑들은 기러기 행렬인양 늘어섰다. 法幢을 세우고 범종을 매어다니, 龍象 같은 승려의 무리가 세상의 福田이

49) 악기가 등장하는 유물, 유적과 관련하여 장사훈은 감은사지(탑 기단부)를 포함한 총 5곳의 불교유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는 불적에 등장하는 악기가 실제 연주용으로 당시에 활용되었다기보다는 당시에 유행하던 돈화 막고굴 등의 벽화나 변상도에 등장하는 악기가 그대로 불화의 양식으로서 신라에 전래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新羅時代 佛教遺蹟에 나타난 樂器」,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0). 박용호는 악기가 부조된 인도의 석탑건축양식으로 인도 초기 불탑 바르후트와 산치탑 소개하였고(「인도 초기 불탑에 나타난 불교악기에 대한 연구」, 『한국음악연구』 25, 1997), 박경식은 한국 석탑의 부조 장엄조식의 연원을 인도의 석굴사원과 중국 운강석굴 등과 연관 지어 소개하였다(앞의 논문, 2017). 또한 음악사와 관련하여 범종·탑·부도 등에 등장하는 악기를 세분하고, 당비파의 경우도 목 부분에 굴곡이 있는 당비파와 그렇지 않은 향비파로 구분하여 제시한 황미연(「통일신라시대 주악상에 관한 고찰」, 『낭만음악』, 낭만음악사, 1996)과 더불어 고대음악사연구의 일환으로 악기가 등장하는 유물, 유적 등을 소개한 이진원(앞의 책, 2007), 그리고 김성혜의 원주 일상동 불상(본래 원주 중앙동의 옛 절터의 불상 2구) 중대석에 부조된 주악천인상에 대한 연구(앞의 논문, 2014) 등 악기가 등장하는 다양한 유물과 불적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본고에서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사상적 연원과 관련하여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되고, 大小乘의 불법이 서울의 자비로운 구름이 되었다. 타방의 보살이 세상에 출현하고 분황의 陳那와 浮石의 寶蓋, 그리고 洛山과 五臺에 이르기까지가 이런 것이다. 西域의 명승들이 [이] 땅에 강림하니, 이로 인하여 三韓을 병합하여 한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을 합하여 한 집안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德名을 天鏡의 나무에 새기고, 신성한 행적을 은하수 물에 그림자로 남겼으니, [이] 어찌 세 성인의 위덕으로 이룬 것이 아니랴.⁵⁰⁾

법흥왕대의 불교공인이후 위 기록에서처럼 절과 절이 별자리처럼 수도 경주에 포진되고 탑과 탑이 연이어 늘어서게 될 정도로 불교는 급속도로 신라 사회에 퍼져서 융성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사찰에는 범종을 매어달았다 하니, 현존하는 最古인 상원사동종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신라범종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또한 같은 기록에서 범폐의례가 행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훗날 國統 惠隆, 法主, 孝圓과 金相郎, 大統, 鹿風, 大書省 真怒, 波珍浪 金嶷 등이 옛 무덤을 수축하고 큰 비를 세웠다. 12년 丁酉(817년) 8월 5일, 즉 제41대 현덕대왕 9년이었다. 흥륜사의 永秀禪師-이때는 瑜伽의 諸德을 모두 선사라고 불렀다-가 이 무덤에 예불하는 香徒를 모아서 매달 5일에 魂의 妙願을 위해 단을 모으고 범폐를 지었다. 또 향전에 이르기를, “鄉老들이 항상 그의 돌아간 날이 되면 社를 만들어 흥륜사에서 모였다”고 하였는데, 즉 이 달 초닷새는 사인이 몸을 바쳐 불법에 귀순하던 날이다. 아아! 이러한 임금이 없었으면 이러한 신하가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신하가 없으면 이러한 공덕이 없었을 것이니, 유비와 제갈량이 물과 고기 같았던 것과 같고 구름과 용이 서로 감응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겠다.⁵¹⁾

50) 『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厭觸滅身, “真興大王卽位五年甲子, 造大興輪寺 大清之初梁使沈湖將舍利, 天壽六年陳使劉思并僧明觀奉內經并次寺寺星張塔塔鴈行. 壓法幢懸梵鏡 龍象釋徒爲寶中之福田, 大小乘法爲京國之慈雲. 他方菩薩出現於世 謂芬皇之陳那, 浮石寶蓋, 以至洛山五臺等是也, 西域名僧降臨於境, 由是併三韓而爲邦, 掩四海而爲家. 故書德名於天鏡之樹, 影神迹於星河之水, 豈非三聖威之所致也”.

51) 『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厭觸滅身, “降有國統惠隆·法主孝圓·金相郎·大統鹿風·大書省真怒·波珍浪金嶷等建舊塋樹豐碑. 元和十二年丁酉八月五日, 卽第四十一憲德大王九年也. 興輪寺永秀禪師 于時瑜伽諸德皆稱禪師結湊斯塚禮佛之香徒, 每月五日爲魂之妙願營壇作梵. 又鄉傳云, ‘鄉老每當忌旦, 設社會於興輪寺.’ 則今月初五乃舍人捐軀順法之晨也. 嗚呼, 無是君無是臣, 無是臣無是切, 可謂劉葛魚水, 雲龍感會之美歟.”

즉 불교공인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이차돈의 넋을 달래기 위해 무덤을 수축하고 커다란 비를 세워 그를 기렸다. 또한 홍륜사에 유가계 승려들을 보아 예불하고 魂을 달래기 위한 범파와 더불어 의식작법을 실행하였다. 그의 기일마다 홍륜사에 모인 향로들 역시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일련의 의식작법을 하였을 것이란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변재천녀는 베다 시대 강의 여신인 사라스바티(Sarasvatī)가 불교내로 변용된 것으로 ‘辯才天, 辨才天, 辨財天, 美音天, 妙音天, 妙音菩薩’ 등의 이름으로 『법화경』과 『금강명경』 혹은 『금강명최승왕경』 등의 불교경전에 등장한다. 도상적으로는 二臂, 八臂로 형상화되는데, 보통 二臂像은 琵琶를 연주하는 상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⁵²⁾ 바로 이 점에서 주악천인상이라 통칭되었던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상과 변재천녀와의 상관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사고의 명료화를 위해 단선적 명제로 이어나간다.

- step 1. 힌두교의 강의 여신인 ‘사라스바티’는 ‘변재천녀’로 불교에 수용되었다.
- step 2. 변재천녀는 언어, 학문, 예술, 음악의 주재신격으로 변화하였다.
- step 3. 二臂像으로 나타날 때는 琵琶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 step 4. 비파는 여러 악기중 하나이다.

여기까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 이제 ‘문화는 전파되면서 해당 지역에 맞게 변용·풍토화(transformation)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명제를 이어가 보도록 한다.

- step 5. 음악에는 여러 가지 악기가 존재한다.
- step 6. 비파를 지물로 삼고 있기에 음악의 주재신인 것이 아니라, 음악의 주재신임을 상정하기 위해 악기 중 하나인 비파를 지물로서 형상화 하였다.
- step 7. 문화가 타 지역으로 전파되어 감에 따라 문화요소의 발상지와 동일하게 비파를 지물로 가질 수도 혹은 지역성에 따라 다른 악기로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문화의 변용)
- step 8. 신라의 범종에는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형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이른바 주악천인상이 범종에서 확인된다.

52) 關根俊一, 『仏尊の事典』, 東京: 學研, 1997, 160-160쪽; 賴富本宏·下泉全曉, 『密教仏象図典』, 京都: 人文書院, 1994, 244-245쪽.

‘변재천녀’의 존재는 물론 경전에 근거한 존격명이다. 그런데 경전에서만 다루어지는 관념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문헌사료인 『삼국유사』 기록에서도 ‘변재천녀’의 존격명이 발견된다. 이는 그에 대한 신앙형태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대상은 관념적인 형태로서가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언어와 학문과 예술과 음악을 담당하는 변재천녀, 그리고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변재천녀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형상을 통일신라시대 범종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음과 율이 도구를 통해 만들어지면 악기를 통한 음악이 되고, 소리가 인간의 성대를 통하여 말소리를 이루면 이는 진언이 되고 염불공양이 된다. 변재천녀의 ‘언어-소리-음악’은 다시 의식법구의 하나인 범종의 표면에 陽鑄되어 음악을 연주하는 상으로, ‘樂供養’으로 불법에 귀의하려는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은 아닐까.

『삼국유사』의 피은편의 朗智乘雲普賢樹와 緣會逃名文殊峯에는 모두 문수와 변재천녀, 그리고 『법화경』이 주요경전으로 등장한다. 『법화경』⁵³⁾은 석가모니불이 기사굴산에서 1만2천 비구와 8만의 보살마하살, 사천왕·大辯天神·공덕천등에게 법문을 설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법화경』의 제 2품인 방편품에는 성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풍악을 잡게 하여 북 치고 소라 불고
통소·저·거문고·공후·비파·징·동발 등
여러 가지 미묘한 음으로 남김없이 공양하며

53) 기원 전후에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일어난 후, 『반야경(般若經)』·『유마경(維摩經)』·『화엄경(華嚴經)』 등의 정토계통(淨土系統)의 경전들과 함께 초기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으로 손꼽히는 『법화경』은 경전에 나타나는 주요인물의 직업과 사회적 배경 등을 근거로 대략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정도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전해진 『법화경』의 산스크리트어인 ‘Saddharma-puarka-sram’(薩達磨芬陀利迦經)을 직역하면 ‘무엇보다도 바른 백련(白蓮)과 같은 가르침’이다. 이것을 西晉의竺法護는 286년에 『정법화경(正法華經)』이라고 한역하였고, 姚秦의 鳩摩羅什은 406년에 『妙法蓮華經』이라고 한역하여 오늘날 흔히 『법화경』이라 칭하는 것은 鳩摩羅什의 『묘법연화경』을 의미한다(『묘법연화경』 해제: 한글대장경, 『묘법연화경』 K.116(9-725) 참고).

환희에 넘친 마음으로 부처 공덕 노래한 이
한마디 찬탄한 이도 모두 성불하였노라⁵⁴⁾

즉 성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음악으로 불법에 공양하다는 기록이다. 또한 제 24품인 妙音菩薩品⁵⁵⁾에는 다보여래와 문수보살의 대화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이때 다보여래가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여라, 착하여라. 그대는 석가모니불께 공경하고 법화경을 듣고 문수사리를 보기 위하여 여기 왔구나” 그 때 華德보살이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이 무슨 善根을 심고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신통력이 있나이까?” 부처님이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이름이 雲雷音王이고 국토의 이름은 現一切世間이며 劫의 이름은 喜見이었느니라. 묘음보살은 1만 2천 년 동안을 10만 가지 풍류로 윤리 음왕불께 공양하고 8만 4천 칠보의 바리때를 바쳤느니라. 그 인연과 과보로 지금 정화수왕지불의 국토에 나서 이런 신통력이 있느리라.”⁵⁶⁾

성불을 위한 공덕행의 방편으로 樂供養을 하고, 『법화경』을 듣고 문수를 친견한다는 내용은 『삼국유사』의 낭지승운보현수와 연회도명문수점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즉 이들 경전과 문헌에 등장하는 변재천녀(묘음)는 樂을 주재하는 존재로 불법에 공양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바로 이들이 통일신라시대 범종에 등장하게 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불교의식구로서의 범종의 기능과 ‘樂供養’을 통해 성불할 수 있다는 『법화경』의 내용을 근거로 악기를 연주하는 변재천녀상이 범종에 陽鑄되었을 가능성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곧 경전에 근거한 변재천녀와 현실 의식법구에 표현된 주 악천인상과의 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⁵⁷⁾

54) 『법화경』 제2 방편품, 혼신문화사, 2015, 61쪽; http://abc.dongguk.edu/ebti/c2/sub2_pop.jsp. 『묘법연화경』 K.116(9-725), 한글대장경, 동국역경원(사람 시켜 풍악 울리고/ 북도 치고 소라 불며/통소·거문고·공후·비파·요령·바라들/ 이와 같은 묘한 음악/정성으로 공양하며/ 환희한 마음으로/ 노래 불러 찬탄하되/ 한마디만 하더라도 /다 이미 성불했고).

55) 妙音天, 辨財天과 같이 사라스바티의 한역명 중 하나이다(中村 元, 福永光司, 田村芳朗, 今野達編, 앞의 책, 東京, 岩波書店, 1989, 715쪽).

56) 『법화경』 제24. 묘음보살품, 혼신문화사, 2015, 391쪽; 『묘법연화경』 K.116(9-725), 한글대장경, 동국역경원.

IV. 결론

본고는 『삼국유사』 「피은편」에 수록된 ‘낭지승운보현수’와 ‘연회도명문수점’ 기록에 『법화경』과 보현·문수 그리고 변재천녀가 등장한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하였다. 불교관련문헌에서 단연 독보적 위치를 지니고 있는 『삼국유사』의 일차사료로서의 가치는 부언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삼국유사』에 단 두 편이기는 하나 ‘변재천녀’라는, 자칫 호국성중 혹은 천부의 여러 존격 중에 하나로 치부될 수 있는 존명이 정확히 거명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변재천녀에 대한 당시의 신앙형태가 존재하였는지,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 형상화되었는지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힌두의 사라스바티에서부터 출발하는 변재천녀의 모습을 추적해보았다. 강의 여신 사라스바티에서 출발하는 변재천녀는 언어와 음악, 학문과 예술을 주관하는 존격으로, 二臂像은 통상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형태로 표현되었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그리고 삼국으로 이어지는 불교의 동진길을 따라 『법화경』, 『금광명경』 그리고 『금광명최승왕경』에 근거를 둔 변재천녀 신앙이 전래되었다. 그 결과, 『삼국유사』에 『법화경』 신앙과 관련하여 ‘낭지승운보현수’와 ‘연회도명문수점’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문헌사료로 남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변재천녀신앙이 현실 속에 존재했음을 반증하는 증거일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의 신앙형태를 찾기 위하여 문헌자료가 제시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자료 속에서 변재천녀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망실된 범종과 일본에 있는 범종 까지를 포함한 통일신라시대 범종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종에는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주악천인상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런데 기존에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범종사 연구에 있어서 주악천인상은

5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종뿐만 아니라 석굴사원의 벽화나 고구려고분벽화, 석탑의 기단부나 부도 등에 나타나는 ‘주악천인상’의 경우 변재천녀와의 관계를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다만 본고는 변재천녀 연구의 시론이라는 측면에서 문헌사료가 존재하고, 문헌사료와 동시대에서 확인되는 유물사료와의 연계를 통하여 변재천녀와 주악천인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는 것에 제한하여 논지를 전개해 왔다. 풀어내지 못한 부분은 추후의 과제로 삼겠다.

문양적, 장식적 요소로만 해석되어 왔다.

변재천녀는 언어와 학문, 예술과 음악을 담당한다. 음악이란 기본적으로 ‘소리’에서 출발한다. 도구를 가지고 음과율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음악이 된다. 사람이 성대로 소리를 만들어 내면 그것은 말소리가 되고 진언이 되며 염불이 된다. 또한 음악을 주재하는 ‘변재천녀(묘음보살)’은 『법화경』에서 소리공양, 樂供養을 통해 선업을 쌓은 존재로 그려진다. 바로 이점에서 ‘주악천인상’과 ‘변재천녀’의 연관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주악천인상은 문헌사료에 나타나는 변재천녀신앙이 현실세계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악천인상 조성의 사상적 연원을 『법화경』·『금광명경』·『금광명최승왕경』 등에 근거를 둔 변재천녀(묘음보살)와의 연관관계에서 찾는다면, 지금까지 단순히 장식적·문양적 측면에서만 해석되어오던 이를 ‘주악천인상’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바로 본고의 출발점이었던 『삼국유사』 기록의 변재천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 신앙세계에 나타났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함과 동시에 그동안 미학적으로밖에 해석되지 못했던 주악천인상의 사상적 연원, 조성의 근본적 이유를 해명하기 위한 연구의始發點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전에 바탕을 둔 변재천녀신앙이 의식법 구인 범종에 주악천인상으로 陽鑄되어, ‘樂供養을 통해 불법에 귀의한다’라는 의미로 시각화·형상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三國遺事』, 『金光明經』, 『金光明最勝王經』, 『妙法蓮華經』

http://abc.dongguk.edu/ebti/c2/sub2_pop.jsp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2. 연구논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범종』,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김성혜, 「원주 일산동 불상 주악상의 음악사적 조명」, 『음악과 민족』 48, 민족음악학회, 2014.

김영태, 「삼국시대의 신주신앙」, 『한국밀교사상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6.

곽동해, 「한·중·일의 조형양식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남동신, 「『삼국유사』의 史書로서의 특성」, 『불교학연구』 16, 불교학연구회, 2007.

문화재청, 『문화재대관 국보 금속공예』, 문화재청, 2008.

박경식, 「한국 불탑 부조상의 기원 고찰」, 『동양학』 6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7.

박용호, 「인도 초기 불탑에 나타난 불교악기에 대한 연구」, 『한국음악연구』 25, 1997.

법현, 『한국의 불교음악』, 운주사, 2005

양은용, 「변재천녀(辯才天女)신앙의 불교적 변용」,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7, 원불교사상연구원, 2007.

엄기표, 「佛教 考古學과 美術史에서 『三國遺事』의 활용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79, 2015.

李美也, 「범종에 나타난 천인상」, 『고고역사학지』 8, 동아대학교, 1992.

이민수 역해, 『법화경』 제2 방편품, 홍신문화사, 2015.

이진원, 『한국고대음악사의 재조명』, 민속원, 2007

이호관, 『범종』, 대원사, 1989.

자현스님, 『사찰의 상징체계』, 불광출판사, 2012.

장사훈, 「新羅時代 佛教遺蹟에 나타난 樂器」, 『신라문화재학술발表논문집』 11, 동국대신라문화연구소, 1990.

- 조승미, 「『금광명경』의 여신들과 한국불교에서의 그 신앙문화」, 『불교학연구』 39, 불교학연구회, 2014.
- _____, 「동아시아 불교 여신의 민간신앙화」, 『한국불교학』 82, (사)한국불교학회, 2017.
- 진홍섭, 「石製奏樂像」, 『미술사학연구』 4(3), 한국미술사학회, 1963.
- _____, 「佛教工藝의 性格」, 『한국불교미술대전』 4, 한국색채문화사, 1994..
- 최선일, 「통일신라시대 범종에 표현된 천인상연구」, 『신라사학보』 15, 신라사학회, 2009.
- 崔應天, 「한국의 불교의식법구」, 『한국불교미술대전』 4, 한국색채문화사, 1994.
- _____, 「한국 범종 연구의 성과와 과제: 기원과 전형 양식으로의 완성, 전성과 쇠퇴의 1세기」, 『불교미술』 22, 동국대학교 박물관, 2011.
- _____, 「황수영 박사의 한국 범종 연구와 성과」, 『강좌미술사』 43, 2014.
- 최웅천·이귀영·박경은, 『금속공예』,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 황미연, 「통일신라시대 주악상에 관한 고찰」, 『낭만음악』, 낭만음악사, 1996.
- 황수영, 「新羅梵鍾의 新例-智異山實相寺出土」, 『역사학보』 34, 1967.
- 坪井良平, 『朝鮮鐘』, 角川書店, 1974.
- 關根俊一, 『仏尊の事典』, 學研, 1997.
- 中村元·福永光司·田村芳朗·今野達 編, 『仏教辭典』, 岩波書店, 1989.
- 賴富本宏·下泉全曉, 『密敎仏象図典』, 人文書院, 1994.

Abstract

A Study to Search for the Correlation between Byeonjaecheonye in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with Juackcheninsang, Heavenly Figures on the Buddhist bells of the United Silla

Kang, Hyun-Jung*

This research is focused on searching for the correlation between Byeonjaecheonye(辨才天女) to Juackcheninsang, Heavenly Figures(奏樂天人像) on the Buddhist bells of the United Silla. Byeonjaecheonye originated from Sarasvatī, a river goddess in Hinduism. Sarasvatī, which is Sanskrit, appears with Heavenly Lute and was translated into Byeonjaecheon(辨才天·辨財天), Mieumcheon(美音天), Myoemcheon(妙音天), Myoem Bodhisattva(妙音菩薩) in the Chinese Buddhist Scriptures.

When Buddhism was introduced during the Three Kingdom era in Ancient Korea, Byeonjaecheonye was also introduced and there were two articles that referenced it in the Samkukyusa(『三國遺事』),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The existence of these references may imply that there was belief in Byeonjaecheonye during this tim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Juackcheninsang, Heavenly Figures(奏樂天人像) found on the Buddhist bells of the United Silla. In Buddhist art iconology, the Heavenly figures are usually depicted as subordinated figures for depicting the main figures Buddha and Bodhisattva, and are described as

* Ph.D. Candidate of Department of History, Jeju National Univ.

musicians; However, Juackcheninsang, the Heavenly figures can be rooted from Byeonjaecheonye belief based on Buddhist scriptures. This article mainl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the correlation between Byeonjaecheonye and Silla’s Juackcheninsang, Heavenly Figures.

Key words: Byeonjaecheonye, Sarasvati Myoeum Bodhisattva, Juackcheoninsang,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교신: 강현정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E-mail: hjkang125@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8. 01. 07

심사완료일: 2018. 01. 26

게재확정일: 2018. 01. 31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과 실태

김나영*

- I. 머리말
- II.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
 - 1. 자연지리적 배경
 - 2. 사회경제적 배경
- III. 제주인의 표류 발생 실태
 - 1. 시기별 발생 현황
 - 2. 표착 국가별 발생 현황
- IV. 맷음말

국문요약

본 논문은 조선시대 濟州島라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濟州人들이 해상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예기치 않게 발생하였던 海難事故 중 ‘漂流’라는 일련의 사건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료 속에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는 제주도 표류 관련 사례들을 우선 정리, 연표로 작성함으로써 보다 通時的이고 共時的인 안목을 기반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漂流史의 전체상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표류 제주인들의 항해 전말을 담은 問情기록을 통해 제주인들의 표류 발생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봄은 물론, 그 실태를 계량화하여 파악해 보았다. 본고에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조선시대 제주해역을 둘러싼 표류가 어떠한 배경과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학예연구사.

는가를 우선 살펴본 결과, 제주도는 邇在海外·四海孤島의 火山島이자 強風多風의 섬, 육지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進上品과 貢物의 생산지라는 자연지리적 입지조건과 더불어 그에 수반되는 護送 등 조선조의 정치·사회·경제적인 복합적 제반 상황에 기인하여 제주인들은 자의적·타의적으로 바다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표류라는 일종의 우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해난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컸다. 전근대 제주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諸國들의 해상교류에 있어 어느 정도의 해양환경을 이용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일정한 항로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礪’라는 제주바다 주변의 독특한 해저지형과 제주도를 둘러싼 바람(계절풍)·태풍·해류·조류 등이 기존 해상활동의 고정적 틀을 파괴시키는 變數로 작동하여 제주도 해역을 오고 가는 선박들의 표류를 유발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배경 속에 발생되었던 조선시대 제주인들의 표류 실태를 각종 사료를 통해 ‘出海-漂流-漂着-送還’이라는 표류 顛末을 역추적하여 그 발생 규모와 빈도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한 결과, 제주인들은 365건·4,427명[사망자 760명]이 해난사고와 직면하였고, 이들 중 82.8%에 해당하는 3,667명은 해난사고로 말미암아 일본·유구·중국·대만·안남 등지로 표류해 그곳 국가들로부터 구조·송환되어 본국으로 살아 돌아왔음이 확인되었다. 단편적으로 잔존해 있는 역사적 기록 자체에 의거한 통계이지만, 80%를 웃도는 높은 생존율을 본다면 전근대 시기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상호 호의에 입각한 표류인 송환체제가 작동되어지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요컨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그동안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제주도의 漂流史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향후 본고에서 파악한 제주인의 표류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표류 제주인의 존재적 의미를 해명함은 물론, 당시 제주인들의 해상활동 양상과 함께 제주사회의 경제구조 실태를 재조명해 나가고자 한다.

주제어 : 濟州島, 漂流, 火山島, 強風多風의 島, 進上品과 貢物의 生產地.

I. 머리말

‘漂流’란 항해 도중 뜻하지 않은 일기불순(바람 또는 태풍 등)과 해류에 떠밀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목적지 또는 자신이 속한 문화 영역 밖으로 이탈된 海難事故를 의미한다. 이러한 표류의 위험 속에서 목숨을 잊거나 혹은 실종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해 異國에 표착했다 하더라도 천리만리 먼 이국으로부터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또 한 차례 겪어내야만 했다.

이러한 제주인들의 표류 발생 양상은 1392년 조선왕조가 개국되어 중앙 집권적 지배체제가 점차 확립됨에 따라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어 조선 시대 표류인의 발생 빈도는 지역적으로 전주어 보았을 때, 단일지역으로 제주도가 타지역보다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한다. 특히 표류인 발생 가운데 제주인이 異國으로의 표류시 출신지를 전라도 해남, 영암, 강진, 나주 등 타 지역으로의 换名[譚稱]한 사례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킨다면,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 등의 학계에서는 조선시대 동아시아 해역세계 가운데 ‘濟州島’에 대한 해양사적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 내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漂流史의 전체상을 정리·파악해 내지 못한 채 각각의 단일 표류 사례들에 기인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동아시아에서의 제주도가 차지하는 위상을 구명하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여러 사료 속에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는 제주인들의 표류 관련 사례들을 우선 정리, 연표로 작성함으로써 通時의이고 共時의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 Ⅱ장에서는 우선 조선시대 제주도를 둘러싼 표류라는 일련의 해난사고가 어떠한 배경적 요소들에 의해 발생되어지고 있는가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즉, 제주도가 지닌 공간적 특수성 및 이로 인해 빚어진 각종 자연 환경적 요소들을 비롯, 조선조 당시 제주도가 처해 있던 정치·사회·경제 전반의 복합적 상황 등을 검토하여 제주해역에서 표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인과적 動因 및 해당 요소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Ⅲ장에서는 해상활동을 전개해 나가던 중 불의의 해난사고와 마주하여 異國으로 표류해 간 제주인들의 발생 빈도와 규모를 각 국가별로 시계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인들이 이국으로의 표류시 이르렀던 표착지의 분포 양상 및 발생 시기를 국가별로 살펴봄으로써 제주해역과 표착지역 간 존재하는 해양·지리학적 연결고리들과 어떠한 연계성과 경향성을 지니는지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조선시대 제주도를 둘러싸고 발생되었던 표류 실태를 근간으로 동아시아 간의 바다를 매개로 한 방사성적인 대외접촉 관계망 속에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상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Ⅱ.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

1. 자연지리적 배경

1) 四海孤島·火山島, 제주도

해당 지역을 둘러싼 제반의 자연지리적 구성요소인 지형·기후·풍토 등을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더 나아가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되는 역사적 사건의 動因과 그 기본 요소를 구성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육지와 隔絕·孤立된 島嶼라는 지리적 공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주인들에게 있어 바다는 자연적으로 곧 삶의 일부이자, 삶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제주도는 화산활동의 결과로 생성된 火山島로서 토양 대부분이 척박한 화산 회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표는 거의가 현무암 및 조면암질 용암들로 드넓게 분포하여 深耕과 김매기가 매우 열악하였다. 다시 말해 제주도의 자연지리적 환경이 빚어낸 四面大海風災와 山高深谷水災 및 石多薄土旱災 등 소위 三災로 말미암아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시키기가 매우 힘들었다. 때문에 제주인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아가 고기잡이 및 미역 채취를 하거나, 특산물 등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쌀·베·소금 등과 交易하며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했다. 이와 더불어 조선정부에서 요구하는 약재, 감귤,

말, 해산물 등의 각종 진상품을 호송해야 하는 등 자의적·타의적으로 바다로 향해야만 하였다. 이처럼 四海孤島이자 火山島라는 제주도가 처한 독특한 지리적 입지조건에 기인하여 제주인들은 취약한 토지 생산을 보충하기 위해 해상교역에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제주인들은 표류라는 일종의 해난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또한 제주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으로서 대부분은 현무암이 노출된 암석해안(총 길이 229.7km로, 제주도 전체 해안의 75% 차지)이지만, 장소에 따라 그 형태와 성질을 달리하는 각종 해안이 출현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단조로운 해안을 보이면서도 부분적으로는 각 해안마다 독특한 지형이 발달함을 엿볼 수 있다.¹⁾

이형상의 『남한박물』에서 제주도의 바다에 대해 ‘산은 험하고 바다는 모질다(山險海惡)’라고 표현하였듯이, 제주도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뿐어져 나온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 속 低質은 해안선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돌과 암반으로 이루어져 일명 ‘걸바다[걸바당]’이라 일컬어진다. 이러한 제주도의 걸바당은 바다를 오가는데 크나큰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었음이 아래의 문헌 A - 1~4) 등에 잘 묘사되어 있다.

A - 1) 바닷가의 수심 얕은 곳에는 칼날처럼 뾰족한 바위가 온 섬에 둘러서 있다.

그 때문에 익숙하게 오고가며 배를 잘 부렸던 자가 아니면 파선하기 십상이다.²⁾

A - 2) 전후로 왜구가 침입하였으나 이 고을에서 한 번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은 온 섬을 둘러싼 石壁이 바다 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늘이 만든 천연의 요새여서 왜적들의 배가 정박할 수 없다.³⁾

A - 3) 이 섬은 사면에 돌부리가 창칼 같이 높이 솟아 있어서 배가 작더라도 잘못 하여 닿아 부서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⁴⁾

1) 김태호, 「제주도의 해안지형」, 『탐라문화』 1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381쪽.

2) 林悌, 『南溟小乘』, 11월 27일.

3) 金尙憲, 『南槎錄』 권3, 10월 16일 경진조.

4) 李益泰, 『知瀛錄』, 3월 초8일.

A - 4) 요리를 맡은 이들 가운데 鮑漢[鮑作人]이 있었는데, 손을 들어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것이 바다의 칼돌들인데 옹기종기 가까운 바다와 갯가에 꽂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섬에 배를 댈 항구가 없습니다. 石脉들이 서로 이어지고 얼크러져서 대소화탈로부터 추자도와 백도에까지 이르며 그리하여 육지 고을들에 도달하게 됩니다. 회화나무 뿌리, 열아름 더 넘는 것들이 여태 바다의 바닥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⁵⁾

즉, 제주 바다로부터 나가거나 또는 귀항하는 가운데 예측 불가능한 제주도의 해안선 혹은 바다 밑 환경으로 말미암아 좌초되거나 난파되는 등 해당 위험요소에 대해 항상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주도 바다 환경의 위험은 제주를 오가는 조선 내 往來船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해안형편을 잘 알지 못하는 제주도를 지나는 異國船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제주도 바다 곳곳에 숨겨진 여러 장애물들로 인해 부지불식간 일어나게 되는 해난사고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부여하기에 충분하였다.

한편 이 같은 제주도의 암석해안은 파도의 세기 또한 강하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1770년 유구로 표류해 갔던 장한철이 쓴 『표해록』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다.

부산 동래로부터 일본까지의 거리와 전남 해남으로부터 탐라까지의 거리는 그 사이가 비록 수천 리의 큰 바다로 떨어져 있지만, 바다 바닥에 천만 봉우리와 골짜기들이 절로 조선의 빽빽한 산천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바다 위의 풍파가 아주 위험한 것은 그 물 흐름이 해저의 산과 골짜기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중략)... 바람이 자고 물결이 조용한 때라도 바다 형세는 필시 넘실거리며 휘돌아 급히 흘러 여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모두 위험하게 여겼으니, 이것이 해저에 있는 봉우리와 골짜기들이 파도를 격렬하게 만드는 증거입니다.⁶⁾

이처럼 제주도의 火山島라는 지형적 특성은 걸바당을 조성하였고, 바다 속 곳곳에 숨어 있는 磯[암초]들로 인해 해난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부차적으로 제주해역 주변의 물살 및 파도 세기마저 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漂流·漂到의 주원인이 되었다.

5) 李衡祥, 『南宦博物』 誌地條.

6) 張漢喆, 『漂海錄』(1770년), 12월 30일조.

2) 제주도를 둘러싼 바람과 태풍

표류를 발생시키는 주요 因子로써 바람과 태풍⁷⁾을 들 수 있다. 제주도는 風勢가 큰 強風多風의 섬으로서, 제주도에서의 바람은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생활 영위와 생존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동시에 극복해야 할 장해요소였다. 바람이 많이 부는 섬인 관계로 주변 해안의 波浪 또한 매우 강하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해안에 펼쳐져 있는 암초나 사초 등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한편 김상현의 『남사록』과 이건의 『제주풍토기』, 이형상의 『남한박물』에는 출항시 필요한 風向 및 해당 바람에 의거한 육지의 표착지점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바람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어느 곳으로 표류할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예측·감지하고 있었음을 아래의 B-1~4)을 통해 알 수 있다.

7) ①바람이란, 두 지점 간의 기압 차이에 의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을 말한다. 즉,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생기게 된다. 기압차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로 해안에서는 바다와 육지가 햇빛을 받을 때 따뜻해지는 정도의 차이, 일종의 受熱量의 차이 때문에 바람이 생긴다. 바람은 크게 연중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탁월풍과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과 성질이 바뀌는 계절풍, 특정 지역에만 부는 국지풍으로 구분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참조).

②계절풍이란, 대륙과 해양의 比熱 차에 의해 계절마다 풍향이 바뀌며 부는 바람으로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인도반도,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나타난다. 겨울에는 바다보다 대륙이 더 냉각되어 고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대륙에서 바다로, 여름에는 반대로 대륙이 더 가열되어 저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바다에서 대륙으로 바람이 분다. 대체로 우리나라 각 지점의 풍향을 보면 겨울(12~2월)에는 북서풍계의 비율이, 여름(6~8월)에는 남풍계의 비율이 높다. 겨울 계절풍은 기압경도가 크기 때문에 풍속이 강하고, 여름 계절풍은 겨울 계절풍에 비해 기압경도가 작아서 풍속이 약하다. 그리고 바람의 물리적 성질도 겨울 계절풍은 차고 건조한데 비해 여름 계절풍은 무덥고 습기가 많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참조).

③태풍이란, 적도 부근이 극지방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생기는 열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7~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국가태풍센터 <http://typ.kma.go.kr/> 참조).

B - 1) 본도[제주도]는 바로 남해 가운데 있어서 왕래하는 배가 북풍을 만나면 들 어오고, 동풍을 만나면 나간다.⁸⁾

B - 2) 이 섬[제주도]에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서북풍이 필요하고, 나오는데는 반드시 동남풍을 이용하게 된다. 만일 순풍을 얻을 수 있다면 一片孤帆이라도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도달할 수 있으나, 순풍이 아니면 아무리 빠르고 억센 매나 송골매의 날개가 있다 하더라도 건널 수가 없다. 그리고 파도는 동남풍에는 낮고, 서북풍에는 매우 높아진다.⁹⁾

B - 3) 대개 섬에서 육지로 나가는 사람은 정남풍을 만나면 조천관 혹은 화북포에 서 나서서 화탈(도)와 사서(도) 사이를 지나 보길(도)의 고래머리를 거쳐 넓 거요섬 앞길을 지나고 침머리와 어란에 닿으면 영암이다. 또 이진과 가리포에 닿으면 강진이다. 또한 관머릿도와 완도를 지나면 해남이다. 혹 바람에 비껴 떠내려가기도 한다. …(중략)… 불행하게 그 동쪽 혹은 그 남쪽을 지나면 屋久島와 一(壹)岐島이니, 그곳에 표도하게 되는 것이다.¹⁰⁾

B - 4) 所安島 …(중략)… 제주로 들어가는 자는 해남, 강진, 영암에서 출발하면 모두 이 섬에서 바람을 기다렸다가 대양을 건넌다. 이 섬에서 제주로 향하는데, 동서북풍을 만나면 좋고, 동풍을 만나도 가능하다. 만약 정남·정서풍을 만나면 배를 띄울 수 없다. 제주에서 이 섬으로 향하는데, 동남풍이면 기뻐하고, 동풍이 조금 불고 서풍이 불면 더욱 기쁘다. 만일 정남풍이면 파도가 심하여 배 띄우기를 꺼려하며, (정)서풍이면 배를 띄울 수 없다.¹¹⁾

다시 말해 제주도에서 한반도로 출항할 때는 동풍과 동남풍을 이용했고, 한반도에서 제주도로 출항할 때는 북풍과 서북풍을 이용하였으며, 순풍을 만나면 제주도-남해안 간은 하루면 도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세기 제주인의 표류와 외국 선박의 표도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 『제주계록』 내 98건의 제주인 표류 사건 가운데 漂還人들을 대상으로 한 間情記를 살펴보면, 50건에 이르는 사례에서 그들이 표류 당시 맞닥뜨

8) 金尙憲, 『南槎錄』 권2, 10월 12일 병진조.

9) 李健, 『濟州風土記』.

10) 李衡祥, 『南宦博物』 誌路程條.

11) 金正浩, 『大東地志』, 濟州海路條.

렸던 바람유형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¹²⁾ 표류 요인은 대부분 항해 중 갑작스런 大風과 颱風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풍·동남풍·동북풍·서북풍일 때는 중국으로, 서남풍·서북풍일 때는 일본으로 닿았고, 서북풍·동북풍일 때는 유구로 표류해 갔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B - 3)의 『남환박물』 내용을 보면, 육지로 향하기 위해 제주도를 출항한 배가 만약 바람에 비껴 동쪽 혹은 남쪽으로 향해 치우칠 경우 일본 야쿠시마[屋久島: 九州 鹿兒島縣 남부에 위치] 및 이키시마[壹岐島: 九州 長崎縣에 속해 있는 섬]에 표류해 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는 대륙보다 상대적으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해양성 기후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겨울철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시베리아기단에 의해 차갑고 건조한 북서계절풍이, 여름에는 북태평양기단에 의해 따뜻하고 습한 남동계절풍이 불어온다. 특히 여름에 비해 겨울이 대륙과 해양의 기압차가 크기 때문에 12월과 2월 사이에 가장 바람이 많이 분다. 이와 같이 계절 또는 월별에 따라 방향과 풍속을 달리하는 동아시아 계절풍은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일본·유구인들의 생활 및 선박 항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바람의 풍향과 풍속은 시시각각 변화무쌍했으며, 여름철에는 예기치 않게 태풍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 저위도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여 중위도로 이동하는 열대성 저기압은 제주도 연근해에 이르러 가장 강력한 바람으로 변화하여 해상활동 및 선박의 이동에 극심한 피해를 야기했다.¹³⁾ 또한 제주도는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부터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거쳐 가는 길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표류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12) [표] 『제주계록』에 나타난 표류 제주인의 표류시 바람유형[필자 작성]

국가	바람유형	동남풍	동북풍	동풍	서북풍	서남풍	미기재	합계(건)
일본	0	0	0	12	8	6	26	
유구	0	2	0	1	0	2	5	
중국	5	5	1	5	0	3	19	
합계(건)	5	7	1	18	8	11	50	

13) 김오진,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후와 그에 대한 주민의 대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96~97쪽.

『제주계록』에서 표류 제주인의 월별 추이¹⁴⁾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달은 8월로써, 총 98건의 표류 사건 중 16건(16.3%)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2월 14건(14.3%), 3월 12건(12.2%)의 표류가 발생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앞서 주지하였다시피, 8월에 제주도를 통과하는 태풍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음과 동시에 연중 바람이 강하게 부는 제주도는 특히, 12월~2월 사이의 겨울철에 한파를 동반한 북서계절풍의 강풍이 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봄이 시작되는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해지던 시베리아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강화되면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영등바람’이라 일컬어지는 돌풍이 여름철의 태풍보다 더 거칠고, 변덕스럽게 몰아쳐 많은 재난을 가져오기도 했다.¹⁵⁾

이러한 天候 현상을 오랫동안 경험한 제주인들은 이 시기 배를 띄우지 않았으나, 진상 등의 公務로 불가피하게 배를 출항시켰을 경우 파선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제주도를 경유하던 異國船들이 제주도 인근에서 해난사고를 맞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제주도 주변에 흐르는 海流와 潮流

그 밖에 해난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지리적 주요 요인으로 제주도 주변 해역에 복잡하게 흐르는 해류와 조류를 들 수 있다. 해류란 연중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유동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말하며, 조류란 조석과 수반되어 일어나는 바닷물의 주기적인 흐름을 일컫는다. 이러한 제주도 주변에 흐르는 해류 및 조류의 특성에 대해 『남사록』과 『남한박물』에는 C - 1~2)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또한 C - 3) 『해외문견록』 속 琉球로 표류하였다 생활된 김여휘의 표류담에는 표류 도중 맞닥뜨린 ‘黑海’ 이른바, 쿠로시오 해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4) [표] 『제주계록』에 나타난 표류 제주인의 월별 추이[필자 작성]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기재
표류건수 (98건)	10건	7건	12건	5건	1건	2건	5건	16건	11건	6건	6건	14건	3건

15) 송성대,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과 지역정신」, 『탐라문화』 1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261쪽.

C - 1) 표류기에 의하면 “지나다닌 창파가 비록 한 바다 같지마는 水性 水色이 곳을 따라 다름이 있다. 제주의 바다는 빛이 매우 푸르고 성질은 暴急하여 비록 바람이 적어도 물결 위에 물결이 넘쳐흘러 서로 부딪치고 빙빙 돌며 번득거리고 출렁댐이 이보다 더함이 없다. 다른 바다는 풍력이 비록 세더라도 물결은 매우 높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⁶⁾

C - 2) 바다의 형세가 남쪽은 낮고 북쪽은 높아서 들기가 순하고 나기가 어렵다. …(중략)… 동해는 비록 조수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곳[제주도]은 날마다 대략 두 번을 들고 나고 한다. 다만 신속함은 서해에 미치지 못하고, 물이 불기가 수장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건대 모든 물이 돌아나가는 처지가 동남쪽이 부족한 까닭에, 昇降하는 압력이 육지와 달라서 출입하는데 사납지 않은가 한다. 조수가 馬島 위와 아래로부터 나와 청산도와 추자도 앞뒤를 경유하여 전라도와 충청도 지경으로 들어간다. 화탈섬과 안과 밖을 경유하여 들어가는 것은 山東省의 青州와 齊州 지경으로 흘러간다. 이곳은 대개 양쪽 조수가 서로 마주치는 곳이므로, 물결이 매우 거칠고 높은 물결이 일어 보통과 다르다. 異國船이 표도하면 모두 엎어져 침몰한다. 만약 충분히 순풍을 여러 날 얻지 못하면 이 바다를 떠날 수 없어서 왔다갔다 소용돌이 사이를 빙글빙글 돌게 된다. 예전에 웨선이 중국으로 향할 때 바람을 잊거나 길을 잊은 것이 아니고는 절대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다. 혹 바람을 따라 도래하였다면 번번이 모두 기울어져 패하게 되니 이를 北海의 바닷길이라 한다.¹⁷⁾

C - 3) 강희 2년 癸卯年(1663년) 해남현 선비 金麗輝 등 28인이 유구에 표류하였다가 일본을 통해 돌아왔다. …(중략)… 壬寅年(1662년) 9월, 상인 李加叱金의 배를 얻어 제주인 南麟 등 모두 32명이 함께 타고 24일 아침에 별도포를 출발했다. 그러나 중간에 서북풍을 만나 남쪽 바다에 표류하여 떠다니다 엿새가 지나 黑海에 이르렀다. 물의 색깔이 墨과 같아 손으로 떠보니 보통 물과 다를 것이 없었다. 시험 삼아 흰 물건을 적셔보았지만 색이 물들지는 않았다. 또 나흘쯤 지나자 바다의 빛깔이 백색으로 돌아왔다.¹⁸⁾

위의 기록에서 보이듯이, 제주도를 둘러싼 주변 해역의 지형적 특수성이

16) 金尙憲, 『南槎錄』 권4, 정월 28일 신유조.

17) 李衡祥, 『南宦博物』, 誌海程條.

18) 宋廷奎, 『海外聞見錄』 중 「記琉球漂還人語」.

기인하여 여타의 바다보다도 험악한 潮水의 움직임이 나타남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해양환경 및 항해조건에 가장 밀접한 관계성을 맺는 해류로, 黑潮라 불리는 쿠로시오 해류에 대해서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태평양 서부 필리핀 북부에서 시작하는 이 해류는 北東進하면서 제주도 동남쪽 외해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쓰시마 쪽으로 가는 대마난류와 황해로 들어가는 황해난류로 나뉘지게 된다.

이렇듯 제주도는 쿠로시오 해류가 북상하는 지점에 위치함과 동시에 쓰시마 해협에서 서쪽으로 꺾이어 역전된 순환 해류가 황해로 흐르므로 제주인들이 탄 배가 북풍을 만났을 경우 이 回流를 타고 중국 쪽으로 흘러가거나,¹⁹⁾ 중국으로 항해하던 일본 선박이 제주에 표착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단 남방으로 흘러 들어간 해류가 다시 북상함에 따라 일본 등지도로 표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류는 표류를 직접 야기 시키는 경우는 적었지만, 표류가 발생한 후에는 오히려 自動動力を 상실한 선박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만들기도 한다.²⁰⁾ 몇몇의 표류인들이 ‘갑자기 사나운 바람을 만나 뜻대로 기울고櫓가 부러져 배를 제어하지 못하고 가는 대로 맡겨두었던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든지, ‘광풍을 만나 키[舵]를 잊고 뜻대로[또는 치목(鷲木)]가 부러져 성난 파도가 험한 물결이 몰아친 바가 되어 떠내려가 문득 하나의 섬에 이르렀다’ 등의 생활 후 문정과정에서 들려준 표류상황 속에서 이러한 해류의 역할을 인지해 볼 수 있겠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육지를 왕래할 때 주로 禾北浦(別刀浦)와 朝天浦를 이용하였고, 육지는 남해안의 영암 梨津浦, 강진 南塘浦, 해남의 館頭浦가 주요 출입항으로 이용되었다. 제주도↔육지 본토를 왕래할 때에는 그 사이에 위치한 추자도가 중계 지점으로서 순풍을 기다리는 일시적 기항지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고지도 및 문헌에는 候風島라 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18세기 후반이 되면 육지와 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소안도를 경유한 해로가 등장하고 있는데, 신경준의 『道路考』에는 다음과 같이 적

19) 고창석, 「제4장 대외교류와 해양사」, 『한국의 해양문화』 5-제주해역, 해양수산부, 2002, 135쪽.

20) 윤명철, 「漂流의 발생과 역할에 대한 탐구」, 『東아시아古代學』 18, 東아시아古代學會, 2008, 90쪽.

고 있다.

所安島는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이 해남·강진·영암에서 배를 띄워 모두 이 섬에 서 바람을 기다리다 큰 바다를 건넌다.] …(중략)… 또 180리쯤 가서 斜鼠島의 서쪽을 경유하면 서쪽으로 楸子島가 아주 멀리 보인다.[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이 동풍이 불순하면 이 섬에서 배를 대고 머문다. 김청음(김상현)의 『海槎錄』에 “만약 이 섬이 없으면 제주에 가는 배들이 더욱 곤란할 것이다. 표물하는 근심을 면하는 것은 이 섬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중략)… 『地誌』를 살펴보면, …(중략)… 예전에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은 배가 출발하는 곳이 비록 달라도 모두 추자도에 들어가서 바람을 기다려 큰 바다를 건넜다. 지금은 모두 소안도에 들어가서 바람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지름길이고 또 추자도에서 다시 바람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안도에서 제주로 향하는 해로는 아주 멀기 때문에 중간에 바람을 놓쳐버리면 쉽게 전복된다. 추자도는 제주와 불과 300여 리이므로 당연히 추자도가 定路이다. 그래서 『고려사』 地誌에는 제주로 가는 해로에서 모두 추자도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옛 사람의 대처보다 못한 부분이다.²¹⁾

위의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제주도와 육지를 왕래할 때에는 추자도에서 후풍하였으나, 18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보다 소안도를 중간 기착지로 하여 제주도로 가는 경로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안도와 제주도 사이는 거리가 멀어 바람에 의해 조난되기 쉬운 단점이 있었다. 이렇듯 이후 소안도는 육지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要所였지만, 추자도를 경유한 선박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①소안도 경유의 해로, ②추자도 경유의 해로, ③순풍시 어디에도 기항하지 않고 육지-제주도를 왕래하는 해로가 병존해 가게 되었다.²²⁾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에는 대화탈도(大化奪島 혹은 大火脫島)와 소화탈도(小化奪島 혹은 小火脫島)가 자리하고 있다. 이때 『고려사』²³⁾ 뿐만 아니라, 이원진의 『탐라지』 山川條 및 『남한박물』 誌島條, 『탐라지초본』 島嶼條 등에는 “이 두 섬 사이에는 (두 해류가 교류하여)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서 배들이 많이 표류하고 침몰하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매우 고통 받는다.”라

21) 申景濬, 『道路考』 卷之四 「海路」 중 濟州海路.

22) 長森美信, 「朝鮮近世海路の復元」, 『朝鮮學報』 199·200, 朝鮮學會, 2006, 177~178쪽.

23) 『高麗史』 권57, 志 卷第十一, 地理 二, 전라도, 진도현, 탐라현.

고 쓰여 있다. 또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兩島之間 波濤洶湧”이라 적고 있다. 이렇듯 관찬사료 및 제주도 관련 읍지를 비롯한 제주도를 다녀간 관리의 경험담, 표류 제주인의 표해록 등을 보면,²⁴⁾ 대화탈도~소화탈도 사이와 대·소화탈도~여서도에 이르는 일대는 서로 다른 두 해류가 교류함에 따라 海況이 일정치 않고 水勢가 매우 험하여 제주도↔육지 본토를 왕래하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을 오가는 異國人們이 漂沒하는 재난을 면하기 힘든, 위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배경

1) 척박한 자연환경에 기인한 산업구조

앞서 살펴본 제주도가 지닌 자연지리적 특성은 2차적으로 제주인들의 삶을 영위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그들 삶의 총체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제주의 열악한 자연적 조건, 즉 척박한 토질에 기인한 낮은 토지 생산성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업의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에 제주인들을 자신들을 둘러싼 바다를 생계기반의 중추적 매개로 인식하여 해산물 채취 또는 채취한 해산물의 해상교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시켜 나갔음을 당시 문헌들 속 D-1~5)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D-1) 제주도는 멀리 바다 가운데에 있어서 조세를 받아 저축하는 법이 없으므로, 한 번만 水災나 旱災를 만나도 사람들이 資生할 길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을 면치 못한다. 이제 국가에서 관대한 법전을 내리어 양쪽 경계 근처에 典例에 의거하여 토지를 측량하고, 조세를 걷는 법을 실행하여 비상에 대비한다 하오나, 제주의 토지는 본래 메말라서 농사짓는 사람이 토지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애쓰고 힘써서 그 공력을 백배나 들여도 항상 한 해 동안의 양식이 모자랄까 걱정하여, 농업을 하지 않고, 상업에만 힘쓰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²⁵⁾

24) 李增, 『南槎日錄』; 張漢喆, 『漂海錄』, (1770년) 12월 30일조; 許穆, 『眉叟記言』 記言 第48卷 繢集, 「四方」 2, 殇羅誌. 이와 비슷한 내용이 金尚憲, 『南槎錄』 권1, 9월 22일 병진조에도 기재되어 있음.

25)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1419) 9월 11일 계축조.

D - 2) 땅에 바위와 돌이 많아 흙이 두 어치 퍼진데 불과하고, 또 흙이 가볍고 건조해서 밭은 개간하는 데는 반드시 牛馬를 몰아 밟는다. 그리고 木棉과 麻布가 생산되지 않아 衣食이 모자라니, 오직 海物을 캐어 생업을 버금하고 있다.²⁶⁾

D - 3) 본주인[제주인]들은 불행히도 섬 중에 태어나 衣食이 모두 어려우므로 반드시 육지에서 얻어다가 사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貧賤한 백성들은 다만 蕁種 皮物을 가지고 연해 여려 고을에 가서 팔아, 힘든 삶을 연명합니다.²⁷⁾

D - 4)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어서 절간의 중[僧]도 절 곁에 가정을 가지고 처자를 살린다. 비록 乞人이라 해도 처첩을 거느리고 있다. 또한 공적 사적으로 운반하고 장사하는 배의 왕래가 빈번한데 바닷길은 험하고 멀어서 자주 표류,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여자아기 낳기를 중히 여긴다.²⁸⁾

D - 5) 섬 가운데 토지는 모두 砂磧[모래별판]이므로 田畝가 심히 척박하여 …(중략)… 논은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섬 중에 가장 귀한 것이 大米인 바, 관가에서는 매년 쌀을 兩湖 지방에서 사서 선박으로 운반해 와 官供과 적객의放料에만 쓰고 있으며, 혹은 田米로서도 이에 공급하고 있으나 가장 곤란한 것은 大米인 것이다.²⁹⁾

이렇듯 제주도의 척박한 자연환경은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인 衣食住,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衣食을 마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삶의 조건 형성에 너무나도 미약하였다. 地表 대부분이 자갈과 모래로 덮여 있어 米穀 생산은 매우 힘들었으며, 木棉과 麻布가 생산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생계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제주인들은 바다를 매개로 얻은 미역[甘藿]·전복 등 각종 해산물과 표고·사슴가죽[鹿皮]·가죽신[皮鞋]·말총[馬馳]·양태[涼臺] 등의 토산물을 가지고 육지에 나아가 米·布·소금[鹽] 등과 교역하였다. 이처럼 자연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한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농업이 아

26) 金尙憲, 『南槎錄』 권1, 9월 22일 병진조.

27) 金尙憲, 『南槎錄』 권3, 정월 27일 경신조.

28) 李元鎮, 『耽羅志』, 風俗條.

29) 金淨, 『濟州風土錄』.

닌 수산업,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진 水產物과 土產物의 교역 및 운송 등으로 전환되어 졌으며, 제주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처한 자연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산업구조 체제는 반드시 배를 타고 험한 바다를 건너야 하였기에 항해 중 해난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 제주도에 대한 수취체제 강화

15세기 이후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점차 확립됨에 따라 제주도에 대한 수취체제의 강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이에 家戶와 개별 人身을 대상으로 진상·공물을 포함해 각종 부세와 군역을 비롯한 신역, 그리고 환곡 등을 운영해 나갔다. 그러는 가운데 조선후기 大同法의 실시로 공물의 대부분을 米穀으로 대신하는 代納制가 도입되는 등 수취체제는 크게 변화하였으나, 進上은 지방관들이 각 지방의 產物을 중앙에 진헌하는 제도로서, 대동법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現物로 상납하는 체제는 변함이 없었다.

조선초 감귤류 5가지, 약재류 2가지, 미역·전복류 4가지, 오징어 등에 불과하였던 진상 품목³⁰⁾은 세종대 이후로 진상품목이 확정³¹⁾됨과 동시에, 더욱 확대되어져 갔다. 즉, 매해 冬至와 正朝를 맞이하여 연례적으로 말과 결궁, 장폐 등이 봉진되었고, 2~9월까지는 전복, 오징어 등의 해산물과 비자, 해동피 등 약재류가 주로 진상되었다. 또한 10~11월에는 橘果 20운에 걸쳐서 천신용과 진상용으로 나눠 봉진되었고, 12월에는 세초진상이라는 명목 하에 주로 약재류가 봉진되었다. 이후 시기가 지남에 따라 비록 그 진상 액수는 줄어들긴 하였으나, 제주도의 주요 특산물인 牛馬·柑橘·海產物·藥材 등의 현물을 매년 정기적으로 상납해야 했기 때문에 제주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특히 제주도의 진상물은 소위 六苦役³²⁾이라 일컫는 사람들에 의해 조달되었다. 이들 가운데 전복, 오징어 등의 해산물을 채취하는

30) 『세종실록』 권11, 세종 3년(1421) 1월 13일 병자조.

31)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전라도/제주목/정의현·대정현.

32) 조선시대 제주에는 소위 ‘六苦役’이라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주도 지역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여섯 가지 직역을 총칭해서 부르는 보통명사의 의미를 갖는다.(김동전, 『18·19世紀濟州島의身分構造研究:『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52쪽).

役을 지닌 鮑作·潛女와 함께 진상품 운송의 역을 지녔던 船格은 해상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님에 따라 예기치 않은 해난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될 확률이 높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아래의 사료 속 E - 1~3)의 내용을 통해 증명된다.

E - 1) 제주사람 효지가 말하기 “제주는 멀리 대해 가운데에 있어 파도가 여러 바다에 비해 더욱 사납습니다. 진상 다니는 貢船와 商船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데 표류하거나 침몰하는 경우가 열에 다섯, 여섯이 됩니다. 섬사람들은 앞선 항해에서 죽지 아니하면 반드시 나중 항해 때는 죽기 때문에 제주 지경 안에는 남자 무덤은 가장 적고, 마을에서 여자는 많기가 남자의 세 굽이나 되므로, 부모 된 자로서는 여자를 낳으면 ‘이것은 우리를 잘 섬길 자라’하고 남자를 낳으면 ‘이것은 우리 애가 아니라 곧 고래와 악어의 먹이다’라고 하였다.”³³⁾

E - 2) 本州[제주도]에서 진상하는 전복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의 公을 빙자하여 사육을 채우는 것이 또 그 몇 굽이 되므로 浦作輩는 그 苦役을 견디지 못하여 流亡하거나 익사하여서 열에 둘 셋만 남게 되나 徵斂供應은 전보다 줄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중략)… 이웃에 사는 과부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빌어먹다가 스스로 죽을지언정 浦作人的 아내가 되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³⁴⁾

E - 3) 병조에서 계하기를, “제주에 貢物을 운반하는 배가 매년 3척이 내왕하는데, 한 척마다 領船千戶 한 사람, 狹領千戶 한 사람, 頭目 한 사람, 射官 네 사람이고, 格軍은 큰 배에 43명, 중간 배에 37명, 작은 배에 34명입니다. 생명을 물에 걸고 바다를 건너 내왕하오니 論功할 만합니다. 공물 배가 5차례를 무사하게 京江에 도착하면, 射官 이상은 각각 前職으로 인하여 海領으로 除授하기를 청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³⁵⁾

E - 1)은 1487년 추쇄경차관으로 제주도에 부임했다가 이듬해 부친상을 당해 고향으로 향하던 중 중국으로 표류해 간 최부의 『漂海錄』 가운데 일부

33) 崔溥, 『漂海錄』 권1, 무신년 윤1월 12일.

34) 金尙憲, 『南槎錄』 권1, 9월 22일 병진조.

35)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1425) 7월 15일 임오조.

로, 그가 데리고 간 陪吏 중 제주인 孫孝子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제주의 바다는 항상 公船과 私船이 끊임없이 오가는 가운데 표류되어 죽는 자가 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제주도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현저히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설령 무사히 歸還한다 하더라도 향후 航海의 해난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恒時的으로 인지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인들은 男兒보다는 女兒를 선호하고 있음을 표면적으로 살필 수 있다.

또한 E - 2)의 기록에서는 바다를 공통의 생활무대로 하여 해산물 채취 및 교환·판매하면서 국가의 魚鰐 진상 역을 담당하였던 鮑作人은 그들에게 주어진 과다한 進上額과 더불어 土豪들에 의한 착취 등 이중적인 수탈에 시달렸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E - 3)의 『세종실록』을 통해 제주의 貢船이 매년 3척이 내왕하며, 1척당 승선하는 승선자로서 영선천호 1명, 압령천호 1명, 두목 1명, 사관 4명, 격군 34~43명이 진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병조에서는 5차례 이상 無事故로 진상을 수행할 시에는 사관이상에 한해 품계를 올려주도록 임금에게 청하니 이를 허가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정부에서도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진상 업무의 고충과 애로, 그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거친 바람과 파도를 헤치며 航海를 담당하였던 格軍에 대해서는 그 論功을 논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조선시대 중앙정부의 중앙집권 하에서 이뤄진 공물·진상의 과중한 수취체제의 폐단에 의거, 결국 제주인들 가운데에서도 포작인과 격군을 비롯한 六苦役者들은 불법적으로 배를 타고 제주도를 異脫하여 전라·경상도 연해지역으로 出陸해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도가 지난 자연지리적 요인에 기인한 산업구조와 15세기 이후 점차 강화되어 가는 수취체제, 그 가운데에서도 육지에서는 대체하기 어려운 제주도의 토산물을 각 시기별로 현물로 납부해야 하는 進上品 마련과 그에 수반되는 護送은 불가항력적으로 바다로 나가야만 하였기 때문에 公·私의 으로 표류 제주인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확대되어가는 공납 수량과 이와 더불어 내륙과 단절된 폐쇄성에 기인한 토호들의 횡포, 지방관의 탈세와 학정 등으로 말미암아 제주인들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주도를 떠나 전라·경상도

해안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사회현상이 증대되었다. 이는 결국 제주인들의 항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표류 제주인의 발생을 유발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다.

III. 제주인의 표류 발생 실태

1. 시기별 발생 현황

조선시대 표류인의 규모에 대한 수량적 파악은 池內敏가 작성한 근세 朝 - 日(琉球³⁶⁾ 포함)간 표류·표착 사건의 통계를 우선 꼽을 수 있다. 반면 최근 들어 중국과 대만 측 소장 관찬 공문서로서 明·清 實錄과 檔案에 기재된 표류 관련 기사를³⁷⁾ 바탕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朝 - 中(明·清)간의 漂流·漂到에 관한 정확한 수량적 결과는 도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중 어느 시기에, 얼마나 많은 표류 제주인들이 어떠한 지역으로 표류해 갔는지에 대해 표류 사건이 기록된 각종 사료들을 분석하여 재구성해 보았다. 이를 위해 앞서 소개한 국외의 선행연구 성과들을 참고로 하는 동시에 조선시대 관찬사료 및 그 외 표류 제주인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제주도 관계 인사들의 文集類 등을 典據로 살펴보았다.³⁸⁾ 한편 표

36) 小林茂·松原孝俊·六反田豊, 「朝鮮から琉球へ、琉球から朝鮮への漂流年表」, 『歴代寶案研究』 9, 1998.

37) 湯熙勇·劉序楓·松浦章, 『近世環中國海的海難資料集成-以中國·日本·朝鮮·琉球為中心』, 蔣經國國際學術交流基金會, 1999; 劉序楓 編, 『清代檔案中的海難史料目錄(涉外篇)』, 台北: 中央研究院, 2004.

38) 『조선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을 중심으로 하여 『승정원일기』, 『일성록』, 『표인영래등록』, 『통문관지』, 『동문휘고』, 『변례집요』, 『연례실기술』, 『제주제록』, 『탐라기년』 등의 편년체 사료를 바탕으로 '표류 제주인' 관련 기사만을 추출하여 조선시대 표류 제주인의 전체상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제주목사 등 제주도 관계 인사들에 의해 편찬된 문집인 『지영록』, 『해외문건록』, 『탐라문건록』, 『증보탐라지』, 『탐라지초본』 등을 통해 상기의 관찬사료에는 기재되지 않은 또 다른 표류 사건들을 찾아내어 보완하였다. 365 건에 해당하는 제주인의 각각의 표류 사례는 그 양이 많아 부득이 지면상 다루지 못하였으나,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조선시대濟州島漂流·漂到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류 제주인의 연표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검토한 연대기적(편년체) 사료에는 1건의 표류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 ‘出海-漂流-漂着-送還’이라는 표류의 頭末이 모두 기재된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동일 검색어를 통해 추출된 각 사료들의 자료들을 면밀히 비교·대조해 나가면서 하나의 표류 사례에 대한 出海에서부터 送還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고찰하였다.

아래 <표 1>과 <그림 1>은 이국으로 표류해 간 제주인의 시기별·왕대별 발생건수를 표와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다. 아래 표와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사료에서 검출된 조선시대 시기별 제주인의 표류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365건에 이르며 영조대(1724~1776년) 80건(22.0%), 고종대(1863~1907년) 73건(20.1%), 철종대(1849~1863년) 56건(15.4%) 순으로 18~19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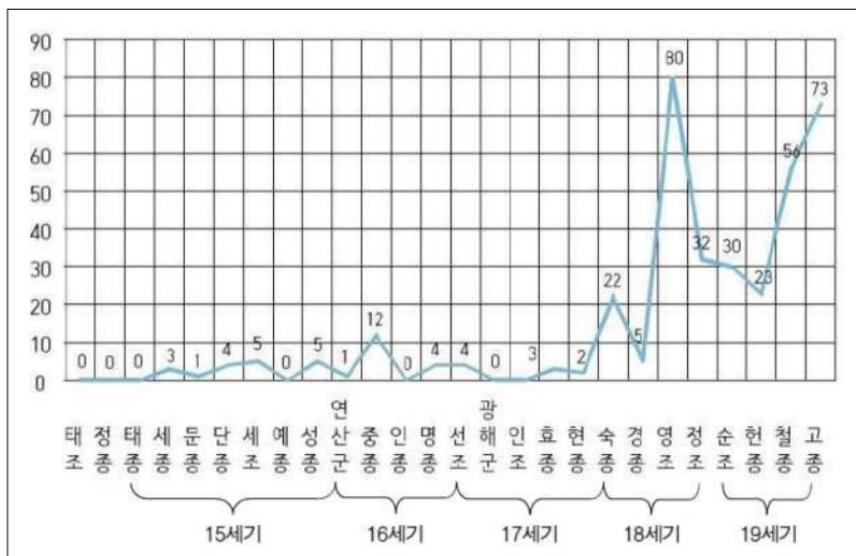
〈표 1〉 시기별 제주인의 표류 발생건수

시기	표착국	日本	琉球	中國	臺灣	安南	朝鮮	기타· 미기재	합계
15세기 (19건)	1401~1420년								0
	1421~1440년								0
	1441~1460년	5	2	2				1	10
	1461~1480년	2	1	2					5
	1481~1500년	2		2					4
16세기 (19건)	1501~1520년				4			1	5
	1521~1540년	3		2					5
	1541~1560년		1	4					5
	1561~1580년			2					2
	1581~1600년	1		1					2
17세기 (16건)	1601~1620년							1	1
	1621~1640년								
	1641~1660년	2				1			3
	1661~1680년	4	1						5
	1681~1700년	5				1		1	7
18세기 (129건)	1701~1720년	14							14
	1721~1740년	15	2		1		2	1	21
	1741~1760년	15		1	2				18
	1761~1780년	24	2	9			1	18	54
	1781~1800년	14	1	3	1			3	22
19세기	1801~1820년	17		1				1	19

2017, 347~366쪽, [부록 1. 표류 제주인 연표]에 기재되어 있음.

(182건)	1821~1840년	7	3	2			1	13	
	1841~1860년	25	4	9	1		23	13	
	1861~1880년	43	2	7	1		7	3	
	1881~1900년	9		2			1	12	
합계		207 (56.7%)	19 (5.2%)	53 (14.5%)	6 (1.6%)	2 (0.6%)	33 (9.1%)	45 (12.3%)	365 (100%)

(단위 : 건)



〈그림 1〉 왕대별 제주인의 표류 발생추이

그리고 <표 2>는 이국으로 표류해 간 제주인의 표류 발생 규모를 왕대 별로 정리한 것이다. 해당 표를 보면 365건의 표류 가운데 그 人數가 미기재된 41건의 표류 사건을 제외한 표류 제주인의 數를 산출한 결과, 총 4,427명의 제주 사람들이 해난사고와 직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760명은 표류 도중 불의의 사고[의사·병사·실종·사망] 등으로 죽음을 면치 못해 생환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 제주바다에서 해상활동을 전개한 제주인 4,427명 가운데 82.8%에 해당하는 3,667명은 해난사고로 말미암아 타국으로 표류, 그 곳 주민들로부터 구조되어 본국으로 살아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단편적으로 자주해 있는 역사적 기록 자체에 의거한 통계이지만, 80%를

웃도는 높은 생존율을 본다면 전근대 시기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상호 호의에 입각한 표류인 송환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상기 <그림 1>에서의 해당 그래프 수치만 보더라도 조선 전·후기로 비교³⁹⁾해 보았을 때, 표류 발생건수와 그 규모는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집중되고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살필 수가 있다.

〈표 2〉 왕대별 제주인의 표류 발생 규모

표착국 시기	日本	琉球	中國	臺灣	安南	朝鮮	기타 · 미기재	합계
태조(1392~1398)								0
정종(1399~1400)								0
태종(1401~1418)								0
세종(1418~1450)	2		6					8
문종(1450~1452)	2							2
단종(1452~1455)	16		5				1	21 1
세조(1455~1468)	2	12	14					26 2
예종(1468~1469)								0
성종(1469~1494)	10	8(5)	97(14)					115(19)
연산군(1494~1506)	1							1
중종(1506~1544)	29		150(2)				3	182(2)
인종(1545~1545)								0
명종(1545~1567)		12	71 1					83 1
선조(1567~1608)	4		22 1				1	26 2
광해군(1608~1623)								0
인조(1623~1649)								22 1
효종(1649~1659)	22							
현종(1659~1674)	48(1)	32(4)						80(5)

39) [표] 조선 전·후기 제주인의 표류 발생건수와 규모[필자 작성]

구분	조선전기		조선후기		합계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건수(건)	39	0.2	326	1.1	365
인수(명)	463*(21**)	2.1	3,964(739)	13.5	4,427(760)

자료: <표 1·2>를 참조하여 작성함.

* 제주인의 해난사고자 수이며, ** 해난사고자 중 사망자 수임.

숙종(1674~1720)	485(41)①				24(3)		65(65)	574(109)②
경종(1720~1724)	97(1)							97(1)
영조(1724~1776)	595(45)③	59(22)	94(2)	68(1)		③	122(23)④	938(93)⑤
정조(1776~1800)	286(43)⑥	25(5)	88⑦	8			③	407(48)⑧
순조(1800~1834)	266(6)	50(7)	59(1)				9⑨	384(14)⑩
현종(1834~1849)	156(6)		16(2)⑪			40(3)	47(47)	259(58)⑫
철종(1849~1863)	107(27)	22(2)	70(6)	5		168(130)	35(35)	407(200)
고종(1863~1907)	533(37)	20	62(21)⑬	12(1)		129(112)⑭	40(40)⑮	796(211)⑯
합계	① 2,658 ② (207) ③ ⑩	240 (45) ①	754 (48) ⑤	93 (2) ⑩	24 (3) ①	337 (245) ④	321 (210) ⑩	4,427 (760) ④

주) ① 표식없이 숫자만 명기: 표류인수(단위:명), ② 팔호안 숫자 명기: 사망자수(단위:명), ③네모안 숫자 명기: 미기재 건수(단위:건)

그렇다면, 조선후기 어떠한 이유에서 표류 제주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일까? 그 원인을 단순히 조선후기에 風害·水害·寒害·凍害 등 악천후 또는 기상재해의 발생 빈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 수 있겠다. 이는 조선시대 제주도 기상재해의 유형별 특성을 시기별로 분석한 김오진의 논문⁴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해당 논문은 『조선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 『충보문헌비고』, 『탐라기년』 등의 문헌자료에 기록된 기상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수량화한 결과, 제주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총 107건은 전반적으로 17세기(46건, 43%)에 집중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18세기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40) [표] 조선시대 제주도의 유형별 기상재해 기록

재해 \ 시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합계(건)
풍해(風害)	6	5	19	12	2	44
수해(水害)	3	5	13	5	4	30
한해(寒害)	2	4	8	6	3	23
동해(凍害)	2	0	6	0	2	10
합계	13	14	46	23	11	107
표류 제주인 발생건수*	19	19	16	129	182	365

자료: 김오진,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후와 그에 대한 주민의 대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09, 39쪽, <표 2-3> 조선시대 제주도의 유형별 기상재해 기록 을 재편집함.

* 표류 제주인 발생건수는 필자가 통계한 <표 1>의 수치임.

보이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제주도는 4개 분야로 분류된 자연재해 가운데에서도 強風多風의 지역이자,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탓에 風害의 수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40)의 표를 살펴보면 제주도의 기상재해는 여느 시기보다도 17세기에 異常氣象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표류 제주인의 발생건수는 가장 적게 추산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앞서 II 장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17세기는 제주도의 집단적 流民 발생을 막기 위한 조처로 실시된 出陸禁止令으로 인해 제주인의 해상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으며, 그 결과 표류 제주인의 발생건수가 15, 16세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과 연결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출류금지령은 17세기에만 일시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1629년(인조 7)~1825년(순조 25)까지 약 2백년 간 지속된 것으로 18~19세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표류 제주인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조선 전·후기 제주도의 인구수를 대조해 보았을 때, 15세기부터 점차 감소되는 인구수는 16세기 말엽~17세기 초 제주도의 인구수는 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어 갔으며, 이에 조선정부는 그들의 출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출류금지령이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였다. 해당 조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출류금지령 이후의 제주도 인구는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며, 18~19세기에는 6~8만 명의 조선전기보다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인구의 증감을 통해 제주도 유민의 수를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없으나, 1780년 이후인 18세기부터는 점차 出陸人(流民 포함)의 수가 잣아들고 있음을 살필 수가 있다. 따라서 17~19세기까지 지속되어 운용된 출류금지령은 18~19세기 표류 제주인의 증가와는 상충됨에 따라 시기별 표류 제주인의 발생을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이유에서 조선후기, 즉 18세기에 접어들면서 표류 제주인이 급증하게 되는 것일까? 이는 표류인 발생이라는 측면보다는 발생한 표류인의 송환, 그리고 사후처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먼저, 조선-일본(유구), 조선-중국(대만) 간의 송환체제가 조선 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가는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사회·정치 변화 형세와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16세기 말인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7년 동안이나 양국 간의 전쟁을 치렀고, 17세기 초인 1609년, 일본 薩摩番이 유구국을 복속하였으며, 중국은 명·청 교체기라는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이렇듯 16~17세기 동아시아 각국이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표류·표도되어 오는 異國人們에 대한 송환처리가 원활히 운용될 리 만무했다. 이후 중국은 18세기 건륭년간부터 외국으로부터 표류해 온 난민들의 대응·처리방식을 점차 제도화하여 정부 문서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체제에 편입되어 있던 조선을 비롯한 일본과 유구의 표류·표도인 송환체제와도 직결되어 각국의 표류인들은 체계화된 절차 속에서 관리·송환되는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의 표류 및 송환과정을 기록한 送還國과 出身國의 문서 또한 많이 작성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표류 제주인의 발생건수는 제주인들의 표류 상황을 담은 자료의 편찬 시기 및 존재유무(수량), 기록의 상세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에는 조선전기에 비해 조선후기 특히, 18·19세기에 쓰여진 『비변사등록』이나 『표인영래등록』, 『지영록』, 『해외문견록』, 『탐라문견록』, 『증보탐라지』, 『제주계록』 등과 같이 제주인들의 표류 상황을 기록한 다수의 문헌들이 존재함과 동시에 조선으로 송환된 표류인들의 문정 내용을 보다 상세히 담아내고 있음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증빙해 보일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왕들 가운데 영조·정조 등이 제주 혹은 표류인들에 대한 관심의 발로가 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선측 사료 가운데 『조선왕조실록』 속 제주 관련 기사는 1,754건으로써, 왕대별로 많은 순서로는 영조 259건 > 세종 249건 > 중종 146건 > 숙종·정조 각 120건 > 성종·태종 각 97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검색 관련 주제어로는 馬 관련 기사가 280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구휼 107건, 표류 73건, 유배 47건, 왜인·왜구 등 일본 관련 72건 등이 실렸다.⁴¹⁾ 이처럼 조선 영조대에 제주 관련 기사들이 실록 내 가장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건·사고의 발생 수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영조가 다른 왕들에 비해 제주도에

41) 위 통계는 제주학야카이브(www.jst.re.kr)에 기초한 것으로, 해당 기사(<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605>)를 참고함.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시사해 준다.

이와 동일하게 필자가 집계한 총 365건의 표류 제주인 발생건수 가운데 영조대가 80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실록에서 영조는 異國에서 송환되어 온 漂還人們을 궁궐문에 나아가 직접引見하였으며, 그 노정 및 견문한 바를 묻고 훌전을 시행하는 등 표류인들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렇듯 18세기 영조가 제주도, 특히 표류 제주인들에게 지녔던 관심은 아마도 『조선왕조실록』 속 이들에 대한 기록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해상교통의 발달로 선박을 이용한 상품유통이 크게 진전된 결과 와⁴²⁾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해난사고 발생의 증가는 어찌 보면 조선술과 항해술이 미발달된 결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 들어 해양기술의 발달이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상업 활동의 활성화와 연계되어 바다로 진출하는 경우가 빈번해 졌으며, 이로 인해 표류 제주인 발생 또한 증가되어졌을 것으로 추론된다.

2. 표착 국가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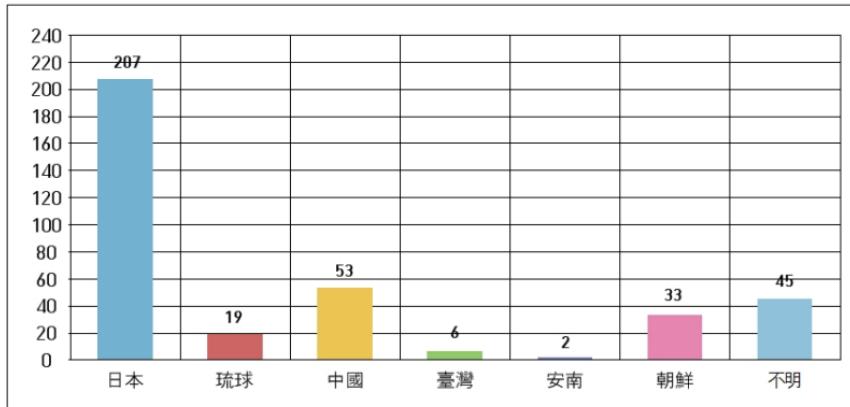
1) 표착 국가별 발생 현황

<그림 2>는 표류 제주인이 표착한 국가들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를 보면 총 365건의 표류 사건 중 제주도 인근 지역 및 전라도로 표류해 갔거나, 혹은 실종되거나 사망하여 그 표착지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78건(21.4%)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나머지 287건의 異國으로 표류 간 사례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 표류해 간 경우가 207건(7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53건(18.5%), 유구 19건(6.6%), 대만 6건(2.1%), 안남 2건(0.7%) 순으로 확인된다. 그래프 자체만으로 보면, 조선시대 제주 표류인은 일본으로 많이 표류해 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 통계⁴³⁾⁴⁴⁾는 해당 시

42) 고동환, 「조선후기 船商活動과 浦口間 商品流通의 양상-漂流關係紀錄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14, 규장각한국학연구소, 1993, 286쪽.

43) 한일관계사학회 편, 『조선시대 한일표류민연구』, 國學資料院, 2001, 195~243쪽, <한·



〈그림 2〉 표류 제주인의 표착 국가별 현황

기 제주 표류인의 자취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의 양이 타국에 비해 한국과 일본에 많이 잔존해 있음과 동시에 필자의 언어적 한계성으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주지할 필요⁴⁵⁾가 있겠다.

우선, 207건에 해당하는 일본에 표류한 제주인의 표착지를 살펴보면⁴⁶⁾ 구체적인 지역명이 미기재된 14건(6.8%)을 제외해 五島가 92건(44.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對馬島 31건(15.0%), 肥前 20건(9.6%), 薩摩 17건(8.2%), 長崎 8건(3.9%), 壱岐·鹿兒島·平戶島가 각 5건

일간 표류민 연표>를 참조한 결과, 조선전·후기(1408~1888) 제주인의 일본 표류 건수는 총 163건(전기 13건+후기 150건, 후기에 추자도인의 표류 5건 포함)으로 산출됨.

44) 정성일, 「全羅道 住民의 日本列島 漂流記錄 分析과 데이터베이스화(1592~1909)」, 『史學研究』 72, 韓國史學會, 2003, 120쪽, <표 5> 일본으로 표류한 전라도 주민의 출신 지역 분포(1592~1909년)를 보면, 제주도 출신자의 표류건수는 53건이며, 제주도 출신자가 그 출신지를 전라도로 위장한 사례 97건(강진 27, 해남 26, 영암 19, 나주 13, 진도 3, 영광 3, 부안 2, 고달도·무안·좌수영·영산 각 1건)을 합하여 제주인의 일본 표류 건수는 총 150건으로 파악함.

45) 표류 제주인의 발생건수는 한국을 비롯한 표착지역(국가)에서 새로운 자료를 얼마나 발굴해 낼 수 있는가와 이를 어떻게 해석(분석)하는가에 따라 그 통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6) ①福江藩과 彌島는 五島에 포함시킴, ②기타 8건은 長門, 駿河, 但馬, 大隅, 島根縣, 石見, 女島, 翠芳島 각 1건을 합한 것임, ③불명은 일본의 어느 지역에 표착하였는지 미기재된 것을 수치화한 것임.

(7.2%), 筑前州 2건(1.0%), 기타 長門 등 각 1건[8건](3.9%) 순이다. 이로써 표류 제주인들은 제주해역에서 표류하여 五島의 서해안 쪽으로 주로 표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곳을 일본에서는 현재 ‘五島列島’라 일컫는데, 현재 행정구역상 長崎縣에 속한다. 이 지역은 對馬처럼 공식적인 교류의 통로는 아니었지만, 한반도나 중국대륙과 가까이 위치하였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일본인들이 한반도나 중국으로 가고자 할 때에는 이곳이 관문 구실을 하였다.⁴⁷⁾

池內敏는 표류 해역과 표착지는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전라도 및 제주해역에서 표류하게 되면 五島의 서해안 쪽에 많이 표착하고, 경상도 해역에서 표류하면 對馬島나 長門 등에 표착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이때 전라도와 제주해역에서 발생된 표류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표류 제주인의 일본 표착지 분포 비율을 보면, 표류건수의 절반이 五島로 표류해 갔음에 따라 전라도 해역에서 표류된 사례와 수치상 대조⁴⁸⁾해 보았을 때, 보다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표류 제주인들이 일본으로의 표류시 고토렛토로 항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를 좀 더 면밀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고토렛토 해역은 黑潮 해류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이 해류는 제주도 남쪽에서 갈라져서 한 쪽은 쓰시마로 흐르고, 다른 한쪽은 제주도 서쪽을 지나 한반도 서해안으로 흐르고 있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표 3> 표착 국가별 표류 제주인의 월별 발생 현황을 보면, 제주인이 일본으로 표류해 간 시기는 11월·12월(각 29건) > 2월(25건) > 9월(21건) 순으로 대부분 겨

47) 정성일, 「교류의 경로와 풍경-일본 고토렛토[五島列島]를 중심으로-」, 『島嶼文化』 3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0, 68~69쪽.

48) 이훈,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國學資料院, 2000, 65~71쪽, 총 1,112건의 표류 사건 가운데 <표 2> 조선인의 출항지와 표착지의 도표(1628~1888년)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8道 중 표류빈도가 높은 지역은 ①경상도(총513건)의 주요 표착지: 쓰시마[對馬島] 249건(48.5%), 나가토[長門] 115건(22.4%), ②전라도(총275건)의 주요 표착지: 고토[五島] 84건(30.5%), 쓰시마[對馬島] 80건(29.1%), ③제주도(총136건)의 주요 표착지: 고토[五島] 60건(44.1%), 쓰시마[對馬島] 26건(19.1%) - 생략, 전라도의 출항지별 표류빈도를 보자면, 총411건 가운데 ①제주도(136건, 33.1%) > ②강진(67건, 16.3%) > ③해남(39건, 9.5%) > ④영암(30건, 6.8%) > ⑤순천(29건, 7.1%) > ⑥장흥(27건, 6.6%) > ⑦홍양(26건, 6.3%) 순으로 나타난다.

울철(11월~2월)에 표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살필 수가 있다. 이 시기 한반도는 강력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게 되어 북쪽에서 남쪽 까지의 연안류가 강하게 변해 확장범위가 가장 넓어지게 된다. 결국 동절기 제주해역으로부터 출선한 제주인들은 이 같은 계절풍(서풍 또는 서북풍)이 향하는 방향에 의해 일본의 여타 지역 가운데에서도 五島列島로 향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지해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琉球國으로 표류해 간 표류 제주인은 19건에 이른다. 지역명이 미기재 된 3건을 제외하면, 大島 5건을 비롯해 仇彌島 [久米島], 閩伊是磨, 德之島, 虎山島, 外島, 津堅島, 伊江島, 鶴島, 薄山島, 鳥島, 久米島 등지로 표착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시기(1397~1870년) 조선 표류인의 유구 표착 기록은 37건에 이른다.⁴⁹⁾ 여기에서 出海 지역을 제주도[추자도 포함]로 설정하여 재산정하면, 37건 가운데 거의 절반에 이르는 19건(51.4%)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제주도와 유구국은 大洋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옛 문헌을 살펴보면 청명한 날에 한라산에 오르면 琉球의 산 빛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처럼 양 지역의 지리적 위치·해류·계절풍의 관계부터가 두 섬의 선박이 표류 후 다다를 수밖에 없었던 숙명적 관계성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표류 제주인들이 유구로의 표류는 일본으로의 표류시와 동일하게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11월~2월 사이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총 19건의 표류 사건 가운데에서는 동풍·동북풍 등의 바람에 의한 유구로의 표류 사례도 발견됨에 따라 표류 제주인들은 항상 서북풍을 의거하여 유구로 표류해 가지 않았음을 염두해 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53건의 중국에 표류한 제주인의 표착지를 살펴보면, 지역명이 미기재된 21건(39.6%)을 제외해 浙江省이 11건(20.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福建省 및 江蘇省(江南省 3건 포함) 각 8건

49) 이수진, 「조선 표류민의 유구 표착과 송환」, 『제73차 류큐(오키나와)와 조선(한국)의 문화교류 육백년 학술대회』, 열상고전연구회, 2015, 68~71쪽의 <표 1> 조선 표류민의 유구 ‘표류-표착-송환’ 참고함.

(30.2%), 廣東省과 遼寧省 각 2건(7.5%), 山東省이 1건(1.9%) 순으로 나타난다. 즉, 중국의 東北지방에 해당하는 遼寧省의 남해안으로부터 華南지방의 해안변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표류해 갔음을 살필 수 있겠으나, 이 중에서도 표류 제주인들은 華東지방의 강소성·절강성을 비롯, 華南지방에 속하는 복건성·광동성에 주로 표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韓·中, 특히 제주도와 중국 사이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존재한다. 제주도의 海況을 보면 쿠로시오 해류가 북상하는 지점에 위치함과 동시에 쓰시마 해협에서 서쪽으로 꺾이어 역전된 순환해류가 황해로 흐르므로 제주인이 탄 배가 북풍을 만날 경우, 이 흐류를 타고 중국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따라서 제주해역에서의 漂流船이 주로 중국 강소성과 절강성·복건성 등지에 집중되는 주요 원인이 바로 沿岸流의 영향 때문임을 알 수 있다.⁵⁰⁾

한편 조선시기 제주인이 臺灣 彰化縣 등지로의 표류는 6건에 이른다. 대만에 제주인들이 표류한 시기는 18~19세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이 때는 청나라가 타이완에 잔존한 명나라 세력을 완전히 진압, 통치권을 장악하여 福建省에 예속시킨 시기였다. 1731년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아버지 鄭必寧을 따라 제주도로 건너온 鄭運經의 쓴 『耽羅聞見錄』에는 1729년 8월 신촌사람 尹道成과 아전 宋完의 대만 표류기 2건⁵¹⁾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표류 제주인의 대만 표류 6건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은 청나라 관원에게 선박의 짐을 조사 받는 가운데 마파에 적힌 天啓라는 명나라 연호로 인하여 북경에서 상부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당시 대만[타이완]으로 표류한 제주인들이 생활되어 들려준 경험담은 당시 명·청과의 관계를 비롯해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가늠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제주인이 安南 會安郡 明德府, 즉 지금의 베트남 중부 해안지방인 호이안[會安]으로 표류해 간 사례가 확인된다. 1687년 9월 金大璜과 타공 李德仁 등 24명[이 중 신촌사람 高尙英은 해남 大菴寺에 글을 배우기 위해 함께 승선함]은 進上馬를 싣고 제주에서 해남으로 향하던 중 표류하여

50) 王天泉, 『漂海錄을 통해서 본 明代 朝鮮 漂流民의 救助研究-濟州를 中心으로』, 제주 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2, 22쪽.

51) 정운경 著·정민 譯,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2008, 62~75쪽.

이역만리 안남으로 표류하기에 이른다. 해당 사례는 『조선왕조실록』, 『비변 사등록』 등의 관찬사료뿐만 아니라, 제주목사 이익태의 『知瀛錄』(1696년) 중 「金大璜 漂海日錄」 및 「陳乾 朱漢源 等 問答」, 제주목사 송정규의 『海外聞見錄』(1706년) 중 「記安南漂還人事」, 정운경의 『耽羅聞見錄』(1732년) 중 「高尙永 安南國 漂流記」, 황윤석의 『頤齋亂稿』(1787년)와 박지원의 『三韓叢書』(1787년 전후), 1727년 역관 이제답이 제주도에 갔다가 고상영을 만나 안남에 표류한 전말을 듣고 기록한 것을 다시 정동유가 기록한 『晝永編』(1805년), 김석익의 『耽羅紀年』(1918년) 등 다양한 문헌 등에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위의 1687년 김대황 일행의 안남 표류기 외에 제주도에는 설화 또는 가창민요로 김복수의 안남 표류기 및 오돌또기가 현재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⁵²⁾ 하지만 학계에서는 김복수 표류기와 오돌또기의 기원, 두 이야기의 상호 연관성, 오돌또기의 전파경로(제주도 ⇌ 육지)을 놓고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복수의 안남 표류기는 睦萬中의 문집인 『餘窩集』 권16 「金福壽傳」 및 제주목사 李源祚의 『耽羅誌草本』 권3 「邊情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목만중이 기술한 「김복수전」의 저술사항 및 그 내용 전반을 살펴보면,⁵³⁾ 이 글은 목만중과 동일한 남인계열의 문사로써 친밀하게 지냈던 후배 姜浚欽이 사헌부 掌令으로 재직(1793년 6월~8월)하고 있던 제주도 출신 邊景祐로부터 김복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지은 글을 기초로, 개작한 것이다. 해당 글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조~효종 연간 24살인 제주도 김녕 출신 김복수가 어느 날 배를 타고 나갔다가 태풍으로 인해 안남으로 표류해 갔다. 이후 유구국에서 표류되어 온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산지 40년이 지나 안남에서 일본에 사신을 보내려 할 때 김복수도 대동하

52) 진성기, 『남국의 전설』 20, 일지사, 1970, 252~255쪽; 김영돈, 「오돌또기」, 『한국민속학』 20, 한국민속학회, 1987.

53) 안대희의 연구논문을 보면, 睦萬中の 「金福壽傳」에 대한 편찬과정 및 시기, 내용 분석, 제주민요 오돌또기와의 연관성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놓고 있음에 따라 해당 논문을 인용·참고하면서 본문을 전개해 나갔음을 밝힌다(안대희, 「餘窩 睦萬中의 표류인 전기 「金福壽傳」, 연구·제주 민요 <오돌또기>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한국문화』 6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게 되었다. 일본에서 일을 마치고 안남으로 돌아갈 즈음 한라산이 보이자, 그는 汲水를 해야 한다는 평계로 뱃사람을 속여 혼자 제주도에 닿았다.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온 뒤, 안남에 두고 온 쳐자식이 그리워 때때로 산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불렀으며, 십여 년을 더 살다 늙어 죽었다.

위 기록에서 김복수가 안남으로의 표류 및 제주도로 귀환한 시기를 추산해 보면, 그가 표류한 때는 24살 되던 인조~효종 연간(1623~1659년)이므로 17세기 중엽이라 추정 가능하다. 또한 귀환한 때는 표류 후 40년(1663~1699년)이 지난 시점에 일본에서 안남으로 귀로 도중 제주도로 도망쳤다 기록되어져 있음에 따라 대략의 연도를 추산해 보면 17세기 말엽이라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김복수의 안남 표류는 김대황 일행(1687년 9월 표류-1688년 12월 귀환)의 표류보다 앞선 가운데, 두 표류 사건 모두 17세기에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대황의 표류 관련 기록은 상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조선왕조실록』 숙종 15년(1689) 2월 13일 기사뿐만 아니라, 1696년 『지영록』을 시작으로 1918년 『탐라기년』 등의 제주목사 및 당대 문사들의 여러 문집에 수록되어져 있다. 하지만 김복수의 표류 이야기는 그가 귀환한 시기를 기점으로, 대략 100~180여 년이 지난 시기인 1793년 목만중의 문집인 『여와집』 및 1845년 이원조 제주목사의 『탐라지초본』 등의 문헌에만 소수 등장하고 있다. 김복수는 김대황 일행처럼 異國 간의 공식적 송환절차를 통해 귀환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안남으로의 귀로 선박에서 혼자 도망치듯 下船한 것이라, 국가 관찬사료에는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성이 높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김복수가 1663~1699년의 이르는 시기에 고향인 제주도로 귀환하였다면, 해당 시기 이후 제주인의 표류 관련 이야기를 담은 제주 관련 인사들의 문집인 『지영록』(1696년), 『해외문견록』(1706년), 『탐라문견록』(1732년) 등에 기록되어져야 마땅할 것이라 판단되나, 해당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현재로서는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18세기 후반 제주 출신 중앙관리였던 변경우의 입을 통해 해당 이야기가 강준홍에게 전해져 글로 기록되었으며, 이를 목만중이 사실로써 인지하고 자신의 문집에 기재하였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복수의 안남 표류 및 제주 귀환은 허구 속 설화가 아닌, 실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해당 표류기는 제주목사로 재임(1841년 윤3월~1843년 6월)했던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속 표류 제주인 관련 항목 내에 포함되어져 있음에 따라 실화일 가능성은 보다 확실시 해준다. 비록 본고에서 제주도로 귀환한 김복수가 안남에 두고 온 쳐자식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가 제주도 민요로 현재까지 구전되고 있는 ‘오돌또기인가’라는 점을 검토·입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1687년 김대황 일행의 안남 표류 이전인 17세기 중엽, 제주인 김복수가 안남으로 표류해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40여 년이 지난 17세기 말, 일본을 거쳐 제주도로 귀환해 온 사건은 사실로써 확인 가능하다.

2) 월별 발생 현황

다음 <표 3>은 이국으로 표류해 간 287건에 대해 표착 국가별 표류 제주인의 발생 현황을 월별로 분석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발생 시기는 표류 제주인이 출항한 시기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 결과 제주도에서의 ‘표류’라는 사건은 연중 다발적으로 발생되었지만, 287건 가운데 8월~9월 사이에 56건(19.5%), 11월과 2월을 전후한 시기에 128건(44.6%)으로 유독 해당 시기에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앞서 표류 제주인의 발생 배경 가운데 자연지리적 배경으로 바람과 해류를 그 원인으로 제시한 바와 같다. 즉, 제주도는 9월~11월이 되면서 겨울철 북서의 영향을 받아 북풍 계열의 바람 빈도가 높아진다. 또한 12월에서 2월에 이르면 강력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게 되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의 연안류가 강하게 변해 확장 범위가 가장 넓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자연적 섭리와 제주인의 표류 발생 시기는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하다.

〈표 3〉 표착 국가별 표류 제주인의 월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불명
일본 (207건)	19	25	15	10	-	3	2	11	21	19	29	29	24
유구 (19건)	2	2	-	-	-	-	-	1	4	-	2	4	4
중국 (53건)	4	6	-	1	1	-	2	9	6	-	-	3	21
대만 (6건)	2	1	-	-	-	-	-	2	1	-	-	-	-
안남 (2건)	-	-	-	-	-	-	-	-	1	-	-	-	1
합계 (287건)	27	34	15	11	1	3	4	23	33	19	31	36	50

표류 제주인의 발생 시기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제주인이 일본으로 표류해 간 시기는 11월·12월(각 29건) > 2월(25건) > 9월(21건) 순이며, 유구는 9월·12월(각 4건) > 1월·2월·11월(각 2건) > 8월(1건)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국은 8월(9건) > 2월·9월(각 6건) > 1월(4건) > 12월(3건) 순이며, 대만은 1·8월(각 2건) > 2·9월(각 1건) 순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김대황 일행의 안남으로의 표류는 9월에 발생되고 있다.

한편 『제주계록』 내 98건의 제주인 표류 사례 가운데 사건 발생 당시의 바람과 그로 인해漂着하게 되었던 국가가 기재된 39건을 살펴보면,(주 12) 참조) 일본 20건·중국 16건·유구 3건에 해당한다. 이때 일본으로 표류한 20건이 맞닥뜨린 바람을 보면 서북풍 12건, 서남풍 8건이며, 중국으로의 표류 16건은 동남풍·동북풍 각 5건, 동풍 1건, 서북풍 5건이다. 또한 유구로의 표류 3건에 해당하는 바람은 동북풍 2건, 서북풍 1건으로 확인된다. 즉, 서남풍·서북풍일 때는 일본으로, 서북풍·동북풍일 때는 유구로,⁵⁴⁾ 동풍 및 동남풍·동북풍일 때는 중국 또는 대만으로 표류해 갔음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표류 발생의 원인으로 바람과 해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표류 제주인 관련 기록상에 주로 언급되는 요인으로 바람에 의한 경

54) 李綱會, 『耽羅職方說』 제1권, 「해양에 西風이 일면 일본에 표류될까 우려되고, 北風이 일면 중산[유구]으로 표류될까 염려된다. 이는 대개 토박이들이 기피하는 바이다.」

우만을 두고 고찰해 보면, 제주해역에서의 표류는 계절적으로 볼 때 서남풍과 서북풍의 북서계절풍이 부는 동절기(11월~2월) 사이에는 일본이나 유구로 표류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동남풍과 동북풍 등 남동계절풍과 함께 태풍의 강한 영향을 받는 하절기(8월~9월)에는 중국 및 대만으로 표류해 가는 경우가 많았음을 파악해 볼 수 있겠다. 결국 전근대시기 제주해역으로부터의航海는 하절기에 발달하는 열대성 저기압에 의한 태풍과 동절기의 강한 북서계절풍 등의 자연적 요인의 지배하에 제주도 경계를 이탈하여 일본·유구·중국·대만 등지로 표류해 갈 수 밖에 없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IV. 맷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조선시대 동아시아 해역세계에서도 ‘濟州島’라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濟州人們이 해상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예기치 않게 발생하였던 ‘漂流’라는 일련의 사건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 사료 속에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는 제주도 표류 관련 사례들을 우선 정리, 연표로 작성함으로써 보다 通時的이고 共時的인 안목을 기반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漂流史의 전체상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표류 제주인들의 항해 전말을 담은 間情기록을 통해 제주인들의 표류 발생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봄은 물론, 그 실태를 계량화하여 파악해 보았다.

이에 앞서 고찰한 해당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조선시대 제주해역을 둘러싼 표류가 어떠한 배경과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는가를 우선 살펴본 결과, 제주도는 邇在海外·四海孤島의 火山島이자 强風多風의 섬, 육지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進上品과 貢物의 생산지라는 자연지리적 입지조건과 더불어 조선조의 정치·사회·경제적인 복합적 제반 상황에 기인하여 제주인들은 자의적·타의적으로 바다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표류라는 일종의 우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해난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컸다. 또한 전근대 제주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諸國들의 해상교류에 있어 어느 정도의 해양환경을 이용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일정한 항로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제주바다 주변의 독특한 해저지형·바람(계절풍)·태풍·해류·조류 등은 이러한 해상활동의 고정적 틀을 파괴시키는 變數로 작동하여 제주해역

을 오고 가는 선박들의 표류를 유발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배경 속에 발생되었던 조선시대 제주인들의 표류 실태를 각종 사료를 통해 ‘出海-漂流-漂着-送還’이라는 표류 頽末을 역추적하여 그 발생 규모와 빈도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제주도 표류의 전체상을 들여다보았다. 그 결과 제주인들은 365건·4,427명[사망자 760명]이 해난사고와 직면하였고, 이들 중 82.8%에 해당하는 3,667명은 해난사고로 말미암아 일본·유구·중국·대만·안남 등지로 표류해 그곳 국가들로부터 구조·송환되어 본국으로 살아 돌아왔음이 확인되었다. 단편적으로 잔존해 있는 역사적 기록 자체에 의거한 통계이지만, 80%를 웃도는 높은 생존율을 본다면 전근대 시기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상호 호의에 입각한 표류인 송환체제가 작동되어지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발생된 제주인의 표류 사례는 본고에 제시되어진 것 이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료들에 더 많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관련 사료들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표류 제주인들이 표착한 異國의 자료에 더욱 풍부한 내용 혹은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담겨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필자의 언어적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보다 많은 자료들을 발굴·분석해 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요컨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그동안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제주도의 漂流史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향후 본고에서 파악한 제주인의 표류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표류 제주인의 존재적 의미를 해명함은 물론, 당시 제주인들의 해상활동 양상과 함께 제주 사회의 경제구조 실태를 재조명해 나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贍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漂人領來贍錄』, 『通文館志』, 『同文彙考』, 『變例集要』, 『濟州啓錄』, 『濟州牧關報牒』, 『濟州風土錄』, 『漂海錄』(崔溥), 『南溟小乘』, 『南槎錄』, 『濟州風土記』, 『耽羅志』, 『知瀛錄』, 『南宦博物』, 『海外聞見錄』, 『耽羅見聞錄』, 『增補耽羅誌』, 『道路考』, 『漂海錄』(張漢喆), 『萬機要覽』, 『經世遺表』, 『耽羅職方說』, 『耽羅誌草本』

2. 저서

국사편찬위원회, 『邊例集要』 上·下, 國史編纂委員會 編, 1974.

고창석·김상옥 譯, 『濟州啓錄』, 제주발전연구원, 2012.

김지남·김경문 雨음, 김구진·이현숙 舊김, 『국역 통문관지』 1~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서귀포시 편, 『濟州啓錄』(영인본), 서귀포시, 1995.

서울대학교규장각, 『漂人領來贍錄』 1~7, 보경문화사, 1993.

이원조 著·고창석 譯, 『耽羅誌草本』 上·下, 제주교육박물관, 2007.

池内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이 훈,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國學資料院, 2000.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 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정운경 著·정민 譯,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2008.

진성기, 『남국의 전설』 20, 일지사, 1970.

한일관계사학회, 『조선시대 한일표류민연구』, 국학자료원, 2001.

3. 연구논문

고동환, 「조선후기 船商活動과 浦口間 商品流通의 양상-漂流關係記錄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1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3.

- _____, 「조선후기 商船의 航行條件-영·호남 해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3, 한국사연구회, 2003.
- 小林茂·松原孝俊·六反田豊, 「朝鮮から琉球へ、琉球から朝鮮への漂流年表」, 『歴代寶案研究』 9, 1998.
- 고창석, 「제4장 대외교류와 해양사」, 『한국의 해양문화』 5-제주해역, 해양수산부, 2002.
- 김나영,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耽羅文化』 3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_____, 「조선시대 濟州島 漂流·漂到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 김영돈, 「오돌또기」, 『한국민속학』 20, 한국민속학회, 1987.
- 김오진,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후와 그에 대한 주민의 대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김태호, 「제주도의 해안지형」, 『탐라문화』 1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 長森美信, 「朝鮮近世海路の復元」, 『朝鮮學報』 199·200, 朝鮮學會, 2006.
- 윤명철, 「漂流의 발생과 역할에 대한 탐구」, 『東아시아古代學』 18, 東아시아古代學會, 2008.
- 손승철, 「조·유 교류체제의 구조와 특징」, 『江原史學』 13·14, 강원사학회, 1998.
- 안대희, 「餘窩 睦萬中의 표류인 전기 「金福壽傳」 연구-제주 민요 <오돌또기>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한국문화』 6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 王天泉, 「漂海錄을 통해서 본 明代 朝鮮漂流民의 救助研究-濟州를 中心으로」,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수진, 「조선 표류민의 유구 표착과 송환」, 『제73차 류큐(오키나와)와 조선(한국)의 문화교류 육백년 학술대회』, 열상고전연구회, 2015.
- 池内敏, 「近世朝鮮人の日本漂着年表」·「近世日本人の朝鮮漂着年表」,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 이 훈, 「인적 교류를 통해서 본 조선 유구관계」, 『조선과 유구』, 아르케, 1999.
- 湯熙勇·劉序楓·松浦章, 「近世環中國海의 海難資料集成-以中國·日本·朝鮮·琉球為中心」, 蔣經國國際學術交流基金會, 1999.
- 정성일, 「全羅道 住民의 日本列島 漂流記錄 分析과 데이터베이스화(1592~1909)」, 『史學研究』 72, 韓國史學會, 2003.
- _____, 「교류의 경로와 풍경-일본 고토렛토[五島列島]를 중심으로-」, 『島嶼文化』 3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0.

Abstract

Background and State of Jeju People's Drift in Joseon Dynasty

Kim, Na-Young*

55)

This paper focuses on a chain of events, ‘drift’, among maritime accidents that had occurred while the Jeju Islanders were conducting maritime activity in a specific location, Jeju island. The cases related to drifting in Jeju Island, which were scatter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historical records, were summarized and chronologically organized. By doing this, the history of drift focused on Jeju Island could be identified based on diachronic and synchronic perspective. With this reference, the background of drift occurrence of Jeju Islanders and its real conditions could ultimately be understood. Through a record of Munjeong, which includes full account of the drifted Jeju Islanders’ voyages, the aspect of Jeju Islanders’ maritime activities and an economic structure of Jeju society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occurrence of drifted Jeju Islanders was caused by the distribution of unique submarine topography such as coral reef around the Sea of Jeju. As the winds (seasonal winds), typhoons, ocean currents, and tidal currents surrounding Jeju Island, it acted as variables to destroy the fixed framework of existing maritime activities and caused the drifting vessels around the Jeju Island. Moreover, the tax collecting system became intensified after the 15th century and there were some local products that

* Curator, World Heritage Offi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uld not be replaced with products in land. To prepare local tribute and tribute to the King for each period and for its transportation, it became unavoidable for the Jeju Islanders to go out to the ocean. Due to this reason, they had high chance to be exposed to unexpected marine accidents such as drift.

Second, through studying the actual situation of drifting of Jeju Islanders in the Joseon Dynasty from many references, the full account of drifting was back-tracked as ‘Go out to sea - Drift - Drifting ashore - repatriation’ After examining its occurrence scale and frequency as time sequence, 365 times·4,427 Jeju Islanders [760 deaths] faced with the marine accidents. Among these, 82.8%(3,667) of Jeju Islanders came back alive because they were rescued and repatriated after they became drifted to Japan·Ryukyu Kingdom·China·Taiwan·Annam because of the marine accidents.

Key words : Jeju Island, Drift, Volcanic Island, Coral Reef, Island of strong and numerous wind, Tax Collecting System.

교신: 김나영 632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 3길 26,
104동 801호(건입동 현대아파트)
(E-mail: knbh6877@naver.com)

논문투고일: 2018. 01. 07

심사완료일: 2018. 01. 26

게재확정일: 2018. 01. 31

조선시대 제주지역 扁額懸板 연구

오창림*

- I. 머리말
- II. 조선시대 제주지역 편액현판의 현황 및 특징
- III. 조선시대 제주지역 주요 편액현판
- IV. 맷음말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제주지역에 유존하는 조선시대 양식의 주요한 편액현판 11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편액서를 쓴 인물의 신분유형을 보면, 제주출신과 유배객 그리고 목민관 및 중앙 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제주출신의 글씨로는 고득종(1388-1452)의 <홍화각>, 정상명(?-?)의 정의향교 <명륜당>, 김용징(1809-1890)의 제주향교 <계성사>가 있고, 유배객의 글씨는 김정희의 대정향교 <의문당>, 제주목 <연희각>, <은광연세>가 있고, 목민관의 글씨로는 김영수(1716-1786)의 <탐라형승>과 박선양(?-?)의 <호남제일정>이 있으며, 제주와 특별한 연고가 없는 중앙관원의 편액서로 이산해(1539-1609)의 <관덕정>과 이종우(1801-?)의 제주향교 <계성사>가 전하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공공건물 이외의 조선시대 편액현판이 아직까지 전해진 예는 거의 없다. 현판양식의 변화는 후기로 갈수록 테두리목을 덧대고 현판 주변부에 문양장식이 가미되긴 하지만 여전히 단순하고 검소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반도의 편액현판

*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의 경우, 장엄과 장식을 통해서 위세를 드러내는 궁중이나 사찰 또는 사대부가의 유물로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주의 경우는 아마도 관가나 일부 규모가 큰 사찰을 제외하면 대부분 초가집이었다는 점과 반도와는 달리 누정문화가 거의 없었던 지역적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왕조교체기 및 端宗의 폐위를 계기로 자발적으로 입도한 제주지역의 문화지배층이라고 할 만한 선비들의 은둔자적 삶의 태도가 적잖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주제어: 관덕정, 연희각, 제주목, 탐라형승, 홍화각.

I. 머리말

제주는 예로부터 신선이 사는 고장으로 ‘東瀛洲’라 불리었다. 봉래·방장과 더불어 삼신산으로 일컫는 한라산을 위시한 천혜의 자연경관은 수많은 문사들에게 선망의 명소였으나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곳은 아니었다.¹⁾ 실제로 섬의 곳곳 경승지의 바위나 벼랑에 새겨진 마애명은 이를 잘 응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바람 타는 섬 제주에는 아무리 경관이 뛰어난 곳이라 해도 樓亭이 거의 없다.²⁾ 누정이 없으니 현판이 있을 리 없다. 때문에 반도와는 다른 문화적 환경을 가진 제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공공건물 이외의 현판이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에는 현재 조선시대 양식의 편액현판은 대략 18점이 남아있다.

이 글은 조선시대 제주지역에 현존하는 주요 편액현판에 대하여 검토하고 한다. 먼저 편액과 현판의 정확한 용어사용을 위해 그 개념을 정리하고, Ⅱ장에서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현판 현황을 문헌에 의거해 개괄하면서 현존 유물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본 뒤에, Ⅲ장에서는 제주지역 주요 편액현판의 내용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겠다.

반도의 경우를 보면 어디든 고건축에는 현판이 걸려있다. 도성의 궁궐과

1) 李源祚, 『耽羅錄』, 耽羅錄序, “耽羅 世所稱 靈仙窟宅 而絕在重溟千里之外 以其絕也 則人憚之 以其靈也 則人願之 願者好奇 而憚者惜身 好奇者少 惜身者多”.

2) 여기서 누정이 거의 없다는 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희문화 또는 휴식공간으로서의 누정을 말한 것이다.

지방의 관아시설, 사찰이나 향교 등 공공의 건물에는 물론이고 사대부의 저택이나 산림처사의 초가에도 어김없이 현판이 걸려있다. 특히 경관이 좋은 곳에는 반드시 누정이 있고, 경관에 상응하는 편액이 있게 마련이고, 후에 이 곳을 찾는 이들 또한 제영으로 화답하면서 현판을 거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왔다. 현판의 종류도 다양해서 건물을 지은 뒤 거기에 상응하는 이름을 짓고 걸었던 편액현판, 처음 건물의 이름을 짓게 된 사연이나 건물의 중창·중수 등의 내력을 적은 기문현판, 그리고 생활을 경계하는 잠언구 또는 시문의 좋은 구절을 적은 주련현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편액현판은 건물을 짓고 나서 그 건물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름을 짓고 최고의 글씨로 장엄하려는 미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편액현판은 건축물의 얼굴이요, 건축미학의 화룡점정이라 할만하다.

최근에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교책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으며, 2016년 4월 19일 189개의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550점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추세와 맞물려 편액현판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³⁾ 제주의 경우도 고창석·김익수의 『삼성사 소장 고문헌·편액』과 홍기표의 『제주의 편액』이 잇달아 출간된 바 있다. 전자는 삼성사에 소장되어 전해지는 편액현판과 기문현판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서예사적 언급이 있었으며,⁴⁾ 후자는 ‘문화유산해설사’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액현판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특기사항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변화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43편의 기문현판에 대한 해석문도 함께 실어 편의를 도모하였다.⁵⁾ 오창림은 「조선 초기 고득종(1388~1452)의 시문과 서예 연구」에서 <홍화각> 및 <홍화각기> 현판에 관한 문예사적 검토가 있었다.⁶⁾

3) 최다은, 「성균관 현판 연구」, 『書藝學研究』 29, 한국서예학회, 2016; 권진호, 「한국 편액의 문화적 가치」, 『한국의 편액 II』, 2016; 유지복, 「경포호 누정 편액의 서예사적 가치」, 『인문과학연구』 49, 강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6; 김익수 외, 『삼성사 소장 고문헌·편액』, (재)고·양·부삼성사재단 2016; 홍기표, 『제주의 편액』, 제주문화원, 2016; 오창림, 「조선 초기 고득종(1388~1452)의 시문과 서예 연구」, 『耽羅文化』 5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4) 김익수 외, 위의 책, (재)고·양·부삼성사재단, 2016.

5) 홍기표, 위의 책, 제주문화원, 2016.

6) 오창림, 앞의 논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현판과 편액의 용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면, 유지복은 「경포호 누정 편액의 서예사적 가치」에서 편액의 유래를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는데, “편액이란 나무에 글씨를 쓰거나 새겨서 전각, 서원, 사찰, 누정 등의 문 위나 건물 벽 위에 걸어놓은 널빤지를 말한다.”⁷⁾라고 편액과 현판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다은은 「성균관 현판 연구」에서 “성균관에는 편액 8점, 주련 2건 8점, 명륜당 내 현판 39점, 존경각 내 현판 2점을 합하여 총 57점의 현판이 있다.”⁸⁾라고 하여 건물의 명칭을 편액, 시문이나 제영을 주련, 건물의 내력 또는 절목, 수칙 등을 기록한 기문을 적은 것을 현판으로 구분하였다. 권진호는 「한국 편액의 문화적 가치」에서 “…… ‘額’은 門屏위에 걸려 있는 평평한 나무를 말한다. 편액의 재료는 나무로 된 널빤지뿐만 아니라 종이나 비단도 사용되었다. 현판이란 용어는 편액과는 개념적으로나 의미상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나며 ‘懸額’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편액은 건물의 이름, 판목, 거기에 쓰인 글씨를 포괄하는 상징화된 개념으로 오늘날의 일상생활로 쓰이는 현판보다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⁹⁾라고 다소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다.

한편 사전적 의미의 현판은 “글씨·그림을 쓰거나 그리든지 또는 칼로 새긴 뒤에 문 위 또는 벽에 다는 널빤지”¹⁰⁾를 가리키고, 扁額은 “비단·종이·널빤지 따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거는 頭子를 일컫는 말로 扁題”¹¹⁾라고 되어있다. 이처럼 편액과 현판은 명확한 개념의 구분 없이 편의대로 호용하고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편액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漢나라 고조 6년(기원전 201)에 蕭何가 ‘蒼龍’, ‘白虎’라는 署書를 썼다¹²⁾는 기록이 있으며, 許慎은 『說文解字』에서 “‘扁’은 ‘署’와 같다. ‘戶’와 ‘冊’을 따르며, ‘戶冊’은 관청의 대문에 쓰는 글자”¹³⁾라고 하였다.

7) 유지복, 「경포호 누정 편액의 서예사적 가치」, 『인문과학연구』 49, 강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6, 323쪽.

8) 최다은, 앞의 논문, 2016, 144쪽.

9) 권진호, 앞의 논문, 2016, 296쪽.

10) 신기철·신용철,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89, 3713쪽.

11) 신기철·신용철, 위의 책, 1989, 3531쪽.

12) 琴河淵·吳采錦 엮음, 앞의 책, 711-712쪽, “蕭子良云 署書 漢高祖六年 蕭何所定 以題蒼龍白虎二闕.”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경덕왕이 재위 23년(709)에 白月山南寺을 창건한 뒤 미륵상을 조성하여 金堂과 講堂에 각각 봉안하고 그 편액을 ‘現身成道彌勒之殿’과 ‘現身成道無量壽殿’이라 한 기록¹⁴⁾을 편액의 효시로 보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현판은 글씨나 그림을 새긴 널빤지라는 형식적인 면에 방점이 있으며, 편액은 현판보다 다양한 재료적 바탕위에 쓰인 글씨나 그림의 내용적인 면에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편액은 扁題라고도 하듯이 1차적 예술품으로써 문학적·사상적 함의를 가진 서예·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고, 현판은 1차적 예술품인 편액이나 識記·題詠 등이 書者·刻手·木工·畫工들의 손에 의해 널빤지에 새기고 테두리목을 두르고 문양이나 단청으로 장식 하는 등의 부차적 공정을 아우른 종합예술품이라 할 수 있겠다.

근래에 조선시대 제주삼읍의 관아시설, 읍성 성곽의 성문과 문루, 삼향교 및 서원을 위시한 기타 명소의 건축물들을 옛 모습대로 복원했거나 그 과정에 있다. 이 연구는 문화재 복원과정에서 필수적을 수반되는 편액현판의 복제 또는 복원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현판의 기록이나 시문 등 사료적 가치에서 편액 글씨로의 서예사적 인식의 확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조선시대 제주지역 편액현판의 현황 및 특징

제주지역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양식의 편액현판은 제주목관아 5점, 제주향교 5점, 정의향교 3점, 대정향교 4점, 김만덕기념관 1점을 합해서 18점이다.¹⁵⁾ 이를 현판의 편액서를 쓴 인물을 신분유형별로 구분하면 제주

13) 琴河淵·吳采錦 엮음, 『段玉裁注 說文解字 聲符辭典』, 日月山房, 2013, 711쪽, “扁署也。從戶冊。戶冊者 署門戶之文也”。

14) 『三國遺事』卷3, 塔像第四, 南白月二聖 努盃夫得 恒桓朴朴, “白月山兩聖成道記云(中略)天寶十四年乙未 新羅景德王卽位 聞斯事 以丁酉歲 遣使創大伽藍 號白月山南寺 廣德二年 甲辰七月十五日寺成 更塑彌勒尊像 安於金堂 額曰現身成道彌勒之殿 又塑彌陀像 安於講堂 餘液不足 塗浴未周 故彌陀像亦有斑駁之痕 額曰現身成道無量壽殿”。

15) 18점의 편액현판 가운데 세 향교의 대성전·대성문 그리고 제주향교 명륜당과 대정향교 명륜당 편액현판은 서울 성균관의 현판을 탁본한 뒤에 번각한 것이며, 이를 포함하여 문헌에 존재하는 편액을 모두 합하면 70여종이 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홍기표는

출신과 목민관 및 중앙관원 그리고 유배객으로 나눌 수 있다. 제주출신의 작품으로 3점이 남아있는데 고득종의 <홍화각>, 정상명의 정의향교 <명륜당>, 김용정의 제주향교 <계성사> 편액현판¹⁶⁾이 있다. 목민관의 글씨로는 관덕정 안의 조선후기의 목사로 부임했던 김영수의 <탐라형승>과 박선양의 <호남제일정>이 있고, 제주와 특별한 연고가 없는 중앙관원의 편액으로 조선전기 이산해의 <관덕정>과 조선 후기 이종우의 제주향교 <계성사>의 편액이 있다. 이 밖에 제주지역 세 향교의 대성전과 향교 외문인 대성문의 글씨는 한호의 글씨이고, 제주향교 명륜당 및 대정향교 명륜당의 현판의 경우 중국 송대의 학자 주희의 글씨인데, 이는 모두 성균관의 편액현판을 탁본하여 번각한 것으로 보인다. 유배객의 글씨로는 조선 후기의 김정희가 쓴 <은광연세>, <연희각>, <의문당> 등이 남아있다.¹⁷⁾ 이밖에 문헌에는 적객 권진옹이 1771년(영조 51) 3월에 대정현 창천리에 유배되어 ‘산수헌’이라는 당호를 짓고 지명과 연계하여 ‘滄洲精舍’라고 편액한 기록 등은 있으나 아쉽게도 유물은 전하는 것이 없다.

조선시대 제주지방 통치의 중심지였던 제주목 관아는 관덕정을 포함하는 주변 일대에 분포해 있었으며, 이미 탐라국시대부터 星主廳 등 주요 관아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1434년(世宗 16) 화재로 官府의 건물이 모두 없어진 뒤, 그 다음해인 1435년에 목관아의 골격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내내 중·개축이 이루어지다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훼철되어 관덕정을 빼고는 그 흔적을 볼 수가 없었다. 1993년 3월 30일에 제주목 관아지 일대가 국가사적 제380호로 지정되면서 2002년 12월에 발굴과정에서 확인된 초석·기단석 등을 토대로 『탐라순력도』와 『탐라방영총람』 등 문헌을 참고하여 건축물을 복원하고 편액현판도 개수하여 달았다. 현재 제주목관아에는 유존건물 관덕정에 3점(관덕정, 탐라형승, 호남제일정), 복원된 건물 진해

‘제주지역의 고건축 중에 유존하거나 복원된 건물 27개소는 물론 문헌에 존재하는 미 복원 건물 38개소를 포함한 총65개’의 편액을 소개하고 있다(홍기표, 앞의 책, 제주문화원, 2016, 15쪽).

16) <계성사>현판은 오점이 편액한 현판이라는 설(홍기표, 앞의 책, 2016, 93쪽)이 있어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17) 김정희는 유배말기에 부임한 장인식목사와의 인연으로 다수의 편액(영혜사, 좌연각 등)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루(진해루, 탐라포정사), 우련당, 홍화각, 연희각, 망경루, 영주협당, 굴림당)에 11점의 편액현판이 걸려있는데, 미복원 건물 4채를 포함한 12채에 16개의 편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제주의 경우 제주향교는 대설위이며 정의향교와 대정향교는 소설위 향교이다. 대설위인 제주향교는 1392년(태조 1)에 창건되어 십여 차례 중건과 중·보수 및 이전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2년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대성전이 보물 제1902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그림 1〉 대성전, 제주향교

현재 제주향교에 남아있는 편액현판의 경우 대성전과 대성문 그리고 명륜당은 서울의 성균관 현판을 번각한 것이다. <명륜당>현판을 제외하고는 제작시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대성전>(그림 1)이나 <대성문>의 현판은 언제 각을 하여 걸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성균관 현판의 제작 시기를 1601년~1605년으로 추정¹⁹⁾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제주의 경우 이보다 훨씬 후대에 번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성전>(그림 1)은 조선의 명필 석봉 한호의 필적이다. 방정하고 장중한 해서체로 쓰였다. 당시 서예의 흐름은 조선시대를 관통하던 송설체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퇴계의 송설체 일색의 편중을 비판한 이후 흡나라의 古法을 따르는 추세였다. 하지만 진대의 고법에는 대자필법이 없었으므로 설암

18) 관덕정에는 한 건물에 3개의 편액현판이 걸려 있는 경우이고, 진해루는 이층 누각으로 탐라포정사의 현판과 위·아래층에 걸려 있다.

19) 최다은, 앞의 논문, 2016, 145쪽.

의 대자서 필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²⁰⁾ 가로획의 수필부에 뭉툭한 형태가 바로 원대의 설암체 특징인데, 고려 공민왕 이후 송설체와 더불어 설암체가 조선의 전시대에 영향이 빼쳐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의향교 대성전과 대정향교의 대성전 역시 한호가 쓴 편액을 번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륜당은 유교경전을 강학하던 공간으로, 『맹자』 「등문공」편에서 유래한 ‘명륜’은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행하는 것이 모두 인륜을 밝힌다는 뜻이다.²¹⁾

상과 서와 학과 교를 세워서 백성을 가르칠 것이니 상은 기르는 것이요, 교는 가르치는 것이요, 서는 활을 쏘는 것입니다. 夏나라는 ‘校’라 하였고, 殷나라는 ‘序’라 하였고, 周나라는 ‘庠’이라 하였으며, 학은 곧 삼대가 같이 썼으니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륜이 위에서 밝혀지면 소민은 아래에서 친할 것입니다.

제주향교의 명륜당 현판은 주희가 쓴 서울 성균관의 내부현판과 같은 것으로 1778년(정조 2) 황최언 목사가 탁본·번각하여 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²²⁾ 그리고 대정향교의 명륜당 현판은 현판좌측면에 1812년 대정현감 변경봉이 걸었다고 부기하고 있다. 한편 정의 향교의 경우 주자의 글씨가 아닌 지역의 인사의 글씨를 달았는데 ‘동자 정상명’으로 낙관이 되어있어서 세간의 관심을 일으킨다. 향교의 출입문인 대성문도 세 향교 공히 한호의 필적의 편액현판을 게시하였다.

〈표 1〉 조선시대 제주지역 편액현판²³⁾

구분	건물명	현판	서체	작가	제작시기	크기(cm)	비고
1	홍화각	홍화각	해서	고득종	1435	163×66	제주목
2	관덕정	관덕정	행해	이산해	1559~1562		제주목
3	관덕정	탑라형승	행서	김영수	1780		제주목
4	관덕정	호남제일정	해서	박선양	1882		제주목
5	연희각	연희각	행서	김정희	1848~1850	190×76	제주목

20) 최다은, 앞의 논문, 2016, 154쪽.

21) 『孟子』, 鵬文公 三, “設爲庠序學校 以教之 庠者 養也 校者 敎也 序者 射也 夏曰校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 人倫 明於上 小民 親於下”.

22) 홍기표, 앞의 책, 제주문화원, 2016, 90쪽.

23) 제주출신 3인의 글씨가 3점, 목민관 2인의 글씨가 2점, 유배인 1인의 글씨가 3점, 기타 제주와 특별한 연고가 없는 4인의 글씨가 5종 10점이다.

6	대성전	대성전	해서	한호	?	216×99	제주향교
7	명륜당	명륜당	해서	주희	1778	216×74	제주향교
8	계성사	계성사	해서	김용정	1854	149×79	제주향교
9	계성사	계성사	해서	이종우	1854~1855	113×43	제주향교
10	대문	대성문	해서	한호	?		제주향교
11	대성전	대성전	해서	한호	?	216×99	정의향교
12	명륜당	명륜당	해서	정상명	1635		정의향교
13	대문	대성문	해서	한호	?		정의향교
14	대성전	대성전	해서	한호	?	216×99	대정향교
15	명륜당	명륜당	해서	주희	1812		대정향교
16	대문	대성문	해서	한호	?		대정향교
17	동재	의문당	해서	김정희	1846	78×35	대정향교
18		은광연세	예서	김정희	1840	98×31	김만덕 기념관

앞서 언급한대로 제주지역에서 공공건물 이외의 조선시대 편액현판이 남아있는 예는 거의 없다. 이는 한반도의 경우 사찰이나 사대부가의 유물로 편액현판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관가나 일부 규모가 큰 사찰을 제외하면 대부분 초가집이었다는 점과 또한 반도와는 달리 누정문화가 거의 없었던 지역적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왕조교체기 및 端宗의 폐위에 반대하여 자발적으로 입도한 제주지역의 문화지배층이라고 할 만한 선비들의 은둔자적 삶의 태도가 적잖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제주의 전통초가는 바람이 많은 환경 탓에 지붕이 낮고 처마에 풍채를 달아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판을 달만한 공간을 앗아버렸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주지역에도 조선 초기에 몇몇 큰 사찰의 경우 현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말선초의 왕조교체기 佛字의 褪철로 인해 석재유물만 유전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찰의 건축양식에 있어서도 반도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일주문에서 금강문, 천왕문을 지나 대웅전을 비롯한 사격을 제대로 갖춘 경우가 드물었으며,²⁴⁾ 대체로 한 건물에 불상과 산신 등을 모시는 인법당 형식의 소규모 사찰에서는 건축비용이나 기술자 확보 등의 문제로

24) 홍병화, 「제주도 사찰건축의 역사와 실체에 대한 모색」, 『제주사찰 건축물의 역사와 실체 모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 사단법인 탐라정보문화원, 2017, 19쪽.

인하여 대부분 초가지붕이었을 것²⁵⁾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들은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편액현판이 대부분 공공건축물에 한정되는 결과로 나타났고, 이는 현판양식의 단순함과 서체에 있어서도 방정하고 단엄한 해서체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편액현판은 시기별로 양식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조선 전기의 현판인 <홍화각> 및 <관덕정> 두점 모두 흰색 바탕에 검은 색 글씨에 테두리목이 없는 민현판의 양식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반면, 후기의 작품들에서 대부분 테두리목을 두르고 있다. 특히 김정희의 편액현판에서는 테두리부분에 꽃문양장식을 시문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양식적 특징이 시대적 특징뿐만 아니라 제작자의 개인적 취향 등의 영향²⁶⁾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판목재는 제주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구실잣밤나무·산벗나무·느티나무·붉가시나무·비자나무 등이 이용되었는데 이 또한 반도의 경우 소나무가 사용되는 예외는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III. 조선시대 제주지역 주요 편액 현판

<홍화각>(그림 2)은 조선 초기의 제주목사의 집무실로 쓰던 상아동헌의 편액현판이다. <홍화각> 현판 형태는 바닥판재만으로 이루어졌고, 글자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양각기법으로 새기고 바탕은 흰색에 글씨는 검게 칠하였다. 크기는 가로 163cm, 세로 66cm이다.

<홍화각> 현판은 대부분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조선시대 초기 현판의 제작기법과 서체 그리고 고득종 연구에 매우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1월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었다. 제주도가

25) 지태승, 「제주지역 사찰 전각의 양식상 고찰」, 『제주사찰 건축물의 역사와 실체 모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 사단법인 탐라성보문화원, 2017, 48쪽.

26) “사역은 어떻게 해야 기일 안에 과연 끝마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가 많다. 편액을 새기는 일도 당장 시도해야 하는데, 이 곳에 각을 잘하는 이가 근래에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이것도 걱정이다. 그렇다고 다른 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이전 사람만 못하다네(寺役間果何以了當耶 爲之念念 扁刻 當圖之 而此中善刻者 間已化去是切悶 然非無他手 皆不及前手耳)(김정희, 『완당전집』권3, 1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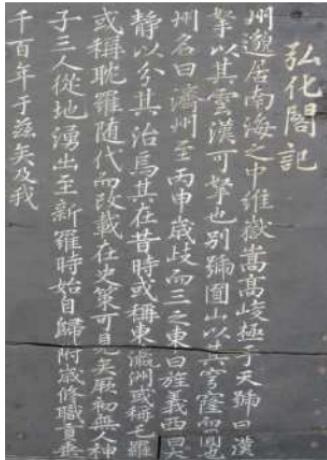
〈그림 2〉 홍화각, 三姓祠

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지난 2001년 8월 충북대학교 목재연륜소재은행에 의뢰해 방사성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1326~1356년 무렵의 비자나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1435년 홍화각 초창 당시의 현판으로 현존하는 국내 현판 중 최고로 추정하고 있다.²⁷⁾ 홍화각은 제주목관아가 불에 타 없어지자 1435년(세종 17) 안무사 崔海山에 의해 창건된 이후 1648년(인조 26) 목사 金汝水, 1772년(영조 48) 목사 梁世絰에 의한 2차례의 중수, 그리고 1829년(순조 29) 목사 李行敎에 의해 개건이 이루어졌으며, 1940년 여름 일제에 의해 철폐되었던 것을 1999년 복원설계를 시작하여 2002년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홍화각>의 ‘弘化’는 임금의 교화를 넓힌다는 뜻이다. 안무사 최해산(1380-1443)의 제안을 받든 고득종(1388-1452)은 「홍화각기」에 누각의 명명에 관한 내력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공이 하루는 각에 올라 고을 원로들을 소집하고 낙성을 하면서 또한 누각의 이름을 지으려 하였다. 한 원로가 말하기를, “제주는 고을 북쪽에 큰 바다를 접해있어 넓고 넓어서 천리가 한 눈에 들어오고, 남쪽에는 높은 산을 마주하여 울창한 푸름은 사시사철 한결같습니다. 겨울에도 심한 추위가 없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많으며, 집집마다 굴과 유자, 어디에나 화류마를 볼 수 있습니다. 바람에 떠도는 구름의 형상과 달빛과 이슬의 광채는 아침저녁으로 변화하여 그 모습이 천만갈래입니다. 이곳으로 왕명을 받은 자들은 여기에 오를 것이고 여기에서 쉴 것입니다. 푸른 산 빛과 파도소리는 책상머리에서 나누어지고 기이한 풀꽃들은 고개를 돌리면 어디에나 무리지어 있습니다. 예전에 누각이 있어서 ‘만경’이라고 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다행히 이제 다시 누각을 지었으니 마땅히 ‘만경’이라는 이름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하니, 공께서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각을 세운 것은 경치를 완상하

27)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7156>.



<그림 3> 홍화각기(부분), 三姓祠

가 한번 이 ‘각’에 오르면 노름에 빠지지 않고 제 맘대로 하고자 하지 않아서, 위임된 책무를 다하며 늘 왕의 교화를 넓히고 백성의 뜻에 통달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는다면 주나라의 다스림이 오늘날에 다시 구현될 수 있을 것이오, 제주사람들은 당연히 복을 받음이 무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홍화’로써 이 ‘각’의 이름을 붙이지 않겠습니까?”²⁸⁾

위의 기록에 의하면 ‘홍화각’이 소실되기 이전에는 ‘萬景樓’였으며, 여기에 오르면 산과 바다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아 당초에 이충누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홍화각의 편액을 쓴 高得宗(1388-1452)은 제주출신으로 字는 子傅, 號는 靈谷, 圓山이다. 조선 세종대의 무를 겸비한 문신으로, 당시 예조참의를

기 위해도 아니며, 놀이나 관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옛날 문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周公은 내치를 담당하고 召公은 외치를 맡아서 교화가 사람들에 미치는 것이 사람이 움직이듯 했습니다. 점점 교화의 은혜가 이루어지니 바야흐로 이 사람들은 덕화에 고무되어 그 기질이 바뀌게 되었으니, 어찌 두 분의 도움이 ‘홍화’를 이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군께서 위에 계시고 대신들이 보필하며 대신들이 동료로서 공손히 협동하며, 어진 사람을 구하여 지방을 나누어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은택이 다하지 못하고 다스림과 교화가 흡족하지 못한 것은 위임이 혹 마땅한 사람이 아니어서 봉행함이 그 이치를 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릇 임금의 근심을 나누어 가진 자

28) 『靈谷遺稿』, 弘化閣記, “公一日出坐閣上 召集鄉中父老 以落其成 且圖所以名之也 或有言曰 濟爲州北枕巨海 浩浩蕩蕩 一目千里 南對崇岳 鬱鬱蒼蒼 四時一色 冬無苦寒 夏多涼風 家家橘柚 處處驛驘 風雲之狀 月露之形 朝暮變化 千萬其態 而承命于茲者 登於斯 休於斯 山翠濤聲 常分於几案之上 奇卉異草 悉萃乎 顧眄之間 古有樓而名 萬景者此也 幸今有閣 宜復萬景之名 公曰不然 予之建閣 非爲觀景也 非爲游觀也 昔文王之時 周公治於內 召公治於外 化之及人 如風之動 漸之被之暨之 而當世之人 莫不鼓舞於德化 變易其氣質 豈非二公贊襄弘 化之致歟…凡分憂者 日登此閣 無佚遊無縱欲 思盡委任之責 常以弘王化達民情爲心 則周之治 可復見於今日 而濟之民 當受福於無窮矣 然則蓋以弘化 名此閣乎”.

그만두고 낙향하여 안무사 최해산을 도와 제주목관아 재건에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고 있었다. 고득종은 당대의 문장가이자 명필로 『해동명적』²⁹⁾에 이름이 올라있으며, 『槿域書畫徵』에서 오세창은 고득종을 평하여 “그의 문필이 모두 고법에 펓진하다”³⁰⁾고 했으며, 또한 김석익(1885-1956)은 “우리 고을에서 글씨를 잘 쓰는 이는 판윤 고득종이 제일이다. ‘홍화각’이라 쓴 석자는 필력이 노련하고 굳세며, 예스럽고 기이하다. 지금까지 남아있다.(그림 2)³¹⁾”라고 하여 고득종을 제주서예의 祖宗으로 삼았다.

고득종은 당대 서예계를 풍미했던 송설체의 흐름을 쫓기 보다는 위·진의 고법을 고수했으며,³²⁾ 또한 당시 편액의 흐름은 설암체가 대세였음에도, <홍화각> 석자의 체세를 보면 <홍화각기>(그림 3)의 소자서의 필세와 변함없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글자의 대·소를 구분하지 않고 붓을 운필하는 능력이 탁월했음을 알 수가 있다.

<관덕정>(그림 4)은 민현판이며,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돋을새김 되어 있다. ‘射場’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속도감으로 행서기운이 넘치는 해서 편액이다. <홍화각>현판과 더불어 조선 전기의 소박한 현판양식을 보이고 있다.

관덕정 창건당시 기문에 ‘동지중추원사 고득종의 요청으로 안평대군이용이 제액하였다’³³⁾고 한 기록을 보면 초창 현판은 안평대군의 편액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상현의 『남사록』에 의하면 ‘안평대군의 편액현판은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지금 걸려 있는 것은 鵝溪의 필적이다’³⁴⁾고 신석조의 기문에 부주를 달아 놓았다.

29) 『海東名跡』은 조선 중종 때의 서예가이며 문신인 申公濟(1469~1536)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역대명가 45인의 글씨를 모아서 석각한 것을 택본하여 전·후집 2책으로 엮은 것이다.

30) 吳世昌, 『國譯 檿域書畫徵』 上, 東洋古典學會, 시공사, 1998, 186쪽, “常帶修文殿提學하니 文筆이 皆逼古하다(海東號譜)筆跡摸刊(海東名跡)(草露貫珠)”.

31) 金錫翼, 『心齋集』, 破闕錄 上, “我州善書 高判尹得宗爲第一 所書弘化閣三字 蒼勁古奇 至今猶存”. 김석익은 제주출신의 향토사학자요, 서예가이다. 호는 心齋 또는 一笑道人, 海上佚史이다.

32) 오창립, 「조선 초기 고득종(1388~1452)의 시문과 서예 연구」, 『耽羅文化』 5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259쪽.

33) 金尙憲, 『南槎錄』, “題額則余已請于安平大君以責之”.

34) 金尙憲, 위의 책, “又宗英之寶翰, 匪解堂額字失於火 今之所揭乃鵝溪筆跡也 又欲記其事以圖不朽者”.



〈그림 4〉 관덕정, 관덕정



〈그림 5〉 옥산서원, 옥산서원

김상현의 기록을 토대로 현재의 <관덕정>과 李山海(1539-1609)가 1573년(선조 6)에 쓴 사액현판인 <옥산서원>(그림 5)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필세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가령 <관덕정>에서 ‘德’자의 제 4획(一)과 <옥산서원>에서 ‘院’자의 제 7획(元)이 오른쪽 위를 향하여 붓을 쳐들고 거둔 필세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관덕정>보다 <옥산서원>에서 획질의 묵직함이라든지, 위의 예를 제외한 가로획의 수필부에서 아래로 붓을 내려서 거두는 등 여유와 원숙한 필세를 보이는 점으로 볼 때 <관덕정>의 편액이 보다 이른 시기에 쓴 것으로 보인다.³⁵⁾ 한편 1602년(선조 25) 김상현의 『남사록』 이후 편찬된 1653년(효종 4) 이원진의 『탐라지』³⁶⁾나 1843년(현종 9) 이원조의 『탐라지초본』³⁷⁾ 그리고 1953년 담수계의 『중

35) 이산해는 6세에 이미 초서 글씨 신동으로 이름났으며, 약관(1562, 명종 17)에 홍문관正字의 신분으로 어전에서 대자글씨를 써 보이기도 했다(『명종실록』 권28, 명종 17년 3월 5일조, “前者禮曹抄啓能書人, 牙善君 魚季瑄、同知李渾、正字李山海、都事申孝仲、奉事申孝武、生員成子濟、進士李研·沈仁謙、幼學閔起貞九人。竝速招來入殿, 令書楷、草大字于唐紙”).

36) 李元鎮, 『耽羅志』, 樓亭, “觀德亭 在弘化閣南 辛淑晴建 成化庚子 牧使 梁瓊 重修 安平大君 題額”.

37) 李源祚, 『耽羅志草本』, 觀德亭, “在弘化閣南 世宗 戊辰 牧使 辛淑晴 創建 板額 安平大君筆”.

보탐라지』³⁸⁾ 등에는 여전히 ‘관덕정’ 편액을 안평대군이 쓴 것을 기록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후대의 사가들이 『남사록』의 내용을 간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덕정은 제주목 병사들의 활쏘기 훈련을 하는 곳으로, ‘觀德’은 『禮記』「射義」편에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보는 것이다.”³⁹⁾라고 한데서 유래하였다. 관덕정은 1448년(세종 30) 안무사 신숙청이 창건한 후 1480년(성종 11)에 목사 양찬에 의해서 중수되었다. 이 때 쓴 徐居正의 중수기에 의하면 관덕정은 “이 亭을 만든 것은 놀이나 관광이 아니라 본래 설치함이 武闈을 위한 것인 즉, 지금부터 제주의 사람은 날마다 이에 射習하되 과녁을 쏠 뿐만 아니라 騎射를 익힐 것이요, 기사뿐만 아니라 戰陣法을 익힘으로써 賊變이 있을 때는 삼읍 백성들이 常山之勢로 수군, 육군, 보병, 기병이 각각 나와서 사력을 다하여 싸워 적군의 목을 베어 이로써 부모처자를 구하고, 이로써 한 고을을 보전하며, 이로써 나라의 간성이 되어 역사에 功名을 세운다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⁴⁰⁾라고 하여 그 세운 바를 펼쳐 보였다.

그 후 1559년(명종 14), 1690년(숙종 16), 1753년(영종 29), 1779년(정조 2), 1833년(순조 33), 1851(철종 2), 1882년(고종 19) 방어사 박선양에 의해 보수되는 등 총 7차에 걸쳐 중수하였고, 이후 1924년 일본인 島司 前田善次가 보수하면서 15척이나 되는 곡선의 처마를 2척이나 줄여 보수하니 전통적인 멋과 원형은 사라져 버렸다. 해방 후 1948년 9월에 관덕정은 제주도의 임시도청으로, 1952년도에는 도의회 의사당으로, 북제주군청의 임시청사로, 그리고 1956년에는 미공보원 상설 문화원으로 사용되는 등 순탄치 못한 역정을 견디어 오다가 1959년 국보 제478호로 지정되었고, 1963년 보물 제322호로 재지정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8) 淡水契, 『增補耽羅志』, 觀德亭, “濟州邑 三徒里 布政門外에 在하니 卽訓練士卒所接處라. 3781(檀紀)年 戊辰 世宗 十年에 牧使 辛淑晴이 創建하고 安平大君이 題額하다”.

39) 『禮記』, 射義 46, “古者 諸侯之射也 必先行燕禮 卿大夫士之射也 必先行鄉飲酒之禮 故燕禮者 所以明君臣之義也 鄉飲酒之禮者 所以明長幼之序也 故射者 進退周還 必中 禮內志正外體直 然後持弓矢審固 持弓矢審固 然後可以言中 可以觀德行矣”.

40) 『增補耽羅誌』, 樓亭條, 觀德亭, 徐居正重修記, “況是亭之作 非爲遊觀而設 本爲閱武也 則自今州之人 日日習射于茲 非徒射堠于以習騎射 非徒騎射于而習戰陣 及有賊變舉三邑之衆 作常山之勢 水陸步騎 各出死力 爭斬賊首 以之救父母妻子 以之保一邑 以之爲國干城 樹功名於竹帛 豈不幸哉”.



〈그림 6〉 명륜당, 정의향교

관덕정에는 관덕정 현판 외에 건물 내부에 2점의 현판이 더 걸려있는데 탐라형 승과 호남제일정이 그것이다. 그리고 실내 벽면에 그려져 있는 작자 미상인 벽화 또한 상당히 격조 높은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내용은 杜甫의 醉過楊州橘

滿轎·商山四皓·赤壁大捷圖·大狩獵圖·陣中西城彈琴圖·鴻門宴·十長生圖 등이다.

정의향교의 <명륜당>(그림 6) 편액현판은 돌을 새김으로 황적색의 바탕에 흰색으로 칠을 하였다. 검은 색의 데두리목이 둘러져 있는데 현판아래부분이 조금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현판 좌측에 “1635년(인조 13) 동자 정상명의 글씨[崇禎八年正月童子鄭尙明書]”라고 쓰여 있다. 방정하고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필세가 동자의 필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童子가 필자의 雅號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⁴¹⁾ 정상명(생몰미상)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찾을 수 없고, 다만 “정상명은 인조 연간에 안좌리(현, 표선면 가시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민하고 글씨를 잘 썼다.⁴²⁾”라고 알려져 있어서 실제 정의향교에 다니던 학동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정의향교는 창건연대가 정확하지 않으나, 현의 설치가 1416년(태종 16)이므로 이 때에 향교도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성전 현판은 제주향교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성균관 현판을 탁본하여 번각한 것으로 한호의 필적이다.

<耽羅形勝>(그림 7)은 관덕정의 내부에 걸려있는 목사 김영수⁴³⁾(1716-1786)의 행서필적이다. 협서에 “승정기원후 삼 경자년(1780) 겨울에 영주주인 65세 늙은이 화산인 김영수 취필[崇禎紀元後三庚子冬瀛洲主人六旬五歲翁

41) 홍기표, 앞의 책, 제주문화원, 2016, 141쪽.

42) 오문복, 『정의군지』, 남제주문화원, 2005, 186쪽.

43) 1778년(정조 2) 남도병마절도사로 재임중 같은 해 12월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1781년 이임함.



〈그림 7〉 탐라형승, 관덕정

花山人金永綬醉筆]”이라고 되어 있듯이 호방한 무인의 운치를 한껏 드리웠다. 상당히 큰 글씨임에도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형세에서, 신선이 사는 고을의 주인답게 획과 획, 글자와 글자 사이에 저촉됨이 없이 활달 자재한 운필의 묘를 느낄 수 있다. 제주도 편액현판의 ‘백미’라 할만하다. 탐라형승의 ‘형승’은 뛰어난 지세나 풍경을 뜻하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 중요한 형세를 갖춘 곳이라는 뜻이다.

한편 제주의 명승지 절벽에는 김영수가 남긴 필적이 적지 않다. 방선문에 이르러 ‘신선을 불렀다.’고 하는 ‘환선대’(그림 8)⁴⁴⁾라는 초서 마애명 역시 그의 호방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걸작이라 할만하다. 그 옆에다 절구 한수를 지어 같이 새겨놓았으니 다음과 같다.

별난 골짜기 천지는 아름답고 [別壑乾坤大]
석문에 들어서니 세월은 한가롭네 [石門日月闊]
세상에 특별한 곳이 없다고 말하지 마소 [莫云無特地]
진짜 신령한 산이 있다오 [眞箇有神山]
꽃은 시들어도 봄 경치는 완연하고 [花老三春色]
바위굴은 태고의 모습 그대로 [岩竇太古顏]
뚜르르 뚜르르 학 울음 들리니 [戛然鳴鶴至]
내가 선 이곳이 선계임을 알겠네 [知是在仙間]

〈恩光衍世〉(그림 9)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남은 사가의 편액현판으로 김정희⁴⁵⁾(1786-1856)의 필적이다. 김만덕의 행적을 기리듯 부드러우면서 푸근

44) 오문복 외, 『제주도 마애명』, 제주도, 2000, 49쪽.

45) 추사는 1840년(현종 6) 윤상도의 옥사에 연좌되어 제주에 정배된 8년 3개월과 해배 후 3개월여 동안 많은 필적을 남겼다. 세한도와 불이선관 등의 걸작이 제주 유배시절의



<그림 8> 환선대



<그림 9> 은광연세, 김만덕기념관



<그림 10> 의문당, 제주추사관

한 예서체로 쓰였고, 그 내력을 좌측에 반듯한 해서로 헙서하여 ‘완당’이란 도장으로 마무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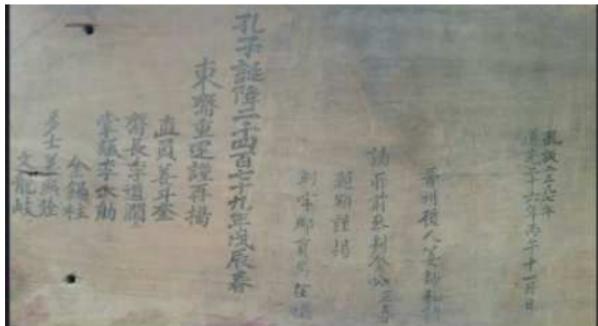
1840년에 쓴 것으로 크기는 가로 98cm, 세로 31cm 이다. 현재 김만덕기념관에 소장 전시되어 있다. 당시 제주에 유배 온 김정희가 제주사람들 입에서 대기근에 처한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내 놓은 의인 김만덕을 세상 떠난 지 30년이 넘도록 칭송이 이어지는 것을 듣고, 그 선행을 기려 김만덕 가문 3대손에게 써준 것이다.⁴⁶⁾

<의문당>(그림 10)은 추사 김정희의 친필 편액으로 대정향교 명륜당 동재에 걸렸던 현판이다. 현재 제주추사관에 소장 전시되어 있고, 대정향교 동재에는 복제품이 걸려있다. 현판의 크기는 가로 78cm, 세로 35cm이며 재료는 구실잣밤나무로 추정된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양각되었으며, 테두리에는 연꽃문양이 그려져 있다.

현판 뒷면(그림 11)에는 편액을 부탁하고 현판을 제작한 자세한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두 번에 걸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의 것으로 보이는 기록에는 일제강점기 당시(1928년) 향교의 직임과 성명이 열서되어 있다.⁴⁷⁾

산물이다.

46) http://www.jejusori.net/?re_page=1&mod=news&act=articleView&re_total=1&idxno=79884.



〈그림 11〉 의문당 뒷면, 제주추사관

1846년 11월 진주후인 강사공은 유배중인 전참판 김정희공께 제액을 부탁하여 삼가 걸었다. 각자 향원 오재복, 1928년 봄 동재를 중건하여 삼가 다시 걸었다.

『論語』 「季氏」편에 군자가 가져야 할 아홉 가지 생각 가운데 ‘의심이 들면 물어야 할 것을 생각함’에서 ‘의문당’이라 명명하였다.⁴⁸⁾

한편, 대정향교는 현의 설치가 1416년(태종 16)이므로 이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대성전 현판과 명륜당 현판 역시 서울의 성균관 현판과 동일한 번각이다. 명륜당은 변경봉현감이 번각하여 걸었다는 협서가 현판 좌측에 “자양의 주부자께서 쓰신 글씨로 1812년 9월 9일 대정현감 변경봉은 삼가 걸다.[紫陽朱夫子手筆 崇禎紀元後四壬申重九日 大靜縣監邊景鵬謹揭]”라고 적혀 있다.

<연희각>(그림 12) 편액현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글씨의 음양각으로 새겼으며, 테두리에 다시 검은 바탕색을 입히고 흰색으로 당초문을 그려 넣었다. 재질은 구실잣밤나무로 추정되며 테두리목으로 마감하였다. 현판의 크기는 가로190cm, 세로 76cm이다.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청을 건축하면서 헐리는 과정에 외부로 유출되었다가 최근 제주시에서 매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글씨는 추사 김정희의 작품으로 추정⁴⁹⁾되는데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 수

47) “道光二十六年丙午十一月日晉州後人姜師孔請謫所前參判金公正喜題額謹揭刻字鄉員吳在福孔子誕降二千四百七十九年戊辰春東齋重建謹再揭”.

48) 『論語』季氏, “孔子曰君子有九思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

49) ‘연희각’ 현판을 연농 홍종시(1857-1936)의 작품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주지하다



〈그림 12〉 연희각, 김정희필, 제주목관아

있다. 우선, 필체의 유사성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같은 시기 추사의 작품 <의문당>의 현판양식 특징인 테두리문양과 비슷한 문양장식⁵⁰⁾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1848년 3월 제주목사로 도임한 張寅植과 김정희의 친분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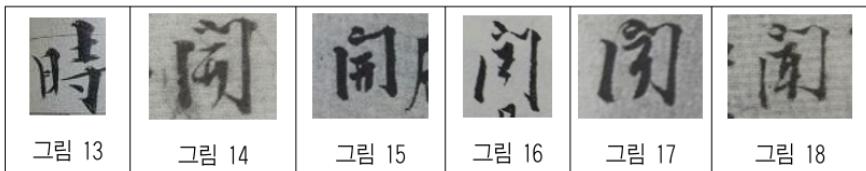
시피 홍종시는 추사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1857년 순조 때 해서로 이름난 홍범효의 증손으로 태어나 한말 향교의 도훈장을 지냈고, 일제강점기에는 제주읍장을 지낸 인물로 평생 추사체를 즐겨 썼으며, 추사의 고족 소치 허련과의 교분도 두터웠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연희각’과 관련하여 남들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 홍종시는 1894년 제주관찰부의 주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제주읍장을 지낸 분으로서, 일제에 의해 제주목이 훼철될 때를 당하여, 고득종의 글씨인 ‘홍화각’ 현판의 경우 삼성사 재단에 귀속 소장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연희각’ 현판이 만약 홍종시 자신의 글씨였다면 남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기’하였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필자의 과문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세간에 전하는 『연농선생유묵집』에 등재된 글씨에서 ‘연희각’의 획질과 유사한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한편, 2015년 8월 23일 KBS 1TV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 제주시편에서 당시 김영복 감정위원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일제강점기 제주읍장을 지낸 분으로 당시 추사체를 잘 쓰던 연농 홍종시의 작품으로 추정”한 바 있다.

50) 혹자는 문양장식의 유사성으로 추사 글씨의 논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필자는 현판양식이 큰 틀에서 제작시기에 따라 비슷하게 변화할 수 있으나, 같은 지역에서 조차 가문의 특수성이나 편액서자의 주문이 양식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보았다. 추사체 연구가인 이봉호는 1994년 ‘의문당’ 현판의 연화문을 추사가 직접 그렸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51) 장인식은 1848년(무신, 현종 14) 3월에 도임하여 1850년(경술, 칠종 1) 6월에 이임하는 동안 도민을 위한 선정을 많이 베풀어, 도내에 남아있는 선정비가 윤구동 목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기가 전해지고 있다. 목사 겸방어사로 부임한 장인식은 자신의 부임소식과 함께 선물을 보냈고, 완당은 반가움과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등 『완당선생전집』에 실려 있는 장인식에게 보낸 편지가 20통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상호 각별하게 지내는

을 들 수 있다.

우선 김정희 유배시절의 편지글이나 새한도 발문의 필획에서 연희각의 필획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時>(그림 13)의 날일 변의 右上角의 필압이 <연희각>(그림 12)의 ‘曇’자 날일변의 우상각의 필압과 유사하며, <開>(그림 14, 15)·<聞>(그림 16, 17, 18)에서 ‘門’자의 필획 순서라든지 오른쪽 위의 필압이 유사한 패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현판 양식의 유사한 특징으로 김정희가 대정향교에 써준 <의문당> 현판테두리에 단청을 한 점을 들 수 있겠는데, <연희각> 현판에서도 이러한 양식적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김정희의 작품일 가능성은 높이는 요인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장인식과 남다른 친교⁵²⁾가 있었던 김정희는 장인식이 목사로 도임하는 해 12월 6일에 9년의 유배에서 풀려났음에도 바로 섬을 떠나지 않았고, 이듬해 2월 15일이 되서야 대정을 떠나 제주로 향했으며 제주에서 10 일을 더 머물다 2월 26일에야 화북포구에서 배를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⁵³⁾ 따라서 <연희각> 편액현판은 해배된 후 3개월여 체류하면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배중에 썼을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유배 중에 썼다

사이임을 알 수 있다.

- 52) 장인식은 記文의 초고를 김정희에게 보내어 윤필을 청한 사실이나, 여타의 편액의 명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佐演閣’ 등의 편액을 써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글이 보인다(『阮堂全集』 卷之4, 書牘, 21쪽). 현재 오현단에 남아있는 굴림서원묘정비기의 경우도 추사의 첨삭의 흔적이 편지에 남아있으며, ‘굴림서원묘정비기’의 말미에 ‘玉山後學 張寅植 述’이라고 적혀있는데, 옥산서원은 회재선생을 배향한 서원으로 선조 때 아계 이산해의 글씨로 사액현판이 내려졌는데 실화로 불에 타고, 현종 때에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사액현판이 다시 내려졌다. 이 때가 김정희가 제주에 유배되기 바로 전해의 일이다.
- 53) 국립중앙박물관, 『秋史 김정희: 學藝 일치의 경지』, 통천문화사, 2006, 270쪽.

면 장인식과의 간찰교류에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배 후에 썼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서체는 행서기운이 가미된 단엄한 절제미가 돋보이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위가 넓고 아래로 약간 좁아지는 듯한 필세는 추사체 특유의 묘한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 유배의 후기에 추사체의 파격이 무르익어가는 시기임에도 제주목의 ‘정청’이라는 성격을 의식한 듯, 글씨의 용처에 따라 수시처변하는 書寫에서 서사자 김정희의 성정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연희각’은 조선시대 후기에 제주목 관아의 중심건물이다. 조선 초기에는 상아동현이 ‘홍화각’이었으나 조선 후기에 ‘연희각’으로 바뀌었는데, ‘연희각’이 언제 누가 창건하였고 누가 현판의 편액을 썼는지 자세하지 않다. 다만 ‘연희각’ 창건이나 중수에 관한 연원에 대해서는 이원진의 『탐라지』에 제주목사 심연과 이원진의 시 2편이 수록되어 있는 점을 들어 목사 심연이 재임했던 1638년(인조 16) 이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⁵⁴⁾하고 있을 뿐이다.

1841년(신축, 현종 7) 제주목사 겸방어사로 부임한 이원조는 「延曦閣記」에서 ‘연희’라 편액한 뜻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풀어쓰고 있다.

“(새벽에 앓아 집무를 보려할 때) 창살을 통해 들어오는 온통 밝고 영롱한 햇빛에 마주치게 되면 일찍이 성연한 깨달음과 송연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두워 보이지 않던 것이 모두 드러나서 나의 욕망과 사념을 깨끗이 씻어주고 뜻과 생각을 계발하도록 도와주는 것 때문에 자주 이 시간에 힘을 얻게 된다. 앞 사람이 이름을 붙인 뜻이 과연 여기에서 취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마도 경계에 즉하여 부합되는 것이 내 마음에 묵연히 들어맞는 것을 보면, 이는 평범하게 제액한 것이 아니다. 하물며 천리의 넓은 바다는 서울과 사이를 멀게 하여 매일 밤마다 임금의 계신곳을 그리워함은 소동파가 해남에서 문득 상서로운 구름이 태양을 받듦을 보고 황홀함이 마치 지척에 황제를 모신 듯 하였다는 것에 다를바 없다. 아~ 나라의 원로들이 바다를 점쳐 임금의 덕화를 축원한다. 당시의 이름을 ‘연희’로 한 것 또한 외직에 임한 신하가 임금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글을 써서 벽에 걸어 둔다.”⁵⁵⁾

54) 홍기표, 앞의 책, 제주문화원, 2016, 33쪽.

55) 李源祚, 『耽羅錄』, 延曦閣記, “而日光之穿漏 邇與之相會 則未嘗不 惺然而悟 悚然而惧 點檢方寸 幽隱畢露 所以蕩滌其渣滓 助發其志思者 多於此時得力 未知前人命名之義 果有取於是 而其爲符合於卽境 默契於吾心 則非尋常題額之此也 況重溟千里 距京師絕遠 每夜瓊樓之戀 無異於子瞻之海南 而忽見祥雲捧日 悅若咫尺天臨 聊與國之黃

이처럼 州牧의 政廳으로써 명명이 실질에 부합한다는 상찬을 하면서도 ‘연희각기’ 첫머리에 “연희각은 옛 기문이 없어 언제 세웠는지 자세하게 밝힐 수가 없다. 현판의 편액도 누가 명명했고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한다.”⁵⁶⁾라고 하고 있다. 기문의 내용대로라면 이원조 목사가 도임했을 당시에는 아마도 <연희각>(그림 11)과 다른 현판이 걸려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계성사는 문묘 대성전에 봉안되는 5성의 先考位牌를 봉안하는 곳으로, 계성사의 향사는 석전제 전날 밤에 제사하였다. 성균관 계성사의 경우 광복 후 성균관대학교를 지으면서 헐리고 향사의 예도 폐하였고, 이밖에 나주향교와 개성 성균관에도 계성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전주향교와 제주향교에만 남아있다.⁵⁷⁾



〈그림 19〉 계성사, 제주향교

제주향교 계성사는 1854년(철종 5) 목사 목인배에 의해 창건되었다. 건축의 평면형식은 5칸으로 전면에 개방된 퇴칸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2개의 <계성사> 편액현판 걸려 있다. 외부 처마에는 김용징(1809~1890)의 글씨로 알려져 있고, 회랑 별판은 이종우(1801~?)⁵⁸⁾의 글씨

이다. 김용징의 편액현판(그림 19)은 판재 석장을 이어 붙인 흑색바닥판재에 돋을새김을 하고 글씨는 흰색으로 칠하였다. 크기는 가로 149cm, 세로 79cm

耆 占海而祝聖 是堂之名 以延曠 亦可以表外臣葵藿之忱 遂書而揭之壁”.

56) 李源祚, 『耽羅錄』, 延曠閣記, “延曠閣舊無記 建置年月不可詳 板額亦未知誰所命名誰所書”.

57) 박왕희, 『한국의 향교 건축』, 문화재관리국, 1998, 215쪽.

58) 이종우는 조선 후기의 문신·서화가로 호는 石農, 시호는 文憲이다. 1851년(철종 2) 홍문관에 등용되었다. 1853년 부사과·예방승지, 1856년 강원도관찰사, 1859년 우참찬·이조판서를 지냈다. 1860년 판의금부사, 이어 병조판서, 1862년 함경도관찰사로 있다가 함흥민란으로 파면되었다. 시문과 서화에 뛰어났고, 글씨는 독특한 필체를 이루어 세청 石農體라 한다. 그의 행서나 초서는 신위와 김정희의 필법이 어우러진 글씨로 필력이 있으며 짜임새도 뛰어나다. 그림은 산수화를 잘하였다. 금석문으로 강원도 삼척의 〈山陽書院廟庭碑〉가 있다(이종우-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5932).

이다. 현판양식은 테두리에 요철형태의 斜角목재를 덧대어 사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듯하다. 김용징은 제주 납읍 출신으로 자는 운경, 호는 정현이다. 1832년(순조 32) 전주에서 승보시에 합격하고, 1838년(헌종 4)에 제주의 승보시에 합격하였다. 또 1843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진사가 되었다. 도내의 3향교의 교수를 두루 거치면서 훈학에 힘썼으며 글씨에도 능하여 제주의 4명필에 꼽힌다. 한편 김석익은 그를 제주의 4대명필로 거명했으면서도 <계성사>에 대하여 다소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 고을에 글씨 잘 쓰는 이는 판윤 고득종이 제일이다. ‘홍화각’이라 쓴 세 글자는 창연하고 굳세며, 고아하고 기이하여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생원 김양필이 그 다음이 되고, 또 그다음이 생원 오점·진사 김용징이다. 모두 해서의 모범으로 칭송되었으며, 오점은 특히 금석서에 뛰어났다. 김용징에 대해서 추사 김정희가 유배왔을 때 또한 칭찬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그가 쓴 ‘계성사’ 글자를 보면 연미하고 유약하여 보아줄 수가 없다”⁵⁹⁾

이종우필적의 편액현판(그림 20)은 계성사 낭간 벽면에 걸려있는 데 바깥 현판과는 반대로 흰색바 닥판재에 글씨를 검은색으로 칠하였고 민무늬바탕에 사각테두리목이 둘려있다. 크기는 가로 113cm, 세로 43cm이며 이 현판에는 3.7cm의 정사각형 낙관도장이 찍혀있으 며, 이름은 음각으로 호는 양각으로 새겨져있다.



〈그림 20〉 계성사, 제주향교

이종우의 현판이 어떤 연유로 걸리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종우가 예방승지로 있을 때의 글씨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계성사 낙성에 맞추어 현판을 걸어야 하는데 어떤 연유로 조정의 사액이 늦어지게 되면서 당시 향교의 교수로 있던 김용징의 편액을 먼저 걸어놓았던 것이 아닐까 추측

59) 金錫翼, 『心齋集』, 破閑錄 上, “我州善書 高判尹得宗爲第一 所書弘化閣三字 蒼勁古奇 至今猶存 金生員良弼爲其次 又其次吳生員霑金進士龍徵也 俱以楷範稱 而吳尤長於金石書 金則金秋史謫居時亦稱詡云 然今觀其書啓聖祠三字柔脆不足觀矣”.

해 본다.

<호남제일정>(그림 21)은 관덕정 안에 걸려 있는 현판이다. ‘호남제일정’은 제주목사 박선양⁶⁰⁾의 65세 되는 1882년(고종 19) 10월에 쓴 것으로 단아하고 방정한 해서체의 편액이다. 흰 바탕에 검은 색의 글씨로 왼쪽에는 ‘壬午十月知牧朴善陽時年六旬五’라고 낙관되어 있다. 당시 제주목이 전라도에 속해 있었으므로 관덕정은 호남지역에서 가장 큰 정자라는 뜻으로 제액한 것이다.



〈그림 21〉 호남제일정. 관덕정

IV. 맷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제주지역 편액현판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주요 편액현판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주지역에 현존하는 조선시대 편액현판은 1점만 제외하면 모두 공공건축물의 것으로, 18점의 편액 가운데 제주출신의 작품이 3점, 목민관 및 중앙관료의 작품이 4점, 유배객의 작품이 3점, 기타 향교관련 번각작품이 8점이 전해지고 있다.

<홍화각>은 당대 명필의 반열에 올랐던 고득종의 작품으로 조선시대 현판 중에서 현존 최고의 현판으로, 또한 제주서예의 조종으로서 제주에 남아 있는 최초의 필적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리고 6세에 초서신동으로 불렸고 후에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의 <관덕정>현판이나, 인조연간에 제주의 서예신동으로 이름난 정상명의 정의향교 <명륜당>현판도 서예사적인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또한 무관으로 대자서를 즐겨 썼던 목사 김영수의 <탐라형승>은 관덕정이라는 건물의 성격에 부합하는 힘찬 필세의 편액이

60) 박선양(생몰년 미상)은 무신으로 1881년(고종 18) 5월에 제주목사에 부임하여 1883년 5월에 이임함.

보는 이를 압도하는 편액서의 백미이라 할만하다. 김정희의 <의문당>의 경우 편액의 주문자와 현판의 각자 등을 알 수 있는 이면의 기록이 있어서 각자의 수준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연희각> 현판에 대한 고증은 본 논문의 성과라 자평한다. 한편 제주에는 많은 유배객들의 거쳐 갔음에도 김정희의 작품만 전해지고 있는 점을 아쉬운 점이다. 조선 전기의 고득종 서예가 위·진의 고법에 천착한 경우라면 조선 말기의 김정희 서법은 唐代의 구양순의 해서로 들어가서 진한의 예서필법에서 득력을 하고 종정과 금석, 명·청대제가의 서법의 바다를 종횡으로 섭렵하여 파격의 추사체를 제주의 적소에서 이루어냈다. 그런 가운데 <연희각>, <의문당> 등의 편액은 차분하면서도 단엄하고 방정한 절제미를 보이는 반면, 현판을 제작하면서 문양으로 장엄하게 함으로써 문인화적 미의식을 접목한 서사자의 隨時處變의 아취를 엿볼 수 있다.

조선 최고의 명필 김정희의 영향은 제주서단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고득종이후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으로 제주에서도 조맹부 필적의 영인본법첩이 간행되면서 송설체가 풍미하였었는데 19세기로 접어들면서 구양순·유공권 등 唐體를 통해서 서법의 진수로 들어가려는 복고적 서풍이 일었고, 김정희를 따르는 다수의 제자들은 추사체를 익히는 풍조가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지게 된다.

제주지역의 현판양식은 후기로 갈수록 테두리목을 덧대고 현판 주변부에 문양장식이 가미되지만 여전히 단순하고 검소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제주의 열악한 자연환경의 영향과 반도와는 다른 생활문화 또는 건축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제주지역의 문화지배층이라고 할 만한 왕조교체기 및 端宗의 폐위에 반대하여 자발적으로 입도한 선비들이나 유배객의 후손들의 은둔자적 삶의 태도도 적잖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제주지역 주요 편액현판 대부분이 관공서의 것에 한정되어있어서 서체의 다양성이라든지 예술적인 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 현존하는 편액현판은 당대의 명필가의 손끝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서예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다. 특히 김정희와 관련된 편액현판을 통해서 시대적 양식변화보다는 지역적 환경 그리고 가문이나 작가 개인의 취향이 양식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고건축물의 복원과정에서 수반되는 편액현판의 복원에도 당대의

양식이나 예법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홍화각>의 경우 원래의 현판에는 테두리목이 없는데 복제품은 빗각목재의 테두리목을 두른 점은 시대양식에 어긋난 경우이고, <望京樓>의 경우 현대 작가가 초서체로 씀으로써 당시 유교를 국시로 내세웠던 조선시대의 군신의 예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예라 하겠다. ‘망경’은 한양에 계신 임금을 우러러 바라보다는 뜻으로 공경의 뜻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덕정>현판의 경우 현판을 양쪽에서 쇠못으로 받치고 있는데, 쇠못은 녹이 슬고 쇠못을 받친 부분은 나무가 부식이 심해지고 있어 관리가 요망된다. 아무튼 이 연구가 문화재 복원과정에서 필수적을 수반되는 편액현판의 복제 또는 편액현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관심제고와 더불어 현판의 예술적 가치와 편액 글씨로의 서예사적 인식의 확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원전

『論語』

『孟子』

『禮記』

金尚憲 『南槎錄』

金錫翼 『心齋集』

金正喜 『阮堂全集』

淡水契 『增補耽羅誌』

申公濟 『海東名跡』

李源祚 『耽羅錄』

李源祚 『耽羅志草本』

李元鎮 『耽羅志』

天理圖書館所藏影印本 『增補耽羅志』

2. 저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서예문화의 역사』, 경인문화사, 2011.

琴河淵·吳采錦 等著, 『段玉裁注 說文解字 聲符辭典』, 日月山房, 2013.

문화재청, 『宮中懸板』, 문화재청, 1999.

박왕희, 『한국의 향교 건축』, 문화재관리국, 1998.

신기철·신용철,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89.

오문복, 『제주도 마애명』, 제주도, 2000.

_____, 『정의군지』, 남제주문화원, 2005.

吳世昌/東洋古典學會, 『國譯 槿域書畫徵』 上, 시공사, 1998.

包世臣, 정충락 옮김, 藝舟雙楫, 미술문화원, 1986.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의 편액』, 한국국학진흥원, 2016.

홍기표, 『제주의 편액』, 제주문화원, 2016.

3. 연구논문

- 고창석·김익수, 『삼성사 소장 고문헌·편액』, (재)고·양·부삼성사재단 2016.
- 국립중앙박물관, 『秋史 김정희: 學藝 일치의 경지』, 통천문화사, 2006.
- 권진호, 「한국 편액의 문화적 가치」, 『한국의 편액 II』, 2016.
- 김연호, 「정방사와 덕주사 편액과 비봉루의 봉은옹찬」, 『奈堤文化』 13, 내제문화연구회, 2002.
- 오창림, 「조선 초기 고득종(1388~1452)의 시문과 서예 연구」, 『耽羅文化』 5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 유지복, 「경포호 누정 편액의 서예사적 가치」, 『인문과학연구』 49, 강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6.
- 이민식, 「추사 김정희의 편액」, 『추사연구』 8, 추사연구회, 2010.
- 지태승, 「제주지역 사찰 전각의 양식상 고찰」, 『제주사찰 건축물의 역사와 실체 모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 사단법인탐라정보문화원, 2017.
- 최다은, 「성균관 현판 연구」, 『書藝學研究』 29, 한국서예학회, 2016.
- 홍병화, 「제주도 사찰건축의 역사와 실체에 대한 모색」, 『제주사찰 건축물의 역사와 실체 모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 사단법인탐라정보문화원, 2017.

4. 도록

- 洪性欽, 『研農先生遺墨』, 耕信印刷社, 1989.

5. 인터넷 자료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

HYPERLINK “<http://blog.naver.com/kty0752/100050987064>”<http://blog.naver.com/kty0752/100050987064>.

http://www.jesusori.net/?re_page=1&mod=news&act=articleView&re_total=1&idxno=79884

『三國遺事』(한국사테이비베이스 <http://db.history.go.kr/>).

『高麗史』(한국사테이비베이스 <http://db.history.go.kr/>).

『宣和奉使高麗圖經』(한국사테이비베이스 <http://db.history.go.kr/>).

『朝鮮王朝實錄』(한국사테이비베이스 HYPERLINK “<http://db.history.go.kr/>”<http://db.history.go.kr/>).

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A Study of the Hanging Signboards(扁額懸板) in Jeju Region in the Joseon Dynasty

Oh, Chang-Rim*

This paper examined the main Pyeonaek inscriptions in Jeju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Eleven Pyeonaeks, one of the most important Pyeonaek inscriptions in the are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identity type of the person who wrote the letter, you can split it into those from Jeju Island, the betters, the sheeters, the shrokers' office, and the central government.

Jeju has seen few Pyeonaeks from the Joseon Dynasty, other than public buildings. The changes in the style of the signboard are simple and simple, although the frame is overlaid with frills and a motif is attached around it. This is in contrast to the considerable portion of the Pyeonaek of the peninsula, which is used as a relic of a royal court, a temple, or a footstall to reveal its authority through grandeur and decoration. Jeju's case is most likely due to its state-owned appearance, except for government buildings and some larger temples, while its local characteristics, unlike the peninsula, are due to its lack of Nujeong culture. In particular, it seems to reflect the attitude of the reclusive elite, who are considered the cultural leaders of Jeju, following the replacement of the emperor and the expulsion of the Emperor from the Emperor.

* Ph. D. student of J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Gwandeokjeong, Yeonhuigak, Jejumok, Tamnahyeongseung, Honghwagak.

교신: 오창림 63125 제주시 신대로 70, 덕일빌딩 5층 502호

오창림 서법·서예연구원

(E-mail: japari@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8. 01. 07

심사완료일: 2018. 01. 23

제재확정일: 2018. 01. 31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강만의**

- I. 머리말
- II. 독립운동 유공자 현황분석
- III.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 IV. 맷음말

국문요약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지역민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장소로 이용하거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삼고 있다. 이 글은 2017년 12월 말 현재 제주지역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148명에 대한 현황분석과 그들의 활동거점인 독립운동 사적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148명 독립유공자 공적개요를 중심으로 파악한 독립운동 양상은 국내항일운동(82), 일본방면활동(19), 3·1운동(18), 학생운동(18), 의병(4), 문화운동(4), 광복군(1), 애국계몽운동(1), 임시정부(1)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유공자 훈격 현황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은 해당자가 없으나, 건국훈장에 속하는 애국장(21)과 애족장(79) 그리고 건국포장(21), 대통령표창(27)이 확인됐다. 148명이라는 독립유공자 수치는 『제주항일인사실기』(2005)에 기재된 독립운동인사 500여명의 30% 정도에 불과해 추가

* 이 글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항일기념관이 2017년 12월 8일(금)에 개최했던 「제주에서의 항일운동과 사적지 재조명 및 활용방안」이라는 주제의 제1회 제주항일기념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소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자료발굴을 통해 독립유공자 지정을 확대했으면 한다.

제주지역 독립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에 속하는 의병운동, 법정사 항일운동, 조천 만세운동에서부터 시작해 192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실현을 지향하는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사회주의 계열에는 신인회, 신간회, 제주청년동맹, 제주 야체이카, 제주적색농업조합이 대표적이며, 무정부주의를 표방했던 아나키즘 계열에는 우리계(字利契)가 있었다.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가지고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역사관광상품 개발, 항일독립운동 아카이브 구축,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 청소년 보훈캠프 등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이 글이 제주지역 독립운동사 연구를 유도하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독립운동 사적지, 독립운동 유공자, 제주항일기념관, 사회주의, 다크투어리즘.

I. 머리말

독립운동 사적지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운동의 산물이다.¹⁾ 2017년 12월 중국 충칭 임시정부 터를 방문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해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근래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독립운동 사적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

이 연구는 2017년 12월 현재 국가보훈청 공훈전자사료관에 등재된 제주 지역 독립유공자 148명의 독립운동 전개양상과 2009년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40개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 것이

1) 심옥주, 「일제강점기 제주 독립운동의 지형과 독립유공자 현황분석」,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327쪽.

다. 연구자는 2009년 독립기념관의 의뢰를 받아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수행한 「제주지역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에 조사원으로 참가해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를 조사했던 경험이 있다.²⁾ 당시 조사결과는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에 의해 『제주도 독립운동사적지』로 발간되었다.³⁾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한종·남정우·이해영이 「독립운동사 교육에서 사적지 활용방법과 그 효과」라는 주제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활용한 사적지 활용방법을 제시했다.⁴⁾ 박경목은 천안, 예산, 계룡, 청양, 충북지역에 분포한 독립운동 유공자 현황과 독립운동 사적지의 활용방안들을 제시했다.⁵⁾

제주지역에서는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실례로 송광배는 제주지방의 3·1운동과 그 후의 항일운동에 대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⁶⁾ 염인호는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된 제주 야체이카 사건과 농촌진흥운동기 제주지역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양상을 제시했다.⁷⁾

2) 당시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팀은 제주지역 독립운동사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적지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독립운동 사적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실태를 조사표와 영상으로 기록하는 한편, 결과물을 독립운동 교육 자료와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단은 조사단장과 간사,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팀 그리고 동영상과 카메라 사진촬영 팀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자문과 결과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을 두었고, 조사사업의 시간적 범위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부터 1945년 광복까지였다.

3)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제주도 독립운동사적지』, 2010.

4) 김한종·남정우·이해영, 「독립운동사 교육에서 사적지 활용방법과 그 효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5) 박경목, 「예산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도시 마케팅을 일환으로-」, 『충청문화연구』 7,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2011: 「천안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과 활용방안-창의적 체험학습 관광 활성화를 중심으로-」, 『충청문화연구』 9, 충청문화연구소, 2012: 「청양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충청문화연구』 5,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2016.

6) 송광배, 「제주지방의 3·1운동과 그 후의 항일운동」,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석사논문, 1985.

7)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야체이카 사건」, 『한국사연구』 70, 한국사연구회, 1990: 「농촌진흥운동기 제주지방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제주

김동전은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⁸⁾ 김창후는 재일제주인의 항일운동에 주목하며 김문준의 활동사례와 재일제주인 항일운동가들의 국내(제주외)에서의 투쟁성격을 발표했다.⁹⁾ 박찬식은 제주의 항일운동을 193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독립운동가의 시대별 성격을 고찰했다.¹⁰⁾ 김찬흡은 『제주항일인사실기』를 통해 일제 식민지 지배에 저항했던 제주 항일인사 505명의 활동상을 제시하여 독립운동 연구에 초석을 놓았다.¹¹⁾ 한금순은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 법정사 승려들과 지역주민 700여명이 참여한 제주도내 최대 무장항일운동이었음을 밝혔다.¹²⁾ 심옥주는 「일제강점기 제주 독립운동의 지형과 독립유공자 현황분석」을 통해 한국민족운동사의 관점에서 제주 지역 항일독립운동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³⁾ 문혜경은 조천만세운동의 발생배경과 역사적 의의를 평가했다.¹⁴⁾

이상과 같이 제주지역 독립운동사 선행연구들은 개별 사건의 전개과정과 독립운동 주도 인물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며 독립운동 사적지에 관심을 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도서연구』 1, 1991.

- 8) 김동전,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탐라문화』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9) 김창후, 「재일제주인 항일운동의 연구과제-김문준의 활동을 중심으로-」, 『제주도사연구』, 6, 1997: 「일제시대 제주 출신 항일운동가들의 국내(제주외)에서의 투쟁과 그 성격」, 『제주도사연구』 8, 1999.
- 10) 박찬식, 「제주지역 항일독립운동가의 시대별 성격」, 『제주도사연구』 8, 제주도사연구회, 1999.
- 11) 김찬흡, 『제주항일인사실기』, 북제주군·북제주문화원, 2005.
- 12)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06.
- 13) 심옥주, 앞의 논문, 2013.
- 14) 문혜경, 「제주항일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새로운 정립-조천만세운동을 중심으로」, 『제주 항일항쟁사』, 제주항일기념관, 2014.

II. 독립운동 유공자 현황분석

1. 독립운동 유공자 및 미인정자 현황

1) 독립운동 유공자 현황

2017년 12월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 등재된 전국의 독립유공자 수는 14,830명으로, 출신지역별 유공자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이 가운데 경상도 지역이 3,293명으로 가장 많으며, 평안도와 전라도가 뒤를 잇고 있다. 제주지역은 148명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1〉 전국 독립유공자 출신지별 현황¹⁵⁾

본적지와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정우생(鄭友生, 일본방면 독립운동, 2006년 애족장)을 제외한 147명의 독립운동 유공자의 지역별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독립유공자는 신좌면(조천면, 38명), 구우면(한림면, 25명), 제주면(제주읍, 22명), 구좌면(19명), 좌면(중문면, 18명), 우면(대정면, 10명) 등에 분포해 있다.

독립유공자 최대 분포지는 신좌면(조천면)으로, 이 지역에는 1919년 3·1 운동과 1920~30년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사적지들이 집중돼 있다. 신좌면(조천면) 지역은 일제강점기 제주지역 독립운동을 대표했던 중심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 국가보훈청 공훈전자사료관(2017) 그래프자료 재구성.



〈그림 2〉 독립운동 유공자 분포현황(1905~1945)

구좌면 지역은 해녀항일운동과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구우면(한림면) 지역은 일본지역 독립운동, 좌면(중문면)은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독립유공자들이 집중되었다.

한편, 독립운동 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994)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된다.¹⁶⁾ 이 법률에 근거해 독립유공자들이 받는 포상 훈격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으로 구분된다. (그림 3)은 2017년 현재 전국 독립유공자의 포상훈격을 나타낸 것으로, 이 가운데 애국장과 애족장은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16)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리고 애국지사는 같은 시기에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있어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림 3〉 전국 독립유공자 훈격별 현황¹⁷⁾

제주지역 독립유공자들의 포상 훈격은 <표 1>과 같다. 이것은 2017년 12월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 등재된 독립유공자의 훈격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 독립유공자 훈격 현황¹⁸⁾

건국훈장					건국 포장	대통령 표창	총인원
대한 민국장 (1등급)	대통령장 (2등급)	독립장 (3등급)	애국장 4등급	애족장 (5등급)			
0	0	0	21	79	21	27	148
0	0	0	14	53	14	19	100

이 표를 보면, 최고권위인 대한민국장과 대통령장, 독립장은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⁹⁾ 애국장과 애족장은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건국 훈장 100명, 건국포장 21명, 대통령 표창 27명으로, 총 148명이 독립운동

17) 국가보훈청 공훈전자사료관(2017) 그래프자료 재구성.

18) 국가보훈청 공훈전자사료관(e-gonghun.mvpa.go.kr, 2017년 12월 23일 접속).

19) 실제로 대한민국장은 안중근 의사(의열투쟁), 대통령장은 주시경 선생(애국계몽운동), 독립장은 유관순 열사(3·1운동)가 받았다.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제주항일인사실기』(2005)에 기재된 항일독립인사 500여명 가운데 30% 정도에 불과하다. 애국장을 수여받은 21명은 제주지역 독립운동에서 가장 공적이 높게 평가된 인사들로, <표 2>는 애국장을 받은 명단과 공적내용이다.

〈표 2〉 애국장 수여자 명단과 공적내용²⁰⁾

성명	운동계열	주요 공적개요
康箕贊	국내항일	독서회 활동(1928), 우리계(字利契) 활동(1929)
姜壽五	국내항일	법정사 항일운동(1918)
姜昌奎	국내항일	법정사 항일운동(1918)
姜昌輔	국내항일	신간회 활동(1927), 제주 야체이카 활동(1931)
姜春根	국내항일	법정사 항일운동(1918)
高秉禧	국내항일	우리계(字利契) 활동(1929)
高仕訓	의병	제주의병장(1916)
金斗三	국내항일	법정사 항일운동(1918)
金萬石	의병	제주의병활동(1909)
金奉和	국내항일	법정사 항일운동(1918)
金性鑑	일본방면	일본 성심야학교에서 민족교육(1938)
金淳熙	학생운동	조선학생전의동맹 활동(1929)
金時容	국내항일	부산에서 총파업을 통한 노동탄압 항거(1931), 일본 제국주의 야망 비판 및 반전 활동(1937)
金沄培	국내항일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위한 편지 전달(1920)
金才童	국내항일	함덕리 비석사건(1931)
文德洪	광복군	광복군에 입대해 총사령부 부원으로서 임정경위실 대원으로 활동(1941)
朴周錫	국내항일	법정사 항일운동(1918)
夫生鍾	문화운동	독서회를 조직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문과 민족역사교육(1934)
申才弘	국내항일	혁우동맹 활동(1930), 제주 야체이카 활동(1931)
趙大秀	문화운동	독서회 활동(1928), 우리계(字利契) 활동(1929)
趙鳳鑄	국내항일	독립희생회 연락원 김창규와 모의하여 독립희생회 제주도지 방조직을 만들고, 임정현장과 해외 통신문 등을 유인하여 전도에 배포(1919)
洪元杓	학생운동	광주학생운동 참여(1929)

20) 국가보훈청 공훈전자사료관(2017년 12월 23일 접속)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단일 독립운동으로는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애국장 수여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도 법정사 항일운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제주지역 3대 항일운동으로 평가되는 1919년 조천만세운동과 1932년 해녀항일운동 관련자들은 1명도 애국장을 수여받지 못했다. 또한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광주학생운동(1929) 참가자에 대해서는 애국장이 수여되었으나, 1926년 제주공립농업학교 학생운동 관련자들은 애국장을 받지 못했다.

운동계열별 현황은 <표 3>과 같다. 여기에는 제주 의병운동(1909), 법정사 항일운동(1918), 조천 만세운동(1919), 제주 해녀항일운동(1932)과 관련된 유공자들 그리고 문화운동, 국내항일운동, 학생운동, 광복군, 애국계몽운동, 일본방면 활동, 임시정부 관련 활동들이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제주 의병운동은 제주지역 독립운동을 확산시키는 정신적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 의병부분의 독립유공자는 애국장 2명과 애족장 2명에 불과하다.

〈표 3〉 독립유공자 운동계열별 현황²¹⁾

순번	운동계열	애국장	애족장	건국 포장	대통령 표창	계열별 인원
1	의병	2	2	0	0	4
2	3·1운동	0	5	1	12	18
3	문화운동	2	2	0	0	4
4	국내항일운동	14	48	11	7	80
5	학생운동	1	8	4	6	19
6	광복군	1	0	0	0	1
7	애국계몽운동	0	1	0	0	1
8	일본방면활동	1	12	5	2	20
9	임시정부	0	1	0	0	1
총인원		21	79	21	27	148

애국계몽운동으로 인정된 독립유공자는 신좌면 조천리 출신 고순흠(高順欽) 뿐이다. 그는 1921년 9월 조선통신중학교를 개설해 학감(學監)으로 취임한 후, 『통신중학강의록』을 발행하여 독학자들이 실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21) 국가보훈청 공훈전자사료관(2017년 12월 23일 접속).

준 사실이 확인되어²²⁾ 1990년에 애족장을 받았다. 1920년대 제주지역 교육 기관의 수와 활동을 고려할 때,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던 인물들에 대한 추가발굴과 자료조사가 필요하다.²³⁾

한편, 공훈전자사료관에 등재된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공적개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운동으로 분류해야 할 1건(姜昌舉, 1926)과 일본방면 활동을 분류해야 할 1건(吳南學, 1945)이 국내항일운동으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해 바로 잡은 것이 <표 3>이다. 국내항일운동과 3·1운동, 학생운동 부문에서 대상자가 많은 것은 제주지역 역시 한국독립운동의 틀에서 독립운동을 실천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제주의 지역성과 특수성을 염두에 둘 때, 일본방면 활동으로 다수의 독립유공자가 인정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²⁴⁾

광복군 활동과 임시정부 관련 독립유공자는 각 1명이다. 광복군 활동을 했던 문덕홍(文德洪)은 일본 선박의 선원으로 강제 징용되어 상하이·홍콩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1940년에 탈출해 광복군 제3지대에서 활동했다. 1942년 10월에는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비대원으로 활동했으며, 1945년에는 임시정부 김구 주석 경호 실장으로 승진했다. 이러한 광복군 활동이 인정되어 1990년 애족장을 받았다.²⁵⁾ 1990년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애족장을 인정받은 고수선(高守善)은 본래 대정면[읍] 가파도가 고향으로, 상해 임시정부로 군자금(軍資金) 송금을 담당했다.

2) 독립운동 미인정자 현황

독립운동 미인정자는 독립운동에 참여해 일제에 의해 실형을 언도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을 입증할 증빙문서나 판결문이 남아있지 않아 독립운동

22) 김찬흡, 앞의 책, 155쪽.

23) 심옥주, 앞의 논문, 348쪽.

24) 심옥주, 앞의 논문, 354쪽.

25) 김찬흡, 앞의 책, 321-322쪽. 이 책에서는 제주지역 항일인사를 505명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독립운동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이 책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505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추후 독립운동사에 대한 추가조사와 연구가 진행될 경우 제주지역 항일인사는 505명을 넘어설 수도 있고, 505명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열악한 연구 환경 하에서 제주지역 항일인사를 505명이나 밝혀낸 김찬흡 선생님의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항일인사들이다. 후손들이 남아있지 않거나, 독립운동 사료들이 멸실되어 버린 결과, 독립운동 유공자로 신청조차 하지 못한 항일 인사들도 미인정자에 해당한다.

『제주항일인사실기』(2005)에 기재된 항일인사는 총 505명으로,²⁶⁾ 이 가운데 공훈전자사료관에 등재된 148명을 제외하면, 추자도 항일운동 19명, 정의면 청년회 씨름대회 사건 43명 등 총 357명이 현재까지 독립운동 미인정자로 남아있다.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 가운데 70% 정도가 아직까지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운동 미인정자 사례를 보면, 첫째, 독립운동을 입증할 만한 자료 부족을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실례로, 1909년 제주시 광양벌에서 봉기한 제주의병 항쟁에 참여했던 김재돌(1882~1956)은 아명(兒名)인 ‘김재돌’과 호적상 이름인 ‘김문우’가 동일인이라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공자 선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임도현(1909~1952)은 일본군 비행기를 몰고 중국으로 탈출한 뒤 항일운동을 벌였던 비행사로 알려지고 있으나, 자필이력서 외에는 활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926년 5월 추자도어업조합의 횡포에 저항했던 예초리 주민 항일운동과²⁷⁾ 1932년 추자도 영홍리 주민들이 일본인 선장인 사와다의 배에서 그물을 끌어 내리며 저항했던 ‘사와다 그물망 사건’ 관련자들도 증거(판결문) 부족을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했다.²⁸⁾

둘째, 1919년 조천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김장환과 김시범(1890~1948)의 사례처럼 독립운동에 참여한 근거자료가 명백해도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김두성(1913~2005)은 조천면 함덕리 일대에서 야학을 일으키고 애도비 사건을 주도했으나, ‘해방 후 행적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했다.²⁹⁾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독립투사 사상 검증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³⁰⁾

26) 김찬흡, 위의 책, 79-95쪽.

27) 『한라일보』, 2016년 6월 8일자, 「제주 추자도 예초리 어민항쟁 기념비 세운다. 1926년 5월 14일 추자도어업조합 횡포·천초 수탈 저항」.

28) 『제민일보』, 2006년 3월 1일자, 「판결문 없으면 유공자 아닌 가」.

29) 『제주신보』, 2015년 8월 17일자, 「잊혀 져 가는 애국열사들, 정부가 챙겨야..」

셋째, 후손들이 남아있지 않아 독립운동 사료를 제출하지 못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강평국(姜平國, 1900~1933)은 일제에 뺏긴 나라를 되찾겠다며 이름을 ‘연국(年國)’에서 ‘평국(平國)’으로 바꾼 여성으로, 신성여학교(1915년)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1919)를 졸업한 후, 1925년 제주여자청년회를 조직해 여권신장에 힘썼던 인물이었다. 1927년에는 조선여자청년동맹 초대집행위원장으로 일제 저항운동을 펼쳤다. 1928년 항일 여성단체인 ‘근우회’ 도쿄지회 창립 때 목포의 박화성과 함께 의장단에 뽑혔던 여성 독립 운동가였다.³¹⁾

넷째, 1905년 집의계 조설대 구국맹약지 관련 항일인사 12명 전원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했다.³²⁾ 2016년 12월 조설대 집의계 12명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제주보훈청과 오라동 주민들 간에 발생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보훈청은 조설대 집의계 12인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했거나 항거한 사실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행사 시 독립유공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음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제주보훈청은 “계모임까지 애국지사로 인정할 수는 없다. 1차적인 고증사료도 없다. 본인들이 아직까지 신청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애국지사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³³⁾

30) 『제주신보』, 2017년 8월 14일자, 「목숨 건 항일투쟁 인정 못 받은 비운의 독립투사들」.

31) 『제주일보』, 2005년 2월 24일자, 「불꽃처럼 살다간 제주여성···독립·여성운동가 강평국 재조명」.

32)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체결 직후 문연서당(文淵書堂)의 유림 12명이 집의계(集義契)를 결성, ‘조선의 수치를 설욕하겠다’는 뜻으로 ‘조설대(朝雪臺)’라는 한자를 바위에 새긴 것을 기려 제주시 오라동 후손들이 해마다 경모식(敬慕式)을 거행하고 있다.

33) 『제주의 소리』, 2016년 12월 6일자, 「“애국지사 사칭”vs“제주도민 무시” 조설대 논쟁···왜?」.

2. 독립운동 유공자의 독립운동 양상

1) 국내 항일운동 분야 독립운동

한반도와 격렬된 제주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에는 제주의 병항쟁(1909),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1918), 조친 만세운동(1919) 그리고 신인회 활동(1925)과 우리계 활동(1929), 제주공립농업학교 학생운동(1926, 1931), 해녀항일운동(1932), 주자도어민항쟁(1932)이 대표적이다. 국내 항일분야 독립운동은 제주인이 제주도와 ‘육지부’[한반도]에서 전개했던 활동을 말한다. 이 독립운동은 3·1운동을 시발점으로 하여 제주도민들과 제주출신 유학생들이 주체가 되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비밀결사의 조직원으로 항일운동을 벌였으며, 운동성향도 3·1운동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이었던 것이 1920년대 말부터는 사회주의 계열로 바뀌어 갔다.³⁴⁾

국내 항일운동 분야 유공자는 법정사 항일운동(1918)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천주교사건(1941) 8명, 혁우동맹 7명, 제주적색농민조합 6명, 해녀항일운동(1932) 3명 등이다. 이 가운데 첫째,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유공자가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항쟁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좌면 도순리 법정사 승려인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 700여 명과 함께 일으킨 것으로,³⁵⁾ 당시 이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27명이 독립유공자(애국장 6명, 애족장 20명, 대통령표창 1명)로 인정받았다. 『제주항일독립운동사』(1996)에 기재된 법정사 항일운동 참가자는 총 66명으로, 이 가운데 41%인 27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나머지 39명은 미인정 상태로 남아있다.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애국장을 받은 인물은 강수오(姜壽五, 재판전 옥사)·강창규(姜昌奎, 스님, 징역 8년)·강춘근(姜春根, 재판전 옥사)·김두삼(金斗三, 징역 1년, 옥사)·김봉화(金奉和, 스님, 징역 2년, 옥사)·박주석(朴周錫, 징역 7년, 선도교 수령, 옥사)이다.³⁶⁾ 법정사 주지였던 김연일(金連日, 1871~1940, 애족장)은 본적지가 경상북도 영일이어서 제주의 독립유공자 148명에는 포

34) 김창후, 앞의 논문, 229쪽.

35) 한금순, 『한국근대 제주불교사』, 제주대학교 팀리문화연구소, 2013, 89쪽.

36)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9, 423~425쪽.

함되지 못했다.

둘째, 제주지역의 독립운동에는 외국인 신부도 참여했다. 이것은 제주천주교사건(1941)에서 확인된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은 천주교 신부였던 다우손 파트릭크(孫神父, 제주천주교회), 오스틴 수위니(徐神父, 서귀포 천주교회), 토마스 다니엘 라이안(羅神父, 서귀포 천주교회)이었다. 이들은 신도들에게 일본 측이 신문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과(戰果)를 과대하게 포장해 보도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일본의 폐망이 멀지 않았음을 신도들에게 주지시켰다.³⁷⁾ 이 과정에서 3명의 신부들과 전도사를 포함한 신도들이 체포되어 불경죄 및 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은 제주출신 8명과 전남 해남 출신 김남식(金南植, 건국포장) 및 전남 나주 출신 이옹범(李應範, 애족장) 등 모두 10명이다. 일제의 삼엄했던 전시체제(戰時體制) 하에서 제주지역 독립운동에 외국인 신부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제주의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셋째, 제주지역 독립운동에는 여성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것은 제주해녀항일운동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본래 제주해녀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할 제주도해녀조합(조합장은 濟州島司가 겸임했음)의 횡포가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 운동은 제주도해녀조합이 구좌면 하도리 해녀들이 캐낸 감태와 전복 가격을 강제로 싸게 책정하려고 함에 따라 하도리 해녀 300여명이 1932년 1월 7일 세화리 오일장에 모여 이 조합의 횡포를 성토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규모 여성들이 독립운동을 벌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는 김옥련(金玉連, 건국포장)·부덕양(夫德良, 건국포장)·부춘화(夫春花, 건국포장) 등 3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들이 모두 건국포장을 받았다는 것은 해녀항일운동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사회주의 관련 인물들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 1920년대 후반 제주사회에 등장한 사회주의는 제주지역 내에 뚜렷한 노동자 계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주소작관계가 발달하지도 않았으며, 민족주의적 항일운동을 이끌어나갈 유림의 전통이나 근대적 자본가의 형성이 미약했던 사회분위기 하에서 등장했다. 그리고 중소자본가 가문출신의 청년지식인들이 일본 및 육지부로 유학하여 신사상(新思想)으로 사회주의를 수용한 후, 지역사회에 파

37)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60-164쪽.

급시킨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³⁸⁾ 당시 사회주의는 제주사회에서 계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입되어 청년층의 지지를 받았다.

제주 최초의 사회주의자는 조천리 출신 김명식(金明植)으로, 그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조선노동공제회(1920), 조선청년연합회(1920), 서울청년회(1920) 결성을 주도했으며³⁹⁾ 1999년에 애족장을 받았다.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했던 조직체로는 신인회(新人會, 1925), 제주청년동맹(1928), 신간회 제주지부(1929),⁴⁰⁾ 제주야체이카, 혁우동맹, 제주적색농민조합 등을 들 수 있다. 신인회는 제주지역 사회주의 급진청년들이 1925년 3월 사상단체로 조직한 것으로, “오인(吾人)은 무산자를 본위로 하는 신사회 건설을 기함”이라는 강령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명백히 나타냈다.⁴¹⁾ 제주청년동맹은 1928년 4월 모슬포에서 개최되었던 제주청년연합회 총회에서 이 연합회를 제주청년동맹으로 개편할 것을 가결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청년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은 1931년 조선공산당 제주 야체이카(당세포)를 결성하였다. 신인회를 조직해 활동했던 송종현, 한상호, 김택수, 강창보가 당세포를 맡았으며, 책임자는 송종현이었다.⁴²⁾

혁우동맹은 1930년 3월 구좌면 청년 사회주의자들이 결성한 비합법 지하조직으로, 강관순, 김성오, 김시곤, 문도배, 부태현, 신재홍, 오문규가 참여하여 해녀들의 자주적 판매를 가로막았던 제주도해녀조합을 비판했다.⁴³⁾ 제주적색[혁명적]농민조합은 전국에서 농촌진흥운동⁴⁴⁾이 전개되던 1933년 1월 제주야체이카 출신 김두경, 김경봉, 김일준, 부병훈이 만든 조직이었다. 당시

38) 박찬식, 앞의 논문, 1999, 226-227쪽.

39)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야체이카 사건」, 『한국사 연구』 70, 한국사연구회, 1990, 96쪽.

40) 당시 신간회 제주지회장은 김명식, 간사는 송종현, 강창보와 김택수는 회원이었다. 송종현과 김택수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41) 당시 신인회 간부에는 김택수(25세), 송종현(25세), 한상호(25세), 강창보(24세), 홍순일(24) 등으로 이들은 제주지역 사회주의 운동의 1세대로 평가받는다(염인호, 앞의 논문, 1990, 97쪽). 이들 가운데 강창보는 2005년에 애국장을 받았다.

42) 염인호, 위의 논문, 1990, 99쪽.

43) 염인호, 위의 논문, 116쪽. 혁우동맹에 참여했던 강관순, 김성오, 김시곤, 문도배, 신재홍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

44) 조선총독부가 주도해 1932년~1940년 사이에 전개했던 관제농민운동이었다.

핵심인물들은 리민희, 민풍진홍희 등 합법적인 진홍운동 단체에 참여해 일제의 착취사실을 농민들에게 폭로하고 농민들을 투쟁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⁴⁵⁾

다섯째, 아나키즘(anarchism) 관련 독립유공자도 있었다. 아나키즘은 본래 모든 정치조직과 권력을 부정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무정부주의’라고도 불렸다. 아나키즘의 비판 대상은 국가권력, 자본, 종교 등에도 미치며, 정치적 지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지배를 부정하는 조류를 의미한다.⁴⁶⁾ 제주지역에서 아나키즘을 주도했던 고병희는 “제주도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보다는 무정부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어느 편으로 보든지 좋다”고 주장하면서⁴⁷⁾ 아나키즘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29년 5월 5일 고병희, 조대수 등이 중심이 되어 우리계(宇利契)를 조직했다.⁴⁸⁾ 우리계 계원들은 매달 3원씩을 3년간 식산은행 제주지점에 예금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일종의 친목계로 출발했으나, 실제로는 소비조합 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본상품과 일본기업을 배척하는 활동을 했으며, 나아가 교통기관과 생산기관을 장악하여 아나키즘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다.⁴⁹⁾

2) 국외 일본방면 독립운동

<표 4>에서처럼 일본방면 독립운동 유공자는 모두 20명으로, 이 가운데 애국장을 받은 인물은 일본 성심야학교에서 민족교육(1938)을 했던 김성종(金性鐘)이 유일하다. 성심야학교(誠心夜學校)는 우도출신으로 1928년 3월에도 일한 이봉춘(李奉春)이 설립한 야학교로, 여기에 교사로 취업했던 김성종

45) 염인호, 「농촌진흥운동기 제주지방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1991, 163쪽. 적색농민조합운동에 참여했던 인사 가운데 김두경과 김경봉이 각각 애족장을 받았다.

46) 『네이버 지식백과』아나키즘(anarchism)(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47)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 야체이카 사건」, 『한국사 연구』 70, 한국사연구회, 1990, 110쪽.

48) 『동아일보』, 1930년 12월 10일자, 「濟州島事件 最高五年言渡」. 여기에는 무정부주의자 관련 판결과가 보도되었다. 우리계 관련하여 재판받았던 인물은 모두 6명으로, 고병희 5년, 조대수 4년, 고영희(高永禧) 4년, 강기찬 3년, 김형수 3년, 임상국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강기찬과 고병희는 애국장, 김형수는 애국장을 받아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상국을 제외한 고영희는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49) 염인호, 위의 논문, 1990, 110-111쪽.

(평대리 출신)은 1938년부터 조선출신 무산자(無產者) 청소년들에게 조선독립가를 부르게 하고 한국사,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민족의식을 고양했다.⁵⁰⁾

일본방면 독립운동은 첫째, 일본으로의 제주도민 이동의 산물이었다. 1922년 일본 오사카(대판)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직항로가 개통되면서 새로운 소득창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도일하여⁵¹⁾ 제주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일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대판지부에서 노동운동(1932)을 했던 김태권(金太權)과 일본 섬유노조활동(1931)을 했던 김희봉(金喜奉)이 대표적이다.

둘째, 재일제주인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주의자라는 사상성 문제에 걸려 있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해방 후 북한으로 가거나 일본에 남아 북한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표 4〉 일본방면 독립운동 현황⁵²⁾

성명	주요 공적개요	포상훈격
姜金鍾	계림동지회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1940)	애족장
康時儉	일본대판 흥국상업학교 재학생들에게 조선독립 취지의 연설문 배포(1942)	대통령표창
姜太善	일본 대판에서 민족의식 고양(1942)	애족장
高湛龍	중앙대 제학 중 민족의식 고양(1938~1942)	애족장
高奉朝	계림동지회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1940)	애족장
高瀛豪	일본 대판중학교 졸업후 동지들과 조선독립청년당을 조직해 대판지방에서 독립 운동(1943)	애족장
金文準	신간회 대판지회 검사위원장(1929), 대판조선노동조합과 전협계의 일본화학노조의 대판지부 책임자로서 반제격문 살포	애족장
金性鐘	일본 성심야학교에서 민족교육(1938)	애국장
金在珍	일본 공산청년동맹 활동(1933)	건국포장
金昌沃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목격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선독립운동을 추진한 「우리들, 이라는 비밀결사 조직(1941)	애족장
金太權	일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대판지부에서 노동운동(1932)	건국포장
金喜奉	일본 섬유노조활동(1931), 일본 공산당 활동(1933)	애족장
夫德煥	일본 공산청년동맹 활동(1933)	애족장

50)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352쪽.

51) 진관훈,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2004, 133-134쪽.

52)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과 『제주독립운동사』(1996, 제주도)에서 공적을 요약함.

夫東興	일본 대판 동아전기학교 재학 중 독립운동(1942)	대통령표창
夫林栓	계림동지회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1940)	애족장
夫章煥	일본 대판에서 출판관서지부를 결성하고 조직 확대를 위한 운동 전개(1933)	건국포장
吳南鶴	일본 대판 조일화학공업소 근무 중 일본의 폐전을 예측하는 소문을 듣고 여러 사람들에게 일본군의 불리한 전세를 전달(1945)	건국포장
吳坪允	일본 공산당 활동(1933)	건국포장
鄭友生	일본 전협 금속 대판지부에서 활동(1932), 일본공 산청년동맹 활동(1933)	애족장
韓滿淑	계림동지회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1940)	애족장

셋째, 계림동지회 활동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사람은 김봉각(신흥리, 징역 2년 6월)과 김병목(조천리, 징역 1년 6월)을 제외한 강금종(姜金鍾), 고봉조(高奉朝), 부림전(夫林栓), 한만숙(韓滿淑) 등 4명이며 이들은 각각 애족장을 받았다. 계림동지회는 일본 오사카(대판)에서 1940년 4월 조선독립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였다.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일본에서 활동했던 제주인 독립운동가는 300여명정도였으나, 이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부족과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본방면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⁵³⁾

III.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1. 독립운동 사적지 분포실태

독립운동 사적지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장소 또는 문화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과 관련된 건물, 집터, 기념비, 독립운동 현장 및 기타 관련 유물의 소재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적지는 한국 근대사의 근간을 이루는 독립운동의 생생한 현장으로, 그 지역의 근대 정체성을 제공해 주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⁵⁴⁾

2009년 제주대학교 박물관 조사팀이 조사한 40개 독립운동 사적지는 제

53) 김창후, 「재일제주인 항일운동의 연구과제-김문준의 활동을 중심으로」, 141-148쪽.

54) 박경목, 「예산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도시 마케팅을 일환으로」, 166쪽.

주시 동지역과 한림읍·추자면·한경면을 포함한 제주시 중서부권, 조천읍을 중심으로 구좌읍·우도면을 포함한 제주시 동부권, 그리고 서귀포시 전체를 아우르는 서귀포권에 분포되어 있다. 여기에는 독립운동 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인사들의 집터나 활동지도 포함되었다. 정의면 청년회 씨름장 항쟁지(고성리)나 집의계 조설대 구국맹약지, 제주도 경찰서 터, 가마오름 일본군 동굴진지, 송악산 해안 일본군 동굴진지, 알뜨르 비행장 등이 그 사례이다.

2009년에 조사된 독립운동 사적지들은 첫째, 제주시 동(洞)지역과 조천읍 및 구좌읍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읍 지역의 경우, 일본의 정치·행정·경제시설이 집중된 곳이었고, 조천면은 3·1운동, 구좌면은 해녀항일운동의 발생지였기 때문이다.

<표 5>는 권역별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결과표이다.⁵⁵⁾ 이에 근거해 독립운동 사적지의 종류를 보면, 가옥(18개), 건물(6개), 거리(6개), 기타(5개, 비행장과 동굴진지), 시장(2개), 묘소(2개), 산야(1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옥(18개)은 현재 남아있는 집터와 남아있지 못한 생가 터를 포함하며, 건물은 개인집터가 아닌 법정사나 조천야학소 등 다수가 이용했던 공용시설을 의미한다. 사적지를 운동유형별로 보면, 민족주의 독립운동(12건), 사회주의 독립운동(11건), 의병운동(6건), 3·1운동(5건), 일제통치/탄압/수탈기구(4건), 한말구국운동(1건), 학생운동(1건) 순이다.

〈표 5〉 40개 독립운동 권역별 조사 사적지 현황⁵⁶⁾

권역별	번호	사적지명	종류	분류	상태	사적지지정
제주시 중서부권	1	집의계 조설대 구국맹약지	기타(비석)	한말구국 운동	변형	미지정
	2	황사평 - 제주의병 훈련터	기타(마을)	의병운동	멸실	미지정
	3	제주공립농업학교터 - 학생운동지	건물	학생운동	멸실	미지정
	4	제주도 경찰서 터	건물	일제통치/탄 압/수탈기구	멸실	미지정
	5	고사훈 생가터	가옥	의병운동	멸실	미지정
	6	김석운 집터	가옥	의병운동	멸실	미지정

55) 당시 독립운동 사적지 현장조사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의 김은희, 한금실, 김나영 선생님과 제주한라대학교 방송영상과 촬영팀이 참여했다.

56) 독립기념관, 『제주도 독립운동사적지』, 2010, 31쪽.

	7 강창규 생가터	가옥	민족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8 송종현 집터 - 신인회 활동지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9 김형수 집터 - 우리계 활동지	가옥	민족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10 강창보 집터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11 김경봉 집터 - 적색농민조합 활동지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12 추자어업조합 터	건물	민족주의 독립운동	변형	미지정
	13 추자도 어민항쟁지	거리	민족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14 가마오름 일본군 동굴진지	기타 (동굴진지)	일제통치/탄 압/수탈기구	복원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제308호
제주시 동부권	15 김시황 집 - 이승훈 제주 유배지	가옥	민족주의 독립운동	변형	미지정
	16 미밋동산 3·1운동 만세시위지	거리	3·1운동	변형	미지정
	17 조천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시장	3·1운동	멸실	미지정
	18 합덕리 3·1운동 만세시위지	거리	3·1운동	멸실	미지정
	19 세화오일장터 제주해녀 항쟁시위지	시장	민족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20 연두막동산 제주해녀 항쟁시위지	거리	민족주의 독립운동	변형	미지정
	21 조천야학소 터	건물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22 김시용 집 - 신좌면 소비조합 활동지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원형 보존	미지정
	23 김시온 집터	가옥	3·1운동	멸실	미지정
	24 김명식 집터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25 김문준 지터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26 고순흠 집터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27 부생종 집터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28 부춘화 집	가옥	민족주의 독립운동	변형	미지정
	29 문도배 집터 - 제주혁우동맹 결성지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멸실	미지정
	30 강관순 집	가옥	사회주의 독립운동	변형	미지정
	31 백옹선 묘	묘소	3·1운동	원형	미지정

				보존	
서귀포 시권	32	제주의병 집결지	거리	의병운동	멸실
	33	고사훈·김만석 순국지	거리	의병운동	변형
	34	법정사 터 - 1918년 법정 사항일운동 발생지	건물	민족주의 독립운동	멸실 제주도지정문화재 기념물61-1호
	35	신유의숙 - 김성숙 활동지	건물	민족주의 독립운동	멸실
	36	고성리 씨름장 항쟁지	산야	민족주의 독립운동	멸실
	37	송악산 해안 일본군 동굴 진지	기타(동굴 진지)	일제통치/단 압/수탈기구	훼손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313호
	38	알뜨르 비행장	기타(비행장)	일제단압/수 탈기구	원형 보존 미지정
	39	방동화 생가 터	가옥	민족주의 독립운동	멸실
	40	김만석 묘	묘소	의병운동	변형

둘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독립운동 계열 사적지가 50%를 넘었다. 민족주의 독립운동은 3·1 운동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일제의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우선적으로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사례로는 추자도어민항쟁지, 제주해녀항쟁시위지 등이 포함된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은 192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나 일본에서 활동하며 사회주의를 접했던 제주인들이 귀향해서 주도한 것으로, 조천야학소터, 신좌면 소비조합터, 제주 혁우동맹 결성지 등이 해당된다.

셋째, 조천읍 조천리에 독립운동 사적지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마을이 조선시대 지식인(목사, 판관, 현감, 유배인)들이 들어오는 관문이어서 이들로부터 영향 받은 유림들이 있었고, 또한 상업 활동으로 부를 쌓은 중소 자본가들이 자식들을 일본이나 서울로 유학 보낸 사례가 있어서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계열 독립 운동가들이 다수 배출될 수 있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마을에 입지한 제주보훈청 항일기념관을 거점으로 주변에 집중된 독립운동 사적지와 연계해 조천리를 ‘제주도 독립운동의 메카(중심지)’로 활용했으면 한다.

넷째,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 사적지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특히 1909년 제주의병항쟁은 제주도민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제주인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병항쟁에는 이념대립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시민들이 의병항쟁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의병항쟁 사적지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40개 독립운동 사적지의 대부분은 원형을 잃어버린 채 멸실 또는 방치되고 있다. 특히 독립운동 관련 단체 활동은 별도의 공간(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직을 만든 인물의 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화로 인해 현재 그 흔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신인회 활동지인 송종현 집, 적색농업조합 활동지인 김경봉의 집은 현재 도로에 편입되고 말았다.

2.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1) 개별 사적지 활용방안

근래에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일기념관, 독립기념관 또는 인물·사건 기념관을 세워 지역과 지역민들의 정체성 찾기와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제 독립운동 사적지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의 단편이 아니라 지역을 알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미래 산업·관광산업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⁵⁷⁾ 여기에서는 『제주도 독립운동사적지』(2010)에 실린 9개의 개별 사적지를 선정해 우선순위별로(①번부터)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천야학소 터

이 터에는 현재 ‘조천야학당’이라는 이름의 3층 건물이 세워져 있다. 조천야학소는 본래 1928년 8월부터 제주청년연맹 조천지부가 100여명의 회원을 규합해 만든 것이다. 이곳에서는 1929년 8월 13일 부녀자 노동야학을 조직하여 운영했다. 조천지부 청맹원들의 주된 활동은 신좌문고 운영과 노동야학 개설이었다.⁵⁸⁾ 야학소 터 주변에 있는 김시용 집터(신좌면 소비조합 활동지), 고순흠 집터(애국계몽운동), 김시은 집터(조천만세운동)와 연계한 독립운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조천지역 야학운동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

57) 박경목, 「청양지역 독립운동 사적지의 활용방안」, 232쪽.

58)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 연구소, 2012, 266쪽.

위 항일정신을 계승했으면 한다. 조천야학당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 지원을 활용한 마을 살리기’ 정책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운영예산을 지원했으면 한다.

② 부춘화의 집

이곳은 1932년 제주해녀항일운동 당시 해녀대표로 해녀들의 권익향상과 생존권 투쟁에 선도적 역할을 했던 부춘화(1908~1995)의 집이다(그림 4). 부춘화는 15세부터 해녀생활을 시작했으며, 1927년부터 1931년까지 하도야학소에서 교육을 받아 해녀항일운동에 앞장 설 수 있었다. 부춘화의 생가를 제주해녀축제와 연계시켜 제주해녀의 위상을 높이는 답사장소로 활용하거나 우도·성산리·하도리·세화리(구좌읍)를 연결하는 ‘해녀항일운동벨트’를 만들어 이용할 경우, 해녀항일운동을 체험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림 4〉 하도리 부춘화의 집(2009년 촬영)

③ 가파도 신유의숙터-김성숙 활동지

김성숙은 1919년 경성고보 4학년 재학 중 3·1운동에 참가한 후 제적되자 고향인 가파도로 돌아와 1926년(신유년) 대정지역 유지인 이옹신, 이시화, 김옥천, 김한정, 이도일 등과 함께 신유의숙(辛酉義塾, 가파리 355)을 설립했다. 이곳은 가파초등학교의 전신으로, 한글교육과 민족 주체성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양시켰으며, 학교모표도 무궁화를 이용해 도안했다. 졸업생들은 대정지역에서 항일운동과 문맹퇴치에 앞장섰다. 해마다 열리는 가파도 청보리 축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신유의숙과 김성숙을 주인공으로 하는 독립운동 체험기회를 부여했으면 한다.

④ 제주공립농업학교-학생운동지

제주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은 1926년 일본인 교사가 한국인을 멸시하고 수

업을 소홀히 하자 일본인 교사 퇴출 및 차별교육을 반대하며 동맹휴학 전개했다. 또한 1931년 식민지교육 철폐, 일본인 스기사키 교장의 관사를 습격하는 등 전시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저항했다. 학생 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에 현재의 제주고등학교에서 선배들이 행했던 학생항일운동을 재현해 학생항일운동을 체험했으면 한다.

⑤ 김형수 집터-우리계 활동지

이곳은 제주시 삼도동 935번지에 위치한다. 김형수는 1927년 4월 9일 제주에서 무정부주의 독립운동 노선에 해당하는 비밀독서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1929년 5월에는 독서회 회원들과 함께 우리계(宇利契)를 결성했으며, 이후 9월에는 야학을 설립해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무정부주의사상을 선전했다. 이 사적지를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도심재생사업)를 위한 역사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⑥ 김시용 집-신좌면 소비조합 활동지



〈그림 5〉 조천리 김시용의 집(2009년 촬영)

김시용은 1927년 10월 조천리 출신 김유환과 지역유지자들에 의해 신좌면 소비조합을 조직했다. 그는 1937년경부터 신좌면 소비조합의 실질적 핵심인물로 활동하며 지역민들에게 반전사상을 고취하고, 창씨제도와 통제경제, 강제징집에 반대하면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며 상품을 싸게 판매했다. 그는 치안법과 육해군 형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옥고를 치르던 중 옥사했다. 2009년 현재 김시용 집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어(그림 5) 조천마을 항일독립운동자료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김시용 집은 사회주의 계열 소비조합의 존재와 기능을 설명하는 최적의 장소로 손색이 없다.

⑦ 추자도어민항쟁지

추자도에는 1926년 상추자도 대서리에 있던 추자도어업조합이 어민들을 착취하고, 조합장과 이사 등이 수산물 판매에 부정을 저지르자 하추자도의 북리, 예초리 주민들이 수산물 공정판매를 요구하며 일으킨 어민항쟁지와 ‘사와다 그물망 사건’으로 알려진 1932년 영홍리 어민항쟁지가 있다. 최근 추자도 예초리 주민들은 사건 발생 90주년을 맞아 「추자도예초리어민항쟁기념비」를 건립했다. 두 항쟁지를 매년 추자도에서 열리는 굴비축제에 항일운동 관련 콘텐츠로 활용하거나 추자도를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도의 경우처럼⁵⁹⁾ ‘항일운동의 섬’으로 부각시켜 1926년 또는 1932년 항일운동이 발생했던 날짜에 항일운동 재현행사를 했으면 한다.

⑧ 강관순 집(우도)

강관순은 1926년 제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인 우도에 있던 영명의숙 교사로 계몽운동과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했다. 1931년에는 구좌면에서 신재홍, 문도배 등과 함께 비밀결사인 혁우동맹을 결성했으며, 1932년 1월 제주해녀항일운동이 발생하면서 배후세력이었던 혁우동맹이 탄로나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옥중에서 ‘해녀의 노래’를 작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강관순의 집은 개량되어 남아 있으며(그림 6), 우도에서 열리는 축제에 항일운동 관련 콘텐츠 추가해 우도 관문인 천진항에 있는 「우도해녀 항일운동기념비」(그림 7)에서 만세행진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2) 사적지의 종합적 활용방안

①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역사관광상품 개발

다크투어리즘(darktourism)은 ‘역사교훈여행’으로, 전쟁과 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해

59) 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 『소안항일운동사』, 2016.



〈그림 6〉 우도 오봉리 강관순 집(2009년 촬영) 〈그림 7〉 우도해녀 항일운동비(2009년 촬영)



떠나는 여행을 말한다.⁶⁰⁾ 다크투어리즘으로 활용 가능한 사적지는 일제탄압·수탈지인 ‘알뜨르 비행장’이 적당하다. 이곳에는 현재에도 1930년대 비행기 격납고와 지하 통신시설, 관제탑 등이 남아있다.⁶¹⁾ 이밖에 제주의 병운동과 관련된 의병항쟁기념탑, 황사평 의병훈련지, 고사훈 의병장 생가터, 김만석 묘 등을 다크투어리즘의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주항일기념관에 항일독립운동자료 아카이브 구축

독립운동 사적지가 점차 멸실과 변형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사적지 관련 유물과 유적, 사진과 문서, 구술자료 등을 포함한 아카이브 구축이 시급하다. 독립운동 사적지는 미래 독립운동 연구자들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중요한 역사유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병운동, 법정사 항일운동, 조천만세운동, 해녀항일운동, 학생운동 등에 대한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항일기념관이 독립운동 전공 학예사를 채용해 독립운동 사료 아카이브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했으면 한다.

③ 시민사회와 네트워크 구축

시민사회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호하고 계승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시민

60) 김현철,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논문, 2010, 18쪽.

6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 현장읽기』, 2017, 80-89쪽.

사회와 사적지를 연계시키는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항일기념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기념관이나 또는 접근성이 양호한 공간을 이용해 제주의병운동,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해녀항일운동 등에 대한 시민강좌를 개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가칭 ‘제주항일독립운동 정기강좌’ 또는 ‘제주항일독립운동 시민 아카데미’를 수료한 시민들을 ‘항일독립운동 해설사’로 양성해 독립운동 사적지 해설을 맡겼으면 한다.

④ 독립운동 청소년 보훈캠프 운영

제주지역의 청소년들은 『한국사』 시간에 중앙사(中央史)로서의 한국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는 배우고 있으나, 지역사(地域史)로서의 제주지역 독립운동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독립운동사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의병, 학생운동, 해녀항일운동을 체험하는 독립운동 청소년 보훈캠프 운영을 제안한다. 보훈캠프는 광복절 날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항일기념관 광장에서 열 수 있다. 주간에는 이곳에서 출발해 조천리 독립운동 사적지와 구좌읍 세화리, 하도리를 연결하는 올레길 구간에 존재하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제주지역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한 조사보고서 발표대회를 열거나 연극과 노래 공연을 하게 한다면, 참가학생들이 즐겁게 독립운동 역사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 남아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도 청소년들에게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⑤ 독립운동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

독립운동사의 대중화에 가장 큰 문제는 내용이 어렵고 사안이 복잡하며, 현재 우리들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각인되어 있다는 점이다. 독립 운동가는 우리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먼 존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인식도 강한 편이다.⁽⁶²⁾ 따라서 독립운동 사적지가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적지가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

62) 박경목, 「충북지역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과 활용」, 2011, 103쪽.

와 가치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이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은 각 독립운동 사적지와 지역의 문화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에 관련된 인물과 사건에 대한 학술 심포지움, 세미나, 개별적인 연구의 진작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어 일정한 결과로 창출된 것이라야 탄탄한 서사적 구조를 가진 스토리가 탄생할 수 있다.⁶³⁾

나아가 독립운동 관련된 인물, 사적지, 유물, 유적, 자료들을 콘텐츠로 개발했으면 한다. 최근 발간된 『항일의 횃불, 김성숙』⁶⁴⁾과 『제주항일독립운동가, 제주여성교육자 최정숙』⁶⁵⁾ 그리고 제주의 병장 고사훈, 김명식, 고순홍, 김문준 등의 일대기들은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원천자료로 손색이 없다.

⑥ 제주시 원도심 재생과 마을 살리기 연계

제주시 원도심에는 송종현 집터(신인회 활동지), 김형수 집터(우리계 활동지) 그리고 제주도 경찰서터가 남아있다. 비록 현재 원형은 사라지고 말았으나 해당 장소에 표지석이나 안내문을 설치해 원도심에서 이루어졌던 독립운동 활동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했으면 한다. 역사가 있는 원도심은 사람들에게 끌어 모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독립운동 사적지들을 원도심 재생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운동 사적지들은 마을 살리기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조천읍 조천리 활성화사업에 조천만세운동을 활용하고, 추자도 영흥리와 예초리 어민항쟁지를 이용해 추자도 마을 재생 사업에도 이용할 수 있다.

⑦ 독립운동사 교육 및 체험학습 장소로 활용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V. 일제의 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 단원에서 1쪽 분량으로 「서울에 있는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분을 배치해 백범기념관, 탑골공원, 순국선열추 niệm탑 등 독립운동 사적지를 조사하거나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⁶⁶⁾ 제주지역에서도 한국사 수업을 할 때 독립운동 사적지를 활용해 독립운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63) 박경목, 위의 논문, 104쪽.

64) 제주도교육청, 『항일의 횃불, 김성숙』, 2910.

65)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항일독립운동가, 제주여성교육자 최정숙』, 2016.

66)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7, 277쪽.

했으면 한다. 제주시 지역에 있는 조설대 집의계 구국맹약지, 송종현 집터, 제주의병항쟁기념탑, 조천야학소터, 조천만세운동기념탑, 제주항일기념관, 해녀항쟁기념탑, 그리고 서귀포시 가파도 신유의숙 김성숙 활동지, 법정사 항일운동지, 고성리 씨름항쟁지 등이 독립운동 체험지로 추천할 만하다.

IV. 맷음말

이상과 같이 2017년 12월 말 현재까지 국가보훈청 공훈전자사료관에 등재된 148명의 독립유공자들과 그들이 남긴 독립운동 사적지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현황 및 독립운동 양상, 독립운동 사적지의 분포현황과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연구결과와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12월 현재 제주지역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148명이다. 이는 제주지역 독립운동인사 500여명 가운데 30% 정도에 불과하여 앞으로 미인정자에 대한 추가 자료발굴을 통해 독립유공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2009년에 조사된 사적지는 40건에 불과하므로, 사적지들이 급속히 멸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이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항일기념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한 후, 사적지 조사를 순차적으로 늘렸으면 한다. 사적지 조사결과는 지역민의 정체성 확인과 함께 제주도의 역사자산 및 마을자산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셋째, 제주지역 독립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의 의병운동, 법정사 항일운동, 조천만세운동에서 시작하여 192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에 근거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사회주의 계열에는 신인회, 신간회, 제주청년동맹, 제주야체이카, 제주적색농업조합 활동이 대표적이며, 무정부주의를 표방했던 아나키즘에 입각한 독립운동 사례에는 우리계(宇利契) 활동을 들 수 있다.

넷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전문인력을 투입해 애국계몽운동, 문화운동, 신교육운

동 등에 참여했으나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인물들에 대한 증빙자료 발굴이 시급하다.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 강평국과 제주항일비행사 임도현 그리고 추자도 어민항쟁 관련자들에 자료 확보가 급선무이다.

다섯째,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독립운동 사적지를 단순한 유적이나 문화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해당 지역을 브랜드화시켜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여섯째, 독립운동 사적지를 이용해 다크투어리즘 활용 역사관광상품 개발, 항일독립운동 아카이브 구축, 스토리텔링과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청소년 보훈캠프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적지와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독립운동사 해설사 양성, 제주시 원도심 재생과 마을 살리기 연계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일곱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항일기념관의 역할강화가 시급하다. 현재처럼 시설보수와 유지만 할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350여명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주항일기념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한다.

끝으로 제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적지를 품은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동참 나아가 시민사회와 제주역사 연구단체,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항일기념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제주도 독립운동사적지』, 2010.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적지를 찾아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2.
- 김동전,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탐라문화』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김찬흡, 『제주항일인사실기』, 북제주군·북제주문화원, 2005.
- 김창후, 「재일제주인 항일운동의 연구과제-김문준의 활동을 중심으로 -」, 『제주도사 연구』, 6, 1997.
- 김한종·남정우·이해영, 「독립운동사 교육에서 사적지 활용방법과 그 효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9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 김현철,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논문, 2010.
- 문혜경, 「제주항일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새로운 정립-조천만세운동을 중심으로」, 『제주항일항쟁사-기유제주의병항쟁편』, 제주항일기념관, 2014.
- 박경목, 「예산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도시 마케팅을 일환으로-」, 『충청문화연구』 7,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2011.
- 박찬식, 「제주지역 항일독립운동가의 시대별 성격」, 『제주도사연구』 8, 제주도사연구회, 1999.
- 송광배, 「제주지방의 3·1운동과 그 후의 항일운동」,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석사논문, 1985.
- 심옥주, 「일제강점기 제주 독립운동의 지형과 독립유공자 현황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야체이카 사건」, 『한국사연구』 70. 한국사연구회, 1990.
- _____, 「농촌진흥운동기 제주지방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제주도사연구』 1. 1991.
-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9.
- 제주항일기념관, 『제주항일항쟁사-기유제주의병항쟁편』, 2014.
- 한금순, 『한국근대 제주불교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Abstract

A Plan to Utiliz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in Jeju Region

Kang, Man-Ik*

This study analyzes the independence movements carried out by 148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n Jeju region and suggests a method to utiliz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al sites. The result of this study and issues for further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of December 2017, there are 148 people recognized as the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n Jeju region, and they account for only 30% of the total number of 505 independence movement participants. Thu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evidence to help the unrecognized persons who account for up to approximately 70% of the total independence movement participants.

Second, in 2009,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surveyed 40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which accounts for no more than 27% of the total historical sites. Considering that th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have been damaged and destroyed, it is necessary for Jeju Special Self-Province or Jeju Anti-Japanese Memorial Museum officials to organize a survey budget,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and gradually increase the historic site survey. The findings of the historic site survey will help maintaining the identity of local residents, and serve as a village asset and historic asset of Jeju Province.

* Teacher, Jeju-Jungang Girl's High School.

Third, it is necessary to find materials to prove the activities of independence activist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ut in experts specialized i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and to find materials on the persons who participated in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Cultural Movement, New Education Movement and others but failed to be recognized as the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ind materials about Kang Pyeong-guk, who was a female independence activist, Im Do-hyeon, who was a Jeju anti-Japan pilot, and the people involved in the Fishermen's Struggle Against Japanese in Chujado Island.

Fourth,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It is necessary to brand the sites and make them 'a place to visit' or 'a place to stay' by revitalizing the entire sites rather than just to keep them as historic sites or cultural properties.

Fif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history tourism products and services related to dark tourism, establish anti-Japan independence movement archives, develop storytelling and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and establish a youth patriot camp by utiliz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Further, it is worth establishing the networks between historic sites and civil societies, fostering the commentators of anti-Japa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and linking the regeneration of old downtowns and the revitalization of villages in Jeju.

Sixth,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role of Jeju anti-Japanese Memorial Museum. Approximately 350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re not yet recognized as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due to the lack of evidence. In order to help them to be recognized as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Jeju anti-Japanese Memorial Museum should actively hold independence movement-related academic seminars,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independence movement researchers, and expand the employment of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specialists as curators, beyond performing

facilities maintenance and repair.

Finally, in order to protect and preserve Jeju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the following are needed: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in villages where historic sites are located; the participation of youth and students; and great efforts of civil societies, Jeju history research groups, Jeju Research Institute and Jeju Anti-Japanese Memorial Museum.

Key words :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Jeju Anti-Japanese Memorial Museum, Dark Tourism.

교신: 강만의 633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설촌로 26, 502호

(삼양이동 한라하이츠빌2차)

(E-mail: jejuteuri@naver.com)

논문투고일: 2017. 12. 31

심사완료일: 2018. 01. 27

게재확정일: 2018. 01. 31

우리나라의 도깨비 도로 -심리학적 설명과 활용 제안*

오성주**

- I. 소개
- II. 도깨비 도로의 심리학적 설명
 - 1. 맥락적 높이 단서
 - 2. 눈 수준 단서
- III. 연구 방법 및 결과
 - 1. 측정 방법
 - 2. 결과
- IV. 논의
- V. 맷음말 및 제안

국문요약

도깨비 도로는 실제 경사와 반대로 지각되는 현상이다. 도깨비 도로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며 한국에서도 다수가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도깨비 도로는 관광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 대상이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도깨비 도로를 학문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제주도 사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도깨비 도로로 알려진 20개의 도로를 전수 조사하였고, 이 가운데 17개를 중심으로 왜 착시가 일어나는지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도깨비 도로는 평균

* 1년여 동안 현장에 함께 탐방하여 관찰자가 되어준 가족에게 감사한다.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1~2° 사이의 낮은 경사를 보였고, 주요 원인으로 나무나 가로등 같은 도로 주변의 물체에 의한 맥락, 이웃한 도로끼리의 경사 대비를 지목하였다. 끝으로, 조사를 토대로 도깨비 도로를 관광 산업의 관점에서 좀 더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경사 지각, 도깨비 도로, 반중력 언덕, 착시.

I. 소개

도깨비 도로(spook road)는 실제 경사와 반대로 지각되는 현상이다. 비슷한 이름으로 신비의 도로(mystery road), 자석 언덕(magnetic hill), 중력 언덕(gravity hill), 요술 도로(magic road)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학문적으로 반중력 언덕(antigravity hill)으로 불린다.¹⁾ 도깨비 도로는 기울기와 측정의 안정성이 중요하여 도로가 포장되기 시작한 현대에 발견된 현상이다. 전 세계에 도깨비 도로가 많은데, 미국,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일본 등 약 30 개국 130곳 이상이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도 도깨비 도로가 다수 있지만 해외에는 제주도 사례만 알려져 있다.

도깨비 도로의 발견은 대체로 우연히 일어난다. 도깨비 도로가 착시임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 경사와 지각한 경사가 서로 반대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밀한 경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문 장비가 필요하지만, 자동차, 플라스틱 공, 물 등 일상적인 도구를 통해서도 대충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도의 도깨비 도로를 포함하여 많은 사례는 자동차 운전자가 발견하였다.²⁾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할 때 운전자는 출발과 정지 시 변속기를 중립에 놓아야 하는데, 운전자가 도로의 경사를 잘못 판단하여 자동차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는 일을 목격함으로써 도깨비 도로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자동 변속기가 흔한 최근에 도깨비 도로의 발견은 어려울 수

1) Bressan, P., Garlaschelli, L., & Barracano, M, "Antigravity hills are visual illusions", *Psychological Science*, 14(5), 2003.

2) 노관섭, 「도로와 도깨비-귀신」, 『대한토목학회지』 51(6), 2003.

있다.

제주도는 노형동의 도깨비 도로 이외에 아라동에 있는 제2의 도깨비 도로도 빌굴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뒤를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의 제보에 따라 도깨비 도로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 경기도 의왕시, 충북 청주시, 세종특별시, 경북 칠곡, 전남 화순 등에 있는 도깨비 도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도깨비 도로 구간과 착시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도깨비 도로만큼 다른 지역의 도깨비 도로는 관광의 관점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제주도에 있는 두 곳의 도깨비 도로는 접근성이 좋으며, 제주도 특유의 관광 문화가 도깨비 도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도깨비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설치하여 관광객을 보호하고 있다. 매일 수많은 관광객이 도깨비 도로를 체험하기 위해 찾고 있는데 착시가 적극적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런데 어렵게도, 한국에서 도깨비 도로는 대부분 관광 혹은 흥미의 대상으로만 다뤄지고 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만, 과학적 기술과 거리가 멀다. 학계에서도 도깨비 도로의 경사를 측정하는 정도의 연구는 있지만,³⁾ 왜 도깨비 도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도깨비를 세워두거나 가공된 이야기가 담긴 안내판을 설치하여 미신적 신비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성적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 <그림 1>은 전국의 도깨비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설명문이다. 단순히 도깨비 도로 구간을 알리는 표지에서부터 발견된 과정과 시기, 도깨비 도로 구간, 도로 구조 등 자세한 것들까지 포함한다. 그렇지만 정작 도깨비 도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관한 설명은 부족하다. 이 가운데 세종시 비암사 안내문과 문경대학교 안내문은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잠시 살펴보자.

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망막에 투영하지만, 뇌가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안과 전문의들이 설명하는 반면, 지질학자들은 도로 주변의

3) 기창돈, 김정한, 「CDGPS를 이용한 도깨비 도로의 정밀 측위」, 『한국항행학회논문지』, 3(1), 1999. 이 연구자들은 CDGPS를 이용하여 제주도 노형동의 도깨비 도로의 실제 경사가 약 0.9° 내리막임을 밝혔다.

지형지물 등의 정황 때문에 착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설명문을 보면, 적어도 관련 지자체에서 도깨비 도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전히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어렵다. 뇌가 왜 착각을 일으키는지, 착각을 일으키는 지형지물을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도깨비 도로는 시각적 착시이며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심리학자이며 그중에서도 지각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그림 1〉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운 도깨비 도로 설명문4)

- 4) 위에서 아래로 왼쪽 열-세종시, 의왕시, 울주군, 문경대학, 가운데 열-횡성군, 철곡군, 무주군, 오른쪽 열-제주도 노형동, 제주도 아라동(알아보기 어려운 일부 설명문은 새로 편집되었음).

본 글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도깨비 도로 현상에 대한 기준의 이론을 한국의 도깨비 도로 하나 하나에 적용하여 설명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돋는 것이다. 또한, 이 작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도깨비 도로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도깨비 도로가 갖는 특징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관광의 관점에서 도깨비 도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착시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여 도깨비 도로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자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II. 도깨비 도로의 심리학적 설명

도깨비 도로는 경사 착시이다. 경사란 관찰자 또는 제3의 표면을 기준으로 대상이 기울어진 정도를 말한다. 3차원 공간에서 관찰자의 관점에서 경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존재할 수 있다. X축 경사(pitch)는 자동차 보닛을 여닫을 때처럼 회전축이 가로에 있어 위와 아래로 기울하는 유형이다. Y축 경사(yaw)는 문을 여닫을 때처럼 회전축이 세로에 있어 앞과 뒤로 기울하는 유형이다. Z축 경사(roll)는 벽에 걸린 시계를 똑바로 세울 때처럼 회전축이 깊이 방향에 있어 좌우로 정의하는 유형이다. 이 가운데 도깨비 도로와 관련된 경사는 X축이다.

그동안 심리학에서 수행한 경사 지각에 관한 연구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신체 자세에 기반한 경사 지각이다. 우리 신체에 중력에 민감한 생리적 기관이 있어 신체 자세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생리적 기관을 통틀어 자기고유감각(proprioception)이라 하는데, 크게 근육과 건에서 오는 신호와 청각체계의 전정기관(vestibular organ)에서 오는 신호로 이뤄진다. 이 신호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방이나 환경에서도 잘 발생하므로, 어둠 속에서도 신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둘째, 눈을 통해서 보이는 벽이나 기둥과 같은 외부 대상들이 특정 표면의 경사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어떤 물체의 경사를 판단하는 데 주변의 물체들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실세계에서 신체에서 오는 경사 신호와 눈으로 들어오는 환경의 경사 신호는 대체로 일치한다. 그래서 이 두 범주의 신호는 서로 상보적으로 작동한다. 그렇지만 특수한 환경에서 이 둘은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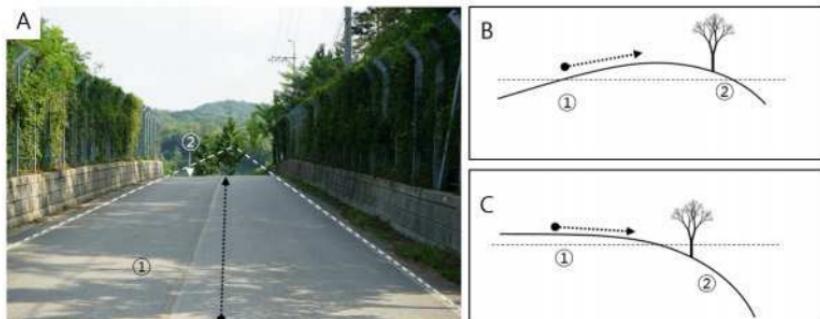
하지 않아 관찰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는 실험실 실험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잘 시범 되었고,⁵⁾ 놀이 공원 과학 체험관에 설치된 기울어진 방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찰자의 감정, 노력, 기대, 인지 등 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경사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배낭을 짊어졌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 비해서 같은 경사임에도 더 가파르게 지각되는 경향이 있거나,⁶⁾ 스케이트보드를 탔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 비해서 내리막 경사가 더 가파르게 지각되는 경향이 있다.⁷⁾ 이 세 범주의 경사 연구는 모두 도깨비 도로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앞의 두 범주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로 경사 지각은 다른 물체들의 경사 지각과 조금 다르다. 도깨비 도로는 보통 수십 미터에서 백 미터가 넘는 긴 거리에서 관찰되며, 대체로 특별한 지점에서 관찰자가 큰 이동 없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이렇게 관찰 거리가 멀고 신체의 정지 상태에서 도로의 경사를 판단하는 과정은 짧은 거리에서 경사를 판단하는 과정과 다른 지각 단서들이 중요해진다. 즉, 가까운 거리에서 잘 작동하는 양안부등, 조절, 수렴과 같은 생리적 깊이 단서보다 한 눈으로도 알 수 있는 선원근과 표면결 기울기 같은 그림 깊이 단서(pictorial depth cues)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⁸⁾ 연구자들은 도깨비 도로의 경사 지각에 관여하는 단서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 5) Asch, S. E., & Witkin, H. A, "Studies in space orientation: I. Perception of the upright with displaced visual field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38(3), 1948; Witkin, H. A., & Asch, S. E, "Studies in space orientation IV. Further experiments on perception of the upright with displaced visual field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38(6), 1948.
- 6) Bhalla, M., & Proffitt, D.R, "Visual-motor recalibration in geographical slant percep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25, 1999.
- 7) Stefanucci, J.K., Proffitt, D.R., Clore, G.L., & Parekh, N, "Skating down a steeper slope: Fear influences the perception of geographical slant", *Perception*, 37, 2008.
- 8) Cutting, J.E., & Vishotan, P. M, "Perceiving layout and knowing distances: The integration, relative potency, and contextual use of different information about depth", In *Handbook of perception and cognition*, Vol 5; *Perception of space and motion*, W. Epstein & Rogers, Eds. Academic Press, San Diego, CA, 1995.

1. 맥락적 높이 단서

도로의 경사 지각은 주변 물체들의 높이가 주는 단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사를 잘못 지각할 수 있다. <그림 2>는 예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A는 실제로 오르막길이다. 구간 1은 오르막이고, 구간 2는 내리막이다. 그림의 B와 C에서 언덕이 나무의 하단을 시작적으로 가리는 일은 실제로 앞 언덕이 높기 때문이지만 단지 건너편 길이 갑작스런 내리막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앞 도로를 내리막임에도 오르막으로 지각할 수 있다. 나무뿐만 아니라 가로등, 건물, 전봇대 등이 이러한 높이 단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변의 물체들이 반드시 길 끝 건너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고가도로처럼 길 양쪽 표면이 점진적으로 비탈지면서 이곳에 서있는 물체들이 점진적으로 키가 작아질 때에도 이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대상이 다른 물체를 가림으로써 높이를 평가할 때 맥락적 높이 (contextual height)라 한다.⁹⁾



<그림 2> 맥락적 높이 단서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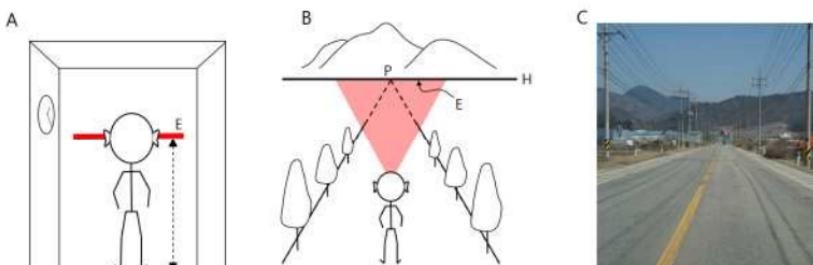
이 그림에 담겨진 또 다른 높이 단서는 도로의 선원근으로 인한 소실점 단서이다. 소실점이 허공에 맷혀있는데 보통 오르막길에서 볼 수 있는 특징

9) Gibson, J. J., "The perception of the visual world", Boston, Houghton Mifflin, 1950;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Boston, Houghton Mifflin, 1979; Sedgwick, H. A., "Visual space perception", In Goldstein, E. B. (Ed.). The Blackwell Handbook of Sensation and Perception (128-166). John Wiley & Sons, 2008.

이므로 이것만을 근거로 오르막으로 잘못 지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형에서 맥락적 높이 단서와 소실점 단서가 함께 오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소실점 단서는 맥락적 단서가 아닌 눈 수준 단서로 분류한다. 아래에서 이에 관한 좀 더 살펴보자.

2. 눈 수준 단서

눈 수준(eye level)이란 관찰자가 똑 바로 서 있을 때 서 있는 지면에서부터 두 눈의 높이를 지나는 가상의 수평면을 뜻한다. 눈 수준은 앞서 언급한 자신의 신체가 얼마나 반듯하게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자기고유감각을 바탕으로 발생하며 어두운 방에서도 건너편 벽 중간쯤 어딘가에 심상적으로 투사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관찰자가 시야가 탁 트인 편평한 들에 똑바로 선 채 전방을 주시하였을 때 눈 수준은 지평선과 일치한다.¹⁰⁾ 이는 철도의 두 철로가 멀어짐에 따라 소실점을 향해 서로 다가가는 원리와 비슷하다. <그림 3>은 눈 수준, 지평선, 그리고 도로의 경사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3> 눈 수준과 지평선의 관계^[11]

10) Stoper, A. E., & Cohen, M. M., "Effect of structured visual environments on apparent eye level", *Perception & Psychophysics*, 46(5), 1989.

11) (A) 눈 수준 E는 서 있는 지면에서부터 두 눈까지의 높이이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심상적으로 건너편 벽에 투사될 수 있다. (B) 똑바로 서서 전방을 주시하였을 때 눈 수준 E와 지평선 H는 일치한다. 도로의 소실점 P가 지평선의 높이와 일치한다면 경사가 없음을 명세하지만, 높거나 낮으면 각각 오르막과 내리막을 명세한다. (C) 경사가 없는 도로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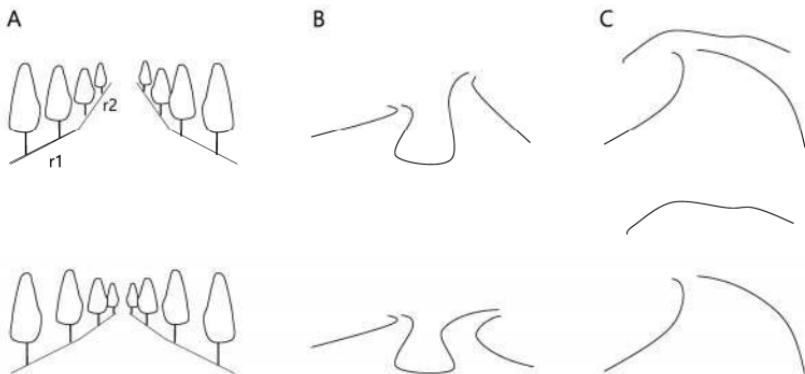
시각체계는 평소에 늘 일치하는 정보들은 비슷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길 끝의 소실점이 지평선을 기준으로 어떤 도로의 끝이 지평선과 도로가 경사가 없음을 지평선보다 오르막으로 지평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내리막으로 지각할 수 있다. 즉, 지평선을 생리적으로 발생한 눈 수준의 연장으로 가정하는 것이 바로 경사의 눈 수준 이론이다. 그런데 만일 지평선이 없으면 어떻게 경사를 판단할 수 있을까? 만일 어떤 도로의 경사가 분명하게 오르막이라면 심상적으로 발생한 눈 수준은 길 중간 어디쯤에 걸쳐지므로 금방 경사가 있는 도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눈 수준은 생리적인 단서이면서 시각적인 단서인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생리적인 눈 수준 단서와 지평선의 눈 수준 단서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가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시각체계는 종종 시각정보를 우선적으로 신뢰하곤 한다. 이는 다중 감각 또는 다중 단서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지각 과정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¹²⁾ 그 만큼 시각에 대한 신뢰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도깨비 도로는 경사가 크지 않은 도로에서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 생리적 정보로는 알아차리기 어려워 시각적 정보에 더 의존하여 경사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도로의 실제 경사와 다르게 도로 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림 3>에서 나타난 소실점 단서의 왜곡으로 인한 경사의 잘못된 지각이다.

그런데 Bressan 등(2003)은 눈 수준 단서를 단지 도로 끝의 지평선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변 도로와 산의 능선에까지 확장하여 설명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이 각각의 경우를 실험실에서 길이 2.4m 정도의 도로 모형을 설치하고, 도로의 기울기와 주변 맥락을 체계적으로 바꿔 제시하면서 목표 도로가 얼마나 기울어져 지각되는지를 살펴보아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¹³⁾ <그림 4>는 이 연구를 통해 증명된 몇 가지 도로 경사 착시이다.

12) Jacobs, R. A., "What determines visual cue reliability?",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6(8), 2002.

13) Bressan, P., Garlaschelli, L., & Barracano, M., "Antigravity hills are visual illusions", *Psychological Science*, 145, 2003.



〈그림 4〉 도깨비 도로에 대한 눈 수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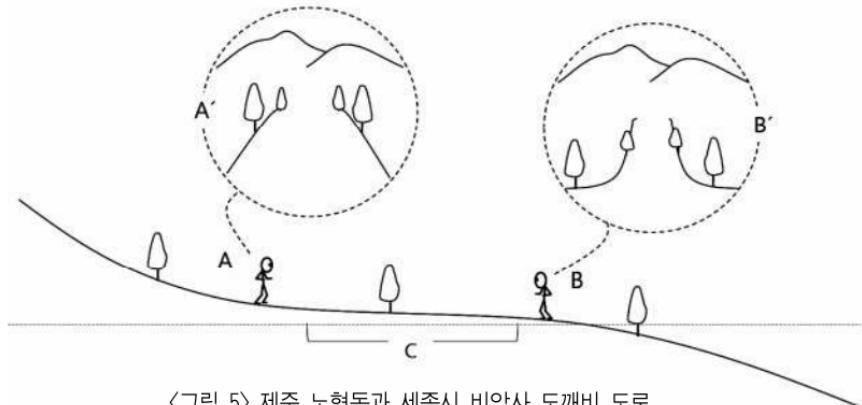
(A) 동일 도로에서 경사대비. 만일, 도로 r_1 과 r_2 가 각각 낮은 오르막과 가파른 오르막이면, r_2 가 눈 수준의 역할을 하여 r_1 이 내리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아래 그림처럼, 두 도로의 경사대비가 적다면 경사 착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 (B) 이웃한 도로끼리 경사대비. 한쪽의 경사가 가파르다면 높은 쪽이 눈 수준의 역할을 하여 낮은 쪽이 내리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아래 그림처럼 두 도로의 경사가 비슷하다면 경사 착시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진다. (C) 지평선의 위치. 지평선이 아닌 언덕은 눈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위 그림에서 도로는 오르막으로 아래 그림에서 상대적으로 내리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이 연구자들은 눈 수준 단서를 지평선만이 아닌 언덕의 능선과 이웃한 도로의 경사까지 확장한 점은 이론의 포괄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혼란스러움을 낳기도 한다. 다른 연구자 역시 이런 눈 수준 단서를 이렇게 폭넓게 확장하는 것은 경제적인 설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단순히 경사 대비로 설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한다.¹⁴⁾

한편, 맥락적 높이 단서와 눈 수준 단서는 종종 같은 도로에서 동시에 나타나곤 한다. <그림 5>는 이 예를 보여주는데, 제주 노형동과 세종시 비암사 도깨비 도로가 대표적이다. 도로 아래에서 위로 보면 경사대비로 인해 오

14) Kitaoka, A, "Slope illusion (Magnetic Hills) in Radan", In Art and its role in the history: Between durability and transient-ISMS, 2015.

르막이 내리막으로 보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길 끝에 가려진 나무들로 인한 맥락으로 오르막으로 지각된다.



〈그림 5〉 제주 노형동과 세종시 비암사 도깨비 도로

관찰자 A에게 구간 C는 A'처럼 비치는데 나무들의 높이 맥락으로 인해 오르막으로 지각할 수 있다. 경사대비: 관찰자 B에게 구간 C는 B'처럼 비치는데 먼 도로와 경사대비로 인해 바로 앞 구간이 내리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구간 C는 다른 두 도로와 같은 방향의 낮은 경사로, 도깨비 도로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정리하면, 맥락적 높이 단서는 도로의 경사를 도로가 나무, 집, 다른 지면 등 도로 주변의 물체의 하단을 가림과 같은 지각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판단할 때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눈 수준 단서는 도로 소실점의 위치, 이웃한 길이나 주변의 언덕과 배경의 산의 능선과 대비에서 올 때와 관련이 있다. 아래 글에서 눈 수준 단서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종 간단히 경사 대비라고 기술하였다.

III. 연구 방법 및 결과

1. 측정 방법

도깨비 도로는 주관적인 착시이므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착시 연구에

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차시를 경험하는지를 객관적 지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만, 통계적인 의미가 없다고 하여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우리나라 도깨비 도로들은 모두 개인들의 주관적 경험을 모두 의미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개인들이 보고한 도깨비 도로들을 조사하여 원인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통계적인 검증을 거치지는 않았다.

2016년 7월, 네이버(Naver)에 ‘도깨비 도로’, ‘요술 도로’, ‘귀신 도로’, ‘반중력 도로’, ‘중력 도로’, ‘신기한 도로’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나타난 문서들을 대상으로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총 20개의 도로를 선정하였다. 도깨비 도로의 위치는 스마트폰의 GPS 응용 프로그램(Simple GPS Display Pro, Generic Co)을 이용하여 경도와 위도로 확인하였다. 조사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8월 사이에 시행하였다.

도깨비 도로의 경사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J5(SM-J500NO)에 수평기 응용프로그램(Bubble Level, Ver. 3.12, NixGame Co.)을 설치하여 4m 간격으로 측정한 값들을 평균하여 얻었다. 스마트폰은 자체 경사가 있으므로 사용 전 간단한 방법을 통해 보정하였다.¹⁵⁾ 스마트폰으로 측정된 경사는 도깨비 도로에서 개인 블로거들이 체험적으로 확인한 경사 방향과 모두 일치하였다.

2. 결과

탐방 결과 강원도 평창, 강원도 안흥 인근, 전남 광양의 도로는 도로의 정비로 인해 경사가 크게 바뀌었거나 실제 경사와 보고된 경사가 일치하여 도깨비 도로가 아니었다. 이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17개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였고 <표 1>은 요약을 보여준다. 도깨비 도로는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있었는데, 서울에는 한 곳도 없는 것이 흥미롭다. 또한, 지방에 있는 경우에도 대체로 도심에서 멀었다. 도심지가 도로 정비가 잘 되어 경사가 분명하

15) 스마트폰은 뒷면의 카메라의 돌출로 자체 경사가 있다. 커버를 씌워 뒷면을 고르게 한 후, 만일 위로 향해 켰을 때 2° 가 나오고 아래로 향해 켰을 때 -2° 가 나오면 자체 경사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위로 향했을 때 2° 인데 아래로 향했을 때 0° 가 나왔다면 $2^{\circ}/2$ 로 자체 경사가 위로 1° 있음을 뜻하므로 측정값에서 1° 를 빼주어야 한다.

기 때문일 수 있지만, 도깨비 도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필요한데 도심지 도로는 위험하므로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조사한 전체 도로의 경사는 최소 0.48° 에서 최대 2.45° 로 평균 1.268° ($SD=0.49^{\circ}$)로 나타났다. 이는 도깨비 도로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지형에서 나타남을 보여준다. 경사 착시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14개(82%)는 맥락적 높이, 이웃한 도로와 경사대비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요인들은 같은 도깨비 도로 구간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였다. 나머지 3개(18%)는 매우 짧은 구간에서 보고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요인들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다만, 이웃한 도로와 경사가 같은 것으로 지각되므로 임시로 경사 동화로 분류하였다.

〈표 1〉 전국 도깨비 도로의 지리적 특징 및 설명

명칭 및 위치	길이(m)	경사 ($^{\circ}$) ¹⁶⁾	현상	주요설명	안전	접근성 (대중교통)
제주 노형동	100	-0.56	오르막으로	맥락적높이	높음	높음
제주 관음사	60	-1.23	``	``	높음	높음
세종시 비암사	100	-0.92	``	``	높음	높음
고창 석정휴스파	50	-1.32	``	``	보통	높음
울주 등억온천	50	-0.92	``	``	보통	높음
대전 현충원	100	-1.40	``	``	높음	높음
태백 두문동재	50	-1.59	``	``	높음	낮음
무주시 무풍면	80	1.57	내리막으로	경사대비	보통	높음
횡성군 안흥면	60	1.78	``	``	높음	보통
칠곡 지천면	60	1.52	``	``	높음	낮음
원주 흥업면	100	1.44	``	``	위험	높음
제천 청풍면	120	2.45	``	``	보통	보통
아산 갱티고개	60	1.54	``	``	보통	낮음
의왕 청계동	100	1.24	``	``	높음	낮음
화순 만연산	25	0.70	내리막으로	경사동화	보통	낮음
문경대학교	30	-0.88	오르막으로	경사동화	높음	높음
대구미술관	20	-0.48	``	``	보통	높음

16) 주요 착시가 일어나는 방향에서 측정한 값으로 ‘-’는 내리막임을 의미한다.

1) 제1유형: 맥락적 높이

우리나라 도로 주변에는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등의 인공물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이 물체들이 도깨비 도로를 일으키는 맥락을 제공하여 일어난 경우이다. 도로의 경사가 낮아 애매한 경우 이러한 시각 단서들은 더욱 강력해져 지각체계는 경사를 오르막이라고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맥락적 높이 단서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고 도로 끝이 시각적으로 단절되는 눈 높이 단서를 대부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제시한 분류를 염밀하게 받아들이기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확인한 도깨비 도로들을 아래에 하나씩 나열하여 착시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나열 순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제주도 사례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한 사례 그리고 개인들이 보고한 사례 순이다.

① 제주도 노형동 도깨비]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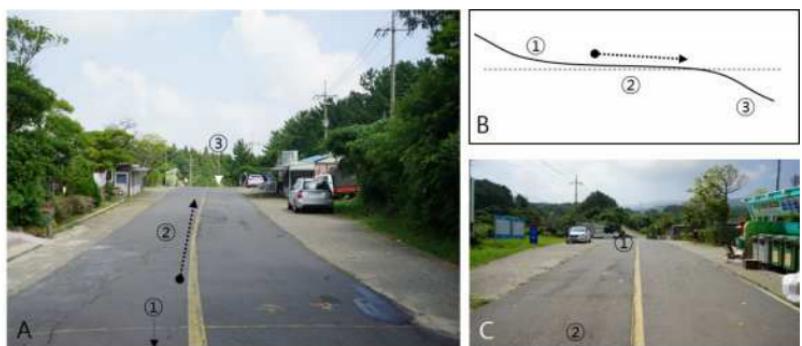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1,100로 구간 일부로 100m가량의 왕복 2차로이다 ($N 33^{\circ} 26' 58''$, $E 126^{\circ} 29' 17''$). 이 도로는 1981년 신혼부부에게 관광 안내를 하던 택시 기사가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정차하면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진다. 남쪽에 있는 한라산을 뒤로하고 북쪽 아래를 향해 보았을 때 내리막길이 연이어 세 개가 이어져 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도로의 경사는 가파르며 가운데 두 번째 길의 경사는 0.566° 의 완만한 내리막이다. 한라산을 뒤로하고 보았을 때 경사가 완만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이는 시각적 단절과 주변 나무들의 맥락적 높이로 설명할 수 있다. 반대로, 한라산을 향해 바라볼 때 실제 오르막이 내리막으로 지각될 수 있는데 이는 먼 도로의 높은 경사로 인한 대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6>은 노형동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착시 개요도다.



〈그림 6〉 제주 노형동 도깨비 도로(17)

② 제주 관음사 도깨비 도로

제주시 아라1동 관음사 근처 왕복 2차로 약 60m 길이다(N $33^{\circ} 26' 9''$, E $126^{\circ} 33' 19''$). 길이가 짧은 점을 제외하면 노형동 도깨비 도로와 구조가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이곳은 내리막길 세 개가 이어져 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길의 경사는 가파르며 가운데 두 번째 구간은 1.237° 의 완만한 내리막이다. 이 현상 역시 도로 끝의 시각적 단절과 주변 나무들의 맥락적 높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7>은 관음사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차시 개요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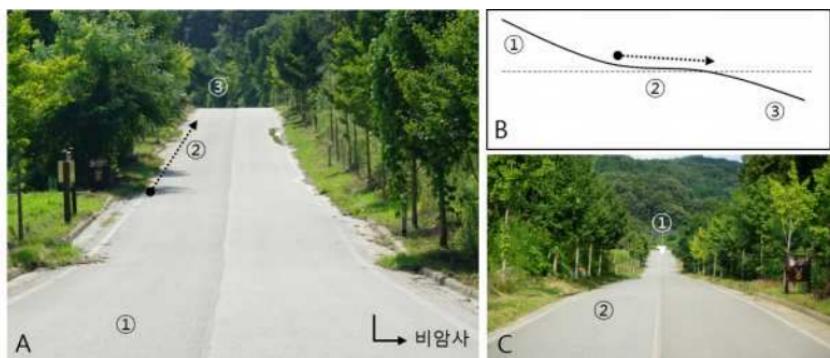


〈그림 7〉 제주 관음사 도깨비 도로(18)

-
- 17) (A) 북쪽으로 내려다본 모습으로 실제로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지각된다. (B) 경사도의 개요도. (C) 구간 2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올려다본 모습.
 18) (A) 북쪽으로 내려다본 모습으로 실제로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지각된다. (B) 경사도의 개요도. (C) 구간 2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올려다본 모습.

③ 비암사 도깨비 도로

세종시 전의면 다방리 비암사 근처 왕복 2차로 약 100m 길이다(N 36° 35' 32", E 127° 95' 51"). 비암사를 뒤로하고 아래를 향해 보았을 때 내리막 구간 세 개가 이어진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구간의 경사는 가파르며 가운데 구간은 0.924°의 완만한 내리막이다. 아래쪽을 향해 보았을 때, 사람들은 내리막을 오르막으로 지각할 수 있으며, 반대로 높은 쪽을 행했을 때 오르막을 내리막으로 지각할 수 있다. 전자는 시작적 단절과 나무들의 맥락적 높이로, 후자는 먼 도로와 경사대비로 설명된다. <그림 8>은 비암사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착시 개요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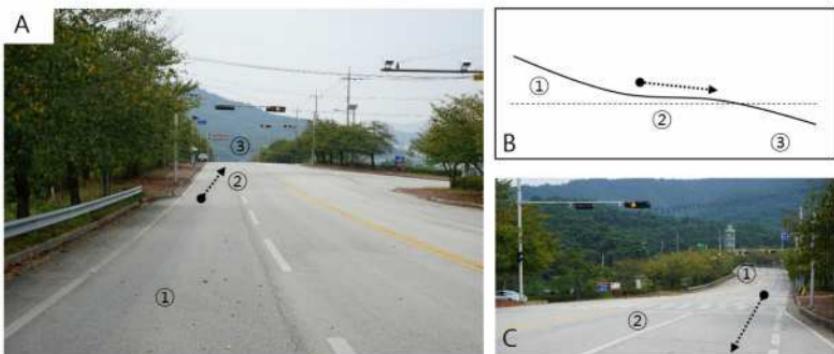
<그림 8> 비암사 도깨비 도로¹⁹⁾

④ 고창 석정 휴스파 삼거리 도깨비 도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석정 휴스파(구 석정 온천) 입구 삼거리 왕복 4차로다(N 35° 25' 20", E 126° 44' 18"). 경사가 가파른 도로 사이에 놓인 경사가 1.325°의 완만한 50m 구간이 놓여있다. 완만한 경사 구간은 아래쪽을 향해 보았을 때 오르막으로 잘못 지각될 수 있으며, 위쪽을 향해 보았을 때 내리막으로 잘못 지각될 수 있다. 전자는 도로 끝의 시작적 단절과 나무와 전봇대의 맥락적 높이로 설명되며, 후자는 먼 도로와 경사대비로 설명된

19) (A) 비암사 입구에서 내려다본 모습. 내리막길 세 개가 이어지는데, 가파른 내리막길(구간 1과 3) 사이에 완만한 내리막길(구간2)이 놓여있다. 구간 2의 실제는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보인다. (B) 도로 경사의 개요도. (C) 구간 3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비암사 쪽으로 올려다볼 때 구간 2가 내리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다. <그림 9>는 고창 석정 휴스파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착시 개요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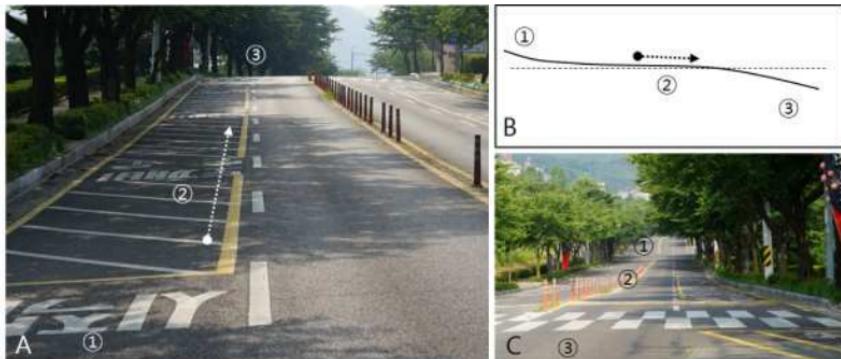


<그림 9> 고창 석정 휴스파 도로²⁰⁾

⑤ 울주 등억온천 도깨비 도로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온천 단지 입구에 있는 4차로이다($N 35^{\circ} 33' 15''$, $E 129^{\circ} 4' 45''$). 경사가 가파른 도로 사이에 경사가 0.928° 의 50m 길이의 완만한 도로가 놓여있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볼 때 완만한 경사는 실제는 내리막임에도 오르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이는 도로 끝이 시각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뒤로 이어지는 가파른 내리막에 있는 나무들이 점진적으로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 도깨비 도로가 오르막으로 지각될 가능성을 유도한다. 반대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볼 때 도깨비 도로 구간은 실제와 다르게 내리막으로 지각될 수 있는데, 뒤에 있는 도로의 가파른 오르막 경사와 대비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10>은 울주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착시 개요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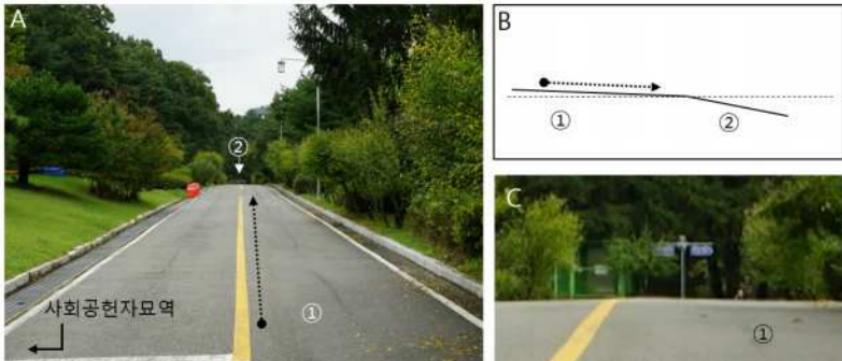
20) (A) 오른쪽이 석정 휴스파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구간 1과 3은 가파른 내리막이며 구간 2는 완만한 내리막이다. 도깨비 도로 착시는 구간 2에서 보고되며, 화살표의 시작 부분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바라볼 때 실제는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지각된다. (B) 실제 구간 2의 경사. (C) 언덕 쪽으로 바라본 모습.

〈그림 10〉 울주 도깨비 도로²¹⁾

⑥ 대전 국립 현충원 도깨비 도로

대전 국립 현충원 내 애국지사 제1 묘역 근처에 있는 국가/사회공헌자묘역 앞에 있는 도로로 왕복 2차로이다(N 36° 22' 8", E 127° 17' 23"). 100m 정도의 완만한 내리막과 60m 정도의 가파른 내리막이 이어진 곳이다. 완만한 내리막 구간은 실제로 1.4°가량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지각됨이 보고된다. 이는 가파른 내리막으로 인해 도로가 시각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뒤에 이어지는 도로에 가로등과 가로수의 하단이 시각적으로 단절되어 도깨비 도로가 오르막으로 지각되도록 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그림 11>은 울주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착시 개요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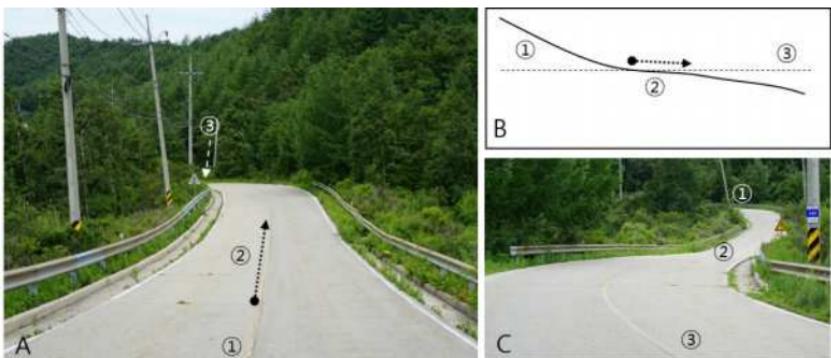
21) (A) 시작점에서 바라본 모습. 구간 3은 경사가 가파르며 가운데 구간 2는 얕은 내리막 인데 얕은 오르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B) 세 구간의 경사 개요도. (C) 구간 3에서 위로 올려다본 모습. 구간 3은 약 5.5° 정도의 가파른 내리막이다.



〈그림 11〉 대전 현충원 도깨비 도로²²⁾

⑦ 태백 도깨비 도로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두문동재 너울 샘 근처에 있는 왕복 2차로로 세 개의 내리막이 휘어져 이어지는 도로이다(N 37° 11' 4", E 128° 55' 4"). 이 도로 역시 가파른 경사 구간 사이에 완만한 경사가 놓여있다. 가운데 50m가 도깨비 도로로 알려져 있는데 위에서 아래쪽으로 바라보면 실제로는 약 1.59°의 완만한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잘못 지각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 도로 끝은 시각적으로 단절되어 있어 오르막 경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12>는 태백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착시 개요도다.



〈그림 12〉 태백 도깨비 도로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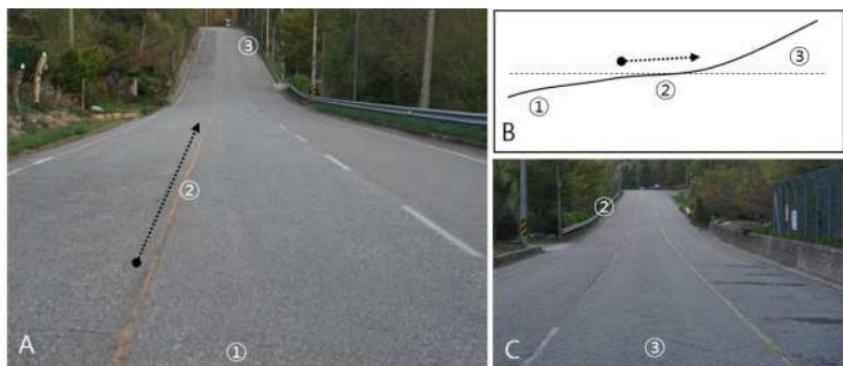
22) (A) 구간 1은 실제로는 완만한 내리막길이지만 오르막으로 지각된다. 구간 2는 내리막 길이다. (B) 두 구간의 실제 경사 개념도. (C) 도로 표지판의 하단이 구간 1의 도로에 의해 시각적으로 차폐되고 있다.

2) 제2유형: 이어진 도로와 경사대비

우리나라 산악지대에 있는 많은 도로는 높이 경사가 일정하지 않다. 점진적으로 오르막이거나 내리막인 경우도 있지만, 오르막과 내리막이 경사를 달리하여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사가 같은 방향이고 가파른 경사도로가 완만한 경사 도로와 연이어 있을 때, 완만한 도로의 경사가 반대로 지각될 수 있다.

① 무주 도깨비 도로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에 있는 백두대간 체험센터 앞 왕복 3차로 80m 정도의 도로이다(N 35° 58' 11", E 127° 53' 16"). 이 도로는 실제로는 1.57°의 오르막이지만, 더 가파른 먼 도로(6.7°)를 향해 바라보면 완만한 내리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그림 13>은 무주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착시 개요도다.



<그림 13> 무주 도깨비 도로²⁴⁾

완만한 오르막이 착시로 내리막으로 지각되는 이유는 먼 도로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가파른 오르막 쪽에서 아래

23) (A) 아래로 내려다본 모습. 구간 1과 3은 각각 5.5°와 4.5°로 경사가 가파르며 가운데 구간 2는 얕은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B) 세 구간의 경사 개요도. (C) 구간 3에서 위로 올려다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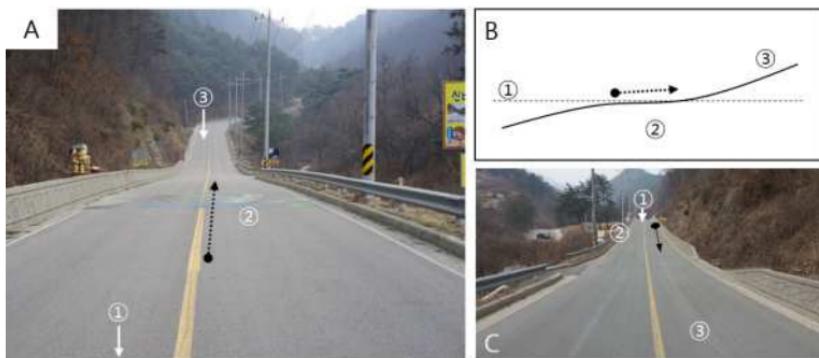
24) (A) 위로 올려다본 모습. 구간 1과 구간 2는 각각 3.5°와 6.7°로 상대적으로 구간 2보다 가파른 오르막이다. (B) 세 구간의 경사 개요도. (C) 구간 3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모습.

로 내려다보면 도깨비 도로는 이번에는 실제와 다르게 오르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무주군에서는 이 도로를 ‘신기한 도로’로 명명하고 주변에 도깨비와 장승들을 세워 놓아 관리하고 있다.

② 안흥 도깨비 도로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에 있는 왕복 2차로 약 60m의 도로이다(N 37° 23' 12", E 128° 9' 59"). 안흥면에서 강림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초입에 있는데 이 도로는 구불구불한 구도로를 대신하여 건설되어 이용된 지 몇 년 되지 않는다. 경사가 오르막인 세 개의 도로가 연이어 있는데 앞뒤는 가파른 경사이며 가운데는 1.78°가량 완만한 오르막이다. <그림 14>는 안흥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차시 개요도다.

가운데에 끼어 있는 곳이 도깨비 도로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와 달리 내리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이는 뒤에 이어지는 먼 도로가 8° 이상의 급경사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급경사로 올라가 도깨비 도로 구간 쪽으로 반대로 관찰하면 완만한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지각된다. 횡성군에서는 도깨비 도로 구간을 표시하여 안내하고, 아기 도깨비 조형물들을 세워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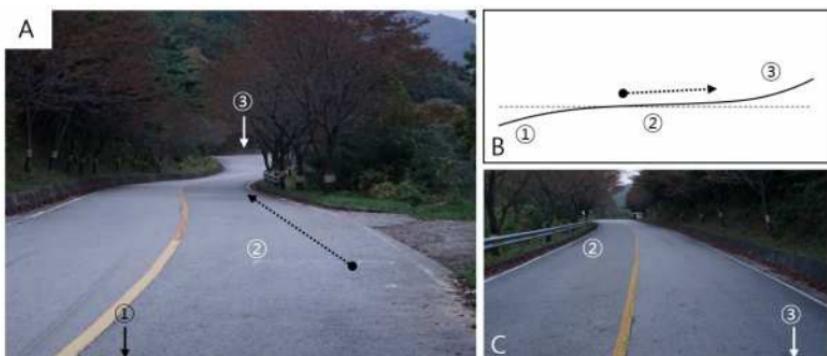
<그림 14> 안흥 도깨비 도로²⁵⁾

25) (A) 도깨비 도로 구간 2는 얇은 오르막이지만 내리막으로 지각된다. (B) 연결된 도로 구간의 기울기 관계를 보여주는데 앞뒤 도로는 오르막이 분명하다. (C) 3번 구간에서 도깨비 도로 쪽으로 반대편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2번 구간이 완만한 내리막이지만 오

③ 칠곡 도깨비 도로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이다(N $36^{\circ} 0' 49''$, E $128^{\circ} 29' 8''$). 세 개의 오르막이 연이어 있는데 가운데 60m 정도가 도깨비 도로 구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1.52° 오르막이지만 내리막으로 지각된다는 보고가 있다. 면 도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 동안 가파르게 오르막인데 이에 따라 앞 도로가 내리막으로 지각되는 경사대비로 착시가 설명될 수 있다. <그림 15>는 칠곡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착시 개요도다.

칠곡군은 안내판을 세워 이 도로는 1999년에 발견되었고, ‘요술의 고개’로 명명하고 착시를 체험하는 요령을 짧게나마 기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설명대로 따라 하기는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그림 15> 칠곡 도깨비 도로²⁶⁾

④ 원주 도깨비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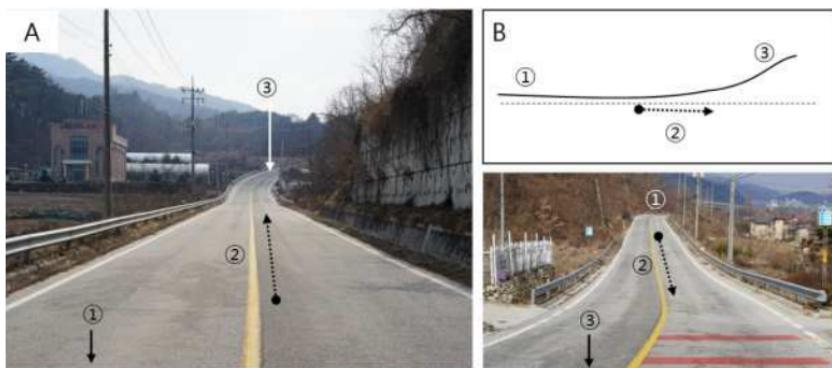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있는 왕복 2차로다(N $37^{\circ} 15' 14''$, E $127^{\circ} 54' 2''$). 오르막이 차례로 이어지는데 도깨비 도로로 알려진 구간은 가운데에 끼인 곳으로 100m 정도 길이로 대략 1.446° 의 오르막이다. 면 도로의 경사는 6° 이상으로 가파른데 이쪽으로 향한 채 도깨비 도로를 바라보면 오르막이 아닌 내리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

르막으로 지각된다.

- 26) (A) 구간 2는 가파른 오르막이 앞뒤 사이에 놓여있으며 실제로는 약한 오르막이지만 내리막으로 지각된다고 보고된다. (B) 연결된 도로 구간의 기울기 관계를 보여준다. (C) 3번 구간에서 도깨비 도로 쪽으로 반대편에서 바라본 모습.

면 도깨비 도로 구간은 오르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사 착시는 이웃한 도로와 경사대비로 설명한다. <그림 16>은 원주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착시 개요도다.

근처에 박경리의 토지문화관이 있고 원주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지만, 자동차들이 매우 빠르게 달려 도깨비 도로를 도로 위에서 관찰하기는 매우 위험하다. 도깨비 도로 구간임을 알리는 표지는 있으나 관리는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림 16> 원주 도깨비 도로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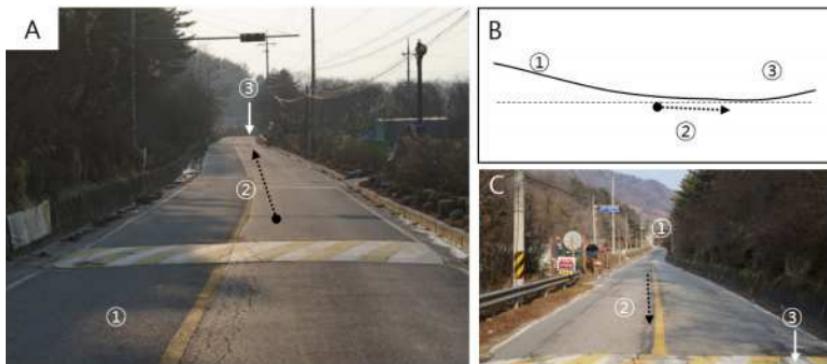
⑤ 제천 도깨비 도로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참수리 캠프장 앞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이다($N 37^{\circ} 0' 47''$, $E 128^{\circ} 13' 50''$). 2014년 제천시 공무원이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도로는 가파른 경사와 완만한 경사로 구성되어 있다. 완만한 경사의 약 120m 구간이 도깨비 도로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경사는 2.459° 로 아주 낮지 않은 편이다. <그림 17>은 제천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착시 개요도다.

이 구간을 가파른 오르막으로 향해 아래에서 보면 실제와 달리 오르막으로 지각되고, 반대로 가파른 오르막을 뒤로하고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 오르

27) (A) 구간 2는 얇은 오르막이지만 내리막으로 지각된다. (B) 연결된 도로 구간의 기울기 관계를 보여준다. (C) 3번 구간에서 도깨비 도로 쪽으로 반대편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지각된다.

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 두 현상은 가파른 경사에 대한 완만한 경사의 대비로 설명된다. 일부 언론 등에서 도로 옆 나무들이 한쪽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기울어 착시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살펴본 결과 나무들이 착시를 일으킬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도로가 발견된 2014년 9월경 제천시의 대대적인 홍보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SNS에 개인 관찰자들의 자발적인 보고가 거의 없다는 점은 이 도로에서 경사 착시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림 17〉 제천 도깨비 도로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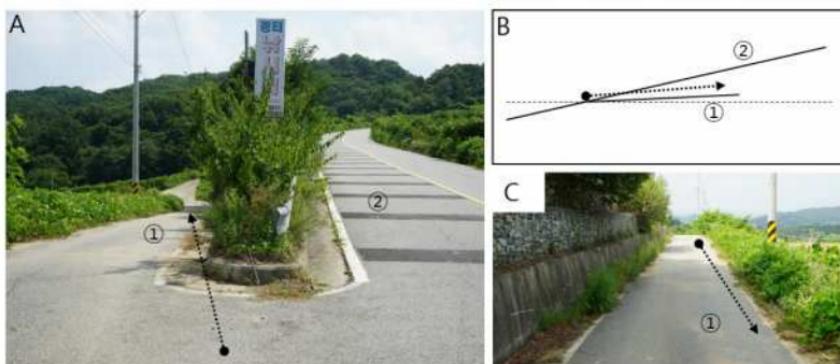
3) 제3유형: 갈라진 도로와 경사대비

두 개의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두 길의 경사가 다를 때 각 도로의 경사 지각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탈리아 Montagnaga 지역에 있는 도깨비 도로가 유명한데, 갈라진 두 길 모두 내리막으로 하나는 경사가 가파르고 다른 하나는 완만하다. 이때, 완만한 내리막길이 완만한 오르막길로 지각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적어도 두 곳이 존재한다. 충남 아산 쟁티고개와 경기도 의왕시 청계산 근처에 있는 도로이다. 두 도로 모두 실제로 오르막길인데 옆 도로로 인해 완만한 내리막길로 지각된다.

28) (A) 구간 2는 얇은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지각된다. 구간 1은 4° 이상의 경사이다. (B) 연결된 도로 구간의 기울기 관계를 보여준다. (C) 3번 구간에서 도깨비 도로 쪽으로 반대편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① 아산 갱티고개 도깨비 도로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갱티고개에 있는 도로이다(N $36^{\circ} 44' 18''$, E $126^{\circ} 58' 9''$). 갱티 낚시터 입구를 향해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에 왕복 2차선 도로가 있고, 왼쪽으로 낚시터로 들어가는 폭 4m 길이 60m의 1차선 도로가 있다. 왼쪽의 도로는 실제로는 1.54° 정도 오르막이지만 완만한 내리막으로 지각되는데 착시가 매우 분명하다. <그림 18>은 갱티고개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착시 개요도다.



<그림 18> 갱티고개 도깨비 도로²⁹⁾

이 착시는 오른쪽의 경사가 가파른 도로와 대비로 설명된다. 반대로, 도깨비 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볼 때 실제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왼쪽의 축대가 멀어질수록 점진적으로 좁아지는데 이로 인해 이 길이 오르막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길 끝에 시각적으로 단절된 곳에 나무들의 밀동이 아닌 중간이 보이는데 이로 인해 도로가 오르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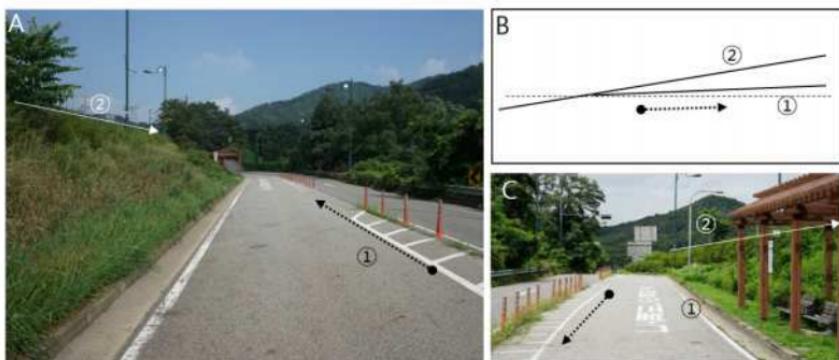
② 의왕 청계산 도깨비 도로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하우고개 입구에 있는 도로이다(N $37^{\circ} 23' 24''$, E

29) (A) 구간 1은 실제로는 오르막이지만 내리막으로 지각된다. 구간 2는 가파른 오르막이다. (B) A의 측면도. (C) 구간 1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라본 모습. 화살표는 관찰 방향을 의미한다.

$127^{\circ} 0' 51''$). 두 개의 오르막 도로가 갈라지는데 왼쪽 도로는 경사가 5° 이상의 가파른 왕복 8차로이며 오른쪽 도로는 1.24° 의 완만한 2차선 도로이다. 후자의 도로는 100m가량 똑바로 이어지는데 이곳이 도깨비 도로이다. 그리고 다시 이 도로는 서서히 꺾여 전자의 도로 아래 터널로 이어진다. <그림 19>는 의왕 청계산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착시 개요도다.

두 도로가 갈라지는 지점을 뒤로하고 위로 바라보았을 때 실제로는 완만한 오르막임에도 내리막으로 지각할 수 있다. 이는 왼쪽에 놓인 가파른 도로의 언덕이 맥락적 높이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멀리 가파른 도로 아래 터널로 완만한 도로가 이어지는 장면은 두 도로의 경사 효과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대의 방향에서 터널을 뒤로하고 두 도로가 갈라지는 지점을 향해 보았을 때, 이번에는 실제로는 완만한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지각할 수 있다. 이는 도로 끝의 시각적 단절과 멀리 보이는 교통 안내판의 하단이 도로 끝에 가려짐으로 인한 맥락적 높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9> 의왕시 청계산 도깨비 도로³⁰⁾

4) 제4유형: 경사 동화(임시)

도깨비 도로로 알려진 도로 가운데 앞에서 언급한 경사대비, 도로 끝의 시각적 단절이나 주변 물체들의 맥락적 높이로 설명되기 어려운 사례들이

30) (A) 구간 1은 실제로는 점진적인 오르막 내리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구간 2는 가파른 오르막이다. (B) A의 측면도. (C) 도깨비 구간을 반대편에서 바라본 모습. 실제로는 내리막임에도 오르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있었다. 다만, 착시가 일어나는 구간은 다른 지역에서 관찰되는 구간에 비교해 현저히 짧고, 경사 방향이 이어지는 구간과 같았다. 따라서 이어지는 구간과 경사를 동일시하는 경사 동화로 임시로 분류하고자 한다.

① 화순 만연산 도깨비 도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안양산로 357 도로에 있는 곳으로 왕복 2차선 도로이다(N $35^{\circ} 5' 20''$, E $126^{\circ} 59' 54''$). 이곳은 특이하게도 완만한 오르막 길이 왼쪽으로 가파른 오르막과 오른쪽으로 가파른 내리막으로 동시에 갈라진다. 완만한 오르막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기 전 25m 정도는 실제로는 평균 0.7° 의 약한 오르막인데 내리막으로 지각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 착시는 아마도 오른쪽의 완만한 내리막길과 경사 동화로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려는 운전자 관점에서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오다 그 탄력으로 내려가려면 미리 준비하여야 하므로 내리막길과 경사 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경사의 신체 노력 가설이 제안하는 것이다(Proffitt, Bhalla, Gossweiler & Midgett, 1995). <그림 20>은 화순 만연산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착시 개요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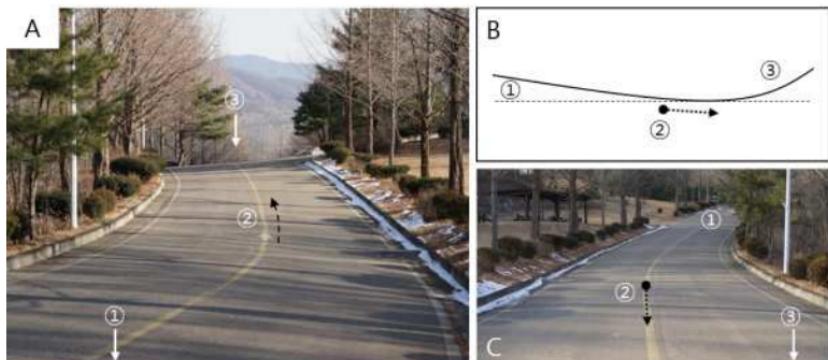


<그림 20> 화순 만연산 도깨비 도로³¹⁾

31) (A) 오르막과 내리막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이다. 구간 1은 실제로는 약간 오르막이고, 구간 2는 가파른 오르막이며, 구간 3은 가파른 내리막이다. 1 지점에 차를 세우고 변속기를 중립에 두면 차가 뒤로 밀린다. 도깨비 도로 착시는 구간 1에서 보고되며, 화살표의 시작 부분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바라볼 때 실제는 오르막이지만 내리막으로 지각

② 문경 도깨비 도로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문경대학교 내 기숙사 앞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이다(N 36° 39' 29", E 128° 10' 28"). 이 도로는 종으로도 휘어져 있지만, 횡으로도 휘어져 있다. 이 도로는 가파른 내리막길이 오르막으로 이어지다 다시 가파른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N자형 구조이다.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바뀌는 약 30m 길이의 짧은 구간이 실제로는 0.887°의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지각된다고 보고된다. 그런데 이 가운데 15m가량이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점진적으로 바뀌는 구간이다. 이는 오르막에 대한 경사 동화로 보인다. <그림 20>은 문경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착시 개요도다.



<그림 21> 문경 도깨비 도로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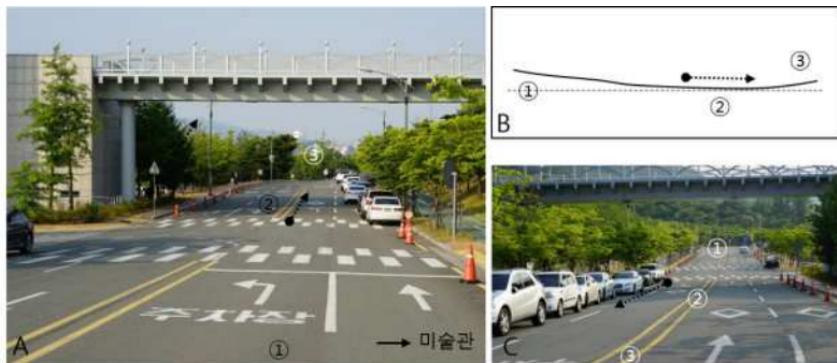
③ 대구미술관 도깨비 도로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에 있는 대구미술관 주차장 옆에 있는 4차로이다(N 35° 49' 39", E 128° 39' 46"). 미술관을 오른쪽에 두고 주차장에서 미술관으로 이어지는 육교를 향해 바라볼 때 도로는 내리막이 서서히 진행되다 다시 서서히 오르막으로 이어진다. 도깨비 도로가 관찰되는 구간은 내리막에서 오

할 수 있다.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은 실제로 내리막이며, 사실 그대로 지각된다. 도깨비 도로 착시는 이보다 조금 뒤에서 관찰될 수 있다. (B) 세 도로 경사의 개념도. (C) 앞쪽으로 좀 더 전진하여 길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

- 32) (A) 구간 2는 가파른 내리막(1지점)과 오르막(3지점) 사이에 놓여있으며 내리막의 끝 지점으로 실제로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지각된다. (B) 연결된 도로 구간의 기울기 관계를 보여준다. (C) 3번 구간에서 도깨비 도로 쪽으로 반대편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르막으로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20m 정도로, 실제로 0.48° 의 얇은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 <그림 22>는 대구미술관 도깨비 도로 모습과 착시 개요도다.



<그림 22> 대구미술관 도깨비 도로(33)

이 현상은 면 도로와 경사대비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경사가 점진적으로 오르막인데 이에 따른 경사 동화로 추정된다. 일부 개인 관찰자들이 높은 언덕 쪽에서 바라볼 때 도깨비 도로 구간이 오르막으로 지각된다고 하는데, 이는 도깨비 도로 현상이 아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진축소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살펴보자.

IV. 논의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도깨비 도로들을 모두 기술하고 설명을 시도하였다. 주로 부각되는 원인에 따라 크게 네 범주로 나누었다. 대부분 맥락적 높이 단서와 경사 대비 단서로 도깨비 도로를 잘 설명할 수 있었다. 다만, 세 개의 도깨비도로를 기준 이론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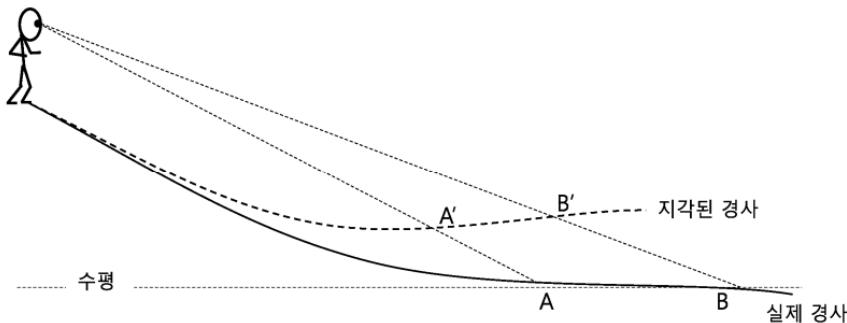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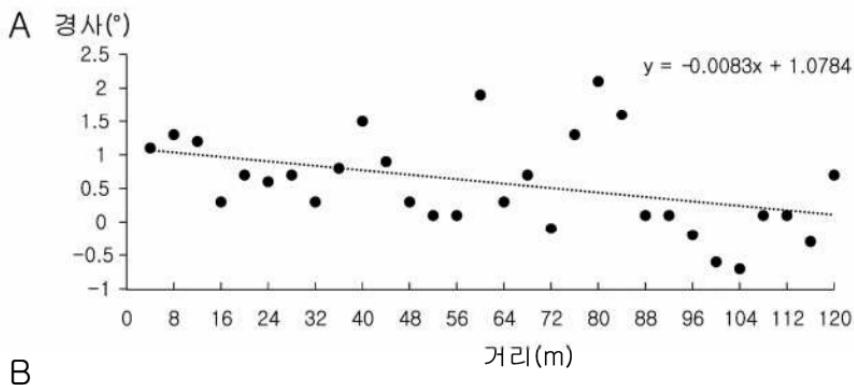
33) (A) 미술관을 오른편에 두고 본 모습. 경사가 완만한 U자형으로 된 도로로 도깨비 도로 구간이 관찰되는 곳은 육교 바로 아래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바뀌는 20m가량의 2 번 구간이다. 구간 1은 $2.2\sim3.4^\circ$ 정도의 내리막이다. (B) 도로 경사의 개요. (C) 반대 편에서 바라본 모습.

설명하기는 어려워 임시로 경사 동화의 범주로 남겨놓았다.

기론 이론은 맥락적 높이 단서와 경사 대비 같은 눈 수준 단서를 나누었다. 그렇지만 국내 도깨비 도로들은 이 두 단서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제1유형의 경우 주변 나무의 맥락적 높이로 설명하였지만 이 도도들 대부분 도로 끝의 시각적 단절이라는 눈 수준 단서도 있었다. 또한, 제2유형과 제 3유형에서 도로들의 경사 대비가 주된 분류 기준이었지만 역시 도로 주변에 나무들은 맥락적 높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순수하게 경사대비 단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깨비 도로들은 경사의 혼합 단서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는 민둥산이 많은 외국의 도로와 달리 우리나라 도로의 대부분이 주변에 많은 나무를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의 단일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도깨비 도로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말로 도깨비 도로가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관찰력이 좋거나 사회관계망(SNS)이 발달한 것과 같은 사회적 특성 때문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 블로거가 도깨비 도로가 아닌 다른 현상인데 잘못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가장 혼한 것으로 전진압축이라는 현상을 도깨비 도로 현상이라 보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언덕에서 아래를 멀리 내려다볼 때 경사가 없거나 내리막이 오르막으로 지각된다. 예를 들어, 스키장에서 슬로프의 높은 시작 지점에서 멀리 아래에 있는 건물들이 놓인 지면을 보면 오르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이 현상에 대한 강력한 설명은 전진압축(foreshortening) 가설이다.³⁴⁾ 이 가설은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실제 거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면이 멀리 있을수록 지면의 경사 왜곡이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그림 23>에 제시된 것처럼, 경사가 없거나 얕은 내리막도 오르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34) Ross, H. E., "Foreshortening affects both uphill and downhill slope perception at far distanc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6(5), 2013.

〈그림 23〉 전진압축에 따른 경사의 왜곡³⁵⁾〈그림 24〉 제주도 노형동 도깨비 도로의 거리에 따른 경사³⁶⁾

- 35) 경사가 가파른 언덕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구간 A-B는 실제로는 얇은 내리막이지만, 먼 거리를 가깝게 지각할 경우 A'-B' 구간처럼 오르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Ross, 2013에서 재편집).
- 36) 점진적으로 경사가 줄어듦을 알 수 있다. 각 점은 4m 간격으로 측정된 경사도로 +는 내리막 경사를 -은 오르막 경사를 의미한다. 적합된 선분은 경사도의 변화이며 도로의 높낮이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 경사와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B)

한 가지 다른 흥미로운 일은 대부분의 도깨비 도로에서 관측된 경사는 일정하지 않았다. 즉, 도로의 경사도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그림 24>는 제주 노형동의 도깨비 도로에서 측정한 기울기를 보여준다. 이 도로는 한라산을 뒤로하고 북쪽을 향해 보았을 때 실제로는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잘못 지각될 수 있다. 그런데 도로의 경사도는 관찰지점에서부터 도로 끝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도로 공사가 처음부터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수 있다. 이러한 도로 구조는 관찰자 관점에서 도로 끝의 내리막 경사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오르막으로 지각됨을 유도할 수 있다. 즉, 도깨비 도로 구간 내에서 앞서 언급한 전진압축과 비슷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V. 맷음말 및 제안

본 연구는 전국의 도깨비 도로를 조사하여 각각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었다. 본 연구의 장점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전국의 도깨비 도로를 망라하여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깨비 도로의 신속한 평가를 추구하려는 조급함 때문에 정밀한 측정을 하지 못하여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도로의 경사를 스마트폰으로 측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4m 간격으로 경사를 쟠을 뿐 전체 구간을 한 번에 채지는 못했다. 앞으로 레이저 수평기와 같은 정밀한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도깨비 도로에서 착시 크기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지 못하였다. 착시 자체는 주관적인 경험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슷하게 착시를 경험하는지를 정량화한다면 각 도깨비 도로의 사회적 가치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술한 대부분의 도깨비 도로들을 기준의 경사 지각 이론으

A를 이해하기 쉽도록 도로의 높낮이로 표현한 그림. 점진적으로 내리막 경사가 이어지지만 크기는 줄어든다. 관찰자에게 도로 끝은 상대적으로 오르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로 잘 설명할 수 있다. 몇몇 도깨비 도로 옆에 세워진 설명문은 좀 더 이론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지각 심리학적 관점에서 도깨비 도로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보자. 아래는 제주도 노형동 도깨비 도로에 적용한 예시이다.

이 자리에서 도로를 앞으로 보았을 때 이 도로의 실제 0.56°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도로는 가파른 내리막으로 이어져 도로 끝이 시야에서 끊기고, 도로 너머에 있는 나무들은 중간부터 보인다. 이 단서들은 주로 오르막길이 갖고 있다. 사람의 시각체계는 이 도로처럼 경사가 낮아 애매한 경우 이러한 단서들에 의존하여 경사를 잘못 지각할 수 있다. 시선을 멀리해서 이 단서들에 주목하면 도깨비 도로를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 단서들에 대한 신뢰도는 경험의 차이로 개인마다 달라 착시 크기가 다를 수 있다.

자치단체들이 도깨비 도로를 관광객이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관광객들의 관찰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깨비 도로 자체에만 주의하여 경사를 음미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도깨비 도로들은 차량 통행이 적지 않은 곳에 있어 관광객들이 도깨비 도로 관찰에 전념하기 어렵다. 제주도의 경우 우회도로를 만들어 관광객들의 안전을 강화하였음에도, 가끔 도로를 빠르게 통과하는 차들이 있어 관광객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곤 한다. 일반 차량들이 위에서 내려올 수 없도록 도로를 막는 게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를 탄 관광객도 많아 맨몸으로 체험하고 싶어 하는 관광객의 관찰을 방해한다. 따라서 이 두 부류의 관광객들이 서로 방해받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도깨비 도로에서 경사 착시의 원인을 파악하여 보존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착시를 경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의왕시 도깨비 도로의 경우 옆 도로의 언덕과 멀리 보이는 터널이 착시의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다면, 언덕에 자란 풀을 모두 베어 언덕의 능선을 분명히 하고 설치된 쉼터의 건물을 옮겨 시야를 방해하지 말고 터널이 잘 보이도록 도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도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경사가 바뀔 수도 있으므로 꾸준한 정비가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도로의 경사를 측정하고 관광객들에게 착

시 정도를 물어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 도깨비도 도로의 경우 두 곳 모두 도로 노면 상태가 좋지 않다. 몇 미터의 축소 모형을 통해서 도로를 재정비하였을 때 결과물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재단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도깨비 도로들이 도심에서 먼 곳에 있어 이것만을 보려고 방문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잘 되어 있는 제주도 도깨비 도로조차 5분 이상 머물지 않고 서둘러 떠나는 사람을 찾는 일은 쉽다. 제주도의 두 도깨비 도로의 경우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곳을 찾았다가 5분 정도만 머문다면 즐거움보다 실망과 함께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관광객이 좀 더 오래 머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변에 착시 체험관을 마련하여 착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생각할만 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비한 자리(mysterious spot)나 노스캐롤라이나 신비한 언덕(Mystery hill)이 좋은 본보기이다. 방문 사진이 부착된 방문증 발급, 제주도의 다른 관광지와 연계된 문화상품권 판매 등으로 체험을 의미화하는 스토리텔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도깨비 도로를 체험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기념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제주도의 경우, 한라산이 새겨진 물방울 수평기, 쇠 구슬 수평기, 고무공, 도로 미니어처 등이 있을 수 있고 이 물건들은 제주도를 추억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연구논저

- 기창돈, 김정한, 「CDGPS를 이용한 도깨비 도로의 정밀 측위」, 『한국항행학회 논문지』, 3(1), 1999.
- 노관섭, 「도로와 도깨비-귀신」, 『대한토목학회지』, 51(6), 2003.
- Asch, S. E., & Witkin, H. A, "Studies in space orientation: I. Perception of the upright with displaced visual field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38(3), 1948.
- Bhalla, M., & Proffitt, D.R, "Visual-motor recalibration in geographical slant percep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25, 1999.
- Bressan, P., Garlaschelli, L., & Barracano, M, "Antigravity hills are visual illusions", *Psychological Science*, 14(5), 2003.
- Jacobs, R. A, "What determines visual cue reliability?",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6(8), 2002.
- Kitaoka, A, "Slope illusion (Magnetic Hills) in Radan", In Art and its role in the history: Between durability and transient-ISMS, 2015.
- Proffitt, D. R., Bhalla, M., Gossweiler, R., & Midgett, J, "Perceiving geographical slant",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2(4), 1995.
- Ross, H. E, "Foreshortening affects both uphill and downhill slope perception at far distanc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6(5), 2013.
- Stefanucci, J.K., Proffitt, D.R., Clore, G.L., & Parekh, N, "Skating down a steeper slope: Fear influences the perception of geographical slant", *Perception*, 37, 2008.
- Stopper, A. E., & Cohen, M. M, "Effect of structured visual environments on apparent eye level" *Perception & Psychophysics*, 46(5), 1989.
- Witkin, H. A., & Asch, S. E, "Studies in space orientation IV. Further experiments on perception of the upright with displaced visual field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38(6), 1948.
- Cutting, J.E., & Vishotom, P. M, "Perceiving layout and knowing distances: The

- integration, relative potency, and contextual use of different information about depth”, In Handbook of perception and cognition, Vol 5; Perception of space and motion, W. Epstein & Rogers, Eds. Academic Press, San Diego, CA, 1995.
- Gibson, J. J., “*The Perception of the Visual World* Boston”, Houghton Mifflin, 1950.
- _____,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Boston: Houghton Mifflin, 1979.
- Sedgwick, H. A, “*Visual space perception*”, In Goldstein, E. B. (Ed.). The Blackwell Handbook of Sensation and Perception (128-166). John Wiley & Sons, 2008.

2. 인터넷 자료

Wikipedia, “Gravity hill

<http://web.archive.org/web/20071103093110>

http://en.wikipedia.org/wiki/Gravity_hill”, 2016.

Abstract

Antigravity Hills in Korea -Psychological Understanding and Suggestions for the Utilization-

Oh, Song-Joo*

The antigravity hill is a visual illusion that people incorrectly see a uphill as downhill or vice versa. This illusion is reported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Korea, and attracts many tourists. In this study, all antigravity hills to be reported in Korea were surveyed to understand in terms of previous theories. In the results, 17 cases were found and their geographical conditions were examined. The slope contrast between neighboring roads, the visual disconnection of the end of a road, and contextual height from nearby objects such as trees and houses were pointed out as the main causes of antigravity hills. Largely, the slopes were as low as about $1\sim2^\circ$, which suggests that the illusion may occur where the slant is not evidently detected by the eye-level based on the proprioceptive senses. Lastly, I discussed how to explain the phenomenon better for tourist and the ways to take care of the roads to show more powerful illusion.

Key words: slant perception, antigravity hill, spook road, visual illusio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신: 오성주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E-mail: songjoo@snu.ac.kr)

논문투고일: 2017. 11. 20

심사완료일: 2018. 01. 15

제재확정일: 2018. 01. 31

호텔 직원의 감정노동이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절효과
-제주지역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백정민*. 조문수**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설계
- IV. 분석 결과 및 가설의 검증
- V. 결 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호텔 조직 내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텔 직원의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 요소인 의미성에 준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호텔 직원의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준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호텔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의 관계에

* 주저자,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시간강사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서 자기결정성은 준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근거하여, 심리적 임파워먼트 하위변수 중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를 조직적 차원에서 직무교육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직원들의 직무과정에 필요한 역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원 개인의 특성에 맞게 역량 개발하고 향상시켜 현장에서 직원 스스로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호텔 직원의 감정노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

I. 서론

서비스 산업의 규모와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인적 서비스 요인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다.¹⁾ 특히 호텔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구성원은 그들의 역량에 따라 조직에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해 내기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조직 역량 개선을 통해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성과향상을 이루기 위해 구성원의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을 활성화하고 직원의 감정노동을 최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 직원들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심리 부분을 강화하여 본인들의 권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원의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은 ‘고객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이며, 기업 이익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의하고, 현대기업경영에서의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²⁾ 또한 호텔기업의 내적·외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호텔 직원의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은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도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로 국한되

1) 김지은, 「점점 서비스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서비스교육 만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 George J.M. & K. Bettenhausen, “Understanding prosocial behavior, sales performance, and turnover: A group-level analysis in a service contex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6), 1990, 698-709.

어 연구되어지고 있다³⁾ 최근 고객응대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서비스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직원의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종사원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위한 법안 마련 및 교육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은 부족하다. 따라서 감정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무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변화와 혁신, 자율적 조직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기업환경에 적합한 변수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직원에게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높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으나 감정노동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⁴⁾⁵⁾⁶⁾⁷⁾ 또한 직원이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영향의 변수와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변수를 실증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감정노동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단일차원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⁸⁾ 따라서 감정노동이 감정부조화를 초래하는 변수로써 부정적 결과에 맞춘 초점이 아니라 감정노동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을 두고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어떤 하위변수가 더 유의한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이고 다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텔 직원들의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두 변수간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목적은 다음과

- 3) 박정하, 「호텔 종사원의 조직시민행동과 직무소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저널』 29(11), 2015, 145-161쪽.
- 4) 김찬중·김용순, 「외식업체 비정규직원의 직무특성, 임파워먼트,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11), 2007, 289-297쪽.
- 5) 채신석,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1(5), 2007, 181-202쪽.
- 6) 김의영·이종환·강경수,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 및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5), 2012, 380-392쪽.
- 7) 최형민·조재근·이형룡, 「호텔 직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간의 관계」, 『관광학연구』 35(8), 2011, 31-55쪽.
- 8) 백정민, 「호텔 직원의 감정노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소진 및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 간의 관계」,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같다. 첫째, 각 변수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 평균 등의 분석하여 호텔 직원의 감정노동, 친사회적 서비스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호텔 직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변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호텔 직원의 감정노동의 표면행위, 내면행위와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의 역할 내 서비스행동, 역할 외 서비스행동, 협동에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의미성, 역량성, 자기결정권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파악한다. 넷째, 가설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호텔 기업의 이론적·실무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여성학, 심리학, 사회학 분야 등의 연구뿐만 아니라 호텔, 콜센터, 의료, 외식사업 등을 배경으로 한 연구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감정 노동을 정의하기 위해 감정과, 노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연구가 이뤄졌다. 노동에서 ‘감정’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행위(이성·감성 이분법적 사고)로 인식되어 친절함, 미소, 배려 등과 같은 감정이 수반된 행동은 노동력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이외에도 그것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인간의 감정 또한 충체적인 노동 능력의 한 부분으로 노동의 요소로 평가되기 시작되었다.⁹⁾

Morris & Feldman은 서비스 거래 동안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노력, 계획, 통제라고 정의하였다. 즉, 직무수행 시 자신이 경험하는 실제 감정 표현과 조직의 규범에 의한 감정표현에 차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감정을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정의된다.¹⁰⁾ Morris & Feldman은 직무

9) 김영진, 「감정노동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 소진의 역할」,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0) Morris, J.A. & Feldman, D.C., “The Dimensi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4), 1996, 986-1010; 안주영·전의

중심 감정 노동에 초점을 맞추어 감정표현의 빈도, 표현규칙에 요구되는 주의 정도, 감정 표현의 다양성, 감정 부조화 4가지 차원의 요소로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연구하였다.¹¹⁾

따라서 감정노동이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정형화된 행위나 감정으로 고객을 대해야 하는 노동을 뜻한다. 호텔 종사원 등을 포함한 직접 고객을 응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서비스해야 하는 직업 종사자들이 감정 노동자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하위변수는 감정노동의 개념을 처음 언급한 Hochschild의 이론을 바탕으로 감정노동에 2가지 구성요소 표면 행위와 내면 행위에 초점에 맞추어 구성원 중심의 감정노동으로 제시하였다. 표면 행위는 종사원들이 실제로 느끼지 않는 감정을 표정, 몸놀림, 목소리 톤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말하고, 내면 행위는 고객들에게 감정을 표면적으로 표현할 때, 상상이나, 과거의 즐거운 경험을 되새기면서 실제로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몰입행동을 의미한다.¹²⁾ 이처럼 고객에게 항상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야하는 직원들에게 있어 표정이나 목소리 톤의 가장된 행동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면적 수행 전략과 자신의 감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고객과 동일한 감정으로 몰입하게 하는 내면적 수행 전략으로 나누어 직원이 감정노동을 함에 있어 어떤 변수가 직무 수행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pro-social service behavior)에 대한 연구는 친사회적 조직 행동(pro-social organizational behavior)이라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의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약간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기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바람직한 행

숙·김현,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7, 3-19쪽.

11) Morris, J.A. & Feldman, D.C., 앞의 논문, 1996, 986-1010.

12) Hochschild, A.R.,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동으로 보고 있다.¹³⁾ 조직 내 불신이나 이기적 태도, 또는 상호 상해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과는 대조되는 친사회적 조직 행동은 외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타인을 돋기 위해 행하는 행동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와는 관계없이 타인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자발적인 태도이다.¹⁴⁾ 이러한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을 연구자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¹⁵⁾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¹⁶⁾ 서비스 제공 행동¹⁷⁾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과 유사한 개념은 조직 시민 행동(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 OCB)이다. 후자는 조직의 목표, 매출액, 성과 등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조직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데 기여를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분명한 행동으로 정의되는 반면에, 전자는 조직 시민 행동의 기능에 추가하여 조직 외부의 고객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동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⁸⁾

-
- 13) Mussen, P., & Eisenberg-Berg, N., *Rays of caring, sharing, and helping: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WH Freeman, 1977.
 - 14) Brief, A.P. & Motowildo, S.J. "Prosocial Organizational Behavio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4), 1986, 710-725; Lacetera, N. & Macis, M., "Social image concerns and prosocial behavior: Field evidence from a nonlinear incentive schem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6(2), 2010, 225-237; Ackfeldt, A.L. & Wong, V. "The Antecedents of Prosocial Service Behaviours: An Empirical Investigation",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26(7), 2006, 727-745; 이형룡·박용제·권기준, 「체인 레스토랑 직원의 조직응집성이 상호의존성과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 연구』 19(2), 2010, 171-189쪽.
 - 15) 남중현, 「호텔 서비스제공자의 지각된 친사회적 행동이 시장성과의 품질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16(1), 2004, 39-54쪽; 임치근·김원인, 「항공사 종사원의 시장 지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4(3), 2009, 239-259쪽.
 - 16) 김재영·한동철, 「호텔종업원 친소비자 행동의 결정변수」, 『마케팅연구』 15(1), 2000, 103-124쪽.
 - 17) 조주은, 「항공사 객실승무원에 대한 조직후원인식이 신뢰, 친사회적 행동,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14(3), 2005, 317-337쪽.
 - 18) Posdakoff P.M. & MacKenzie, S.B.,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and sales unit effectivenes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1(3), 1994, 351-363; 박대환·남중현·이용기, 「서비스제공자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선행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 호텔 식음료부서들 중심으로」, 『호텔 경영학연구』 11(2), 2002, 55-74쪽; 이정란·이경국, 「항공사 종사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직무몰입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연구』 8(3), 2006, 147-161쪽.

종업원 관점에서 Betterncourt & Brown은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을 규정된 역할로서의 고객 서비스(role-prescribed customer service), 규정 외역할로서의 고객 서비스(extra-role customer service), 협조(cooperation) 통 3가지로 분류하였다.¹⁹⁾ 규정된 역할 고객 서비스는 영업장에서의 묵시적 규범 또는 직무기술서와 성과평가표와 같은 양식으로 인하여 종업원이 해야 하는 기대된 행동을 의미한 반면에 규정 외 역할 고객 서비스는 공식적 역할 요구 이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고객 접점 종업원의 분명한 행동을 말한다.²⁰⁾ 또한 협조는 고객을 위한 높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 간에 서로 도와주는 내부적 팀원 행동을 말한다.²¹⁾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이 서비스접점 종업원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행동이라고 전제할 때, 협동은 조직 내 팀원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의미의 모호성이 크지만,²²⁾ 협동 또한 고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료를 돋는 것도 고객 서비스의 차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ckfeldt & Wong과 이정란·이경국의 연구에 근거하여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의 개념을 규정외 고객 서비스 행동에 규정 내 고객 서비스 행동, 협력을 포함하여 3가지 하위 변수로 구성하였다.²³⁾

3.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기존의 임파워먼트의 부족한 측면을 보충하기 위한 발전된 연구이다. 먼저 임파워먼트는 힘에서 유래된 것으로 힘에 관한 개념의 발전에 따라 ‘파워를 주는 것’, ‘개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 뿐만이 아

19) Betterncourt, L.A. & Brown S.W., “Contact Employees: Relationship Among Workplace Fairness, Job Satisfaction and Prosocial Service Behaviors”, *Journal of Retailing* 73(1), 1997, 39-61.

20) Puffer, S.M., “Prosocial behavior, noncompliant behavior, and work performance among commission salespeopl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4), 1987, 615.

21) 남중현, 앞의 논문, 2004, 39-54쪽; 이정란·이경국, 위의 논문, 2006, 147-161쪽; 임치근·김원인, 앞의 논문, 2009, 239-259쪽.

22) Betterncourt, L.A. & Brown S.W., 앞의 논문, 1997, 39-61.

23) Ackfeldt, A.L. & Wong, V., 앞의 논문, 2006, 727-745; 이정란·이경국, 앞의 논문, 2006, 147-161쪽.

니라 능력 그리고 에너지이다.²⁴⁾²⁵⁾ 즉, 과업에 대한 권한을 상사에서 하부로 이동시켜 조직 구성원에게 다른 조직 구성원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조직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효율적 의사 결정 및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임파워먼트를 사용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조직 구조적 관점의 임파워먼트는 권한에 대한 조직 구성원간의 이해관계만을 설명 할 뿐 권한 위임으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개념이다. 이러한 이유로 임파워먼트에 대한 후속 연구들²⁶⁾은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심리적 수단으로 임파워먼트가 활용되어진다고 주장하며, 동기부여 관점으로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²⁷⁾

즉,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동기부여 이론중 하나로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포함하여 개인이 부여받은 직무 권한에 대한 심리적 지각상태를 의미한다.²⁸⁾ Conger 와 Kanungo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동기부여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작으로 많은 연구자와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²⁹⁾ 이에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차원을 역량(Competence), 자기 결정성(Self-determination), 영향력(Impact), 의미성(Meaningful)의 4개의 하위차원으

24) 반지혜, 「호텔종업원의 임파워먼트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5) Thomas, K.W. & Velthouse, B.A., "Cognitive Elements of Empowerment: An 'Interpretive' Model of Intrinsic Task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4), 1990, 661-681.

26) Conger, J.A. & Kanungo, R.N., "The empowerment proces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1988, 471-482; Thomas, K.W. & Velthouse, B.A., 위의 논문, 1990, 661-681; Spreitzer, G.M.,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Dimensions,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5), 1995, 1442-1465.

27) 김일상, 「호텔종사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 시장성과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8) Amenumey, E.K. & Lockwood, A., "Psychological climate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n exploration in a luxury UK hotel group",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8(4), 2008, 265-281.

29) Conger, J.A. & Kanungo, R.N., 앞의 논문, 1988, 471-482.

로 핵심 구성요소 설명하였고,³⁰⁾ Spreitzer는 이를 바탕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³¹⁾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차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감이란 개인이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나 직위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과업 활동의 목적 또는 목표의 가치가 되며 이것은 개인적인 이상, 가치체계, 신념, 태도와 관련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과업활동에 개인의 가치를 반영하여 연결시키는 정도이다. 둘째, 역량은 특정 과업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한 능력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는 직무 관련 업무의 수행 능력 보유에 대한 신념으로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며 특정 직무 역할에서의 효능감을 다룬다. 셋째, 자기결정감 이란 자신의 업무가 자기 자신의 행동에 의해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하는 직무 과정의 자율성 정도로서 자신의 업무가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어짐으로 인하여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영향력(personal influence)은 직무 수행에 대한 전략적, 관리적 뿐만 아니라 실무적 절차와 결과에 까지 개인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³²⁾ 조직 구성원이 목표달성을 위한 자신의 활동이 조직 전체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이 없다면 그 구성원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지각하지 못할 것이다.³³⁾

III. 연구 설계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호텔 직원의 감정 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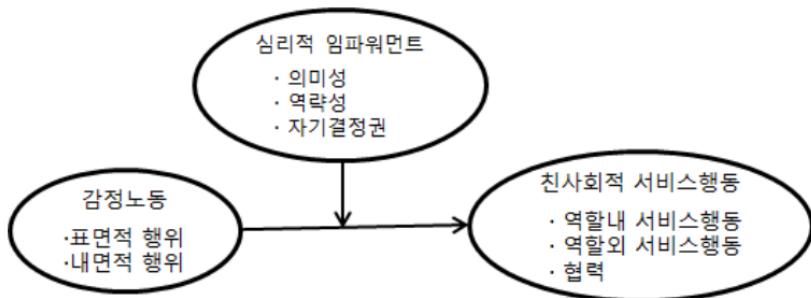
30) Fulford, M.D., & Enz, C.A., "The impact of empowerment on service employees",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1995, 161-175.

31) Spreitzer, G.M., 앞의 논문, 1995, 1442-1465.

32) Ashforth, B.E., "The experience of powerlessness in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3(2), 1989, 207-242.

33) Thomas, K.W. & Velthouse, B.A., 위의 논문, 1990, 661-681.

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나타내는 조절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심리적 임파워먼트, 즉 의미성, 역량성, 자기결정권을 조절 변수로, 감정노동, 즉 표면 행위, 내면행 위를 독립변수로,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 즉 역할 내 서비스 행동, 역할 외 서비스 행동, 협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을 고객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직원이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조직 내 적응을 위해 자신의 실제 감정을 조직 내 표현규범에 맞게 조절하려는 행동으로써 감정의 직무수행전략을 의미하다. 호텔직원은 감정표현 즉,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는 고객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서비스 제공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직원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서비스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임파워먼트를 연구가 논의되어왔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란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포함하여 직원의 직무권한에 대한 심리적 지각상태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동기 등을 부여함으로써 직원의 자발적 행동을 촉진하는 행위나 과정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로 활용하였다.³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구조적 임파워먼트가 아닌 동기부여적 임파워먼트이기 때문에 직무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하고 부서 내 직무의 영향력과 의미를 부여함은 효율적 인적자원관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은 직원이 다른 구성원이나 고객에게 직접적

34) Amenumey E.K. & A. Lockwood, 앞의 논문, 2008, 265-281.

인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써 구성원 개인과 조직의 직접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과 의도라고 정의하였다.³⁵⁾ 위희경은 감정 노동 행동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가 조절효과로써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³⁶⁾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 노동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최형민과 이형룡의 연구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차원 가운데 역량과 의미성은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에 대해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³⁷⁾

본 연구의 가설은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1.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의미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1-1. 표면적 행위와 역할내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의미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1-2. 내면적 행위와 역할내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의미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1-3. 표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의미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1-4. 내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의미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1-5. 표면적 행위와 협력의 관계에서 의미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1-6. 내면적 행위와 협력의 관계에서 의미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2.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2-1. 표면적 행위와 역할내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5) Betterncourt, L.A. & Brown S.W., 앞의 논문, 1997, 39-61.

36) 위희경, 「감정노동행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4-61쪽.

37) 최형민·조재근·이형룡, 앞의 논문, 2011, 31-55쪽.

타낼 것이다.

가설2-2. 내면적 행위와 역할내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2-3. 표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2-4. 내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2-5. 표면적 행위와 협력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2-6. 내면적 행위와 협력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3.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3-1. 표면적 행위와 역할내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3-2. 내면적 행위와 역할내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3-3. 표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3-4. 내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3-5. 표면적 행위와 협력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3-6. 내면적 행위와 협력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 측정도구 및 설문지구성

설문항목의 구성은 감정노동(Hochschild, 박정하·이애리, Grandey)³⁸⁾의 선 행연구에서 12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Spreitzer, 이금재·이에리자, 장세준)³⁹⁾의 연구를 바탕으로 9문항을 기초로 하였다. 그리고 친

38) Hochschild, A.R., 앞의 논문, 1983; 박정하, 앞의 논문, 2015, 145-161쪽; Grandey, A.A. "Emotional regulation in the workplace: A new way to conceptualize emotional labor."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2000.

39) Spreitzer, G.M., 앞의 논문, 1995, 1442-1465; 이금재·이에리자(2011). 「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임파워먼트,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0(2), 2011 130-142쪽; 장세준(2011), 「호텔직원의 셀프리더십과 LMX가 심리적 임파

사회적 서비스 행동 Ackfeldt & Wong⁴⁰⁾과 이정란·이경국⁴¹⁾, 이형룡·박용제·권기준⁴²⁾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특 1등급 호텔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총 5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표본 추출은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데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비확률표본 방식의 하나인 판단추출법을 이용하였다. 각 호텔의 설문관련 업무 협조자에 설명하고 업무협조자를 통해 설문을 발송 및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16년 1월 21일부터 2016년 2월 10일까지 20일간 조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두 개의 시를 기준으로 각각 3곳씩, 총 6곳의 호텔을 선정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균형을 맞추어 표본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지역별은 제주시 180명(49.2%), 서귀포 186명(50.8%)로 나타났다.

〈표 1〉 설문조사 방법

조사대상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 중문권 특 1등급 호텔 서비스 종사원
자료수집	자기기입법
조사기간	2016년 1월 21일 ~ 2016년 2월 10일
설문조사	총 배포 설문지 수: 420부
회수결과	366부 (회수: 381부, 적용: 366부, 회수율: 90.7%, 사용율: 87.1%)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190명(51.9%), 여성이 176명(48.1%)로 비슷한 구성비를 나타내었으며, 근무부서는 객실팀과 F&B가 각각 147명(40.2%), 113명(30.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워먼트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6-23쪽.

40) Ackfeldt, A.L. & Wong, V., 앞의 논문, 2006, 727-745.

41) 이정란·이경국, 앞의 논문, 2006, 147-161쪽.

42) 이형룡·박용제·권기준, 앞의 논문, 2010, 171-189쪽.

기타부분의 관리팀 65명(17.7%), 조리팀 41명(11.2%)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는 20대가 148명(40.4%), 30대 127명(34.7%), 40대 이상이 91명(24.9%)으로 나타나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료의 분석 방법은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 다중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가설의 검증

1.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1)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감정노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에 대한 전반적 합치도를 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 추출은 주성분분석법(principal axis analysis)을 사용했으며, 직교회전(Varimax)방식으로 요인회전을 시켰다. 또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첫째, 감정노동은 2가지의 요인 즉, 표면적 행위와 내면적 행위로 적재되었다. 측정변수들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값은 .870로서 0.60이상이며, 고유값은 표면적 행위 4.592, 내면적 행위 3.105로서 보든 요인에 대한 고유값이 1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도 계수는 표면적 행위 .935, 내면적 행위 .813로 나타났으며, 모든 Cronbach's α 값이 0.60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3가지의 요인 즉, 의미성, 역량성, 자기결정권으로 적재되었다. 측정변수들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

Olkin) 값은 .831로서 0.60이상이며, 고유값은 의미성 4.509, 역량성 1.447, 자기결정권 1.021이로서 모든 요인에 대한 고유값이 1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도 계수는 의미성 .866, 역량성 .863, 자기결정권 .807로 나타났으며, 모든 Cronbach's α 값이 0.60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은 3가지의 요인 즉, 역할내 서비스 행동, 역할외 서비스행동, 협력으로 적재되었다. 측정변수들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 (Kaiser-Meyer-Olkin) 값은 .893로서 0.60이상이며, 고유값은 역할내 서비스 행동 6.678, 역할외 서비스행동 1.613, 협력 1.228로서 모든 요인에 대한 고유값이 1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도 계수는 역할내 서비스행동 .846, 역할외 서비스행동 .849, 협력 .848로 나타났으며, 모든 Cronbach's α 값이 0.60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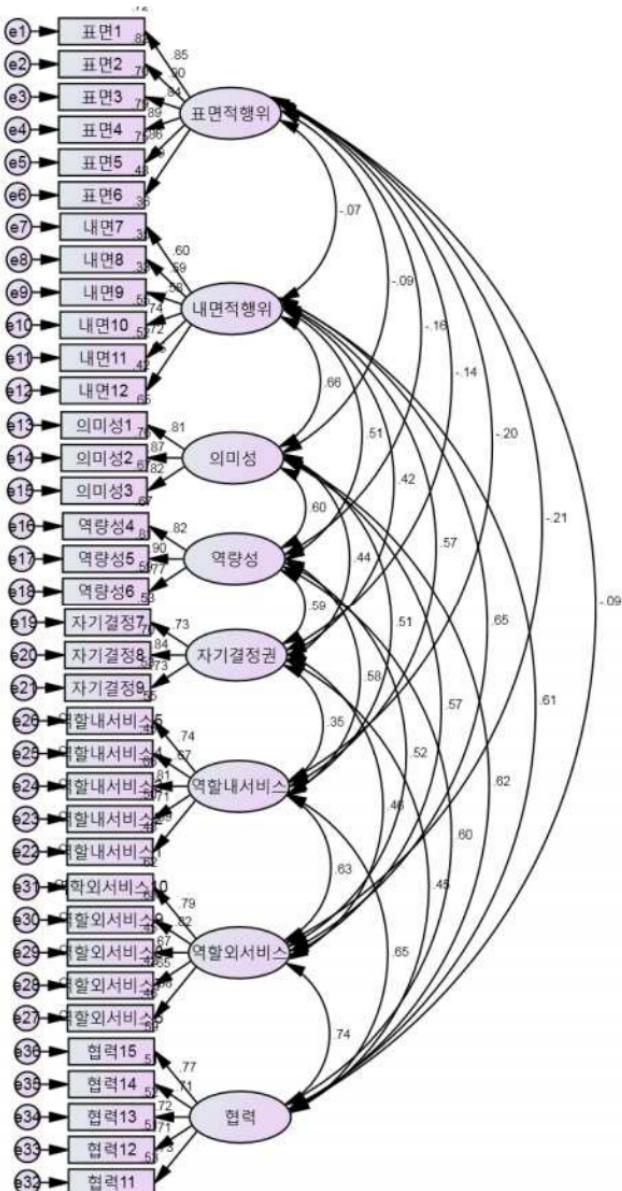
개념	요인	변수명	요인분석		α
			요인적계량	Eigen Value	
감정노동 (KMO=.870)	표면적행위	솔직감정표현X	.865	-.057	
		좋은은처럼행동	.911	-.031	
		과장된 감정표현	.873	-.041	
		억지미소	.902	.033	4.582
		무례한고객에게 공손태도	.891	.052	.935
		업무수행위한무대	.757	-.109	
	내면적행위	고객감정 =내 감정	.020	.719	
		진정한느낌및감정	-.019	.718	
		실제감정변화 노력	.062	.689	3.105
		고객에게진실된태도	-.109	.768	.813
		내기분항상좋게유지	-.028	.736	
		진실된 감정유지	-.074	.695	
심리적 임파워먼트 (KMO=.831)	의미성	업무는나에게중요함	.809	.317	.059
		직무는내게의미있는일	.878	.186	.178
		내가하는모두의미있음	.852	.183	.196
	역량성	업무수행 자신감	.319	.820	.136
					1.447
					.863

자기결정권		업무처리능력자신감	.225	.870	.206		
		직무기술보유	.190	.761	.347		
		업무수행결정권유무	.089	.319	.766	1.021	.807
			.131	.262	.815		
			.190	.051	.849		
친사회적 서비스행동 (KMO=.893)	역할내 서비스행동	고객관련된업무수행	.824	.011	.160		
		업무수행절차준수	.745	.197	.162	6.678	.846
		매뉴얼 명시의무	.760	.247	.238		
		고객서비스업무완수	.654	.094	.354		
		부여업무고객제공	.686	.360	.145		
	역할외 서비스행동	업무이상요구고객돕기	.296	.710	.178		
		업무이상고객문제해결	.076	.812	.172	1.613	.849
		업무이상고객서비스제공	.079	.790	.235		
		고객민족위해노력	.250	.656	.376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	.275	.575	.395		
	협력	동료도와주기	.177	.242	.740		
		동료돕기위해노력	.282	.178	.691	1.228	.848
		신입사원 적응돕기	.247	.270	.681		
		자발적 시간할애	.103	.246	.742		
		문제발생한 동료 기끼이 돕기	.224	.188	.764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감정 노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 간의 구성개념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감정 노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각각 GFI=.824, AGFI=.807, NFI=.831, RFI=.812, IFI=.891, TLI=.878, CFI=.890로 나타나 지수값은 모두 .8 이상이었으며, RMR=.035, RMSEA=.064로 나타나 지수값은 .08이하로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표 3〉 감정노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의
확인적 요인분석 지수

CMIN	DF	p	CMIN/DF	RMR	GFI	AGFI	NFI	RFI	IFI	TLI	CFI	RMA
1414.895	566	.000	2.500	.035	.824	.807	.831	.812	.891	.878	.890	.064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적 특성과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어떠한 방향이며, 어느 정도 통계적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

변수명	M	S.D	1	2	3	4	5	6	7	8
1. 표면적행위	3.23	1.01	1							
2. 내면적행위	3.69	.55	-.059	1						
3. 의미성	3.86	.70	-.091	.545	1					
4. 역량성	3.73	.70	-.148	.426	.541	1				
5. 자기결정권	3.30	.69	-.129	.328	.369	.514	1			
6. 역할내서비스행동	3.77	.54	-.174	.459	.447	.495	.272	1		
7. 역할외서비스행동	3.65	.57	-.214	.517	.472	.474	.401	.515	1	
8. 협력	3.75	.57	-.095	.493	.537	.524	.369	.555	.620	1

*p<.05, **p<.01, ***p<.001

3. 가설 검증

- 1) 가설1. 감정 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의미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첫째, 호텔 직원의 표면적 행위와 역할내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의미성이 조절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면적 행위와 의미성의 상호작용항이 역할내 서비스행동에 유의한 영향($\beta=-4.307***$)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표면적 행위와 역할내 서비스행동 사이에 의미성이 작용하면, 표면적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가설1-1은 채택되었다.

둘째, 호텔 직원의 표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의미성이 조절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면적 행위와 의미성의 상호작용항이 역할외 서비스 행동에 유의한 영향($\beta=-3.189**$)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표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 행동 사이에 의미성이 작용하면, 표면적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가설1-3은 채택되었다.

셋째, 호텔 직원의 내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의미성이 조절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내면적 행위와 의미성의 상호작용항이 역할외 서비스 행동에 유의한 영향($\beta=2.455*$)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내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행동 사이에 의미성이 작용하면, 표면적 행동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가설1-4는 채택되었다.

넷째, 호텔 직원의 표면적 행위와 협력의 관계에서 의미성이 조절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면적 행위와 의미성의 상호작용항이 협력에 유의한 영향($\beta=-4.200***$)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표면적 행위와 협력 사이에 의미성이 작용하면, 표면적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가설1-5는 채택되었다.

〈표 5〉 의미성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역할내 서비스행동			역할외 서비스행동			협력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표면적행위	-3.205***	-2.948**	-.843	-4.177***	-3.950***	-2.177*	-1.437	-1.013	.844
내면적행위	9.783***	5.741***	6.213***	11.504***	7.243***	7.643***	10.717***	5.606***	6.013***
의미성	5.064***	4.606***		5.042***	4.853***		7.454***	6.798***	
표면적행위 ×의미성			-4.307*** (가설1-1)			-3.189** (가설1-3)			-4.200*** (가설1-5)
내면적행위 ×의미성			1.554 (가설1-2)			2.455* (가설1-4)			.173 (가설1-6)
R2	.233	.283	.323	.301	.346	.375	.247	.347	.378
ΔR2	.228	.278	.314	.297	.341	.366	.243	.342	.369
ΔR2 변화량	.050	.036		.044	.025		.099	.027	
F	55.041***	47.733***	34.376***	78.012***	63.980***	43.188***	59.581***	64.209***	43.732***

*p<.05, **p<.01, ***p<.001

2) 가설2. 감정 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첫째, 호텔 직원의 표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역량성이 조절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면적 행위와 역량성의 상호작용항이 역할외 서비스 행동에 유의한 영향($\beta=-2.789**$)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표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 행동 사이에 역량성이 작용하면, 표면적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가설2-3은 채택되었다.

둘째, 호텔 직원의 표면적 행위와 협력의 관계에서 역량성이 조절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면적 행위와 역량성의 상호작용항이 협력에 유의한 영향($\beta=-3.147**$)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표면적 행위와 협력 사이에 역량성이 작용하면, 표면적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가설2-5는 채택되었다.

〈표 6〉 역량성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역할내 서비스행동			역할외 서비스행동			협력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표면적 행위	-3.205**	-2.400*	-1.693	-4.177***	-3.502**	-1.636	-1.437	-4.434	.915
내면적 행위	9.783***	6.401***	6.348***	11.504***	8.338***	8.019***	10.717***	7.108***	6.967***
역량성	7.291***	6.940***		6.171***	6.090***		8.150***	7.695***	
표면적 행위 x 역량성			-1.257 (가설2-1)			-2.789** (가설2-3)			-3.147** (가설2-5)
내면적 행위 x 역량성			-1.002 (가설2-2)			1.741 (가설2-4)			-.877 (가설2-6)
R ²	.233	.331	.336	.301	.367	.386	.247	.364	.382
ΔR ²	.228	.325	.326	.297	.362	.378	.243	.359	.373
ΔR ² 변화량		.097	.001		.065	.016		.116	.014
F	55.041***	59.685***	36.357***	78.012***	70.017***	45.322***	59.581***	69.018***	44.476***

*p<.05, **p<.01, ***p<.001

3) 가설3.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첫째, 호텔 직원의 내면적 행위와 역할내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이 조절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내면적 행위와 자기결정권의 상호작용항이 역할내 서비스행동에 유의한 영향($\beta=2.663**$)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내면적 행위와 역할내 서비스 행동 사이에 자기결정권이 작용하면, 내면적 행동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가설3-2는 채택되었다.

둘째, 호텔 직원의 표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이 조절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면적 행위와 자기결정권의 상호작용항이 역할외 서비스행동에 유의한 영향($\beta=-2.779**$)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표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행동 사이에 자기결정권이 작용하면, 표면적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가설3-3은 채택되었다.

셋째, 호텔 직원의 표면적 행위와 협력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이 조절역

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면적 행위와 자기결정권의 상호작용항이 협력에 유의한 영향($\beta=-2.124^*$)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표면적 행위와 협력 사이에 의미성이 작용하면, 표면적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가설3-5는 채택되었다.

〈표 7〉 자기결정권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역할내 서비스행동			역할외 서비스행동			협력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표면적 행위	-3.205**	-2.920**	-2.421*	-4.177***	-3.684***	-2.480*	-1.437	-.909	-.127
내면적 행위	9.783***	8.523***	8.699***	11.504** *	9.561***	9.650***	10.717* **	8.882***	8.875***
자기결정권	2.464*	2.183*		5.334***	5.147***		4.837***	4.789***	
표면적 행위 ×자기결정권			-.735 (가설3-1)			-2.779** (가설3-3)			-2.124* (가설3-5)
내면적 행위 ×자기결정권			2.663** (가설3-2)			.565 (가설3-4)			-.762 (가설3-6)
R ²	.233	.245	.261	.301	.352	.365	.247	.293	.303
ΔR ²	.228	.239	.250	.297	.346	.357	.243	.287	.294
ΔR ² 변화량	.011	.011		.049	.011		.044	.007	
F	55.041 ***	39.231 ***	25.370 ***	78.012 ***	65.423*** ***	41.462 ***	59.581 ***	49.971 ***	31.327 ***

*p<.05, **p<.01, ***p<.001

〈표 8〉 가설 검증 결과

가 설	채택 여부
가설 1.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의미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1-1. 표면적 행위와 역할내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의미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1-2. 내면적 행위와 역할내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의미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가설1-3. 표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의미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1-4. 내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의미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1-5. 표면적 행위와 협력의 관계에서 의미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1-6. 내면적 행위와 협력의 관계에서 의미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가설2.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2-1. 표면적 행위와 역할내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가설2-2. 내면적 행위와 역할내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가설2-3. 표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2-4. 내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가설2-5. 표면적 행위와 협력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2-6. 내면적 행위와 협력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가설3.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3-1. 표면적 행위와 역할내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가설3-2. 내면적 행위와 역할내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3-3. 표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3-4. 내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가설3-5. 표면적 행위와 협력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가설3-6. 내면적 행위와 협력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각

V. 결론

본 연구는 호텔 조직 내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텔 직원의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 요소인 의미성에 준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의 표면적 행위와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에는 의미성이 모두 조절효과를 나타냈고, 내면적 행위와 역할외 서비스 행동에 대해 의미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객들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여 겉으로 표현되는 감정을 웃음 짓는 등 수정된 행동을 취하도록하며, 직원이 조직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수행되는 과업 활동이 조직에 미치는 가치 있는 행동임을 직원들에게 신념을 심어주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인적 관리를 한다면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호텔 직원의 감정 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의 관계에서 역량성은 준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의 표면적 행위와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의 역할외 서비스 행동과 협력과의 관계에서는 역량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냈고, 내면적 행위와 역할내·외 서비스 행동, 협력에 있어 역량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역량성은 특정 과업에 대하여 직원

이 보유한 능력으로 업무 처리에 필요한 능력은 감정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호텔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은 준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이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면적 행위의 감정노동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 자신의 행동에 의해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직무 과정의 자율성을 보다 자유롭게 해야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노동과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수를 구체화한 조절효과 분석에 따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텔 직원들에게 형성된 감정노동의 전략적 측면을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에 있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수 중 유의미한 효과의 변수를 구분하고 구체화하여 직무에 활용 방안 및 대책 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호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 및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에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바, 호텔기업에서는 호텔 직원의 내면적인 변화로부터 서비스 혁신에 이르기까지 긍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관리체계의 전환이 될 수 있다.

둘째, 차후 심리적 임파워먼트 하위변수의 유의한 조절변수를 직무교육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조직적 차원에서 활용하여 호텔지원에게 적용한다. 즉, 인적 자원인 직원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선을 추구할 수 있으며, 동료 및 선·후배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의해 내적인 역량 강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인성교육, 서비스 교육, 자존감 강화훈련, OJT, 인간관계 훈련, 비공식적 조직 활동, 각종 능력개발 등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감정규제이론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 상태의 사람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하며, 부정적 감정 상태의 사람은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⁴³⁾ 따라서 집계된 자료를 활용하여 긍정적 감정을 유발, 낙관적 사고, 긍

43) Isen, A.M., Nygren, T.E. & Ashby, F.G.,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the subjective utility of gains and losses: it is just not worth the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5), 1988, 710-717.

정적 언행 사용, 불평고객 응대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활용하여 보다 더 자율적인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감정노동을 단순히 감정적 노동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감정 관리하는 전략으로서 호텔기업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즉, 맡은 직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직무를 개발하고 향상시켜 현장에서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사내 감정노동 고충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호텔 내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의 근무조건과 건강실태를 파악 및 개선하고 긍정적인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제공한다. 또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여 감정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의 감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조사는 제주 지역에서 특급호텔 6곳 국한하여 조사된 데 지역적 한계성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 제주지역내 보다 많은 호텔을 대상으로 하거나 타 지역 특급호텔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특급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 기법으로 한계를 가진다.²⁴ 다 객관화하기 위해 직원 면담을 통한 심층 분석을 통해 각 호텔별 차이점을 분석해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감정노동 해소를 위한 수행 전략적 차원에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 연계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김영진, 「감정노동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 소진의 역할」,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일상, 「호텔종사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 시장성과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의영·이종환·강경수,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 및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5), 2012.
- 김재영·한동철, 「호텔종업원 친소비자 행동의 결정변수」, 『마케팅연구』 15(1), 2000.
- 김지은, 「접점 서비스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서비스교육 만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찬중·김용순, 「외식업체 비정규직원의 직무특성, 임파워먼트, 조직몰입과 조직시민 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11), 2007.
- 남중현, 「호텔 서비스제공자의 지각된 친사회적 행동이 시장성과의 품질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16(1).
- 박대환·남중현·이용기, 「서비스제공자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선행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 호텔 식음료부서들 중심으로」, 『호텔 경영학연구』 11(2), 2002.
- 박정하, 「호텔 종사원의 조직시민행동과 직무소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저널』 29(11), 2015.
- 반지혜, 「호텔종업원의 임파워먼트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정민, 「호텔 직원의 감정노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소진 및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 간의 관계」,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주영·전의숙·김현,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7.
- 위희경, 「감정노동행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4.
- 이금재·이에리자, 「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임파워먼트,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0(2), 2011.

- 이정란·이경국, 「항공사 종사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연구』 8(3), 2006.
- 이형룡·박용제·권기준, 「체인 레스토랑 직원의 조직응집성이 상호의존성과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19(2), 2010.
- 임치근·김원인, 「항공사 종사원의 시장지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4(3), 2009.
- 장세준, 「호텔직원의 셀프리더십과 LMX가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조주은, 「항공사 객실승무원에 대한 조직후원인식이 신뢰, 친사회적 행동,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14(3), 2005.
- 채신석,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1(5), 2007.
- 최형민·조재근·이형룡, 「호텔 직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간의 관계」, 『관광학연구』 35(8), 2011.
- Ackfeldt, A.L. & Wong, V. "The Antecedents of Prosocial Service Behaviours: An Empirical Investigation",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26(7), 2006.
- Amenumey, E.K. & Lockwood, A., "Psychological climate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n exploration in a luxury UK hotel group",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8(4), 2008.
- Ashforth, B.E., "The experience of powerlessness in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3(2), 1989.
- Betterncourt, L.A. & Brown S.W., "Contact Employees: Relationship Among Workplace Fairness, Job Satisfaction and Prosocial Service Behaviors", *Journal of Retailing* 73(1), 1997.
- Brief, A.P. & Motowildo, S.J. "Prosocial Organizational Behavio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4), 1986.
- Conger, J.A. & Kanungo, R.N., "The empowerment proces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1988.
- Fulford, M.D., & Enz, C.A., "The impact of empowerment on service employees",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1995.
- George J.M. & K. Bettenhausen, "Understanding prosocial behavior, sales performance, and turnover: A group-level analysis in a service contex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6), 1990.

Grandey, A.A. "Emotional regulation in the workplace: A new way to conceptualize emotional labor."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2000.

Hochschild, A.R.,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Isen, A.M., Nygren, T.E. & Ashby, F.G.,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the subjective utility of gains and losses: it is just not worth the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5), 1988.

Lacetera, N. & Macis, M., "Social image concerns and prosocial behavior: Field evidence from a nonlinear incentive schem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6(2), 2010.

Morris, J.A. & Feldman, D.C., "The Dimensi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4), 1996.

Mussen, P., & Eisenberg-Berg, N., *Roots of caring sharing and helping: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WH Freeman, 1977.

Posdakoff P.M. & MacKenzie, S.B.,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and sales unit effectivenes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1(3), 1994.

Puffer, S.M., "Prosocial behavior, noncompliant behavior, and work performance among commission salespeopl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4), 1987.

Thomas, K.W. & Velthouse, B.A., "Cognitive Elements of Empowerment: An 'Interpretive' Model of Intrinsic Task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4), 1990.

Spreitzer, G.M.,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Dimensions,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5), 1995.

Abstract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Prosocial Service Behavior of Hotel Employees in Jejudo : Focusing on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Baek, Jeong-Min*. Cho, Moon-Soo**

This study is about the controll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rel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and pro-social behavior of hotel employees in Jeju. Also,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the followings were found in terms of the controll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related to the emotional labor and pro-social behavior.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ntrolling effect of the factor of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meaningful,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on the emotional labor and pro-social behavior is significant. From the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Significant factor (meaningful,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are utilized for hotel support on an organizational level, such as job training or training programs. In other words, hotel organization have to identifies, develops, and improves capabilities required of the hotel employees for the task process so that it can be motivated to conduct autonomous management on site.

Key words : Emotional Labor, Psychological Empowerment, Prosocial Service Behavior

* Lead Author, Part-time lecturer of Jeju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 of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 조문수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경영학과
(E-mail: chomns@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8. 01. 07

심사완료일: 2018. 01. 29

게재확정일: 2018. 01. 31

연구원 소식

회 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탐라문화』 간행 및 심사 규정

『탐라문화』 투고 및 편집 규정

『탐라문화』 편집위원회 규정

회 보

(2017. 11. 01 ~ 2018. 02. 28)

■ 학술행사

□ 제주오키나와학회 창립대회 국제학술회의

- 일시 : 2017년 11월 4일(토)
- 장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진양현석관
- 주최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SSK사업단
- 주관 : 제주오키나와학회 준비위원회
- 주요 프로그램

주제	발표자	좌장
기조강연: 제주문화에 대한 시각 - 삼다도와 삼무도를 중심으로	츠하 타카시	
제주 중류주 ‘고소리술’과 오키나와 ‘아와보리’의 문화비교 시론	오영주	윤용택
오키나와와 제주의 장수 정책	안재홍	
한국근대문학과 오키나와	김재용	전영준
이하 후유의 조선인식	이명원	
제주와 류큐 열도(오키나와)의 해양신앙 비교 고찰	허남춘·이현정	최현
오키나와 쿠다카지마의 총유제와 현대총유론	정영신·김자경	
종합토론	허남춘, 이창익, 김창민, 장인수, 이케다, 요시후미	조성윤

□ 제주 여성사 연구의 회고와 미래 전망

- 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
- 장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진양현석관
- 주최·주관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제주대학교 박물관
- 주요 프로그램

주제	발표자	좌장
기조발표 : 제주 여성사 연구의 희고와 미래 전망	김은석	
폐미니즘과 제주	박이은실	
해양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제주해녀문화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안미정	
제주 여성 생활문화사	문순덕	
동양 철학의 관점에 기초한 제주여성사 연구의 희고와 제언	김치완	
종합토론	윤용택, 전영준, 김명옥, 정광중	박찬식

□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 장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진양현석관
- 주최·주관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신라사학회
- 주요 프로그램

주제	발표자	좌장
고대 탐라국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장창은	
고고학 연구성과로 본 탐라 전기문화	김경주	김희만
탐라 건국신화에 보이는 3여신의 역할과 위상	채미하	
탐라의 대일 교섭	이유진	
신라의 동아시아 교역과 탐라	박남수	박찬식
황해 사단항로와 탐라	최희준	
종합토론	김덕원, 김대우, 허남춘, 정병준, 정창원, 김창겸	권덕영

■ 탐라문화연구원 운영위원회

번호	직책	이름	소속학과	위촉기간
1	원장 (해양문화연구센터장 겸직)	전영준	인문대학 사학과	2017.03.1 ~ 2019.02.28 (2018.02.1 ~ 2020.01.31)
2	부원장	김은희	인문대학중어중문학과	2017.03.13 ~ 2019.03.12
3	편집위원장	서영표	인문대학 사회학과	2017.03.11 ~ 2019.03.10
4	운영위원 (제주4·3연구센터장 겸직)	김동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6.09.19 ~ 2018.09.18
5	운영위원	배영환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6.03.07 ~ 2018.03.06
6	운영위원	최 현	인문대학 사회학과	2016.11.08 ~ 2018.11.07
7	운영위원	이동철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2017.05.01 ~ 2019.04.30
8	운영위원	김치완	인문대학 철학과	2017.05.17 ~ 2019.05.16
9	운영위원	이창의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2017.07.20 ~ 2019.07.19
10	운영위원	조성식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2017.07.20 ~ 2019.07.19
11	운영위원	방호진	경상대학 경영학과	2018.02.01 ~ 2020.01.31
12	운영위원	장창은	인문대학 사학과	2018.02.01 ~ 2020.01.31

■ 발간물

- 탐라문화 57호(2018. 02. 2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제정	1983. 2. 23.	규칙 제	53호
개정	1997. 11. 17.	규칙 제	383호
개정	1999. 6. 29.	규칙 제	435호
개정	2001. 8. 31.	규칙 제	495호
개정	2004. 3. 1.	규칙 제	597호
개정	2006. 8. 1.	규칙 제	692호
개정	2011. 7. 14.	규칙 제	958호
개정	2012. 11. 9.	규칙 제	1043호
개정	2013. 10. 4.	규칙 제	1131호
개정	2014. 8. 8.	규칙 제	12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 2조 제 3항에 규정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이하 “탐라문화연구원”라 한다)은 제주학 관련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과 동아시아의 사회문화 교류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 탐라문화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조사, 발굴, 연구 및 보존
2. 타 지역과의 비교연구
3. 연구발표 및 공개강좌 개최
4.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학술교류
5. 각종 간행물의 발간
6. 자료실 설치와 운영
7. 저명 외국학자의 초빙과 연구위원 해외파견
8. 외부기관의 위탁연구 및 용역사업

9. 그 밖에 탐라문화연구원의 직무에 부합되는 사항

제4조(원장과 부원장) ① 탐라문화연구원에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관련분야를 전공한 제주대학교 소속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탐라문화연구원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탐라문화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관掌한다.

제5조(연구센터) ① 탐라문화연구원에 제주어연구센터, 제주4·3연구센터, 제주사회문화조사연구센터, 신화·민속연구센터, 제주문화콘텐츠연구센터, 해양문화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센터는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수행 등 관계 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센터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연구인력) ① 탐라문화연구원에 연구위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의 연구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등의 명칭과 임용·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제7조(조교 및 직원) 탐라문화연구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연구분과) 탐라문화연구원의 연구 활동 분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연구위원들이 각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1. 언어·문학분과: 제주어, 제주문학, 한국어, 한국문학, 외국어, 외국문학 등
2. 민속·예능분과: 민속, 종교, 의료, 음악, 미술, 체육 등
3. 역사·고고분과: 역사, 고고, 문화재 등
4. 철학·교육분과: 사상, 철학, 윤리, 심리, 교육 등
5. 사회·문화분과: 지리, 사회, 인류, 평화, 여성, 보건, 의료 등

6. 산업·경제분과: 농업, 수산, 경제, 경영, 관광, 무역 등

7. 자연·환경분과: 지질, 동물, 식물, 생태, 환경, 해양 등

제9조(운영위원회) ① 탐라문화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원장, 부원장, 각 연구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연구 위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편집위원회) ① 탐라문화연구원은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술지 발간 등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재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와 일반회계, 국내외 기관의 지원 자금, 기부금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2조(시행세칙) 탐라문화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1983. 2. 23. 규칙 제5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11. 17. 규칙 제38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 29. 규칙 제43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31. 규칙 제4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4. 3. 1. 규칙 제59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 규칙 제692호)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 기타하부조직 설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법령 또는 종전의 학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제주대학교 기타하부조직 설치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각 부처장 및 부학(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부처장 및 부학(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7. 14. 규칙 제95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9. 규칙 제10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4. 규칙 제11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위촉된 연구원은 해당 임기 동안 이 규정에 따라 임용·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8. 8. 규칙 제125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본 연구원 관련 모든 연구자는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로서의 행동 규범을 규정하는 바, 이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1조(연구자의 의무와 대상) 본 연구원 관련 모든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여기서 ‘본 연구원 관련 모든 연구자’란 연구원 규정 제6조(연구위원 등)에 해당하는 자, 학술지 <탐라문화>에 투고하는 자와 심사자, 그리고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등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조(위원회의 설치) 연구원 연구윤리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원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한다.

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구성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1인

4조(위원회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원 관련 분야 인사 중, 연구원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연구원 관련 연구자의 학술연구윤리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6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연구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 3인 이상, 또는 연구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 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 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 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 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벌할 수 없다.

- 1) 제명
-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3)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의 공개 사과
- 4) 연구자로서의 자격 정지
- 5) 주의 조치
- 6) 기타

10조(후속 조치)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11조(행정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연구원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4) 연구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제12조(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탐라문화』 간행 및 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3조 5항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탐라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간행 횟수)

『탐라문화』는 매년 3회 발행하며 간기는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재 원고의 내용과 종류)

1. 제주도의 문화 및 동아시아 한국학과 관련된 주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원고의 종류에는 1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연구노트, 서평, 자료소개 등으로 한다.
3. 『탐라문화』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논문 투고)

1.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간기 별 원고마감은 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거친 후 게재한다.
2. 논문 게재를 원하는 자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논문심사교정)

1.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접수한 후,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

재 여부를 확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투고한 논문에 대해 심사를 의뢰한다. 단 우리 연구원의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논문과 특집 및 기획 논문에 대해서는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게재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3. 연구노트, 서평, 자료 소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의 개별 영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 주제의 독창성
 - ② 연구 주제의 명확성과 방법의 적정성
 - ③ 참고문헌 및 인용의 적절성
 - ④ 학술적 가치와 완성도
 - ⑤ 학술지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5.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을 결정한다.
6.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수정할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발행 예정 논문의 수에 비해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한다.
8. 1차 판정 결과 제7조의 ⑤-⑦에 해당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결정에 해당하는 논문은 각기 전항에 의거해,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다.

제6조(접수 및 심사결과 통보)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접수 및 논문게재의 가부를 통고한다.
2.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논문 게재 여부의 판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1차 판정	2차 판정	비고
①	계재	계재	계재	계재	-	-
②	계재	계재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계재	편집위원회 검토	수정사항 검토
③	계재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계재	편집위원회 검토	수정사항 검토
④	계재	계재	계재불가	수정 후 계재	편집위원회 검토	수정사항 검토
⑤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계재	편집위원회 심사 수정 후 재심은 수정사항 검토 후 결정.	수정 후 재심은 수정사항 검토 후 결정.
⑥	계재	수정 후 계재	계재불가	수정 후 재심 또는 계재불가 결정		
⑦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계재	계재불가	계재불가	-	-
⑧	계재	계재불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	-
⑨	수정 후 계재	계재불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	-
⑩	계재불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	-

2. 이 규정에서 제외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탐라문화』 투고 및 편집 규정

1. 투고자격과 방법

- 1) 투고를 희망하는 논문은 탐라문화연구원의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tamla.jams.or.kr>)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투고자는 우리 연구원 상임연구위원 및 특별연구위원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 3) 논문의 주제는 제주도 문화 및 동아시아 한국학과 관련된 주제를 원칙으로 한다.
- 4) 논문 투고 시에는 “원고 매수”를 명기하도록 한다. 본문의 원고량을 200자 원고지 매수로 환산한 후 본문 및 각주의 분량을 합산한다(본문의 경우 한글 - F10 - 문서 - 문서정보 - 문서분량 - 글자항목의 원고 매수 ; 각주의 경우 : 4줄당 200자 원고지 1매로 계산).
- 5)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article), 단보(proceeding & report), 서평(book review), 자료(research materials), 번역문(translation) 등으로 한다. 다른 서평의 경우에는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가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에 3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7) 논문심사를 원하는 연구자는 『耽羅文化』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아래아한글(이하 한글)로 작성된 논문을 탐라문화연구원의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tamla.jams.or.kr>)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 8) 논문의 투고는 該當刊記에 대하여 2개월 전까지 접수받고 발행 1개 월 전에 심사 완료한 것에 한해서 게재가 가능하다.
- 9) 투고자는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게재확정 시에

는 게재 논문에 따른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 연구논문의 게재료는 10만원, 전임 교원의 학술연구비 수령 논문은 30만원으로 한다.

- 10) 원고의 게재여부와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 11)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탐라문화연구원 전임교원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편집규정(원고 집필 요령)

제출된 모든 원고는 아래의 <원고 작성 요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원고 작성 요령>

- 1) 제출된 원고는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150매 이내로 제한한다.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경비(초과 게재료-조판면 기준 30면 이상 1면 초과당 1만원 부과)를 투고자 본인이 부담한다. 투고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200매를 넘어설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꼭 필요한 경우 영어를 괄호 안에 적는다. 고유 명사의 경우 해당 언어 발음을 한글로 적되, 일상화된 고유 명사는 예외로 한다. 한자문화권의 경우 고유명사는 한자 표기를 할 수도 있다.
- 4) 『耽羅文化』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영문 초록과 주제어(key word)를 첨부해야 한다. 영문 초록에는 제목, 이름, 소속을 영문으로 표기한다. 초록의 분량은 관사를 포함하여 250~300단어로 제한한다. 주제어는 5단어 이내로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작성한다. 논문 말미에는 필자의 e-mail주소를 기록한다.
- 5) 그림 및 사진은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게재 결정 후에 원본 파일을 별도로 첨부한다.

- 6) 본문의 내용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본문의 장과 절, 항 번호는 I·I-1-1-①의 순으로 한다. 투고 논문의 목차는 머리말(혹은 서론, 서언 등)과 맷음말(혹은 결론)을 포함하여 로마자(I·II·III·IV·V...)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7) 본문에서는 논저 인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각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 쪽수를 기재하도록 하며, 인용 또는 언급된 논저는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본문의 경우}

- 예) … 지붕을 덮어 하루에 집의 외곽을 완성시켜 준다(현용준, 1986: 62-63쪽). (×)
- … 이러한 시점에서 박재윤 외(2009 ; 2010)의 연구에서는… (×)
- … 표선의 당캐할망당에서 신으로 모셔지는데, 바닷가에 나무를 깔고 모래를 덮어 해변을 만든 공을 인정해서 마을 사람들의 숭배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³³⁾ (○)

33) 임석재 편, 『한국구전설화－전라남도편, 제주도편』, 203-204쪽. 표선리 당캐할망당 당신화에서는 ‘세명주’라 하기도 하고 ‘설맹디’라 하기도 하는데, “표선리 한모살도 설맹디할망이 날라다 쌓은” 것이라 했다(표선리원로회, 『표선리향토지』, 1996, 154-155쪽). 이 당의 본풀이는 “한라산의 거녀신 ‘설문대할망’ 신화와 유사하다. 다만 여신의 이름 ‘설문대’가 ‘세명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신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했다(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325쪽). 2009년 제주신당조사에서는 이 당을 ‘표선리 당캐 세명주할망당’이라 했다(제주전통문화연구소편,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도서출판 각, 2009, 188쪽).

- 8) 본문 중에서 강조할 부분에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하며, 다른 저서나 논문의 일부를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 9) 참고문헌의 순서는 ①한국 ②중국·일본 ③서양의 순서로 하고, 저서와 논문의 구별 없이 한국의 것은 가나다 순, 중국·일본은 한자음의 가나다 순, 서양은 알파벳 순서로 한다. 같은 저자의 경우 연도 순서로 한다.
- 10) 한국·중국·일본의 참고문헌은 논문은 「 」, 저서나 학술지는 『 』, 서양의 것은 논문은 “ ”, 저서나 학술지는 이탤릭체로 한다. 참고문헌에서는 쪽수를 기재하지 않는다.

예) 논문

홍이섭, 「한국사에 있어 이십세기 전반기의 규정문제」, 『동방학지』 12, 1971.

윤용택, 「21세기에 다시 보는 제주도 뜯통시 문화」, 『탐라문화』 2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Pizam, A, "Tourism impact: the social costs to the destination commun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16(4), 1978.

예) 저서

한우근,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 사회배경과 삼정의 문란을 중심으로』, 일조각, 1994.

Capra, J, *The Hidden Connections*, Doubleday, 1978.

예) 번역서

프리초프 카프라,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 김재희 옮김, 범양사, 1997.

Freire, P, *Pedagogy of hope: Reliving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Inc. 1996, 교육문화연구회(옮김), 『희망의 교육학』, 아침이슬, 2002.

3.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탐라문화』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편집위원회의 구성) 우리 연구원은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명의 편집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조(편집위원의 선정 기준과 절차) 편집위원은 다년 간 연구해 온 중진학자 혹은 최근 3년간 전국 규모 학술지에 2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중, 편집위원 2인 이상의 추천 후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운영과 활동)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주제의 적합성에 관련된 심사를 수행하고, 주제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견서}와 논문의 각 분야(문학, 역사, 철학, 사회, 언어, 교육 등), 지면사정을 고려하여 심사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발표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기반으로 ‘특집논문’, ‘기획 논문’ 등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술지의 학술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편집 규정의 심의 및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告示

이번 탐라문화 제57호에 투고된 논문은 13편이고, 편집위원회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3편의 논문이 ‘계재불가’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모두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총장	허향진
원장	전영준
운영위원	김동윤, 김치완, 박성진, 배영환, 이동철, 이창익, 장창은, 조성식, 최현
부원장	김은희
편집위원장	서영표
편집위원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사회학), 류찬열(중앙대학교 교양학부), 민영현(부산대학교 철학과), 박준호(전북대학교 철학과), 배영미(일본 오사카대학교 언어문화연구과), 안종철(독일 튜빙겐대학교 한국학과), 장희홍(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진영종(성공회대학교 영어학), 최낙진(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최정기(전남대학교 사회학과), 허대식(제주대학교 음악학과) 홍종옥(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교수)
조교	이영준
편집조교	강현정

耽羅文化 제57호

초판인쇄 2018년 2월 25일
초판발행 2018년 2월 28일
발행인 허향진
편집인 전영준
발행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⑨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 : 064) 754-2310
홈페이지 : <http://tamla.jejunu.ac.kr>
E-mail : tamla@jejunu.ac.kr
제작·공급 景仁文化社
(⑩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45-1)
전화 : 031) 955-9301 FAX 031) 955-9310